城南의 地名과 人物

張三鉉 著

도서출판 해양문화사



韓春燮（藏書）



百濟始祖 溫祚王

등 2002. 3. 12
035847



文貞公 李嵒 先生



遁村 李集先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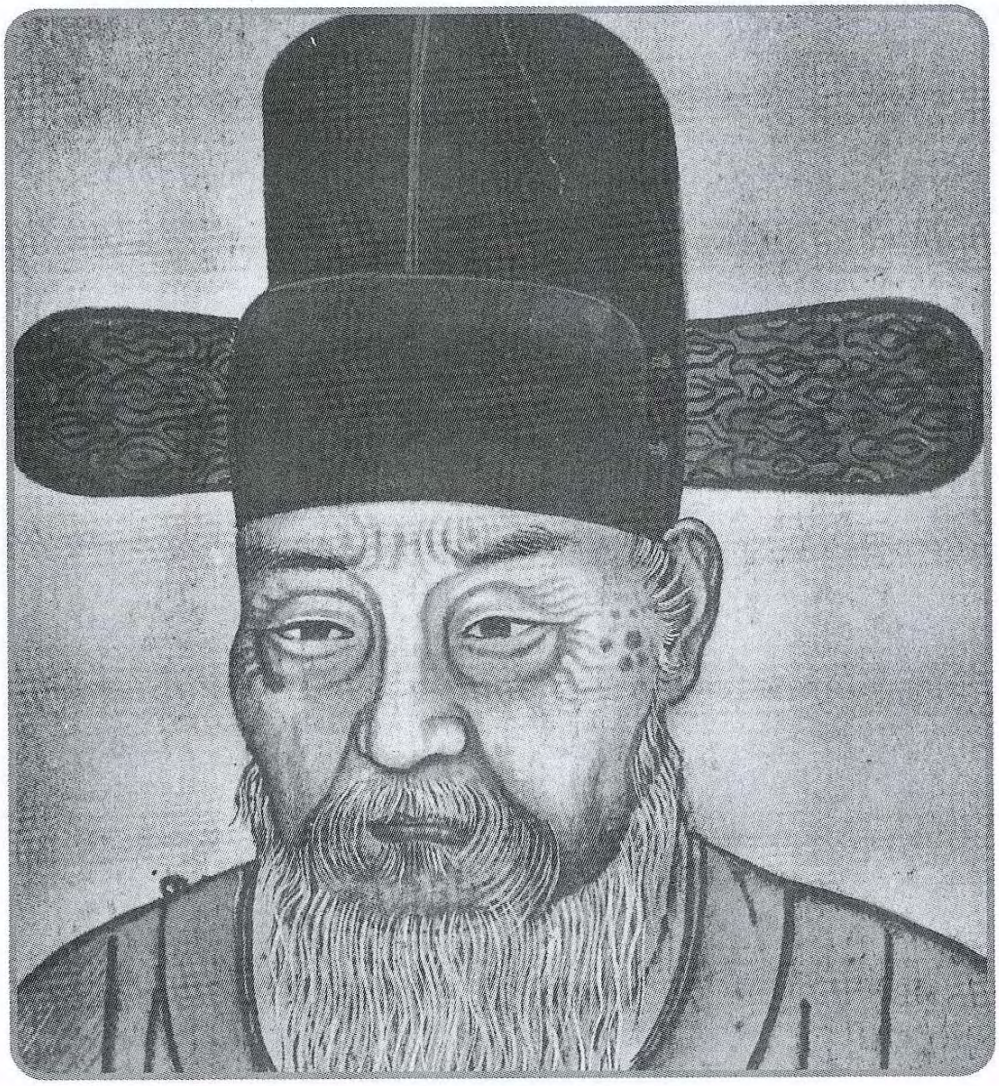
文康公 李之函先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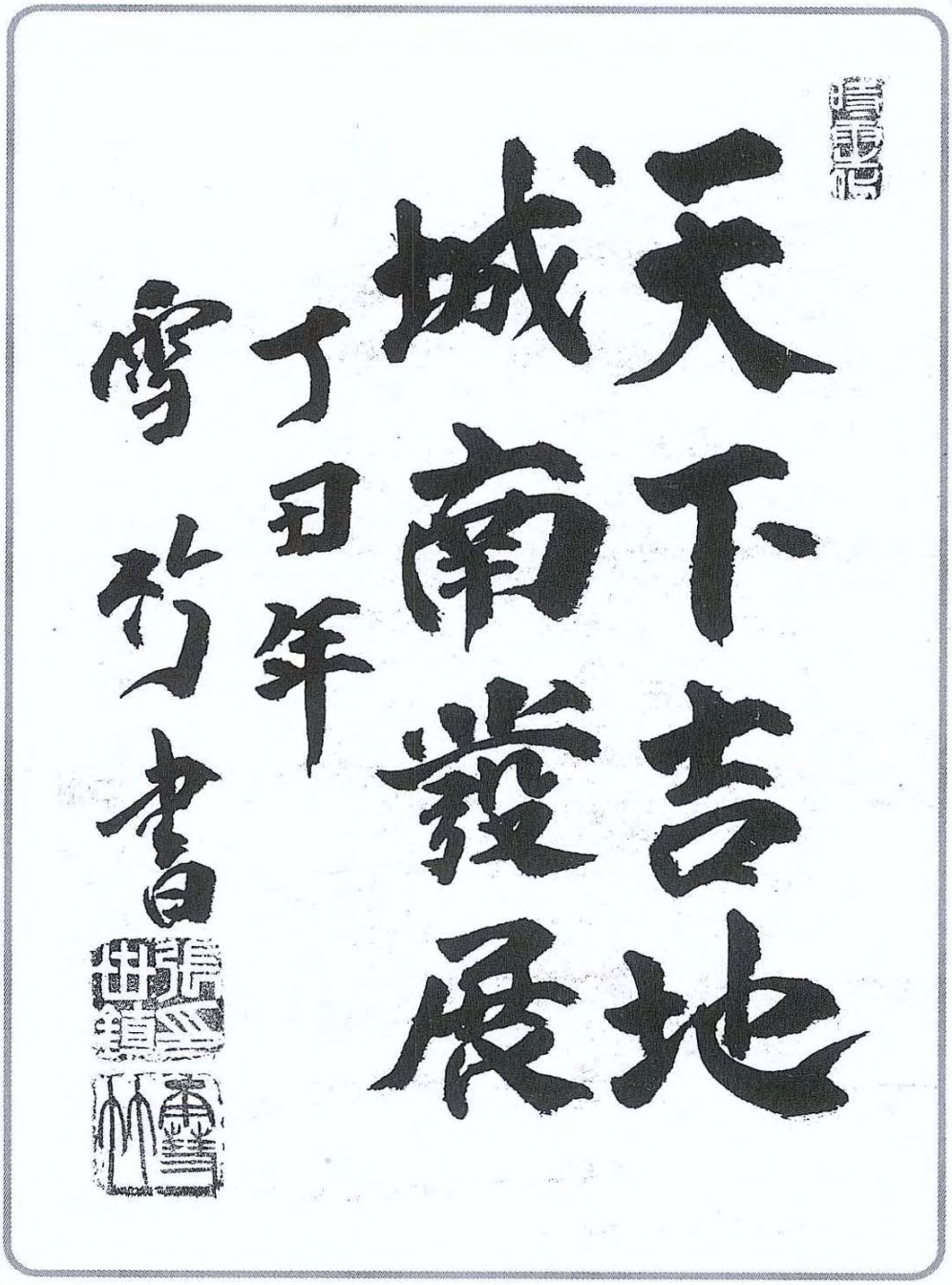
惠定公 李濡先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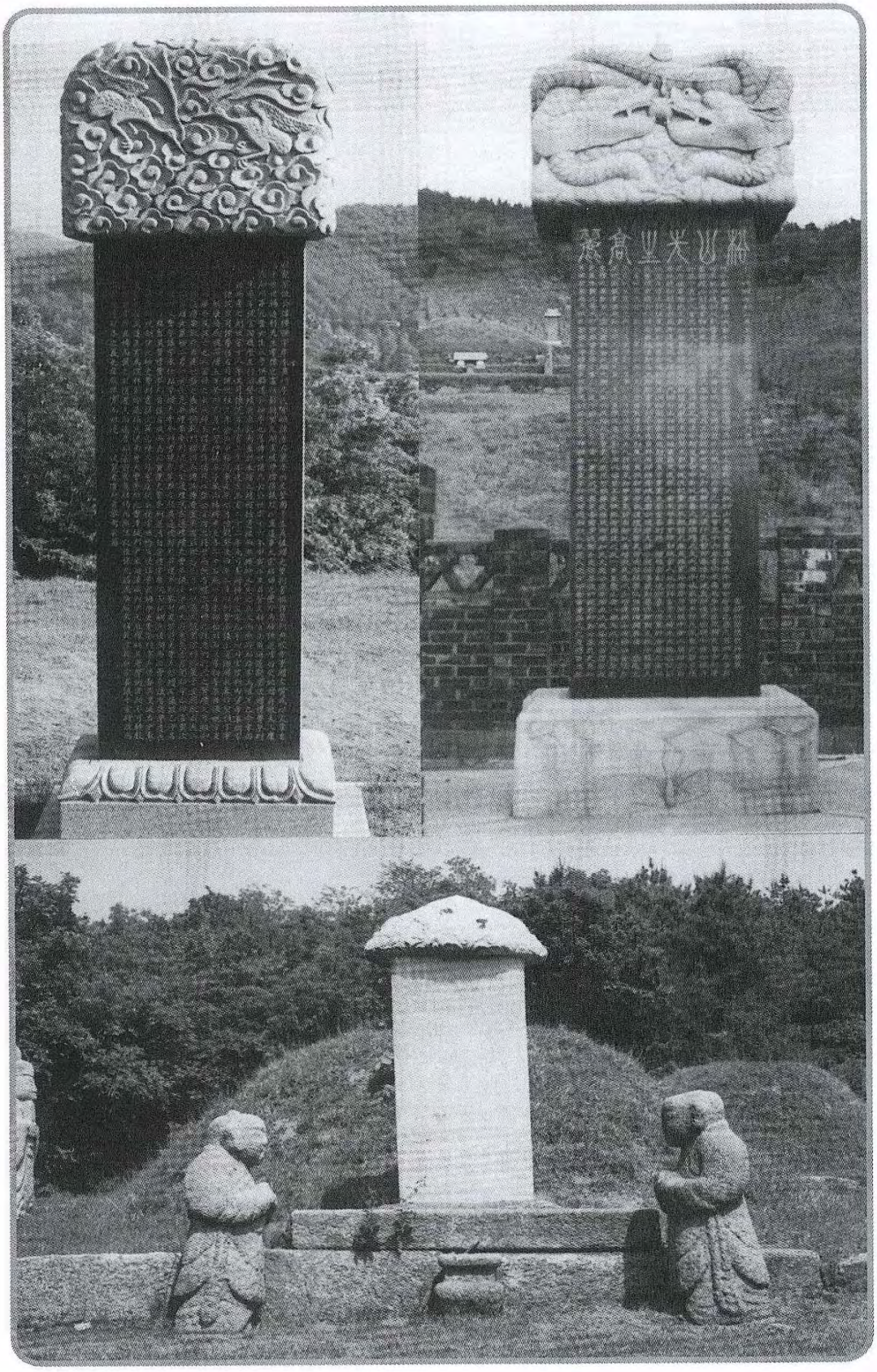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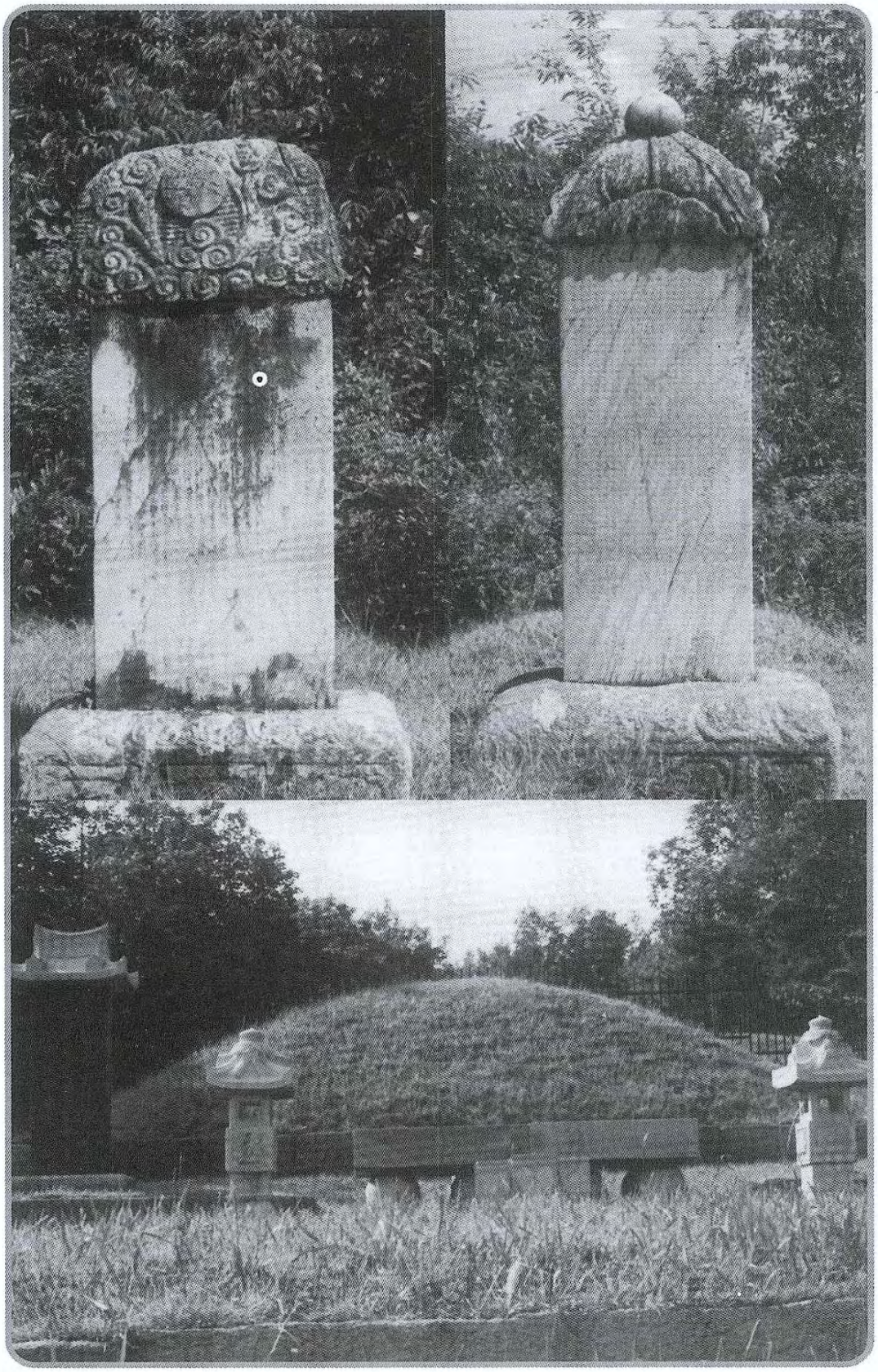
憲敏公 尹卓然先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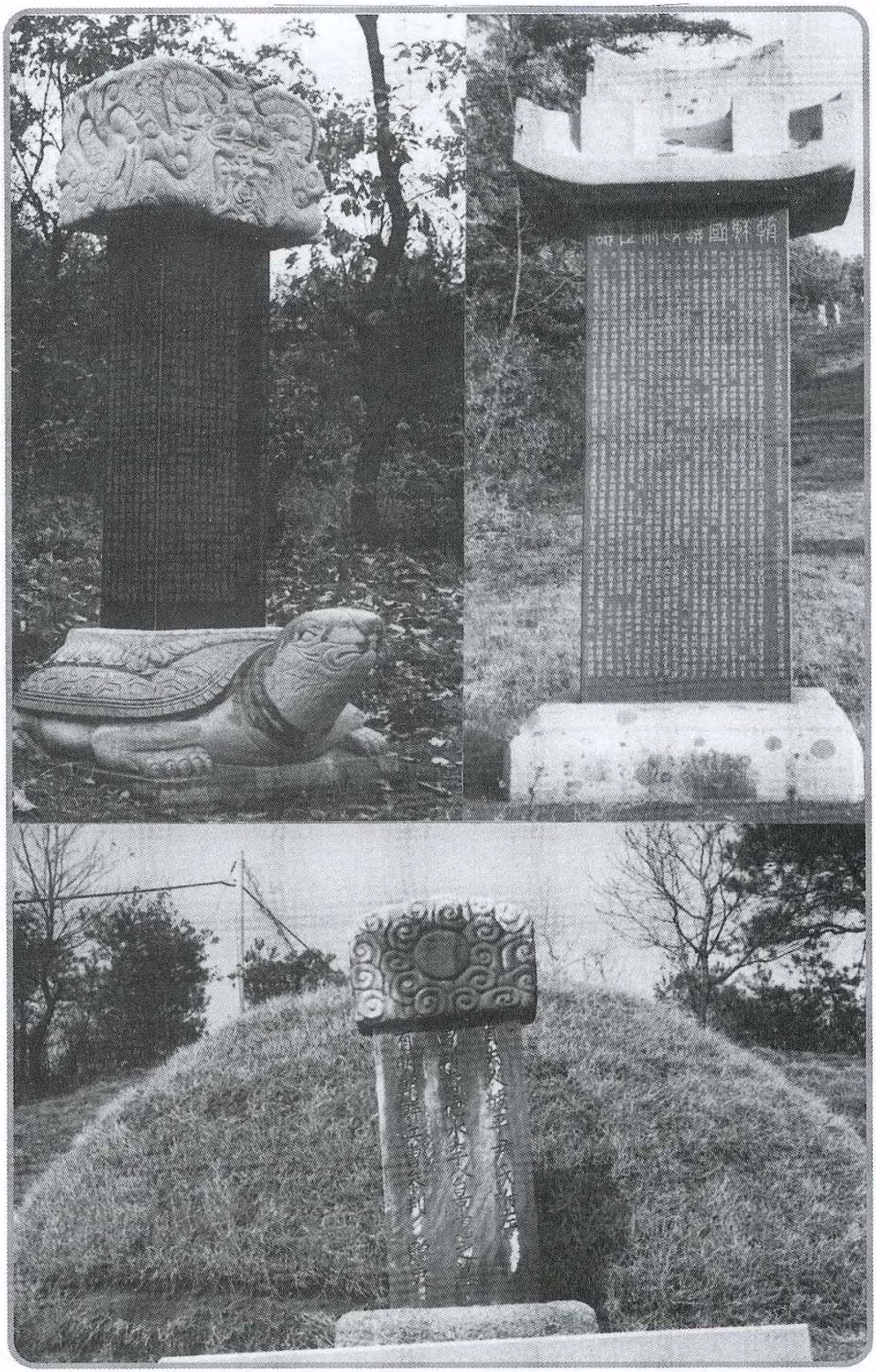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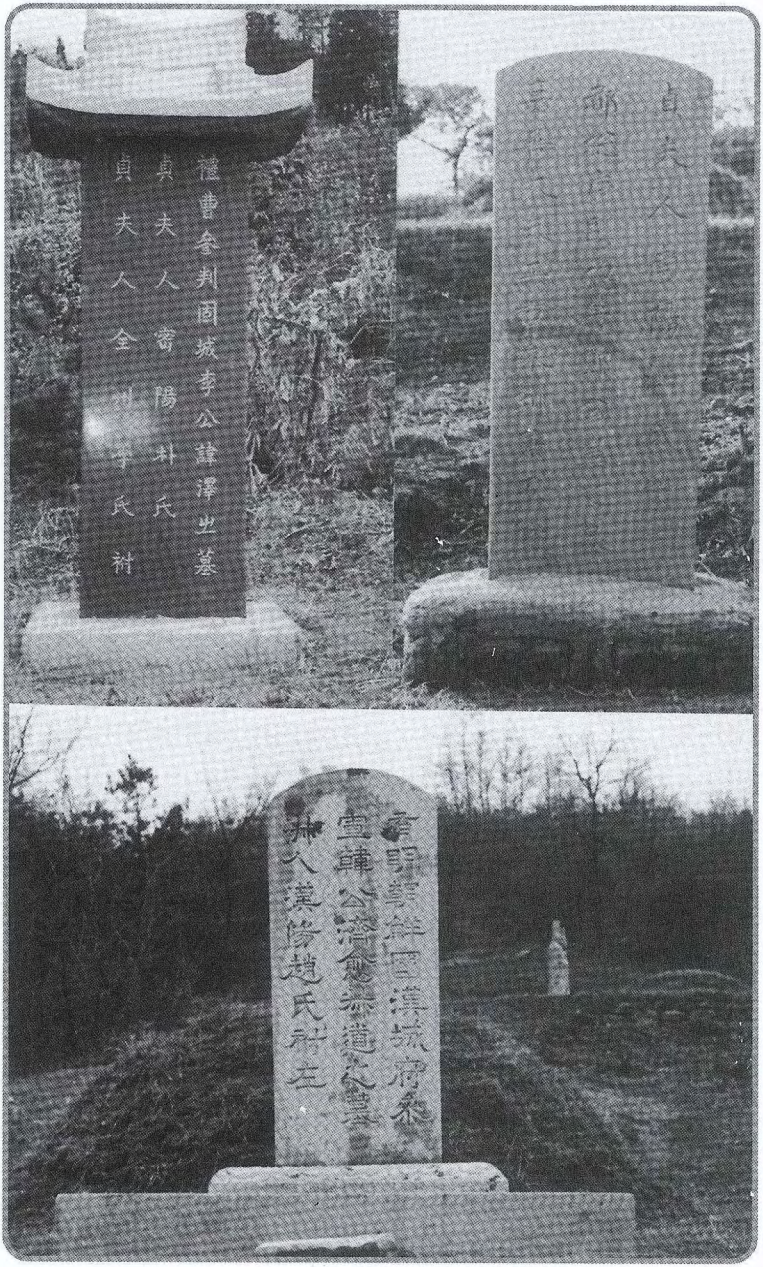
文清公 南有容先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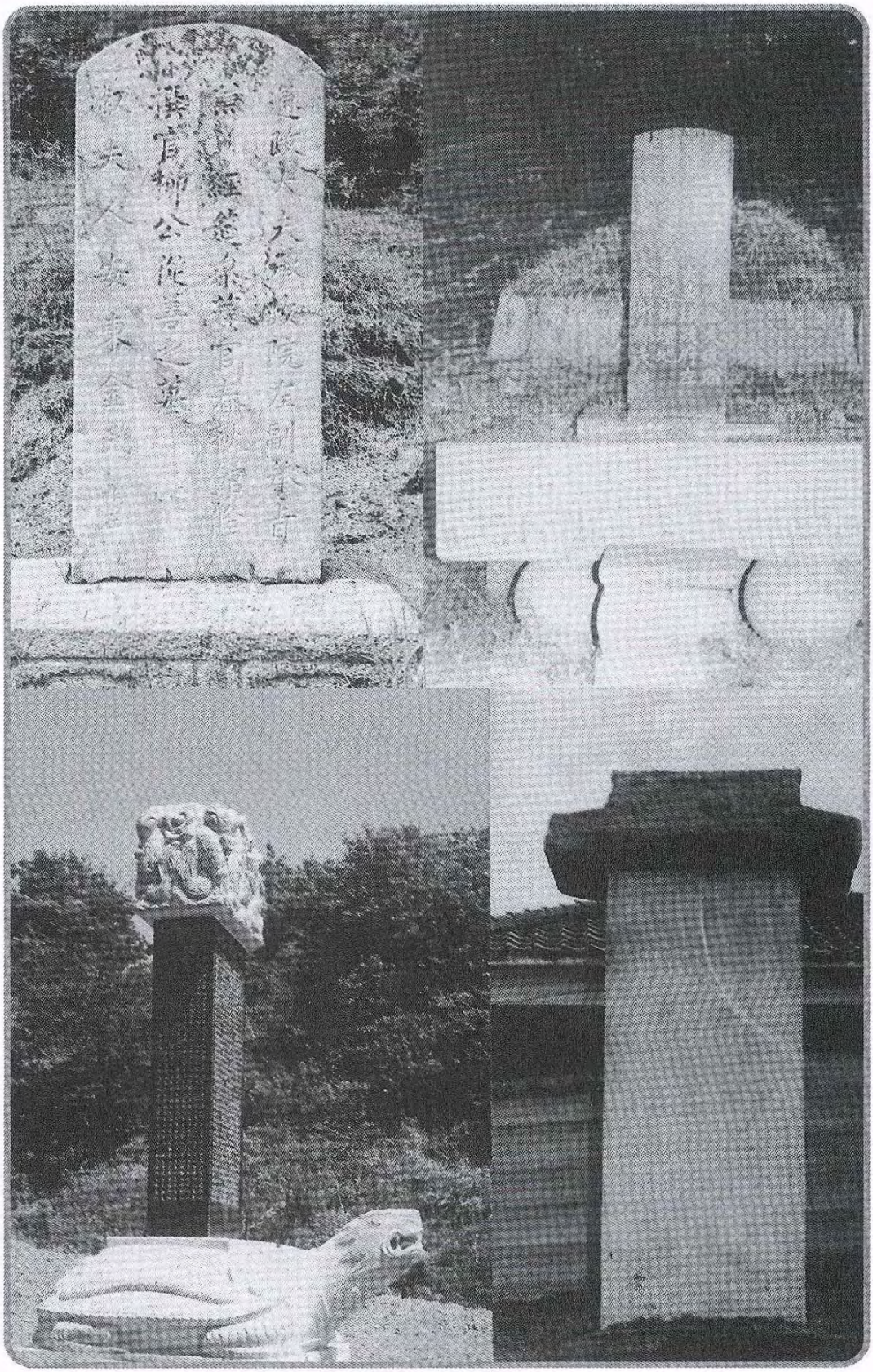

天下吉地
城南穀屋
丁丑年
雪竹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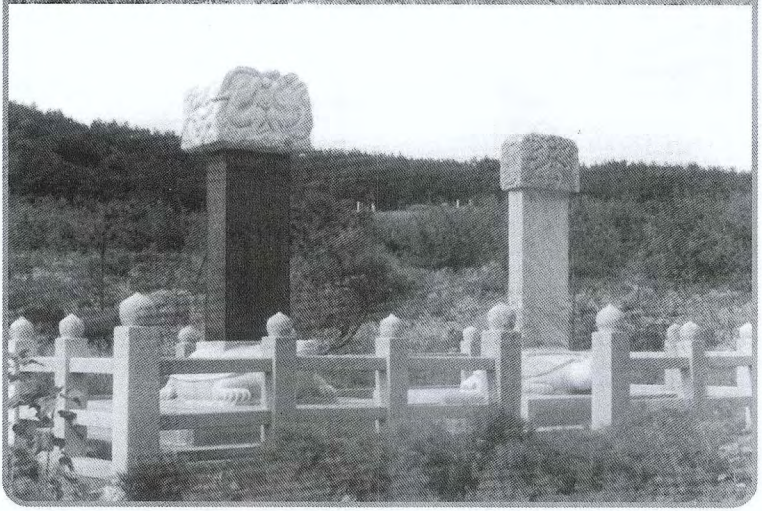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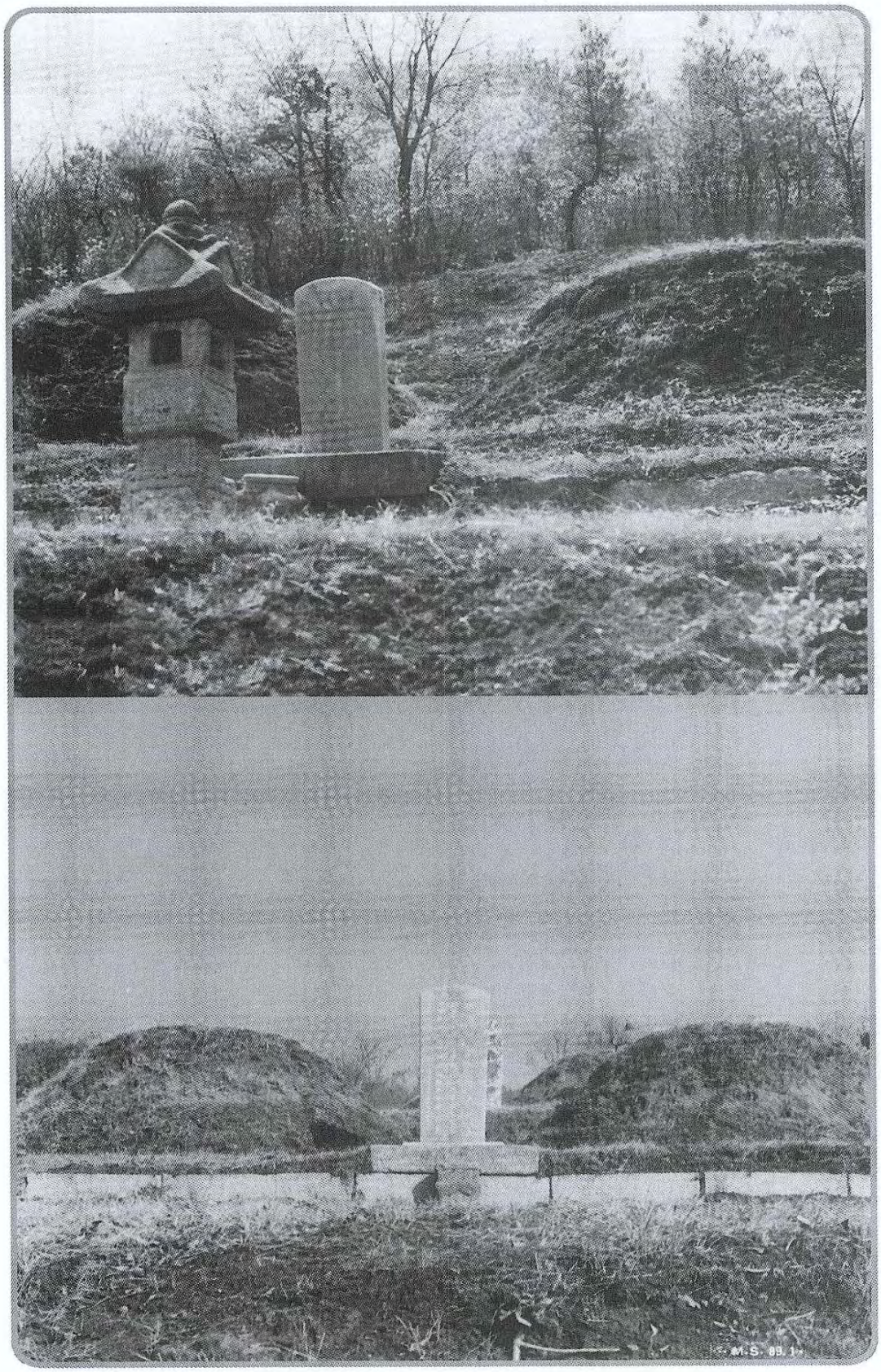

禮曹參判固城李公諱澤之墓
貞夫人密陽朴氏
貞夫人全州李氏祔
有明朝鮮國漢城府參
靈韓公濟愈恭道人墓
祔入漢陽趙氏祔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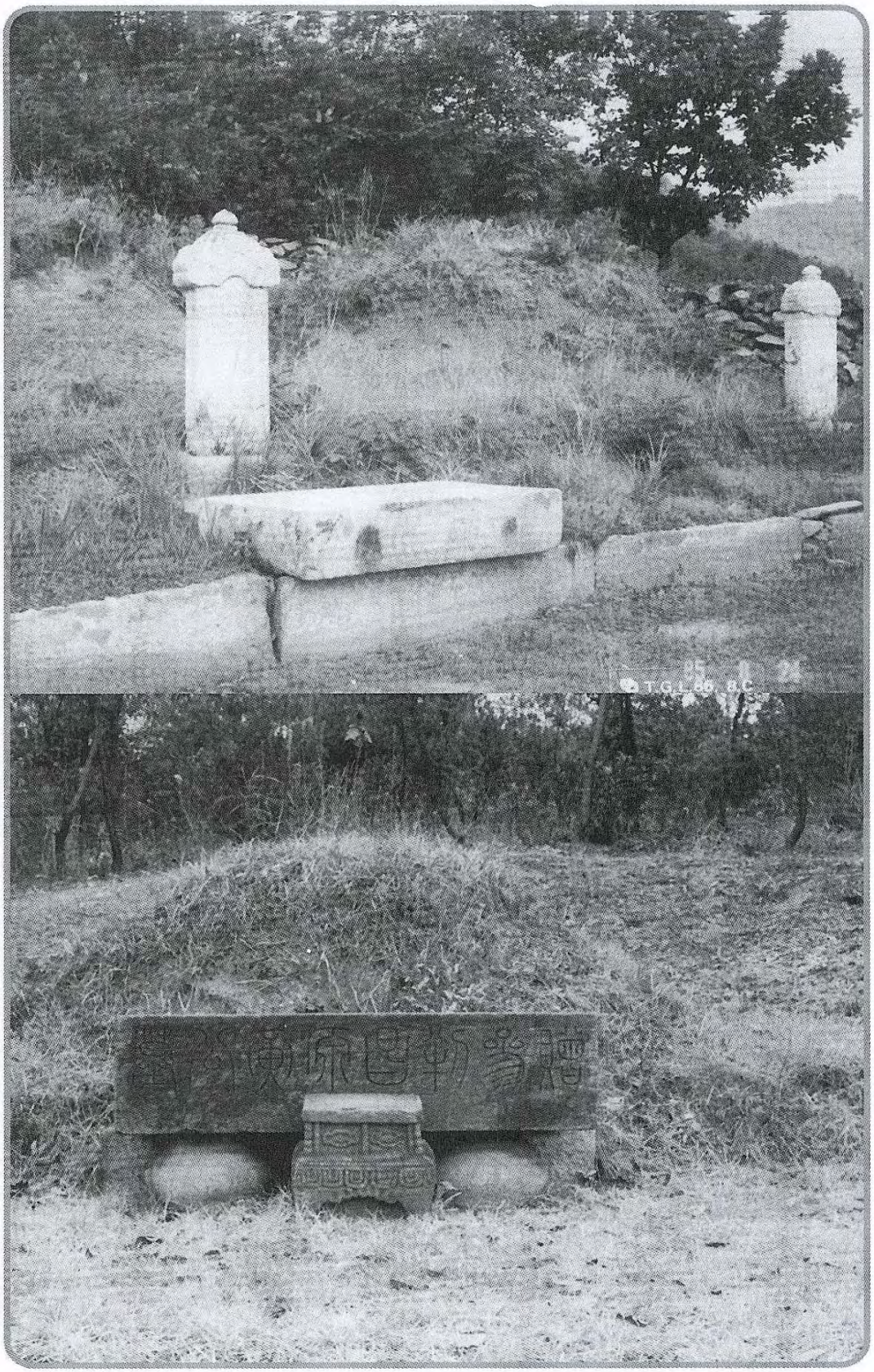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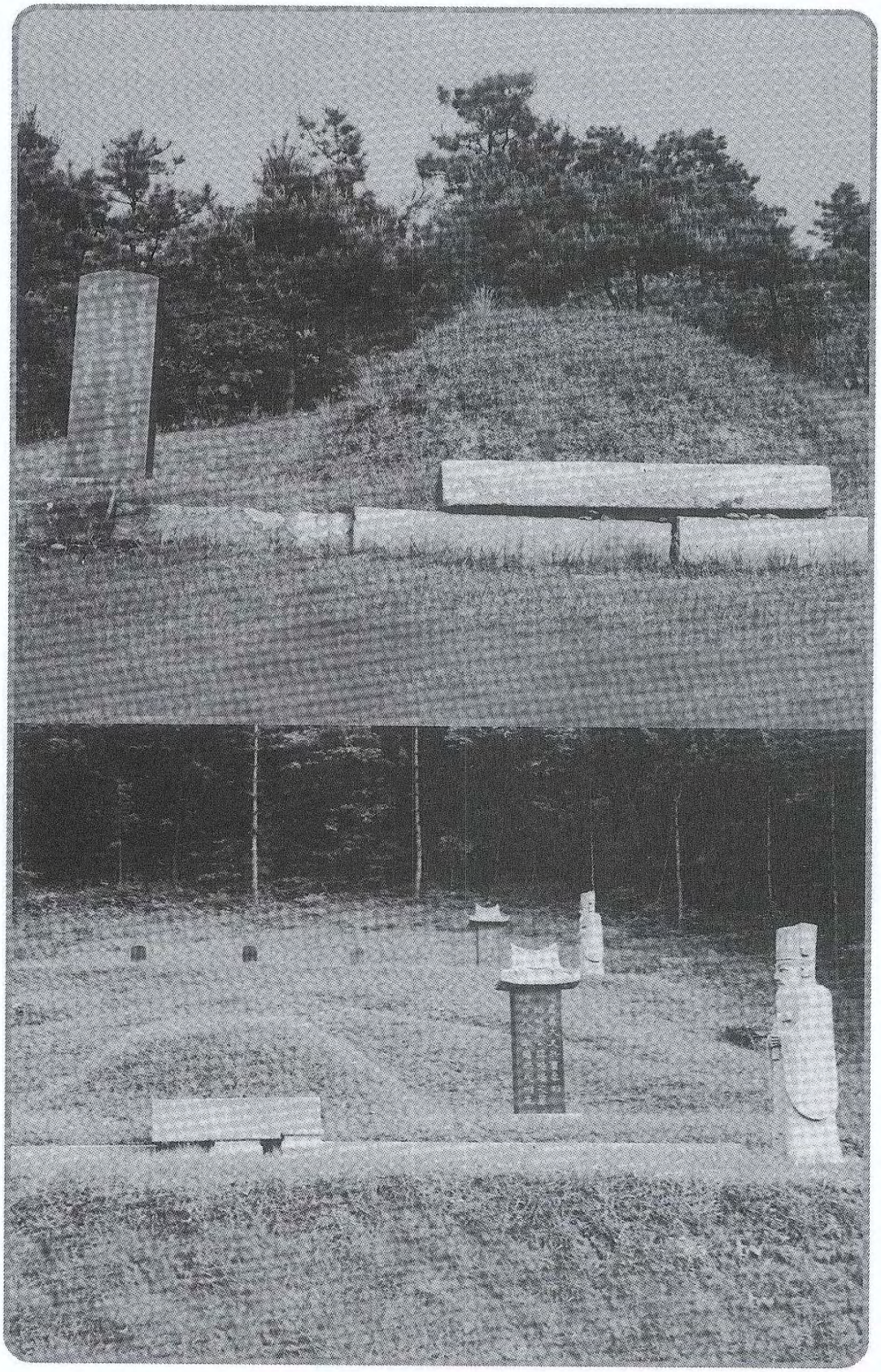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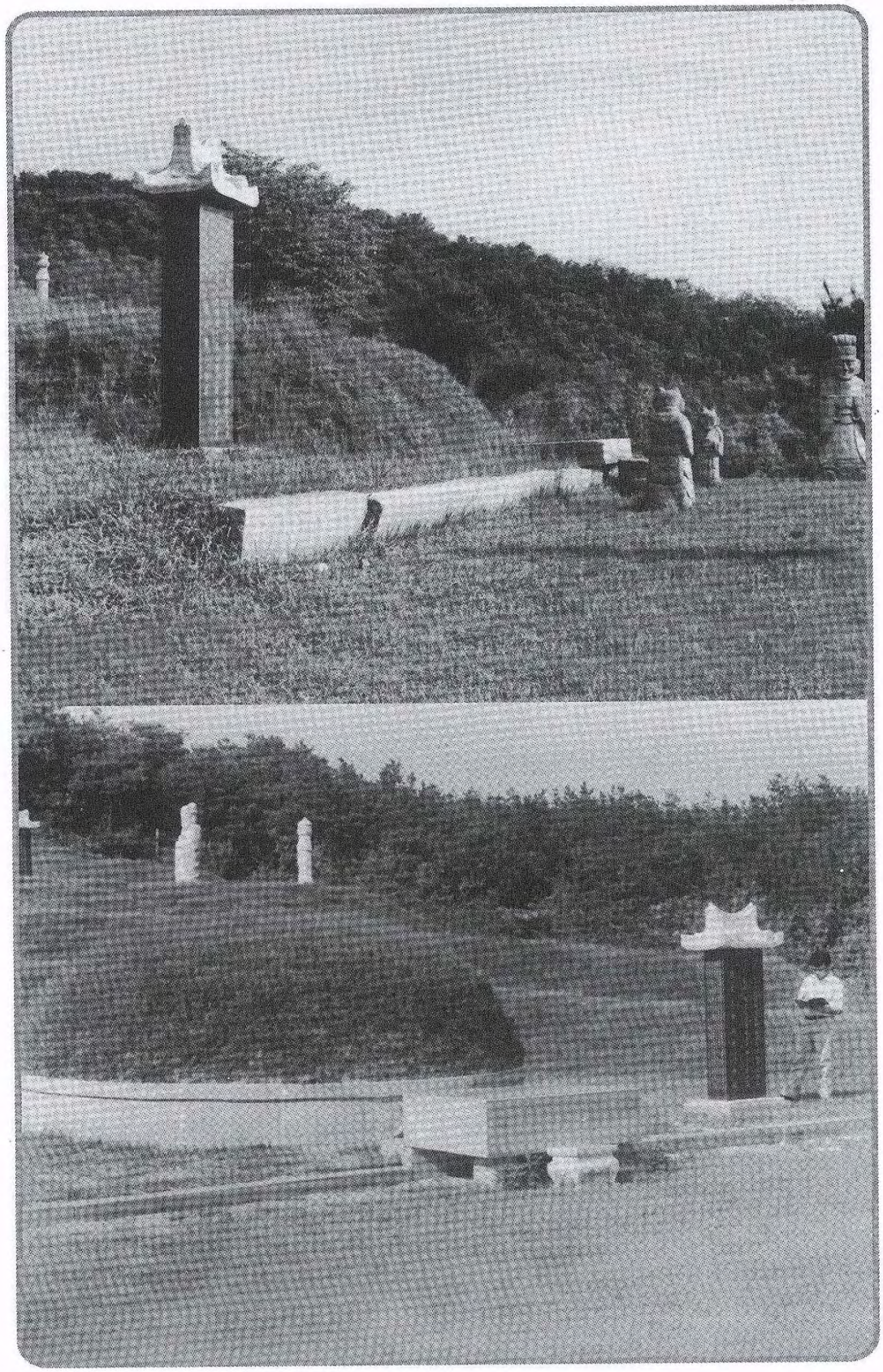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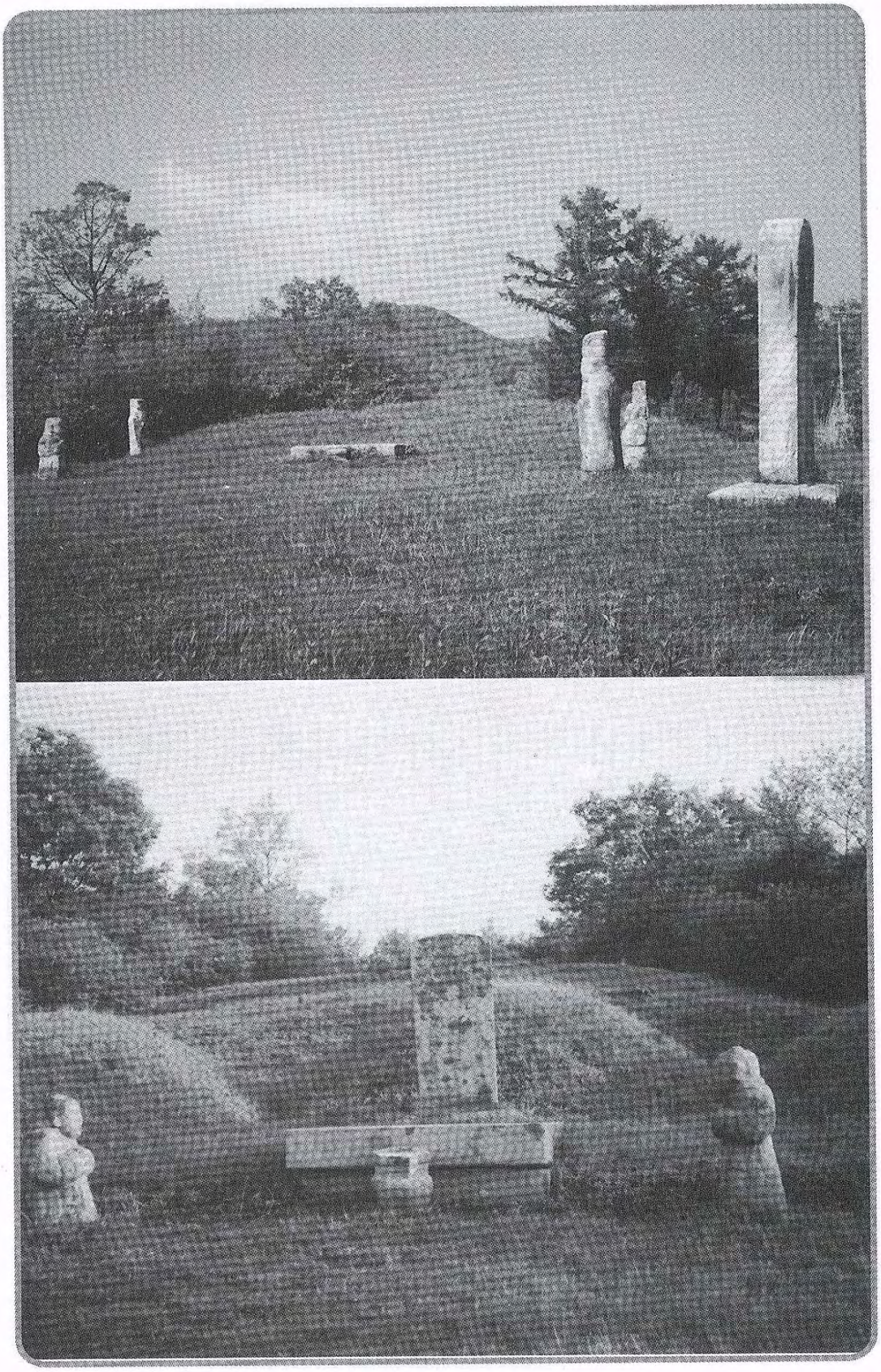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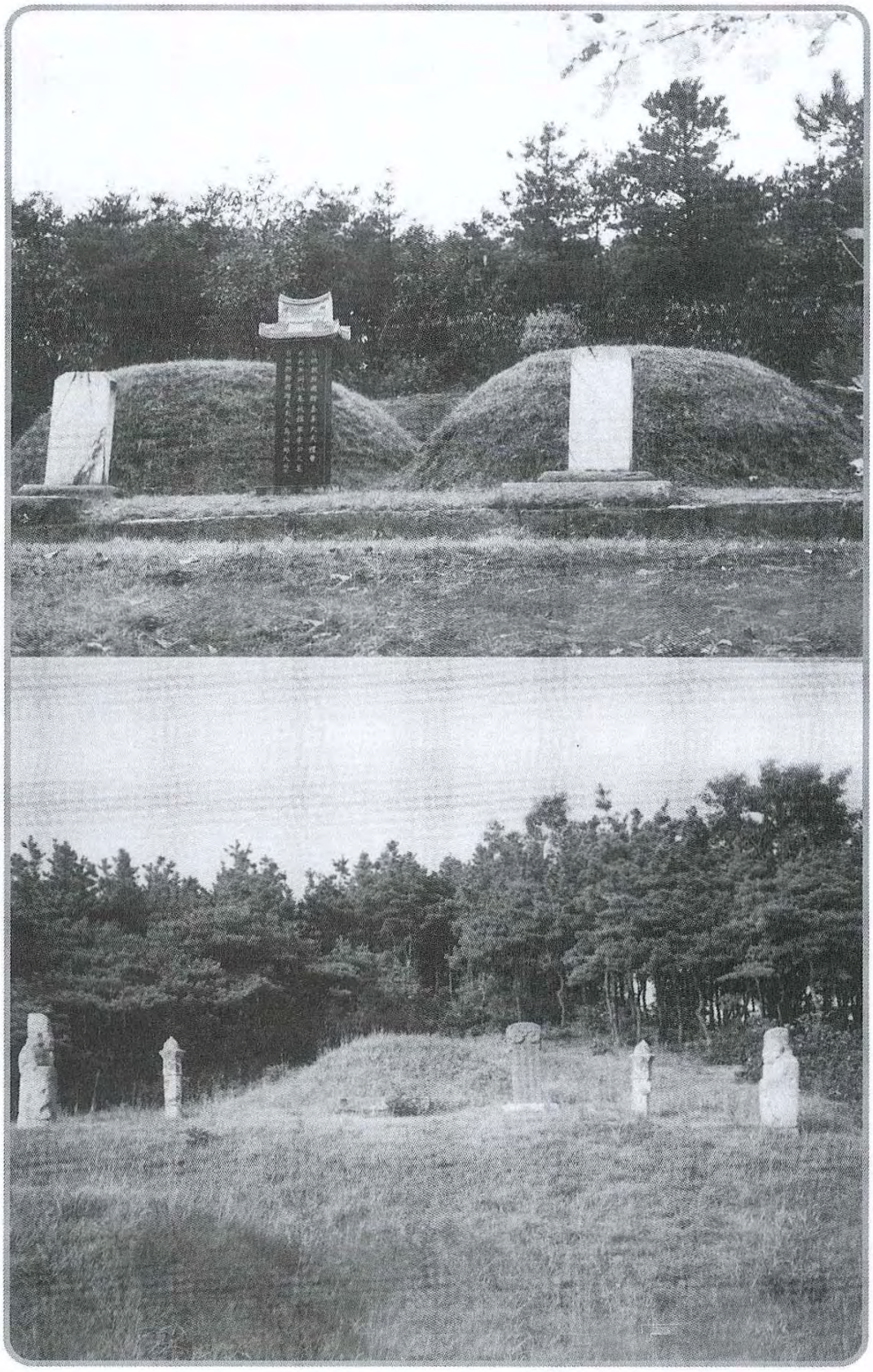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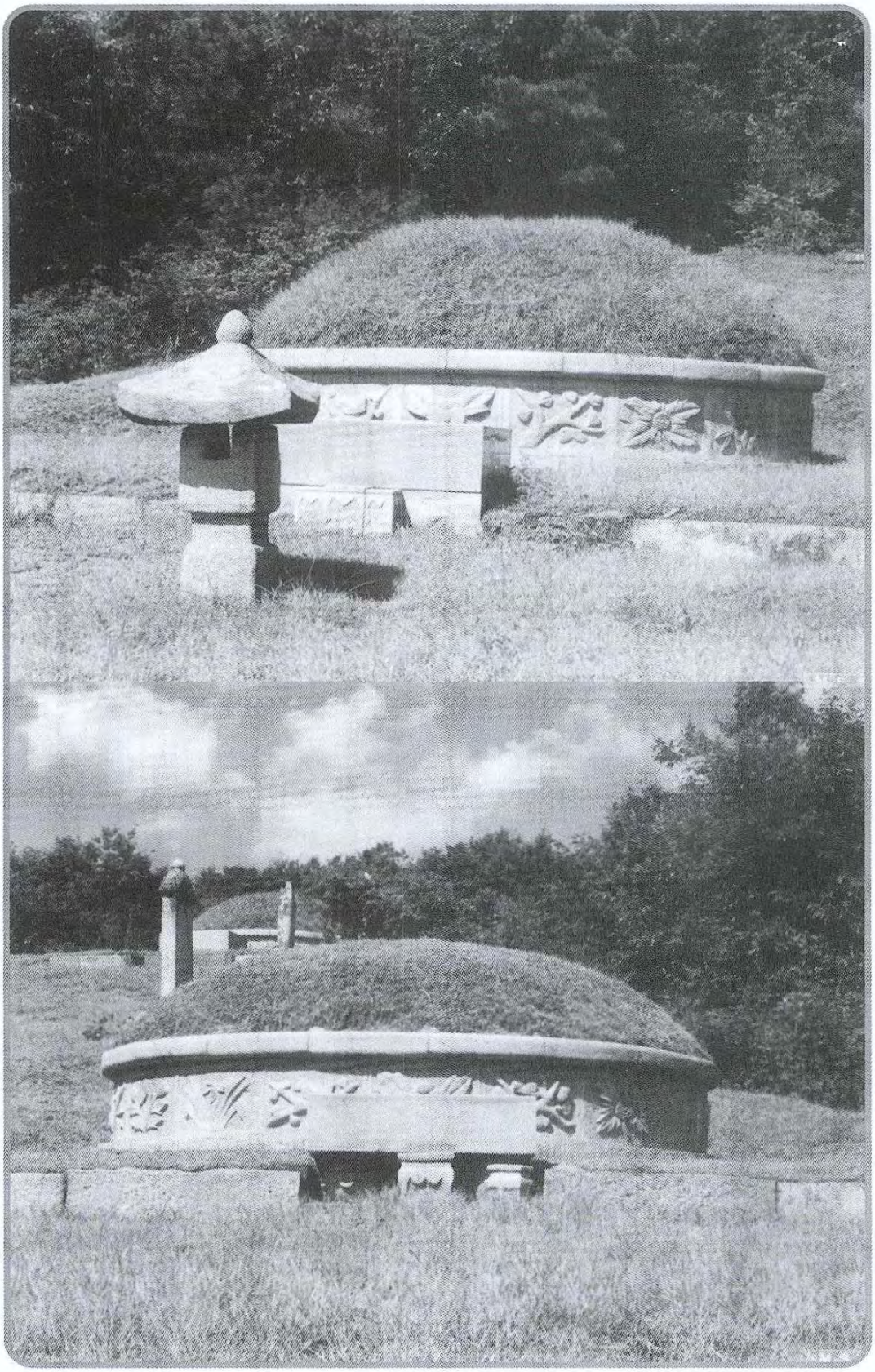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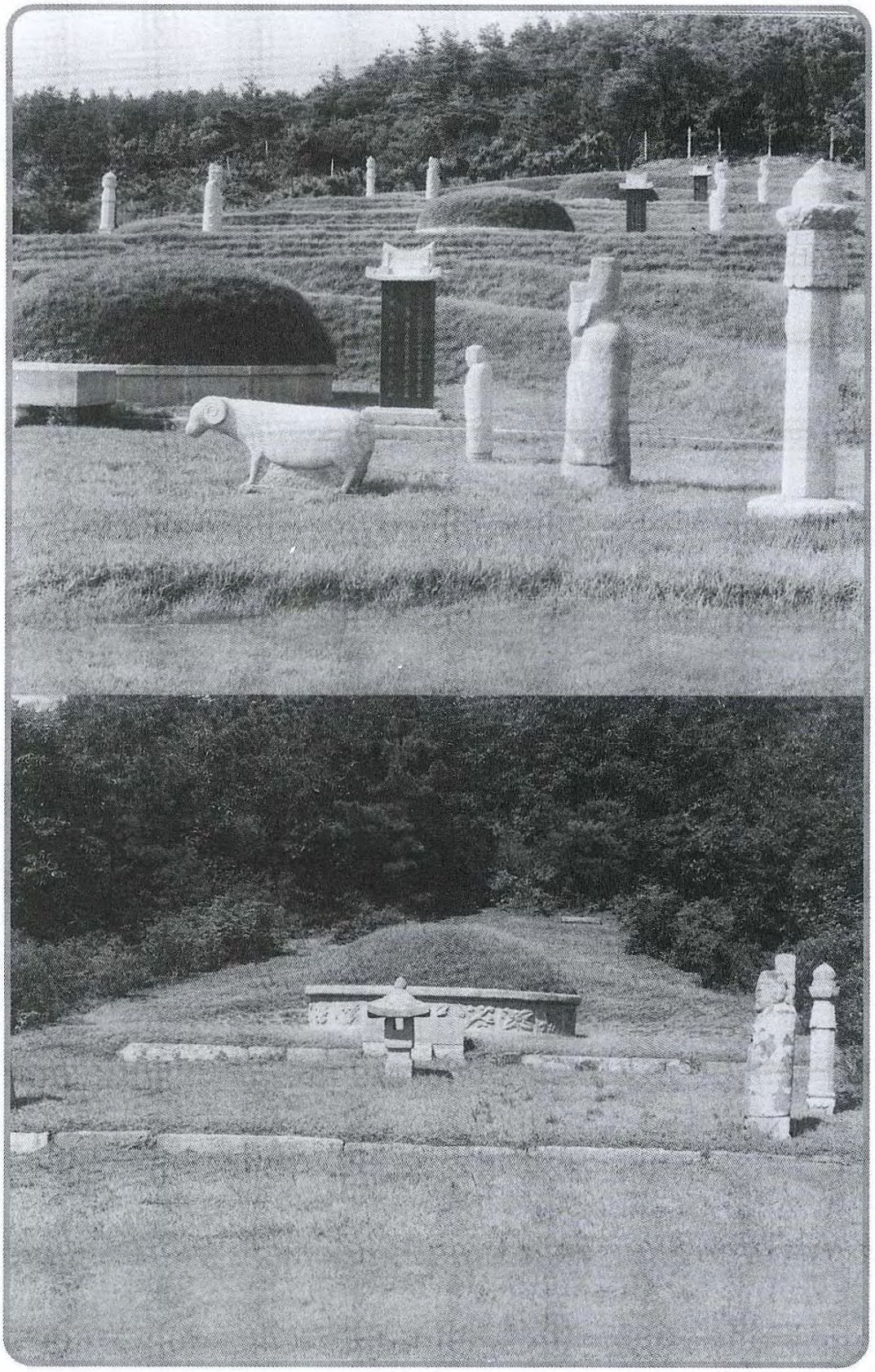












머 리 말

성남시는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급격한 발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시화 현상에 따라 조상들의 발자취와 문화유적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새로운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목전의 현실적인 문제에만 집착하다 보면 지나간 전통적인 근본문제는 소홀히 하기 쉬운 것이다. 전통문화는 보존되고 후손에 계승되어야만 민족과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문화의 발달과 민족의 번영을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개발에 앞서서 문화유적의 조사와 발굴과 보존책이 강구되지 않으면 않된다. 지금이라도 성남시내에 남은 문화유산을 조사 발굴하여 정리하고 전승(傳承)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1980년 〔성남의 뿌리〕를 집필하여 최초로 성남향토사 연구에 관심을 불러일으키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이를 토대로 보다더 깊이 있는 조사를 하여 〔城南市史〕 편찬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 성남시사 편찬에 참여를 계기로 성남시내 산천과 마을을 두번째로 답사하면서 각성씨의 족보를 복사 수집하여 성씨와 그 인물을 정리하였다.

본서의 제 1편 〔城南의 地名과 世居姓氏〕에서는 동명의 유래와 지역에서 호칭되는 지명과 그 지역에 세거하여 온 성씨와 그 연유를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제 2편 〔城南의 人物〕에서는 성남에 세거하여 온 각 성씨의 족보를 중심으로 관직경력이 있는 인물을 조사하여 수록하고, 책 이름을 〔城南의 地名과 人物〕이라 하였다.

그러나 본서의 기록은 모두 답사하거나 방문에 의해서 조사한 것이므로 조사에 응한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지명과 내용이 정확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는 것이다. 또한 근거문헌이나 족보의 기록이 정확하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 인물에 대한 기록도 잘못이 있을 수 있다. 족

보상의 오자는 정정이 불가능하고 대담자의 말이 틀릴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지역의 특성은 자연적으로 아름다움이나 특이한 점이 기록되고 성씨와 인물에 대하여도 명인이 되었을 때에 지역의 특이한 사항으로 기록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범한 집안은 누가 최초의 정착자인가에 대하여만 기록되고, 명문세족의 경우는 그 특이한 점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다. 혹자는 "무엇하러 어느 성씨가 세거하였다는 것만 기록할 것이지, 어느 성씨에 대하여는 특출한 인물까지 기록하는가"하며 의심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는 이점을 널리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양평(楊平)은 조상의 유택이 있고 내가 태어나고 성장한 제1의 고향이고, 서울은 안식처가 있고 사랑하는 가족과 머무르고 있는 제2의 고향이며, 성남은 필자의 직장이 있어 근 20년간 몸담고 각 고을과 산천을 찾지 않은 곳이 없는 제3의 고향이라 하겠다. 그래서 필자는 그동안 성남에 깊은 정이 들었고, 그러므로 성남에 아름다운 추억을 심어 놓았고, 성남을 진실로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남의 지명유래와 세거성씨와 인물들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는 한편 개발에 따른 부정적 효과를 안타깝게 여기고 있다. 이것이 본서를 출간하게된 연유일 것이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 말이 있다. 하루가 다르게 빌딩숲으로 변하면서 삼림속에 묻혀 있던 성남의 선사시대의 유물유적은 물론 조선말기까지의 조상들의 문화유산이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그러나 문화유적이 사라졌건 현존하건 여기에 수록된 내용을 통해서 성남시민들이 고장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향토에 대한 자부심과 정신적 위안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필자는 향토사학자도 아니고 역사학자나 고고학자 등 전문가도 아니다. 또한 거금의 연구비를 받아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역사적 사실의 착오와 누락, 지명의 누락과 오기, 성씨의 누락, 명인의 누락 등으로 성남 토착인의 마음에 흡족하지 못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언젠가 어느 향토학자에 의하여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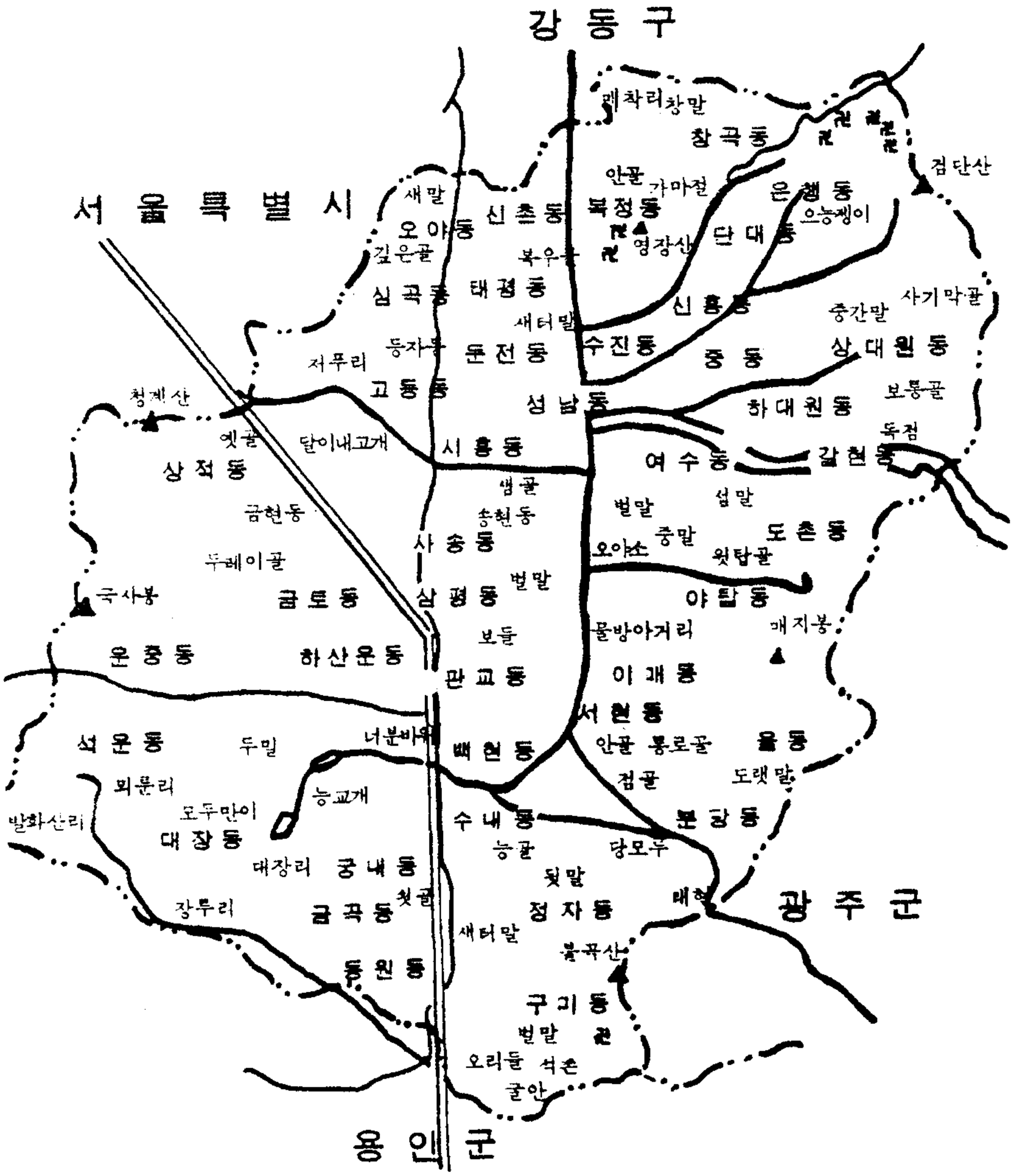
완될 것으로 믿는다. 아울러 밝혀 둘 것은, 남한산성에 관하여는 사실상 광주군에 속한 일이지 성남시에 포함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그러므로 필자는 〔성남의 뿌리〕에서도 그러했지만 여기서도 남한산성을 다루지 않았음을 밝혀둔다.

끝으로 이 책을 집필하는데 있어서 자료수집과 대담에 협조하여 주신 성남시민 여러분과 문중대표께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별히 원고 교정에 협조하여 주신 여성교양과 金晶信 교수님께 감사하고, 컴퓨터 정리에 수고를 아끼지 않은 경원대학교 식품생물공학과 崔俊英君에게 고마움을 표한다.

단기4330년(1997) 8월 1일

著 者 謹 識

성남시 관내도


강동구
서울특별시
광주군
용인군
매착리
창말
창곡동
검단산
안골
가마절
은행동
오능쟁이
새말
신촌동
복정동
오야동
영장산
단대동
깊은골
복우동
심곡동
태평동
신흥동
사기막골
중간말
새터말
수진동
등자동
둔전동
중동
상대원동
저푸리
고등동
성남동
하대원동
보통골
청계산
옛골
달이내고개
시흥동
여수동
갈현동
독점
상적동
샘골
섬말
금현동
송현동
벌말
중말
도촌동
사송동
오야소
윗탑골
두레이골
벌말
국사봉
금토동
삼평동
야탑동
매지봉
물방아거리
보들
운중동
하산운동
판교동
이개동
서현동
석운동
두밀
너분바위
백현동
안골
통로골
율동
뫼룬리
점골
도랫말
능교개
모두만이
발화산리
수내동
분당동
대장동
능골
당모두
대장리
궁내동
뒷말
쳇골
태혁
장루리
금곡동
정자동
새터말
불곡산
동원동
구기동
벌말
오리들
석촌
굴안

목 차

화 보
머 리 말
성남시 관내도

第 1 編 城南의 地名과 世居姓氏

第 1 章 서설(緖說) …… 3

第 2 章 수정구
1. 고등동 …… 8
2. 금토동 ……11
3. 단대동 ……14
4. 둔전동 ……15
5. 복정동 ……15
6. 사송동 ……20
7. 산성동 ……25
8. 상적동 ……26
9. 수진동 ……28
10. 시흥동 ……30
11. 신촌동 ……31
12. 신흥동 ……32
13. 심곡동 ……33
14. 양지동 ……36
15. 오야동 ……37
16. 창곡동 ……39
17. 태평동 ……42

第 3 章 중원구
1. 갈현동 ……45
2. 금광동 ……46
3. 도촌동 ……48
4. 상대원동 ……53
5. 성남동 ……56
6. 여수동 ……57
7. 은행동 ……62
8. 중동 ……62
9. 하대원동 ……63

第 4 章 분당구
1. 구미동 ……66
2. 궁내동 ……71
3. 금곡동 ……74
4. 대장동 ……78
5. 동원동 ……80
6. 백현동 ……84
7. 분당동 ……86
8. 삼평동 ……92
9. 서현동 ……96
10. 석운동 ……100
11. 수내동 ……102

12. 야탑동 ……107
13. 운중동 ……111
14. 율동 ……114
15. 이매동 ……119
16. 정자동 ……123
17. 초림동 ……128
18. 판교동 ……128
19. 하산운동……131

第 2 編 城南의 人物

第 1 章 姓氏別 人物

1. 姜氏 ……135
2. 高氏 ……137
3. 權氏 ……137
4. 金氏 ……139
5. 南氏 ……142
6. 盧 氏 ……147
7. 孟 氏 ……147
8. 睦 氏 ……148
9. 閔 氏 ……148
10. 朴 氏 ……148
11. 方 氏 ……149
12. 裵 氏 ……149
13. 宋 氏 ……149
14. 申 氏 ……151
15. 沈 氏 ……151
16. 安 氏 ……152
17. 梁 氏 ……153
18. 吳 氏 ……153
19. 龍 氏 ……154
20. 元 氏 ……155
21. 柳 氏 ……156
22. 尹 氏 ……157
23. 李 氏 ……159
24. 林 氏 ……182
25. 張 氏 ……184
26. 鄭 氏 ……185
27. 丁 氏 ……187
28. 趙 氏 ……187
29. 曺 氏 ……187
30. 崔 氏 ……188
31. 韓 氏 ……189
32. 洪 氏 ……191
33. 黃 氏 ……191

第 2 章 贈諡 및 封君人物

1. 贈諡人物 ……194
2. 封君人物 ……195

第 3 章 殉死·孝子·淸白吏·抗日運動·著者

1. 殉死人物 ……198
2. 孝子 ……198
3. 淸白吏 ……199
4. 抗日運動者 ……199
5. 著書人物 ……200

資料調査協助人……202

第1編　城南의 地名과 世居姓氏

제 1 장　서설(緖說)

제 2 장　수정구

제 3 장　중원구

제 4 장　분당구

第 1 章 서설(緖說)

성남시는 광주군(廣州郡)에서 독립하였으므로 지명의 유래는 광주의 유래와 같이한다. 경기도의 중심부인 광주군은 고조선의 준왕(準王)이 B.C.194년 위만(衛滿)에게 쫓겨 남하하여 삼한의 마한(馬韓)을 주도한 목지국(目支國)을 정벌하여 세운 회안국(淮安國)의 지역이다. 고구려의 유이민 백제 시조 온조왕이 B.C. 18년 위례성에 건국하고 10신을 신하로 삼아 국호를 십제(十濟)라 하였다. 온조왕 13년(B.C. 6)에 한강 이남 지금의 몽촌토성으로 도읍을 옮기고 나라이름을 '十濟'에서 백제(百濟)로 고쳤다.

그 후 제13대 근초고왕 때에 도읍을 남평양(서울)으로 옮기고 하북위례성이라 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강을 기준으로 하북위례성과 하남위례성이 구분되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백제는 문주왕 때에 수도를 웅진(공주)로 천도하였다.

그 후 신라 전성기인 진흥왕 때에 신라의 영토가 되면서 신주(新州; 新興州)로 불리웠다. 다시 신라 문무왕 3년(663)에 한산주(漢山州)로 했다가 왕 8년에 남한산주(南漢山州)로 고치고 다시 제 35대 경덕왕 16년(757)에 한주(漢州)로 개칭하였다.

고려 왕건태조가 후삼국을 통일하고, 태조 23년(940)에 「광주(廣州)」로 개칭하였다. 이 「廣州」는 글자 그대로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조선조에도 그대로 호칭되었다. 그러나 워낙 넓은 지역이라 서울이 강남으로 팽창하면서 서울시의 일부와, 하남시, 성남시, 광주군으로 분할되기에 이르렀다.

성남지역은 광주군(廣州郡)의 일부지역으로 1964년 2월 24일 광주군 조례 제 68호에 의하여 중부면에 성남출장소를 설치하였다. 그 후

1971년 9월 13일 경기도 조례 제 470호에 따라 경기도 성남출장소로 승격하여 중부면 성남출장소지역과 돌마면, 낙생면, 대왕면을 관할하다가 1973년 7월 1일 법률 제 2597호에 의하여 성남시로 승격되었다.

동시에 성남시 조례 제 70호에 의하여 동제(洞制)를 실시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돌마면의 갈현 · 도촌 · 옹점 · 여수 · 오야소 · 상탑 · 하탑 · 이매 · 통로 · 양현 · 돈서 · 율 · 분점 · 당우 · 수내 · 정자동 등 15개리는 갈현 · 도촌 · 여수 · 야탑 · 이매 · 서현 · 율 · 분당 · 수내 · 정자 · 하대원동 등 11개 법정 동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낙생면의 삼가 · 판교 · 백현 · 보평 · 궁내 · 금곡 · 구미 · 석운 · 원천 · 동막 · 대장 · 산운 · 중산운 · 하산운 등 14개리는 판교 · 백현 · 삼평 · 궁내 · 금곡 · 구미 · 석운 · 동원 · 대장 · 운중동 등 10개 법정 동으로 동폐합 개편되었다.

대왕면의 신촌 · 오야 · 심곡 · 등자 · 고산 · 시흥 · 둔전 · 송현 · 사촌 · 둔토 · 금현 · 노상 · 노하 등 13개리는 신촌 · 오야 · 심곡 · 고등 · 시흥 · 금토 · 상적동 등 8개 법정동으로 통합 개편되었다.

중부면의 상대원 · 창곡 · 복정 · 단대 · 탄 · 수진 등 6개리는 상대원 · 창곡 · 복정 · 단대 · 태평 · 신흥 · 은행 · 성남 · 중 · 수진동 등 9개 법정동으로 통합개편되었다. 이리하여 37개 법정동이 성립되고 18개 행정동이 설치되었다.

그 후 단대 · 수진 · 신흥 · 태평 · 은행 · 상대원동이 각각 분동되었고 1989년 5월 1일 은행3동이 양지동으로, 단대2동이 금광동으로, 단대4동이 산성동으로 개편되었다.

한편 1989년 시 조례 제 931호에 의거 수정구와 중원구로 편제되고 다시 1991년 시조례 제 1152호에 의거 분당구가 신설되어 3개구로 늘어났다.

성남(城南)이란 지명은 언제부터 사용되어 왔는가. 필자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위에 언급된 공식명칭이 있기 이전의 문헌상의 기록은 다

城南村舍書懷四首錄呈霽亭 重九日
功業關中相歸來漢上居高懸徐孺榻只愛孔
明廬風月三千首春秋七十餘枕書是舊習燈
下註虫魚
洞府稱箕谷江山共霽亭樂天眞得道遯世已
忘形顧我頭將白唯公眼尚青卜鄰曾有約偕
老送餘齡
田家豈云樂來往爲營生茅屋山前白松燈兩

음과 같이 세 가지였다.

①1410년에 간행된 둔촌 이집(李集, 1314~1387)의 《遁村先生遺稿》에 『성남촌사에서 회포를 적은 네 수를 제정에게 적어보낸다 九월九일(城南村舍書懷四首錄呈霽亭 重九日)』고 기록되어 있다.

②1530년(중종 25)에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광주목 누정(樓亭) 조에는 이조참판 이문형(李文炯, ?~1466)이 한명회(韓明會)가 세운 압구정(狎鷗亭)에 이르러 지은 시에는 『빛나는 정자 높이 한강 물가에 임하니 성남이 지척인데 홍진이 막혔구나…(華構高臨漢水濱城南隔尺紅塵…)』라고 기록되어 있다.

③영의정을 지낸 유상운(柳尙運, 1636~1707)의 묘갈명에는 『7월에 성남(城南) 옛집에 갔다가…(七月進 城南舊第(栗洞)…)』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성남(城南)이란 명칭은 남한산성의 남쪽을 지칭하는 방향을 말하는 경우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둔촌선생유고》에 기록되어 있듯이 지명으로 호칭된 경우도 있다.

성남에는 언제부터 인류가 살기시작하였는 지 정확히 알수 없다. 그러나 선사시대의 유물 · 유적으로 보아 다른 지역이나 마찬가지로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살았음은 확실하다. 그것은 1990년 분당구 신시가지

건설계획에 따른 지표조사에 의하면 탄천 상류지역에서 지석묘군(支石墓群)이 발견된 사실에서 알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발견된 지석묘는 매장지(埋葬址)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대동강 유역, 예성강 유역, 경상남북도 해안지대, 전라남북도 해안 도서지역, 동해안 지역, 제주도 등 전국에 걸쳐서 분포되어 있다.

지표조사에 의하여 발굴된 지석묘군을 보면 도촌동(島村洞) 480-3, 484, 485번지, 도촌동 산 83번지에 32기가 분포하여 있다. 야탑동(野塔洞) 169-3畓, 175畓, 176畓, 191-1垈, 185林, 198-3畓, 210田 등에 54기가 분포하여 있다. 분당동(分唐洞) 337-2번지 일대에 22기가 분포하여 있다. 수내동(藪內洞) 숲안마을 야산에 13기가 분포하여 있고, 정자동(亭子洞) 82, 274번지 일대에 11기가 분포하여 있다.

또한 금토동(金土洞)에서 민무늬토기가 발견되었고, 삼평동(三坪洞)에서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되었으며, 수진동(壽進洞)에서 민무늬토기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성남공단 건설당시에도 선사시대의 공업지역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이 발견되었으나 문화재에 대한 인식도 적었고, 문화재는 건설업의 장애물이었던 만큼 블도져에 의하여 묻혀버렸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사실들은 탄천(炭川)을 중심으로한 성남시 일대에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살았음을 확증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누가 언제 어느 곳에 살았는지 알길이 없으며, 문헌상으로는 성남지역에 가장 먼저 정착했거나 인연을 가졌던 인물들은 대개 여말조초(麗末朝初)의 인물들이다.

성남시는 3개 구로 편제되었는데 수정구(壽井區)의 명칭은 수진동(壽進洞)에서 수(壽)자와 복정동(福井洞)에서 정(井)자를 취하여 지어진 명칭이고, 중원구(中院區)의 명칭은 중동(中洞)의 중(中)자와 상대원동(上大院洞)의 원(院)자를 취하여 지어진 이름이며, 분당구(分唐區)는 분당동과 분당신도시 개발의 의미를 살려서 분당(盆唐)의 명칭을 그대로 붙인 이름이다.

현재 성남시의 중원구는 9개 법정동에 10개 행정동으로, 수정구는 17개 법정동에 16개 행정동으로, 분당구는 18개 법정동에 7개 행정동으로 편제되어 있어, 성남시는 총 44개 법정동에 33개 행정동이 있다.

성남시 44개 법정동의 지명유래와 각 동의 취락과 취락 형성에 기초가 되었던 세거성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단 분동(分洞)된 경우는 각 동별로 다루지 않고 동명(洞名)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第 2 章 수정구(壽井區)

1. 고등동(高登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대왕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등자리(登子里)와 고산동(高山洞)을 병합하여 고등리(高登里)라 하였다.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고등동(高登洞)으로 칭하여 성남시에 편입되고, 1975년 3월 대왕출장소에 편입되고 고등 · 상적 · 둔전동을 관할하였다. 그 후 1989년 수정구에 편입되었다.

고등동 동명의 유래는 고산동(高山洞)의 고(高)자와 등자리(登子里)의 등(登)자를 취하여 고등동(高登洞)이라 부르게 되었다.

(2) 취락과 세거성씨

고등동은 고산동과 등자리로 크게 구분이 된다. 고산동은 안말, 웃말, 길아래, 주막거리로 불리워진다.

안말과 웃말에 덕수이씨가 세거하였고, 길아래말에는 경주정씨가 정착해오고 있으며 주막거리(새술막)는 덕수이씨 세거지로 전하여지고 있다. 새술막은 주막거리에 6 · 25동란 이후 술집이 새로 생겨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경주정씨는 도촌동 정광환(鄭光煥)의 8세손 협문(浹文)의 3남 행금(行錦, 1869~1934)이 분가 이주하여 삶으로써 5대손 대훈(大薰, 1931년생)에 이르고 있다.

등자리(登子里)는 안등산 밑인데, 덕수이씨 후손의 등과(登科)하는 경사가 잇따라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덕수이씨네 묘가 많은데 벼슬이

높아 석등(石登)이 세워진 마을이란 데에서 유래하였다는 설이 있다. 등자리는 덕수이씨 외에 경주김씨 · 남양홍씨 등의 세거지로 전해진다.

경주김씨는 양주군 와부면 동막골에 살았는데 김기남(金基南, 1922년생)의 21대조인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 김민강(金敏康)의 아들(?)이 등자리에 이미 세거하여 오던 남양홍씨의 무남독녀와 혼인함으로써 팔당에서 처가로 와서 살게 되었다고 한다.

덕수이씨는 고등동 일대에 세거하는데 이추(李抽, 1417~1463)의 아들 풍성군 이의번(李宜蕃)의 묘를 쓰고 그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등리와 등자리에는 풍성군의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어 계파를 형성하고 있는데, 의정공파 이경민(李景閔, 1578~1652)의 후손과 해풍군파 이함(李菡, 1470~1534)의 후손과 그리고 북계공파 이목(李穆, 1689~1742)의 후손이 세거하고 있다. 후손이 번성하고 관직에 나아가 명문의 빛을 발하였다. 고등리 이상영(李相永, 1927년생)은 의정공 후손이며, 등자리 이종숙(李鍾璹, 1936년생)은 북계공 후손이고, 이재호(李載浩, 1950년생)는 해풍군 후손이다.

의번은 돈영부 참봉으로 풍성군에 추봉되었고 아들 온(蘊)은 진사, 재(㦸)는 생원, 함(菡)은 해풍군, 심(蔯)은 부사이었다. 함의 아들 인상(麟祥)은 어모장군 · 선공감역, 인상의 계자 통(通)은 성천진관병마 동첨절도사였고, 통은 경안(景顔), 경민(景閔), 경용(景容), 경헌(景憲), 경증(景曾)을 두었는데 모두 출사하여 현달하였다.

목(穆)은 평창현령이었는데 아들 희천(喜天)등은 출사한 기록이 없다. 풍성군의 형 의석(宜碩)의 현손이요, 적(適)의 계자이며 해풍군의 증손인 경민(景閔)은 백천군수로 해주진병마절도사이었다. 아들 열둘을 두었는데, 주(稠)는 신천군수, 내(稞)는 예문 · 홍문관직제학과 상서원정,유(秞)는 병조참판, 빈(穧)은 경상우도병마절도사, 류(稯)는 부사이었다.

(3) 산천(山川)

- 능산(陵山) : 헌인능이 있기 때문에 인능산이라고도 한다.
- 도당재산 : 산신제당이 있던 산. 고등동과 등자리 사이에 위치한다.
- 탑산 : 고산골서 저푸리로 넘어가는데 탑이 있었다 하여 그 일대를 탑산이라 한다.
- 도당고개 : 고산골서 등자리로 넘어가는 고개. 산제당이 있어 도당고개라 했다.
- 도선이고개 : 도생이 고개라 하는데, 고산골서 판교·금토동으로 가는 고개. 현재는 고개가 없어졌으나 옛날에는 도적이 많았다.
- 계토골 : 서쪽 고산골의 양지쪽 골짜기로 토끼가 많았다고 한다.
- 세자골고개 : 고산골서 금토동으로 가는 고개
- 뒤골 : 등자리 덕수이씨 종산이다.
- 문배나무골 : 등자리 오동굴 바로 밑인데 문배나무가 있었다.
- 도토목골 : 등자리 덕수이씨 종산 지나 남동향판의 골짜기
- 세자골 : 고산골서 금토동으로 가는 골짜기
- 오동골 : 등자리 서북쪽 덕수이씨 산소를 지나 상적동으로 가는길 위쪽 골짜기
- 음터골 : 고등리 주막거리와 등자리 사이의 골짜기
- 주마터골 : 등자리 남쪽에 위치한 골짜기
- 피란골 : 등자리 뒤골의 서남향판의 산 꼭대기. 물은 동으로 흐르고 하늘만 보이는 곳이다.
- 등자저수지 등자리 뒤의 20년전 이사 이종숙 등 주민들이 설치한 동네 저수지
- 대동우물 : 등자리 162번지에 있던 우물. 길이되어 폐정되었다.
- 연내(川) : 청계산 고산골서 발원하여 고등동과 시흥동의 경계를 이루는 하천

(4) 일반지명

- 가래들 : 고등동 주막거리에서 동쪽인데 비행장에 편입되었다.
- 대왕(大旺): 조선조 태종(太宗)의 능을 대모산(大母山)에 쓰고 대왕(大王)이라 표기하다 후에 대왕(大旺)으로 수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 도랑터 : 고산골과 등자리 사이에 있던 산신제터. 도당굿하던 곳
- 범바위 : 등자리 뒷산의 큰 바위
- 범바위 · 새술막에 있는 범같이 생긴 바위
- 봉화뚝 : 등자리 경주김씨 19대조 묘 옆에 지관이 우물을 파두라고 해서 우물을 파고 관리하다 자손이 거칠어 역적날까 두렵다고 폐정시켰다고 한다.
- 절터 : 등자리 탑산골의 절이 있던 곳. 절에 중이 많아 매일같이 시주를 달래서 마을 사람이 절을 헐어버렸다고 하며 근래에 마을 사람이 절터에 산수를 쓰려고 광중을 파는데 돌밑에 금붕어가 보였다. 지관이 파지 말라고 했는데 그냥 쓸 수가 없다며 돌을 일구었더니 금붕어가 죽었다고 전한다.
- 토끼마당 : 고산골 초등학교서 건너다 보이는 곳
- 학고방게 · 다리 건너 촌락으로 6 · 25동란 당시 형성된 마을이다.

2. 금토동 (金土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대왕면 금토동(金土洞)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금현동(金峴洞)과 둔토리(遁土里)를 병합하여 금토리라 하였다.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성남시 금토동(金土洞)으로 되고, 1975년 3월 대왕출장소에 편입되어 시흥동의 관할이 되었다.

금토동의 명칭은 금현동(金峴洞)에서 금(金)자를 취하고 둔토리(遁土里)에서 토(土)를 취하여 지어진 명칭이다. 원래 이곳 옛 지명은 월천리(月川里) 또는, 월오천리(月午川里), 월아천리(月兒川里)로 안말의 안동권씨 족보와 금현동의 남원윤씨 족보에 기록되어 있다. 둔토리는 둔퇴(遁退里)라고도 하는데 지명유래는 알길이 없다.

(2) 취락과 세거성씨

금토동에선 민무늬토기가 발견되어 인류의 흔적을 짐작할 수 있다. 금토동엔 금현동(金峴洞) 바깥말(바깥골 · 외둔토리 · 바깥두리이골)과 안골(안골 · 안둔토리 · 안두래이골)의 취락이 형성되어 있다.

금현동엔 남원윤씨 · 진주강씨 등이 세거하였다. 남원윤씨는 윤징(尹澄)의 아들 군수 윤극신(尹克新, 1527~1589)이 별세하자 장지가 없어 가매장한 채 3년을 있다가 그 일대 안동권씨 산에 장사지내고, 선조대왕 명에 따라 권씨네가 금현동 일대를 남원윤씨에게 주게 되었다고 한다. 극신의 장남 엽(曄, 1545~1604)은 승정원 도승지, 차남 돈(暾)은 선조 9년에 문과에 급제하여 예조 · 공조판서와 강원 · 충정도 관찰사를 역임하였으니 시호가 효정(孝貞)이다. 후손 중 윤재옥(尹在鋈, 1876~1971)은 한말의 애국지사이다.

현재 금현동엔 극신의 15대손 윤영세(尹永世, 1935년생)가 살고 있다. 바깥말(外遁土里)에는 나주나씨와 나주임씨가 세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안말(內遁土里)은 안동권씨 파평윤씨의 세거지역이다. 이곳은 안동권씨 문경공 권제(權踶)의 아들 안양공 권반(權攀, 1419~1472)이 무진정(無盡亭)을 짓고 유람하던 곳이었다. 반이 세조 12년(1466)에 예조참판겸 경기도 관찰사를 겸직할 때에 장자인 충훈부 도사 권괄(權佸)이 죽자 장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세조가 그 사정을 듣고 광주 월천(月川) 청계산 아래를 하사하였다. 이로써 권씨의 세거지가 되었다.

권반의 차남 칭(偁)은 주부이었다. 반의 손자로 금토동에 최초로 정착한 우(愚)는 원주목사이었고 목사의 아들이 3형제인데 굉(硡)은 화성군이요, 확(確)은 판서이고 금(磁)은 승지이었다. 굉의 장남 긍(兢, 1527~1607)은 충좌위대호군, 3남 징(徵, 1538~1598)은 공조판서에 이르렀고 시호가 충정(忠定)이다. 후손이 대대로 현달하였다. 금토동 산 57번지의 권씨 종산내에는 화산군 반(攀)의 사당 영모재(永慕齋)가 있었는데 5공화국 때 팔리고 헐려 세인(勢人)의 별장으로 둔갑하였다. 다시 복원하여 후세인의 교훈이 되게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금토동 권혁상(權赫尙, 1944년생)은 반의 19세손이고 금광동 권혁찬(權赫燦, 1921년생)은 우의 17세손이다.

파평윤씨는 윤부(尹溥, 1934년생)의 8대조 윤심진(尹心震)의 후손이 세거하고 있다. 심진의 후손 광연의 부인 정일당 강씨(靜一堂 姜氏, 1722~1832)는 여류시인이다.

(3) 산천(山川)

- 남산 : 금토동 남쪽에 있는 산. 이곳엔 취락이 새로 들어섰다.
- 청계산(靑溪山) : 과천 · 성남 · 의왕 · 서울에 걸쳐 있는 금토동 서북쪽의 산
- 청용산(靑龍山) : 청계산의 고명(古名)이다. 산 정상에서 청용이 승천하였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 그능고개 : 내동과 외동을 왕래하는 작은 고개. 함부로 상여가 넘나들지 못하였다.
- 달래내고개(月峴) : 금토동에서 말죽거리로 통하는, 옛날 삼남지방 사람들이 한양가던 길, 고속도로에 편입되었다.
- 쇠푸니고개(쇠고개) : 내동(內洞)에서 운중동으로 가는 고개
- 망경대(望京臺) : 고려말 충신(趙胤)이 청계산에 은거하던 터를 말한다.

- 병골 : 병처럼 입구는 좁고 안이 넓어서 붙여진 지명, 내동서 서쪽으로 가다 북쪽 골짜기
- 두레이골 : 내동서 서쪽으로 가다 동남향으로 위치한 골짜기
- 달래내(月川) :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금토동으로 흐르는 하천
- 옥경동(玉璟洞) : 청계산 밑 경치가 아름다운 곳, 대원군때 천주교 신도들이 숨어서 살던 곳으로 터가 있다.

3. 단대동(丹垈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면 단대동(丹垈洞)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은행정이 · 논골 · 금광리를 병합하여 단대리(丹垈里)라 하고 중부면에 편입되었다. 1973년 성남시에 편입되면서 단대동(丹垈洞)으로 개칭하고 은행정이는 은행동에 편입시켰다. 단대동은 1967년 10월 1 · 2동으로 분동되고 1980년 9월 3동으로 분동되었으며 1983년 10월 4동으로 분동되었다. 1989년 5월 분구에 따라 단대 2 · 3동은 금광동으로 개칭되어 중원구에 편입되었다. 1동과 4동은 합하여 단대동으로 단일화 되어 수정구에 속하게 되었다.

동명의 유래는 1973년 시 승격 당시 탄리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려면 고개를 넘어야 하는데 그 붉은고개 밑이 되므로 단대골 · 또는 던데 · 단대동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조선조 때에 이미 단대(丹垈)라고 기록하였다.

(2) 취락과 세거성씨

단대동은 논골 · 양지말(웃말) 등의 취락이 있었다. 논골(논골)에는 문화유씨와 파평윤씨와 풍양조씨가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문화유씨

는 문간공파로 유용선(柳容善, 1930년생)의 8대조인 유함형(柳咸亨)이 정착한 이래로 그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다. 함형은 문간공 유관(柳寬, 1346~1433)의 11대 손이다.

풍양조씨는 양주군동고주내면 광암리(廣巖里)에 거주하던 참판 조종운(趙從耘)의 차남 중추부사 현보(賢輔, 1636~1725)가 이주하여 살았는데, 현보는 상겸(尙謙), 상항(尙恒), 상부(尙孚) 삼형제를 두었다. 단대리에는 현보의 차남인 상항의 후손이 세거하였다.

4. 둔전동(屯田洞)

(1) 동명의 유래

둔전동은 본래 광주군 대왕면 지역으로 둔전(屯田)이 있었으므로 둔전말 또는, 둔전촌(屯田村)으로 불리웠는데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둔전리(屯田里)라 하였으며, 1973년 성남시에 편입되고 1975년 대왕출장소에 편입되어 고등동의 관할이 되었다.

(2) 취락과 세거성씨

둔전동은 비행장 끝 뒤쪽으로 고등동과 접해 있는데 현재 폐동되었다. 여기에는 건너말, 둔전말 등이 있었다.

5. 복정동(福井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면(細村面)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가마절(釜谷)·기와골(瓦谷)·안골·응달말을 병합하

여 복정리(福井里)라 칭하여 광주군 중부면에 편입되었다. 그후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고, 1973년 7월 성남시 복정동(福井洞)으로 개칭되고 1975년 3월 창곡동을 관할하였다. 그후 1989년 5월 수정구에 편입되었다.

복정동의 명칭은 복우물(福井)에서 유래한다. 구전에 의하면 큰복우물이 있었던 곳은 현 정수장 뒤인데, 안골로 가는 길, 또는 길과 밭 사이였다고 한다. 일설에는 영장산(靈長山) 복정동 쪽 상봉에 있는 칠성대의 감로천(甘露泉)이 복우물이라고도 한다.

(2) 취락과 세거성씨

복정동(福井洞)의 자연취락은 가마절(釜谷)·구석말·기와말(瓦谷)·복우물·사거리·심박골·안골·양짓말·윗말·까치골 등이 있다.

가마절(釜谷)은 두곡(斗谷)·두둑말이라고 했는데 옹기를 굽던 가마가 있었다하여 부르게 된 명칭이다.

이곳에 최초로 정착한 성씨는 장연노씨이고 전주이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연 노씨는 홍문관대제학을 역임한 노귀산(盧龜山)의 세째 아들 노효공(盧孝恭)이 처음 정착한 후 후손이 세거하였다. 효공은 한성판윤·고양현감을 역임했는데 아들 경(瓊)은 종친부전섬, 손자 자용(自庸, 1487~1543)은 장사랑을 역임하였다. 부곡에 사는 노인영(盧仁永, 1936년생)은 효공의 14세손이다. 신흥동 주공아파트 자리의 묘역은 사패지였다. 전주이씨는 노효공의 후손 노의교(盧義敎, 1840~1928)의 사위 이갑선(李甲善)이 처가집 근처로 이주하여 세거하였다.

구석말은 정수장과 경원대 사이의 마을로 구석진 곳이라 구석말로 부르게 되었다. 구석말은 청송심씨·밀양박씨·남양홍씨의 세거지라고 한다.

기와말은 복정동 사무소가 위치한 일대를 말하는데, 이곳은 옛날에

남한산성(南漢山城)에 사용한 기와를 굽던 곳이라 한다. 이 마을은 진주강씨 · 원주원씨 · 남양홍씨 · 문화유씨 등의 세거지였다.

원주원씨는 홍문관 교리 효렴(孝廉)의 아들 원맹강(元孟康)이 원주에서 이주하여 정착함으로써 그의 자손이 세거하여 온 것으로 전해진다. 원창상(元昌常, 1946년생)의 14대조인 맹강은 한림감찰, 맹강의 아들 윤종(胤宗)은 생원으로 증이조참판, 손자 집(集, 1507~1566)은 연안부사 증손 진(蓁)은 동몽교관을 역임했다.

심박골은 웃말 동남방에 위치한 마을로 유계문의 부인 창녕성씨의 묘를 쓴 후에 묘역관리를 위하여 묘지기가 살았고 지금은 유씨가 살고 있다.

안골(內谷)은 마옥리(磨玉里)라고도 하는데,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진주강씨 · 문화유씨의 세거지이다. 이곳에 최초의 정착자로 알려진 진주강씨는 고려말 예의판서를 역임하고 조선조의 벼슬을 사양했던 강천명(姜天命)의 아들 은(隱)이 그 아들과 안골에 배포한 후 자손이 세거하여 학사를 지냈다. 아들 해(諧)는 통훈대부 종부사 소윤이었고 손자 노(老, 1438~1474)는 성균관 대사성, 증손 숙회(叔淮)는 남원부사이었다. 자손이 출사 현달 하였다. 안골 뒷산은 강씨네 종산이고 묘 아래 고가(古家)에는 후손이 살고 있는데, 영수(永壽)와 기와말 건수(建壽, 1931년생)는 은의 21세손이다.

강씨네 다음 정착자로 알려진 문화유씨는 형조판서 · 한성판윤을 역임한 유계문(柳季聞, 1383~1445)의 사패지로 그 후손이 세거하였다. 심박골의 유웅열(柳雄烈, 1933년생)은 계문의 18대손이다. 양지말(아랫말)은 복정파출소 뒷(동)쪽인데 이곳은 남양홍씨 · 문화유씨의 세거지로 알려지고 있다.

남양홍씨는 복정동 555-1에 음죽현감 홍사립(洪思立)의 아들 첨지 홍위(洪煒)가 1600년대 초에 정착하여 은거한 이래 후손이 세거하였다. 홍석필(洪錫弼, 1934년생)은 휘의 13세손이다. 의령남씨는 숯골의

남씨가 이주하여 살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복우물은 현 정수장 뒷편인데 여기에는 안주목사 정호(鄭灝)가 정착한 이래 홍위(洪煒)의 고모부요 윤경지(尹敬之)의 장인인 공조참판 정입(鄭岦)에 이르기 까지 연일정씨가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웃말(양지말)은 경원대에서 건너다 보이는 판교 구리간 고속도로 서편마을로 해평윤씨의 세거지이다. 집성촌락을 형성하고 있는 해평윤씨는 홍천현감 윤경지(尹敬之, 1604~1659)가 정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지는 정수장 뒤 영일정씨 공조참판 정입(鄭岦, 1574~1629)의 사위로 정입이 무자일녀(無子一女)라 경지의 아들이 외손봉사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윤명섭(尹明燮, 1922년생)은 경지의 11대손이다.

응달말(陰村)은 가마절 남동쪽인데 이곳은 김해김씨의 세거지이다. 김씨는 석성공파로 김상용(金相龍, 1930년생)의 9대조인 통정대부 김대희(金大熙)가 정착한 이래 후손이 세거하고 있다.

(3) 산천(山川)

- 영장산(靈長山) : 복정동 남동쪽의 해발 193.5m의 산
- 한이산(寒移山) : 영장산 낙맥이며 웃말 뒷산으로 수진리 앞산 남씨 묘역에 걸쳐있다.
- 가마절고개 : 안골서 가마절로 왕래하는 고개
- 독쟁이고개 : 가마절과 산성동 신흥 주공아파트 쪽을 왕래하던 고개
- 복고개 : 외국인학교 뒤쪽(산32번지)으로 기와골에서 약진로(창곡동)로 왕래하는 고개
- 세고개(三峴) : 성남병원 후문쪽의 옛날 길로 복정동과 수진동의 경계가 된다.
- 독골 : 경원대학교 캠퍼스를 말한다.
- 까치골 : 웃말 북쪽, 대유전문대 건너편(前)으로 1975년 김완억(金完億, 1936년생)이 율현동에서 이주하여 민가 1세대가 있다.

- 복우물 : 복정동 정수장 뒤에 있었던 우물. 구전에 의하면 정수장 뒤 밭에 큰 기와집이 있었는데 호란(?)때 금베틀을 우물속에 넣고 피난 갔다가 주인은 생사불명이 되고 나중에 머슴이 이 금베틀을 꺼내려 하니 천둥 · 번개가 쳐서 꺼내지 못하였다고 한다. 이 전설로 인하여 가끔 금속 탐지기를 대동하고 금베틀의 발굴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 안골우물 : 안골 마을 중앙에 있던 동네 우물로 폐정되었다.
- 까치우물 : 까치골 김완억의 집 20m지점의 우물(약수터)
- 향나무우물(아래우물) : 안골의 대동우물로 수원이 풍부하고 수질이 좋았으며 취락형성시에 설치되었는데, 우물 주위에 200여년 된 향나무 두 그루가 있다. 현존하고 있으나 오염돼서 식수로는 사용불가하다.

(4) 일반지명

- 마룻들 : 복우물에 있는 넓은 들(논)
- 범의골 : 가마절 약수터 위에 있는 바위굴로 호랑이의 서식처였다. 일제강점기에 호랑이 새끼 네 마리를 마을 사람이 가져왔다가 호랑이가 마을에 내려와 헤매고 다녀 혼들이 났다고 한다.
- 복정교 : 복정동 사거리에 있는 다리
- 사거리 : 복정동 현 버스정류장 주변
- 시새벌 : 모래가 많은 벌(들)
- 서낭당 : 구석말에서 독골로 넘어가는 고개에 있었는데 경원대 캠퍼스가 들어서면서 없어졌다.
- 터골 : 복정동 정수장 뒤 집터가 있어서 붙여진 이름. 와편과 사기그릇 조각이 출토된다.

6. 사송동(沙松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대왕면 사촌리(沙村里)·송현동(松峴洞)일부 지역이었는데 1914년 광주군 대왕면 사송리(沙松里)라 칭하였고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제되었다.

1973년 7월 성남시 사송동(沙松洞)으로 개칭되고 시흥동의 관할이 되었다. 1975년 3월 대왕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89년 5월 수정구에 편입되었다.

사송동의 명칭은 사촌(沙村)의 사(沙)자와 송현동(松峴洞)의 송(松)자를 취합한 이름이다. 그리고 사촌(沙村)은 탄천의 범람으로 마을 주변에 사장(沙場)이 많은데서 붙여진 이름이고, 송현(松峴,솔고개)은 고개에 오래된 소나무가 많아 붙여진 이름인데 솔고개 밑이라 솔고개라 하던 것을 송현(松峴)으로 한자 표기화 한 것이다. 일부가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사송동 226-1번지 일대에 선사유적인 지석묘 30여기가 발견되어 인류의 생활 터전이었음을 알수 있다. 사송동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으로는 농막(農幕)·동간·듬박골·벌말·사촌(沙村)·샘골(泉谷)·솔고개(松峴洞)·집너머 등이 있는데 그 중 동간마을은 분당지구에 편입되어 폐동되었다.

농막은 벌말서쪽에 있는데 덕수이씨 선대묘와 전답을 관리하기 위하여 농막을 지은 후 촌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동간은 벌말과 사촌 사이에 있는데, 마을 앞에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고 숲안마을이라 했다가 동구안으로 바뀌고 후에 동간으로 부르게 되었다.

듬(딈)박골은 솔고개 동남쪽 마을로 듬바위 아래에 위치하여 듬(딈)박골이라 한다. 이곳은 여흥민씨 등의 세거지로 전해지고 있다.

벌말은 벌판에 있는 마을로 아랫말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곳은 평택임씨가 자리잡은 이래 의령남씨 · 전주이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촌(沙村)은 솔고개 남쪽에 있는 마을로 전주이씨 · 의령남씨 · 평택임씨 등의 세거지이다. 사촌의 남쪽을 웃말, 북쪽을 아랫말이라 불렀는데, 웃말엔 주전소(鑄錢所)가 있었다. 이곳은 아랫말 앞에 숲을 가꾸어 숲안, 수풍안이라 부르다가 하천가에 모래가 많아 사촌(沙村)으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평택임씨는 임상균(林相均, 1931년생)의 15대조인 임상복(林祥福) 때부터 살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임상복은 강릉부사 · 여주목사를 역임했고 아들 홍주(興周)는 삼가현령, 손자 일남(一男)은 청주목사를 지내는 등 자손의 관직이 이어졌다.

샘골(泉谷里)은 솔고개 동북쪽 오목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이 마을엔 아무곳에나 샘이 잘난다 하여 샘골이라 한다.

이곳은 진천송씨를 비롯하여 남양방씨 · 파주염씨 · 단양우씨 등의 세거지로 알려지고 있다.

솔고개(松峴里)는 사촌과 시흥동 모랫말 사이의 마을로 소나무가 많아 백로가 서식하였다.

이곳은 여흥민씨가 최초로 정착한 후에 원주원씨 등이 입주,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여흥민씨는 입암공 좌찬성 민제인(閔仁齊)파의 후손 민백원(閔百元)이 여주서 살다가 이사와 세거하였는데 민병근(閔丙根, 1928년생)의 8대조가 된다. 도로공사 자리는 민씨 종산이었다.

원주원씨는 도끼정승으로 이름난 원두표의 아우 원두추(元斗樞)의 현손인 충문공 원경하(元景夏, 1698~1761)의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경하의 장남 인손(仁孫)은 우의정에 올랐고 차남 의손(義孫)

은 대사헌, 3남 계손(繼孫)은 서흥현감을 역임했다. 사송동에는 원씨네 사패지가 있고 경하의 9세손 종민(鍾玟, 1932년생)이 살고 있다.

의령남씨는 남경문(南景文)의 6세손인 순흥부사 남오훈(南五熏, 1643~1719)이 광주 직리에 살았는데, 오훈의 3남 동중추 남연명(南衍明, 1706~1774)이 사송동으로 분가하여 세거하여 오다 근래 이사하였는데, 양지동 남성우(南星祐, 1934년생)는 연명의 8대손이다.

짐너머는 샘골 너머에 있는 마을로 남양방씨·단양우씨 등의 세거지이다.

광주이씨는 이염룡(李炎龍)의 아들 태희(泰熙)때에 단대리에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태희는 인봉(寅鳳)·인복(寅福)·인명(寅明) 3형제를 두었는데, 사송동엔 주로 寅明의 후손이 살고 있다. 용완(容完, 1941년생)과 용혁(容赫)은 인명의 7세손이 된다.

(3) 산천(山川)

- 골악산 : 듬박골 앞 야산으로 골이 깊다.
- 듬박골산 : 듬박골과 솔고개에 걸쳐있는 산. 정상에 듬바위가 있다.
- 배마산 : 1925년 을축년 홍수 때 배를 맨 산이라 하며 샘골과 둔전동에 걸쳐있다.
- 배밑들산 : 벌말 동북쪽 산인데 배형국이라 하며 배밑들 고개는 배의 중심이라 한다.
- 한감산 : 솔고개 서쪽인데 황씨(黃氏)의 종산이다.
- 궁고개 : 농막과 삼평동 봇들 사이의 농로
- 담뒤고개 : 샘골과 솔개고개 사이에 있는 고개
- 당너머고개 : 듬박골과 솔고개 아랫말 사이의 농로
- 배밑들고개 : 벌말과 동간 사이에 있는 농로
- 샘골고개 : 솔고개 웃말과 샘골 사이를 왕래하는 고개. 일명 쉰동고개라 칭한다.

- 솔개골고개 : 솔고개와 시흥동 사이를 왕래하는 길인데, 정상에 서낭이 있었다.
- 잿마당고개 : 일명 덤뒤고개인데 샘골과 집너머 사이에 있다.
- 콩배나무고개 : 동간과 사촌 사이의 고개로일대에 콩(팥)배나무가 많다.
- 가재농(논)골 : 부황대뿌리 밑에 있는 샘이 많은 골로 가재가 많았다.
- 구레골 : 산신터 동쪽 좁은 골짜기
- 굴양골(軍糧谷) : 큰골 동쪽인데 전란때 군량미(軍糧米)를 쌓았던 곳이다.
- 뱀골 : 벌말 뒤 서편에 있는 뱀처럼 꼬불꼬불하며 좁고 긴 골짜기이다.
- 부처산골 : 듬박골 내령으로 집너머 남쪽에 있는 골짜기인데 부처가 있었다 한다.
- 안골 : 사촌 서쪽 농경지였다가 정수장이 설치됐다 ·
- 삼거리 개울 : 운중동과 금토동에서 발원하여 삼평동을 경유하여 중보(中洑)를 거쳐 탄천교에서 탄천과 합류된다.
- 아랫말 우물 : 아랫말 중앙에 있는 마을 식수로 바가지 우물이다.
- 옻우물 : 부황대뿌리 중턱에 있는 옹달샘 우물로 옻오른데 마시거나 씻으면 효과가 있다.
- 용해우물 : 벌말 마을회관 동쪽 10여m 지점에 있다. 용의 입에서 나오는 물처럼 물맛이 좋다하여 부르는 명칭이다. 우물(上井)샘골 위에 있는데 약수라고 한다.
- 중보(中洑) : 탄천 서쪽 경부고속도로 진입로 밑에 있는 삼거리개울의 보
- 중텃말우물 : 속고개 웃말과 아랫말 사이 마을 중심에 있어 칭한 명칭이다.

- 해남물 : 담귀고개에 있던 우물로 바위속에서 샘이 나며 우물 위에 해나무가 있다.
- 향나무우물 : 솔고개 웃말에 대동우물로 향나무가 있어 향나무우물이라 칭한다.

(4) 일반지명

- 건개들 : 벌말 남쪽으로 큰비가 와야 모를 낼 수 있는 지역이다.
- 낡은터 · 농말과 동간 사이의 길가 구석진 곳에 오래된 집이 있어서 칭하게 되었다.
- 덕마대벌 · 탄천과 동간 사이의 농경지로 일부는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 동아다리 : 시흥동과 여수동 경계를 이루는 다리로 다리 밑에 전설이 깃든 안장바위가 있고 탄천이 흐른다.
- 듬바위 : 두엄(듬)더미처럼 큰 바위로 구전에 의하면 한 장수가 분당동 맹산에 있는 바위를 들고 가다 내려논 바위라고 전한다. 바위에 장수 발자국이 있다고 한다.
- 부황대뿌리 · 동간 동쪽인데 부엉이의 서식처이므로 지어진 명칭이다.
- 산신터 : 벌말과 사촌 주민들이 음력 9월에 산신제를 지내던 곳이다.
- 세수리벌 : 박골과 탄천사이에 있는 들로 버드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 수레나드리들 : 벌말과 탄천 사이의 들로 옛날 보를 막을 때에 수레로 돌을 운반했다하여 지어진 명칭이다.
- 안장바위 : 동아다리 밑에 있는데 일명, 건들바위라 칭한다. 동방삭이를 잡기 위해 옥황상제가 보낸 사자가 숯을 갈던 곳이라는 전설이 있다.
- 용마바위 : 부처산골 아래 탄천에 있다. 바위에 용마 발자국이 있

어 붙여진 이름이다.

- 활터(弓址) : 사촌 주민들이 활쏘기를 하던 곳으로 사촌 웃말 동쪽에 있었는데 판교~구리간 고속도로에 편입되었다.

7. 산성동(山城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면 단대리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단대리(丹垈里)라 하여 중부면에 편입되었다.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성남시 단대동(丹垈洞)이 되었다. 그후 1989년 5월 창곡동의 일부와 단대4동을 병합하여 산성동(山城洞)이 설치되었다.

산성동의 명칭은 동명 개편시 남한산성(南漢山城) 진입로인 산성로와 접해있어 산성동이라 하였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산성동에는 김성골 · 물방아거리 · 서낭당의 자연취락이 있었다. 김성골을 김씨네가 세거하였으므로 불리워진 이름인데, 수원김씨는 김원섭(金元燮, 1940년생)의 고조부 때부터 세거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느티나무 위쪽에는 큰 집터가 있어 주춧돌과 와편이 출토되고 우물도 있었다고 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수원김씨 이전에도 사람이 살았다고 할 수 있겠다.

서낭당이에는 현 검문소 삼거리 주변에 파평윤씨가 세거하였다. 파평윤씨는 재령군수 윤세헌(尹世獻, 1610~1669)의 증손 필옥(弼沃)이 파주 적성서 살다 광주군 서부면 초이리로 이주하여 살았는데, 필옥의 아들 윤응상(尹應想)이 서낭당으로 이주하여 후손이 세거하였다. 응상은 윤기영(尹基榮, 1933년생)의 5대조가 된다.

8. 상적동(上笛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대왕면 적동(笛洞)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노상동(路上洞)을 병합하여 상적리(上笛里)라 하였고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성남시에 편입되어 상적동(上笛洞)이라 칭하였다. 1975년 3월 대왕출장소에 편입되어 고등동의 관할이 되었다.

상적동의 명칭은 청계산 밑으로 호걸들이 피리를 불며 유람하던 곳이라 하여 적촌(笛村) · 저푸리 · 적취리라 하였는데 노상동(路上洞)의 상(上)자와 적취리(笛吹里)에서 적(笛)자를 취하여 상적동(上笛洞)이라 칭하게 된 것이다. 일설에는 덕수이씨네의 등과(登科)로 피리소리가 끊이지 않아서 붙여진 명칭이라고도 한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상적동은 저푸리를 중심으로 노상동(옛골 · 禮谷)과 노하동(路下里)으로 3대별 하는데 옛골은 고속도로로 마을이 갈라져 노상동(주막거리) · 상적동 · 새말 · 옛골로 구분된다.

노상동(옛골)에는 경주김씨가 세거하였는데, 김창환(金昌煥 · 學崇, 1924년생)의 10대조인 김두희(金斗熙)의 아들 김복경(金復慶, 1694~1774) 때부터 세거한 것으로 전재진다. 복경의 증손 노규(魯奎)가 승정원 좌승지, 노규의 아들 준희(俊喜)가 호조참의, 손자 상집(商集)이 오위장을 역임하였다.

저푸리(笛吹里)에는 덕수이씨 판서공파 · 감사공파와 홍천용씨가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덕수이씨는 풍성군의 증손 순천군수 통(通)의 차남 경용(景容)과 3남 경헌(景憲)이 고등동에서 분가하여 이곳에 자리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경용(李景容, 1580~1635)은 전라도 관찰사, 계자 엄(稚)은 경

민(景閔)의 아들로 청주진관병마절도위이었다. 이경헌(李景憲, 1585~1651)은 병조참판, 아들 정(程)은 승정원 좌승지·지제교이었고, 석(秳)은 성주목사, 찬(纘)은 무과 찰방을 역임하였다. 이재복(李載福, 1929년생)은 경헌의 13대손이다.

홍천용씨는 용달성(龍達成, 1912년생)의 10대조 용의생(龍誼生) 때부터 이곳에 자리잡고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생의 장남 호강(鎬康, 1660~1732)이 조봉대부 장례원정을 역임하였다.

(3) 산천(山川)

- 까마귀산 : 청계산 낙맥으로 상적2동(삼거리) 앞산이다.
- 인육산(仁陸山) : 상적동 뒷산, 인능산(仁陵山)이 잘못 표현된 것 같다.
- 박석고개 : 서울과 경계를 이루는 곳인 버스정류장 사거리를 박석고개라 한다.
- 월현(月峴) : 일명, 달래내고개라고 하는데 옛날 달맞이 하던 고개이다.
- 긴골 : 옛골서 청계산 골짜기로 가다 중간쯤 남쪽 골짜기
- 뒷골(陰谷) : 상적동 신구농원 골짜기를 말한다.
- 사태골 : 명성바위 골짜기(군용지임)
- 산수골(山水谷) · 저푸리에서 노상동가는 중간 일대로 용씨 종산이 있다.
- 큰골 : 장수바위 윗 골짜기
- 어둥골 : 옛골서 서남간 골짜기
- 너머우물 : 월현 밑 옹달샘. 물맛이 좋아 삼남지방까지 소문이 났다.
- 대왕저수지(大旺貯水池) . 1959년에 준공된 저푸리 앞에 있는 저수지

(4) 일반지명

- 넘말 : 사거리서 동부간 펑퍼짐한 골짜기
- 노루배 : 까막산 아래 길오름이 하천에 있는 넓은 바위로 놀기좋은 곳
- 도당터 : 저푸리 뒤 마을에서 산신제를 지내던 곳. 큰 고목나무가 고사하였다.
- 망경대(望京臺) : 청계산 상봉에 큰 바위가 있고 바위 절벽에 옛날 사람들이 글씨를 각자해 놓았다.
- 명성바위 : 군용지 서쪽 큰 바위. 바위 밑에서 샘이 솟는데 옛날 정성들이고 소원 성취를 빌던 곳
- 목정승모이께 · 목배산 장수바위 서쪽 500m정도에 목씨네 묘 세기가 있었는데, 이 무덤이 옛골 치소(治所)의 책임자로 추측된다.
- 삼태기안 : 저푸리 북쪽 남향판의 골짜기
- 안터 : 노하동의 옛날 집터로 와편 사기그릇 조각이 출토된다.
- 의골 : 옛골 남쪽 밭으로 고려시대의 행정관청이 자리잡았던 곳이라 한다. 밭에서 유적이 발견되는데 고려 말엽 목씨가 관장한던 관소로 추정된다.
- 장수바위 : 옛골 남서쪽 산에 큰 바위로 장수 발자국이 있다고 한다.
- 황후피난처 . 저푸리 이재복씨 집은 그의 7대조가 지었는데, 명성황후가 왜인에 쫓겨 용인 영일정씨네로 피신차 가던 중 황후의 올케 친정집이므로 잠시 걸음방(건너방)에 머물렀다가 갔다고 한다.

9. 수진동(壽進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면 수진동(壽進洞)이었다. 1914년 행정구

역 폐합에 따라 세오개 · 새터말 · 벌터 · 안말 · 신답 · 작은능을 병합하여 수진리(壽進里)라 칭하고 중부면에 편입되었다가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고, 1973년 7월 성남시에 편입되는 동시에 탄동 일부를 병합하여 수진동(壽進洞)이 되었고 1976년 10월 수진1 · 2동으로 분동되었다. 그 후 1989년 5월 수정구에 편입되었다.

동명의 유래는 세종대왕의 7째아들 평원대군(平原大君, 琳)이 사망하자 영장산(靈長山) 남쪽에 장사지내고 그 묘소를 관리하는 수진궁(壽進宮)을 지었으므로 궁말 · 궁촌 · 수진궁 · 수진동(壽進洞) · 수진리라 불리워 왔는데 성남시로 되면서 수진동(壽進洞)으로 되었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수진동에는 선사유물로 민무늬토기가 발견되어 인류의 발자취를 짐작케 한다. 수진동에는 궁말 · 벌터 · 새우개 · 새터말 · 신답 · 안말 · 작은능 등의 취락이 있었다. 궁말은 수진궁이 있었던 곳으로 수진골 · 수진리라 불리우기도 하며 그 위치는 성남경찰서 동편에 위치한다고 전해진다.

벌터는 궁말 서편 벌판에 있는 마을이었으며 세고개(새우개)는 수진골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었다. 새터말(新村)은 새로 생긴 마을로 모란 일대 새로 된 마을을 부르는 명칭이다.

새오개(새우개)는 현 수진리고개 뒷편 동북쪽에 있는 마을이다. 안말은 궁말 안쪽에 있는 마을로 성남경찰서 건너편 담배인삼공사 성남지사 뒷편에 위치한다. 작은능은 살고개 밑에 있는 마을로 뒷산에 의령남씨 남경문(南景文)의 묘역이 있다.

(3) 산천(山川) · 일반지명

- 남산(南山) : 수진골 남쪽에 있는 동산
- 한이산(寒移山) : 수진리 서북편 앞산, 남경문의 묘소가 있는 산

- 모란리(牧丹里) : 재향군인 정착지였다.
- 살고개 : 수진동 고개
- 삼현(三峴) : 새우개, 새오개라고도 하며 복정동쪽에서 모란쪽으로 가자면 고개 셋(성남병원 아래, 수진리고개, 성남관광호텔 앞)이 있어서 세고개(三峴)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 아랫터골 : 수진궁 아래쪽에 있는 골짜기
- 웃터골 : 수진궁 위쪽에 있는 골짜기
- 자은능 : 수진리 고개에서 서북편으로 건너다 보이는 남경문의 묘를 칭한다.
- 탄천보 : 탄천옆에 보가 있었다.

10. 시흥동(始興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대왕면 시흥동(始興洞)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시흥리(始興里)라 하였다.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성남시에 편입되고, 1975년 대왕출장소에 편입되어 시흥 · 금토 · 사송의 3개동을 합하여 시흥동이 설치되었다. 1989년 5월 수정구에 편입되었다.

시흥동은 원래는 용인(龍仁)에서 말죽거리를 통하여 서울로 가던 길가에 있던 마을 주민들이 청계산(靑溪山) 일대에 숨어살던 도적떼의 피해가 극심하여 현재의 위치로 이주하여 형성된 마을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노변(路邊)에서 이주시킨 마을이라 하여 '보낸말' 이라 하던 것이 '모랜말' 로 변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은 이제부터는 도적의 폐해가 없을 것이니 새로 흥할 수 있는 마을이라하여 시흥리(始興里)라 하였다가 시흥동으로 부르게 된 것이라고 한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시흥동에는 경주최씨 · 전주이씨 · 남양홍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주최씨는 화숙공파로 최병서(崔炳序, 1916년생)의 13대조인 최덕지(崔德枝, 1628~1684)가 자리를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덕지의 손자 최삼곤(崔三崑, 1725~1780)은 무과에 합격, 첨정이었고 증손 완진(完鎭)의 3남 최홍량(崔弘良, 1808~1862)은 고금도 수군첨절제사 어모장군 전라우수군을 역임했다.

11. 신촌동(新村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대왕면 신촌리(新村里)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에 신촌리(新村里)라 하였고, 1971년 성남출장소에 편제되었고 1973년 7월 성남시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으로 칭하여 신촌동이 관할하였다가 1975년 3월 대왕출장소에 편입되었다. 그후 1989년 수정구에 편입되었다.

신촌동의 유래는 새로된 마을에서 비롯되는데, 구전에 의하면 을축년(1925) 대홍수 이후 삼전도(三田渡)가 침수된 후에 이곳에서 이주하여 온 수재민들로 이루어진 새마을, 새말 등으로 불리우다 한자화한 것이라고 한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신촌동엔 담박골 · 두집메 · 작은새말 · 큰새말 등의 취락이 있다. 담박골엔 평산신씨 · 평택임씨 · 남양홍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비행장에 편입되어 폐동되었다.

두집메(도림매)는 작은 새말 입구 대로변이고 작은 새말은 두집메 안

쪽 마을로 광주이씨 · 풍천임씨의 세거지이나 광주이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광주이씨는 이응순(李應淳, 1926년생)의 13대조 이태한(李泰漢, 1760 ~1823)이 처음 정착한 이래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큰새말은 절터골 아래에 있던 마을로 청주한씨가 오야동 장골(長谷)에서 분가하여 살았다고 전해진다.

(3) 산천 · 기타지명

신촌동에는 가루갈이들, 독노계, 선창들, 잣내, 중반들이 있는데 모두 비행장에 편입되었다.

12. 신흥동(新興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면 탄동(炭洞)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남씨편(南氏便)과 독정리 (讀亭里)를 병합하여 탄리(炭里)라 칭하고 중부면에 편입되었다가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고, 다시 1973년 7월 성남시로 승격되면서 탄동의 일부를 갈라서 신흥동(新興洞)으로 개칭하였다. 1975년 10월 신흥 1 · 2동으로 분동되었고, 1980년 9월 1일 신흥 2동을 갈라서 신흥 2 · 3으로 개편되었다.

신흥동의 명칭은 1973년 시 승격 당시 동이 신설되면서 새롭게 부흥하자는 뜻으로 시정자문회의에서 붙인 이름이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신흥1동은 옛날 산야이었을 뿐 취락이 없었고, 신흥2동은 옹정촌(甕亭村 · 독정리)이 있었으며 신흥3동은 샛고개(間峴)라는 취락이 있었다.

옹정촌(讀亭里)은 숯골(炭洞) 동쪽에 있는 마을이다. 옹정촌의 유래는 지금 성남국민학교에서 산성동 쪽으로 가는 길이 숲이 우거져 마치 옹기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 하여 옹촌(甕村)이라 불리고 또 신흥주공아파트 자리에 정형운의 손자 정대년(鄭大年, 1503~1578)이 지은 정자(亭子,甕亭)가 있었는데, 여기서 옹(甕)자와 정(亭)자를 취하여 옹정촌이라 불렀고, 그 일대 산을 옹정산이라 칭하였다. 그 후 정자에는 선비들이 모여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하여 「옹정」을 독정리(讀亭里)로 칭하게 되었다고 전하여 진다.

옹정리에는 동래정씨 정형운(鄭亨耘)이 최초로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형운의 아들 전(筌, 1475~1513)은 대과에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에 제수되어 대교(待敎)로 승진되었으나 부친상에 슬픔이 사무쳐 병이되어 상중에 세상을 떠났다. 형운의 손자 정대년은 좌찬성을 지낸 후 옹정촌에 낙향하여 집을 짓고 사암(思菴)이라 하였는데 그의 호도 사암이니, 이는 조상을 생각한다는 뜻이다. 응달말 일대에는 동래정씨 묘역이 있었다. 정창현(鄭昌鉉, 1921년생)은 대년의 14세손이다.

샛고개(間峴)는 평양조씨의 세거지였는데 최초의 정착인은 부호군을 역임한 조계흥(趙繼興, 1534~1590)이다. 조계흥은 조선조 개국공신인 조준(趙浚)의 아우로 불사이군의 절개를 지킨 조견(趙狷, 1351~1425)의 5대손이다. 이곳에는 계흥의 13대손인 조상호(趙相鎬, 1931년생)가 세거하고 있다. 계흥은 충좌위부호군을 역임하였으나 상호에 이르기까지 자손은 출사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3. 심곡동(深谷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대왕면 심곡리(深谷里)였는데, 1914년 행정

구역 폐합에 따라 심곡리(深谷里)라 하였고,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제되었으며 1973년 7월 성남시에 편입되어 심곡동(深谷洞)으로 개칭되었다. 1975년 3월 대왕출장소에 편입되어 신촌동의 관할이 되었다.

심곡동은 인능산(仁陵山) 밑 깊은 골짜기가 되므로 깊은 동 또는 심곡(深谷)이라 하였다가 심곡동(深谷洞)으로 되었다고 한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심곡동의 자연취락은 가운데말 · 아랫말 · 양지말 · 웃말 · 응달말 · 새말로 구분된다. 가운데말에는 청주한씨 · 순흥안씨 · 경주이씨가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순흥안씨는 한림공 안명세(安名世)의 증손 안목(安睦)의 장자 안홍봉(安弘奉, 1504~1544)과 차남 안홍기(安弘起, 1521~1587) 두 형제가 심곡저수지 위 안골(장벌)에 자리잡고 살다가 현 심곡동 392-6호에 이주하였고 그 후손이 세거함으로써 안씨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다. 심곡동에는 안목의 10대손 안상정(安商政, 1934년생)등 후손들이 살고 있다.

아랫말에는 순흥안씨 · 성주이씨가 세거한 후에 진주강씨가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양짓말에는 전주이씨 · 김해김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지며 웃말에는 심곡동의 최초의 정착성씨인 교하노씨(交河盧氏)와 성주이씨 · 순흥안씨 등이 세거하였으며 응달말에는 성주이씨 · 경주이씨 · 광주이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새말은 옛날 밭이었는데 취락이 형성되면서 심곡동, 고등동 사람이 터를 잡았으나 거의 외지사람의 동네가 되었다.

성주이씨는 문열공파의 의금부도사 이징(李徵)의 4남 이창우(李昌遇, 1709~1772) 형제가 이매동에서 분가하여 이주한 이래 그의 9대손 광섭(光燮, 1937년생)등 후손이 세거하고 있다.

(3) 산천(山川)

- 당뫼산 : 심곡동과 등자리 사이의 산모퉁이다. 옛날 도당굿하며 제사지내던 곳
- 인능산 : 심곡동 뒷산 안골 뒷산
- 반등산 : 군인아파트와 저수지 사이의 산
- 봉화뚝산 : 심곡동서 서북쪽 산마루턱. 옛날 봉화를 올려 남한산성과 연락하던 곳이다.
- 쪽박산 : 저수지옆 등자골 사이의 산. 쪽박 엎어논 것 같다.
- 산골고개 : 웃말 서남간에 있는 심곡동에서 뒷골로 가는 고개길
- 서울고개 : 마을 서북간에 있는 옛날 서울 다니던 고개. 고개 넘어가 내곡동이다.
- 옴매고개 : 마을 남쪽으로 등자리를 왕래하던 고개
- 장골고개 : 심곡동서 오야동 장골로 가는 고개
- 깊은골 : 인육산(서북)에서 동남향으로 흐른 골짜기
- 뒷골 : 심곡동 서남간 산넘어 골짜기
- 안골 : 저수지 위를 말한다. 일명, 장벌이라고도 한다.
- 약수터 : 심곡동 북서간의 샘터 바위틈에서 솟아오른다.
- 심곡저수지 : 1943년 설치한 저수지로 군인아파트와 쪽박산 사이에 위치한다.

(4) 일반지명

- 가래들 : 심곡동과 등자리 경계 지점의 논인데 비행장에 편입되었다.
- 길마바위 : 효성중고등학교 후문 안에 있는 바위
- 도당터 : 마을 서쪽 끝 옛날 도당굿하며 마을제사 지내던 곳. 현재는 공동 수돗물탱크 위에서 우물고사를 대신 지낸다.
- 둔땅 : 든땅이라고 하며 현 군인 관사가 있는 자리이다.

- 마루들 : 심곡동 동쪽 비행장에 편입되었다.
- 멍석바위 : 마을 남쪽 등성넘어로 응달말 뒷산에 멍석 5~6장 깐 것 같은 넓적한 바위
- 버들섶 · 심곡동 동남간으로 비행장에 편입되었다.
- 비행기바위 : 도당터 위 바위, 비행기 모체를 닮았다.
- 살구논들 : 살구나무가 있었는데 왜인(후리가)이 살던 곳이라 한다.
- 안터 : 장벌에 안홍봉이 살던 집터
- 학두들기들 : 비행장에 편입되었다.

14. 양지동(陽地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면 지역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은행정이 · 논골 · 금광리를 병합하여 단대리(丹坐里)라 하여 중부면에 편입시켰다. 그 후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단대동에서 은행정이를 갈라서 은행동을 만들고, 1979년 9월 은행동은 은행 1 · 2동으로 분동되었다. 다시 1988년 7월 다시 은행2동은 은행2 · 3동으로 분동되고 1989년 5월 은행3동은 양지동으로 개칭하여 수정구에 편입되었다 ·

양지동은 단대천을 경계로 은행동과 경계를 이루면서 남향판의 양지쪽에 위치하여 양짓말이라 부르던 곳인데 이로 인하여 양지동(陽地洞)으로 부르게 되었다고 전한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양지동은 옛 단대동의 양지말 지역으로 문화유씨 · 광산김씨 · 연안김씨 · 평산신씨등이 세거하였다.

문화유씨는 문간공 유관(柳寬)의 11대손으로 단대동 논골에 정착한 유함형(柳咸亨)의 후손들이 분가하여 살았다. 광산김씨는 여말 · 조초(麗末 · 朝初)에 금광동에 은거하여 절개를 지킨 김약시의 후손이 분가하여 세거하였다고 전해진다.

연안김씨는 김종태(金鍾泰, 1932년생)의 17대조인 김황(金滉) 때에 자리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황은 1419년 문관에 급제하여 예조참판을 역임했고, 그의 손자 김사결(金事結)은 양양부사를 지냈다. 연안김씨는 현 문원중학교 일대에 집성촌을 이루고 세거하였다고 한다.

15. 오야동(梧野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대왕면 오야동(梧野洞)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오야리(梧野里)라 하였고,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성남시에 편입되고 1975년 3월 대왕출장소에 편입되어 신촌동(新村洞)의 관할이 되었다.

오야동의 명칭은 와실(瓦室) · 왜실 · 오야소라고도 하는데 오야리(梧野里)라 칭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야동 명칭의 유래는 예전에 기와를 구웠으므로 와실 또는, 왜실이라 칭하던 것이 오야리로 변했다는 설과 오동나무가 많았으므로 오야소(梧野所)라 했고, 오동나무 열매가 잘 열렸으므로 오야실(梧野實)이라 칭하던 것이 오야리(梧野里)로 변했다는 설이 있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오야동의 취락은 아랫말(안말) · 웃말(장골) · 왜실(오야동)로 구분된다.

아랫말은 오야동의 중간말로서 경주이씨가 세거하여왔다. 경주이씨는

국당공 월성부원군 이천(李蒨)의 후손이다. 이희종(李稀鍾, 1909년생)의 14대조 이배(李培)는 광주군 서부면 말마산(定林)에서 살던중, 마침 왜란을 당하여 왜놈을 잡아 말 두필에 얽어매고 도망가다가 처치하고 평북 가산으로 가서 살았다. 그후 아들 장손은 놔두고 두 손자를 데리고 다시 정림(定林)으로 와서 살다가 별세하자, 대왕면 사송동 천곡(泉谷)에 장사지내고 셋째 손자(仁彦의 3男)인 호조참의 이경(李䌹)이 오야동에 자리를 잡고 살게 되었다고 한다.

웃말(장골)은 청주한씨의 충성공과 후손이 세거한 곳으로 한순흠(韓淳欽 · 順根, 1933년생)의 19대조 호조참의 · 승정원부정자 한욱(韓勗,壬申~壬寅)이 정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욱의 장남 귀영(貴榮)은 어모장군, 차남 귀익(貴益)은 용양위부사과가 되었다. 귀익의 아들 진선(振善)은 호조참판을 역임하였다.

왜실은 전주이씨 세거지로 이무용(李武龍, 1929년생)의 10대조 이언선(李彦瑄, 1598~?)이 정착한 이래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3) 산천(山川)

- 뒷메산 : 오야동 뒷산
- 범바위산 : 뒷메산을 말한다.
- 죽바위산 : 장곡 뒷산 100m 정도에 큰 바위가 있는데 나무가 우거져 가리워지면 풍년이 들고 바위가 드러나면 흉년이 들어 죽을 먹게 살게 된다는 바위이다.
- 깊은골고개(장골고개) : 오야동의 윗고개로 심곡동을 왕래하던 고개
- 아랫고개 : 오야동의 중간 고개로 심곡동을 왕래하는 고개
- 요골고개 : 오야동의 아랫 고개로 오야동에서 당아래 황새머리들 · 마루들을 왕래하던 고개
- 새말고개 : 신촌동을 왕래하는 고개, 마을 옆 산의 짤두메기
- 장골 : 오야동 서쪽 마을인데 골이 깊다.

(4) 일반지명

- 가루갈이들 : 왜실 동남간의 논들
- 가문앞들 : 왜실 동쪽 전답인데 밭이 많다.
- 물쑥논게 : 오야동 동쪽 논들
- 범바위 : 뒷메산 꼭대기 신촌동 경계점에 있는 바위. 옛날 범이 가끔 나타났다고 한다.
- 장사바위 · 오야동과 십곡동 사이의 바위로 장사의 주먹 자리와 손가락 자리가 있다.
- 황새머리 : 효성중 · 고등학교 앞 들인데 비행장에 편입되었다.

16. 창곡동(倉谷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서부면 창말이었는데, 1914년 광주군 세촌면(細村面)의 세곡동을 병합하여 창곡리라 하여 중부면에 편입되었으며,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고 1973년 성남시에 편입되어 복정동의 관할이 되었다. 그후 1989년 5월 수정구에 편입되었다.

창곡(倉谷)의 명칭은 첫째, 나라에서 봄에 곡식을 대여해 주고 가을에 이 대여한 곡식을 거두어 보관했던 창고가 있었다는 설. 둘째, 조선조 말기 탄천 일대에서 생산된 군량미(軍糧米) 창고(倉庫)가 있었다는 설. 셋째, 병자호란 당시 군사들이 진을 쳤던 곳(軍用地)이며 병기를 저장했던 곳(兵器庫)라는 설이 있다.

아무튼 위에 세가지 설에서 공통된 점은 창고라는 것이다. 창고터가 있었던 것을고 보아 그 명칭이 창말 · 창골 · 창동 등에서 유래한 것은 틀림이 없는 것 같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창곡동(倉谷洞)에는 간이골(間利谷 · 外谷洞) · 매착리(梅着里) · 창말 등의 자연 취락이 있다. 간이골은 약진로의 개설로 남북으로 분리되었다. 간이골에는 전주이씨 · 광산김씨 · 파평윤씨 · 김해김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이골 서낭당이(陰村)의 광산김씨는 평양부서윤겸 평양진병마 수군첨절제사 김순성(金順誠, 1429~1481)의 후손이 정착했는데, 순성은 금광동 김약시(金若時)의 손자이다. 전주이씨는 효령대군파가 세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응달말 뒷산은 전주이씨 종산이었다고 전해진다.

김해김씨는 인천부사 김현정(金縣定)의 자손이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착리(梅着里)는 매장리(梅庄里)라고도 하는데 창말 서쪽에 있는 마을로 임씨가 살았다고 하는데, 이곳에서 임경업(林慶業, 1594~1646) 장군이 출생했다고 하는 매화낙지(梅花落地)의 전설이 있다. 일설에는 매가 채가는 형국이라고도 한다.

외곡동은 창말 바깥쪽에 있는 마을로 간이골의 양지쪽 지역이다.

창말(倉谷)은 창고가 있었던 마을로 창고의 주춧돌은 모두 가져가고 터만 남았는데, 와편이 널려있다.

창말에는 경주배씨 · 양근함씨가 처음 정착한 이래 경주이씨 · 광주이씨 · 김해김씨 · 창녕조씨 등이 세거하였다고 전한다.

양근함씨는 함진득(咸鎭得)의 9대조부터 세거하였다고 하는데, 6대조 함석호(咸石鎬)가 산것은 분명하다. 함씨종산은 상무체육관 자리다.

경주배씨는 건원능참봉을 역임한 배한손(裵漢孫, 1564~1645)의 부친 배충과(裵忠果) 때에 이주하여 대대로 살았는데, 창말의 배수만(裵壽萬, 1922년생)은 그의 14대손이다. 산성동 일대에 배씨종산이 있었다.

경주이씨는 이장춘(李長春, 1930년생)의 8대조부터 세거하였는데,

원래 서울 용산에서 살다가 큰집은 거여동으로 이주하고, 작은 집은 창말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세자골의 전주이씨는 계양군의 9대손 황해감사 이덕영(李德英, 1721~1781)의 묘를 쓰고 덕영의 5대손 석풍(碩豊) 때에 낙향하여 후손이 살고 있다. 이병옥(李炳玉, 1938년생)은 석풍의 증손이다.

(3) 산천(山川)

- 배산 : 창곡3동 앞산이 배같이 생겼다고 하여 칭한 이름이다.
- 병풍산 : 1통 뒷산으로 매착이까지 뻗은 산줄기를 칭한다.
- 안산 : 창말과 세죽골 사이의 산이다.
- 서낭당고개 : 약진로에서 남한산성(성남로)과 산성동으로 갈라지는 지역으로 옛날에 큰 서낭이 있었다.
- 천행이고개 : 매착리에서 매맡고 지나 가는데 매맞지 않고 갔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이다.
- 넓은골 : 긴골과 좁은골 중간에 있는 골짜기로 약진로 아래 지하터널 위 조씨종산 일대이다.
- 댕골 : 창말에서 외곡동 가는 길 위를 칭한다.
- 세자골 : 백제시대에 세자궁이 있어서 세자골이라고 한다. 간이골 세자궁터라는 곳(밭)에는 와편이 출토되고 있다. 또는 세집이 살아서 세집골이었는데 세자골로 변했다고도 한다. 이 일대는 전주이씨 사패지로 오씨 · 전주이씨가 세거하고 있다.
- 풀무골 : 창말서 동쪽으로 광산김씨 묘막이 있는 골짜기이다.

(4) 일반지명

- 석양들 : 창말서 외곡동 가는 길 아래들(논)을 서쪽이라 해서 칭한 지명이다.
- 성남로 : 약진로에서 남한산성으로 가는 길인데 자유당 때 이대통

령이 산성에 가느라 닦았기 때문에 이박사의 호를 따서 우남로(雩南路)라고도 했다.

- 숲평 · 창말 앞에 오리나무 등을 방풍림으로 심었는데 이를 칭한다. 숲위를 숲안이라고 한다.
- 약진로 : 창곡동과 복정동 사이의 도로로, 옛날 단대동 방향에서 서울 왕래할 때 다니던 길이다.
- 진터벌 · 행정학교-상무체육관 자리인데 병자호란때 청군이 진을 치고 주둔하였던 곳이라 한다.
- 창위 : 창말 창고터 위를 칭하는 말이다.
- 창터 : 호란때 병기를 보관했던 창고터, 또는, 군량미를 보관했던 창고터라 한다. 밭에는 와편이 널려있다.

17. 태평동(太平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면 탄동(炭洞)이었던 곳으로 1914년 행정구역 폐합시 남씨편(南氏便)을 합쳐서 탄리(炭里)라 칭하고 중부면에 편입되었다가 1971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고, 1973년 7월 성남출장소 수진지소(壽進支所)와 탄리 일부를 병합하여 태평동(太平洞)이라 개칭하였다. 1975년 10월 태평1 · 2동으로 분동하고 1980년 9월 태평1동을 갈라서 태평1 · 3동으로 하였다. 1989년 5월 수정구에 편입되고 1990년 1월 태평2동을 태평2 · 4동으로 분동하였다.

태평동 동명의 유래는 동 창설시 성남시청 시정자문회의에서 근심 걱정이 없는 태평한 지역을 만들자는 뜻으로 지은 이름이다.

(2) 취락과 세거성씨

태평동의 자연취락은 남씨편(南氏便) · 숯골 등으로 불리운다. 남씨편엔 임진왜란 무렵 의령남씨들이 부락을 이루기 시작하였는데 광주이씨 · 안동권씨 · 풍양조씨 · 순흥안씨 등이 사는 부락에 비하여 세도가 컸으므로 남씨들이 모여서 사는 마을이라 하여 「남씨편」이라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탄리(炭里)는 숯골이라고 하는데 역시, 의령남씨의 세거지요 집성촌이며 온양방씨의 세거지였다.

숯골의 지명은 설이 구구한데 첫째, 조선조 효종(孝宗)때 남씨 중에 칭(稱)의 7대손 남연(南淵, 1650~1728)이라는 사람이 살았는데 조상을 정성으로 섬기고 효성이 지극하여 세상의 칭송이 자자했다. 그의 아호가 탄수(炭叟)인지라 그의 호를 따서 탄수가 사는 탄골로 불리우다 숯골로 변했다고 한다. 둘째는 현재 태평동과 신흥동을 흐르는 냇물을 탄천(炭川)이라 하는데, 옥황상제가 삼천갑자 동방삭이를 잡기 위해 보낸 사자가 숯을 갈던 개울이라는 전설과 관계가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는 설과 셋째, 여름 장마철이면 홍수로 인한 폐해가 심하여 농민들이 탄식하는 곳이라하여 탄천(炭川)이라는 설이 있다. 넷째, 국가의 연료 채취장으로 숯을 구워서 서울로 본내던 곳에서 숯골 또는, 탄리(炭里)로 불리우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고 하겠다.

숯골(炭里)은 의령남씨 · 온양방씨 · 풍양조씨의 세거지라고 전해진다. 의령남씨는 영의정 남재(南在, 1351~1419)의 자손이 세거하였다. 재의 아들 경문(景文)은 탄리(숯골)에 거주하면서 의성군 지(智) · 예문관 직제학 간(簡) · 태종의 부마 휘(暉) 등 아들 셋을 두었는데, 지의 둘째아들 내첨사부정 칭(稱)의 후손이 세거함으로써 대체로 부정공파의 집성촌을 형성하였다. 칭의 아들 변(忭)은 삭령군수이고 군수의 아들이 7형제인데 세웅(世雄)은 병조참판, 세형(世衡)은 부사, 세평(世坪)은 안성군수, 세준(世準)은 이조참판, 세측(世則)은 병절교위, 세건(世健)

은 예조참판, 세언(世彦)은 인천부사를 역임하였다. 경문(景文)의 자손이 탄리를 본거지로 번성하고 인물이 배출되었다.

태평동 숯골에는 세준(世準)의 16대손 남기웅(南基雄, 1938년생)등이 세거하고 있다.

풍양조씨는 성남시의회 조명천(趙命天)의원의 7대조가 천호동에서 이사와 자리잡은 이래 지금까지 정착하고 있다.

경주정씨는 도촌동 정광환(鄭光煥)의 8세손 협문(浹文)의 장남 행발(行發, 1858~1936)이 이주하여 5대손 수웅(秀雄, 1940년생)에 이르고 있다.

온양방씨는 온수군 방운(溫水君 方雲)의 15대손 관찰사 방순(方恂)이 처음 살았는데, 방순은 고려말 절의를 지킨 사람으로 동료인 이원령(李元齡, 李集)과 더불어 광주로 이주하여 숯골에 은둔해 왔던 중 붙잡혀 황해도 금촌에서 節死하였다. 그의 묘는 나라의 예장으로 현재 한미병원 자리에 부인과 합장되었다. 성남시 개발로 1969년 이장했는데, 부인의 유골은 흔적이 있으나 순(恂)의 유골은 발견되지 않았고, 유물만 있는 것으로 보아 시신을 찾지 못하여 의장(衣葬)으로 지낸 것 같다는 후손의 말이다.

방순의 차녀가 남경문(南景文)에게 출가하면서 숯골에 남씨와 사돈지간이 되고 남씨네가 외가 근처로와서 정착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니까 남씨네 보다는 방씨가 먼저들어온 셈이다. 현재 온양방씨는 대부분 상대원동 보통골(보곡동)에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第 3 章 중원구(中院區)

1. 갈현동(葛峴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 갈현리(葛峴里)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독점 새터말을 병합하여 갈현리라 칭하였다. 1973년 7월 법정동으로 성남시에 편입되고 1875년 3월 돌마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여수동의 관할이 되었다.

갈현동(葛峴洞)의 유래는 갈마치고개에서 유래한다. 고개 밑이 됨으로 갈마치 또는, 갈현이라 칭한다. 그런데 갈현에 대하여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옛날부터 칡넝쿨이 많았으므로 갈현(葛峴)이라 하였다는 설과 옛날 선비들이 한양으로 과거보러 갈 때에 말에 물을 먹여 말의 갈증을 풀어주고 떠났다고 하여 갈마치(渴馬治) 또는 갈현(渴峴)이라 한다는 것이다. 평택임씨 족보에는 갈현(渴峴)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취락과 세거성씨

갈현동의 자연취락은 독점을 중심으로 새터말 · 아랫말 · 웃말 등이 있다. 독점말은 갈마치 동쪽에 있는 마을로 현 153번지에 옛날 옹기점이 있었다고 한다.

새터말(新基洞)은 샘터말이라고 했는데 요즈음은 신기동으로 칭하고 있다.

갈현동에는 김해김씨 · 밀양박씨 · 평택임씨 등이 세거하였는데, 평택임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김해김씨, 밀양박씨는 이주하여 알 길이 없다.

독점말의 평택임씨는 임희수(林熙洙, 1938년생)의 8대조인 임진구

(林鎭九, 1688~1730)가 정착한 이래 자손이 세거하여 온 것으로 전해진다. 진구는 통덕랑 정운(淨運)의 장남으로 광주 삼리에서 살다가 동생 진은(鎭殷), 진칠(鎭七)과 함께 갈현동 독점말 밀양박씨의 처가집 근처로 이주하였다. 진사 진구의 아들 건한(建漢)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이고 손자 철근(澈根)은 통훈 대부 옥천현감이다. 통훈대부 진은의 손자 수근(洙根)은 통훈대부 군자감정, 수근의 아들 용욱(容旭)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이었다. 통정대부 진칠의 아들 일한(日漢)은 훈련봉사를 역임하는 등 자손이 번성하고 출사하여 갈현동의 임씨종중을 형성하고 있다.

새터말(新基洞)에는 원래 전씨(全氏)가 살았는데, 현재 문화유씨는 유창진(柳昌眞, 1910년생)의 부친 은준(殷俊) 때에 여주서 이주하여 살고 있으며, 경주정씨는 정상순이 도촌동서 이주하여 살고 있다. 밀양박씨도 섬말서 이주하여 왔다고 한다.

2. 금광동(金光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면 단대동(丹垈洞)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은행정이 · 논골 · 금광리를 병합하여 단대리(丹垈里)라 하여 중부면에 편입되었다.

단대동은 1976년 10월 단대1 · 2동으로 분동되었으며 단대2동은 1980년 9월 다시 단대2 · 3동으로 분동되었다. 그후 1989년 5월 단대2동은 금광1동(金光1洞), 단대3동은 금광2동(金光2洞)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중원구에 편입되었다.

금광동(金光洞) 동명의 유래는 금광리(金光里)라는 자연취락의 이름을 살려서 동명(洞名)으로 한 것이다. 금광리(金光里)에는 고려말

불사이군의 절개를 지킨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인 김약시(金若時)가 은거하여 살다 별세하였는데, 그 자손이 벼슬에 오르고 집성촌을 이루어 세상 사람이 광산김씨(光山金氏)네가 사는 마을이라 하여 금광리(金光里)라 칭하였다.

단대쇼핑 부근이 금광동의 입구로 양쪽 산이 마주 접근하여 병목처럼 지형이 이루어져 광통(光通)머리라 칭하기도 하였다. 김약시는 자손들에게 내가 살던 이 고을을 세상에 전하지 말라고 하였다 해서 일명 부전오동(不傳吾洞)이라고도 한다.

(2) 취락과 세거성씨

금광동의 자연취락은 금광리가 웃말 · 아랫말 · 중간말로 불리었다. 금광동에는 광산김씨 · 남양홍씨와 뒤에 인동장씨 등이 세거하였다고 전해진다.

광산김씨는 김약시(金若時, 1335~1406)가 은거하였고 그 자손이 세거하였는데, 신구전문대 캠퍼스는 김약시 등의 묘소가 있던 광산김씨 종산이다. 김약시의 아들 췌(萃)는 목사, 절(節)은 현감, 원우(元祐)는 감무를 지냈고, 손자 순성(順誠)은 평양서윤을 지냈는데, 5세손 지남(止男, 1559~1631)은 광해군때 인목대비 폐모론에 반대하였고, 저서로 용계집(龍溪集)을 남기는 등 명문의 빛을 잃지 않았다. 김춘수(金椿洙, 1919년생)는 약시의 19대손이다.

남양홍씨는 익산군파로 홍학표(洪學杓, 1935년생)의 10대조인 홍창(洪昶, 1634~1798)이 처음 정착한 이래 세거하여 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인동장씨는 옥천부원군의 16대손 장규덕(張圭德)이래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3. 도촌동(島村洞)

(1) 동명의 유래

도촌동은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 도촌리(島村里) 또는 옹점리(甕店里) 지역이었는데 1914년 광주군 돌마면 도촌리(島村里)라 칭하였고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제되었다. 1973년 7월 성남시 도촌동(島村洞)으로 개칭되고 1975년 3월 돌마출장소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89년 5월 중원구에 편입되었다.

도촌동(島村洞)의 동명칭은 마을 앞과 뒤에 하천이 있어서 마치 섬처럼 생겼다 하여 섬말(島村)이라 칭한데서 유래되었다. 일설에는 1925년 을축년 대홍수 때 마을만 섬처럼 남아서 섬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하나, 조선시대 지리지에 도촌리(島村里)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무근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912년과 1917년에 발간된 지지(地誌)에는 옹점리(甕店里)로 기재되어 있는데, 예전에 이곳에서 옹기를 구웠는지는 알 수가 없다.

(2) 취락과 세거성씨

도촌동엔 480-3, 484, 485번지와 산 83번지에 32기의 지석묘가 발견되어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거주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촌동에는 섬말(島村) · 양달말 · 응달말 · 중말(中村) 등의 취락이 있다.

섬말은 갈현동 샛터말과 중말 사이에 있는 마을로 앞 · 뒤에 하천이 있어 섬같다하여 섬말이라 한다. 또 마을 입구 초입에 무덤처럼 생긴 산을 섬산(통뫼)이라 칭한데 기원하고 있다는 설도 있다. 옛날에는 신씨가 많이 살아 신촌(申村)이라고도 칭하였다고 한다.

이곳은 인조때 반란을 일으킨 이괄(李适, 1587~1624)의 아버지 묘가 있었다. 이괄은 병조참판 이육(李陸, 1438~1498)의 후손인데 역적으로 죽게 되자 그 부친의 묘자리가 용의 혈이라 파묘되었다는 설이

있으나, 양평군 백병산에 있었다는 설이 있어서 어느 것이 정설인지 알 수 없다. 이 일대는 고성이씨 묘역이 많다는 점과 양평엔 여주강 언덕이 된다는 점에서 두 설에 모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다.

보통 양짓말은 섬말이라고 하는데 이곳에는 진주강씨 · 밀양박씨 · 평산신씨 · 경주정씨 · 경주최씨 · 남양홍씨등이 정착하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

경주정씨는 양경공파의 정광환(鄭光煥, 1538~1610)이 고양군에서 이주하여 정착한 이래 자손이 세거하여 왔다. 광환은 운용(雲龍)의 차남으로 성남시내 도촌동 · 고등동 · 태평동 · 경주정씨의 파조(派祖)가 되었다. 광환의 9세손 중에 행발(行潑)은 태평동으로 분가하고, 차남 행금(行錦)은 고등동에 분가하였다. 광환은 아들 형제를 두었는데 차남 탁(琸)은 가선대부이고 손자 유석(惟奭)은 통정대부, 유연(惟演)은 가선대부이다. 응달말에는 사는 종친회장 정장훈(鄭長薰, 1939년생)은 광환의 12세손이다.

경주최씨는 인천도호부사 최제(崔濟)의 7남 최상룡(崔商龍, 1668~1738)이 양주에서 분가 이주하여 정착한 이래 자손이 세거함으로써 양짓말의 원주민촌을 형성하게 되었다고 한다. 상룡의 장남 업갑(業甲)은 무과에 합격했고 차남 탑갑(榻甲)은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이었다. 손자 명희(命熙)는 증 가선대부이고 명순(命恂)은 첨지중추부사이었다. 상룡은 응달말 경주정씨네 딸을 부인으로 맞이하였고 그런 연유로 도촌동으로 이주한 것 같다. 최씨네는 정씨네와 외척관계로 인하여 정씨네 산에 상룡 이하의 묘를 쓰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최병학의 말이나 최씨네 산둥기이전이 최근에 이루어졌다는 정장훈의 말에서도 믿을 만하다. 도촌동 최병섭(최秉燮, 1927년생)은 상룡의 12세손이다.

밀양박씨는 박성(朴性)이 여주에서 이주하여 그 자손들이 세거함으로써 양짓말의 원주민이 되었다고 전해진다. 성(性)의 4대독자 통정대부 성환(聖煥)이 4남을 두고 그 후손이 번성하였는데, 시열(時烈)은

가선대부, 시령(時令)은 동지중추부사, 시길(時吉)은 무과에 합격하였다. 양짓말 박달준(朴達俊, 1911년생)은 성(性)의 8대손이요 시길의 현손이다.

남양홍씨는 승정원 우승지를 지냈고 병자호란때 강화도에서 적병이 쳐들어 오자 화약고에 불을 지르고 그 속에 투신 자결한 홍명형(洪命亨)의 아들 홍처도(洪處道, 1625~1691)가 영양현감을 그만두면서 도촌리에 이사와 은거하여 세거하다가 여수동 285번지에 사는 홍순익(洪淳翊, 1925년생)의 부친때에 이주하였다고 한다.

응달말은 안산 밑에 자리잡은 북향마을이다. 응달말에는 경주정씨 집성촌인데 양지말(섬말)과 거의 같은 시기에 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응달말 뒷산에는 정탁(鄭琢)의 묘와 경주최씨 묘역이 있다.

중말(中村)은 섬말과 여수동 중간 지점인데, 대나무가 있어서 죽말(竹洞), 가난해서 죽만 먹어서 죽말이라고도 한다는 설이 있다. 이곳은 고성이씨 · 전주이씨 등이 세거하였다. 남쪽을 응달말 북쪽을 양짓말이라 한다.

고성이씨는 좌의정을 역임한 이원(李原, 1368~1429)의 6세손 이오(李塙)가 병절교위로 서울에 살다가, 조정이 어지러워지자 벼슬을 버리고 중말에 낙향하여 세거하였다고 전하여 진다. 그는 이곳 양지말 언덕에 느티나무 네 그루를 심고 그의 호를 사괴정(四槐亭)이라 했는데 아들도 4남을 두었다. 오의 장남 훈(塤)의 부인 우봉변씨는 도적을 막다 죽음을 당하고 남편은 무사하였다. 이로 정려를 받았다.

산에는 이원의 부친 이강(李岡)의 단을 비롯하여 그 후손들의 묘가 석물과 함께 고성이씨 집성촌을 증명하는 듯하며, 마을에는 원의 재실과 신도비가 있었다. 원의 아들 7형제가 모두 벼슬길에 올라 후세가 창성하였다.

원의 아들 대(臺)는 중추원부사, 곡(谷)은 대호군, 지(垣)는 한성소윤, 비(埤)는 동지중추원사, 상(塲)은 상호군, 증(增)은 영산현감, 지

(墀)는 대호군겸 승문원 참교이었다. 이원의 7남인 지(墀)의 아들 이육(李陸, 1438~1498)은 내외 요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애국정신으로 일관하였고, 군서(群書)를 많이 알아 청파극담(靑波劇談)을 저술하였다. 명나라 사신으로 갔다 명황제로부터 하사받은 백옥피리(白玉笛)가 전해지고 있다. 여수동 이기환(李基煥, 1939년생)은 오의 13세손이다.

(3) 산천(山川)

- 안산 : 섬말 안쪽에 있는 산으로 응달말과 야탑동 상탑에 걸쳐 있다. 산 일부가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 이왕산(利旺山) : 도촌동의 주산으로 섬말과 야탑동 상탑과 광주읍 직리에 걸쳐 있는 산이다. 산 마루턱에 서낭당이 있다.
- 진진산 : 두루봉의 연봉으로 섬말 동쪽의 얕은 산이다.
- 길마봉 : 섬말과 광주읍 직리에 걸쳐 있는 산으로 산세가 길마형국이라 한다.
- 종지봉 : 두루봉과 이왕산 사이에 있다. 아주 먼 옛날 천지개벽 때 종지만큼 남아 종지봉이라 칭하게 되었다 한다.
- 독고개 : 섬말과 갈현동 샛터말 사이에 있는 농로이다.
- 마지기고개 : 양지말과 하대원동 사이에 있는 도로인데 폐로되었다.
- 비성골고개 : 중말과 야탑동 중탑 사이에 있다. 고성이씨 선대 묘비가 있어 비석골이라 한다.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 이왕이고개(李旺峴) : 도촌동 · 여수동 주민들이 광주 · 경안장에 갈 때 이용하던 고개로 섬말과 광주읍 직리 사이에 있다 ·
- 넘본데골 : 이왕산 줄기로 능골 동쪽에 있는데, 골짜기가 넓다하여 넘본데골이라 한다.
- 능골 : 응달말 샛골 동쪽인데 임금의 무덤을 쓸만한 명당자리가 있다고 한다.
- 막내남골 : 종지봉과 이왕산 사이에 있으며 섬말과 광주읍 직리에

걸쳐있다. 섬말 제일 위에 있으며 뗄나무가 많았다.

- 산소골 : 야탑동 중탑과 중말 · 응달말에 걸쳐 있는데, 중말지역에는 경주이씨 선대묘가, 응달말지역에는 고성이씨 선대묘가 많다.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 샛골(細谷) : 골짜기가 좁다하여 샛골이라 칭하는데, 능골과 응달말 사이에 있으며 평산신씨 묘가 많다.
- 집골(家谷) · 예전에 집이 있었다 하며 농경지가 되었다.
- 뒷개울 : 양짓말 뒤(북)에 있는데, 갈현동 이부재고개에서 발원하여 양짓말-증말-여수동 벌말을 경유 탄천에 유입된다.

(4) 일반지명

- 국논들 : 이왕산고개 서쪽으로 진산과 능골 사이에 있는 들이다.
- 도촌교 . 증말과 섬말 사이에 있다. 총연장 30m, 교폭 4m로 1984년 12월에 준공되었다.
- 맷돌바위 : 두개의 바위가 맷돌처럼 포개져 있으며 병풍바위 서쪽 200m 쯤에 위치하고 있다.
- 병풍바위 : 안산 중턱에 있는 큰 바위로 병풍처럼 생겼다.
- 샤꾸모퉁이 : 막내남골 동쪽으로 이곳을 넘으면 광주읍 직리에 이른다.
- 유산터벌 · 산소골 북쪽에 있다. 대부분이 논이며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 차돌박이 : 섬말과 갈현동 샛터말 사이 독고개 동쪽으로 차돌이 많다.
- 통뫼 : 섬말 초입에 동그랗게 생긴 지형으로 예전에 변씨 묘가 있었다하여 변장소라고 칭하기도 한다. 벌판에 무덤처럼 솟아 홉사섬같이 생겼다.

4. 상대원동(上大院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면 지역으로 대야원(下大院洞) 윗쪽에 있으므로 웃대원 또는 상대원 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보통골 · 중간말과 군내면의 사기막골을 병합하여 상대원리(上大院里)라 하여 중부면에 편입되었고, 1973년 성남시에 편입되어 상대원동(上大院洞)으로 개칭되었다. 1975년에 상대원 1 · 2동으로 분동되었고, 1980년에 상대원1동은 1 · 3동으로 분동되었다. 1989년에 중원구에 편입되었다.

상대원동 동명의 유래는 상대원 일대가 보곡동(普谷洞)이었는데, 송언신(宋言愼)의 서원이 있는 곳(上大院)과 이집(李集)의 서원이 있는 곳(下大院)을 구별하여 상대원(上大院)과 하대원(下大院)으로 개칭한 것이라 한다. 그러나 고려시대에 대원(大院)이 있어서 위쪽을 상대원 아래쪽을 하대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상대원동에는 보통골(普谷洞) · 사기막골(沙器洞) · 새말(新村) · 송촌(宋村) · 안골 · 중간말 · 황촌(黃村)등이 있다.

보통골은 온양방씨 · 남원양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온양방씨는 아호가 보통(普通)이요 힘이 장사인 방유량(方有良)이 정착한 이래 그 후손이 세거하였는데 보통골(普谷洞)은 「보통이 사는 골」에서 유래한다.

보통골의 유량은 숯골(탄리)에 은둔하였던 방순(方恂)의 3남인데 보통골에 분가하여 후손이 세거함으로써 방씨 취락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포은 정몽주 문인으로 상주목사를 역임한 유량의 아들 재(載)는 태백산에 은거하였으며, 택(澤)은 조선조 개국공신, 숙(淑)은 군수, 심(深)은

첨정이었다. 손자 천록(天祿)은 부사이고, 을록(乙錄)은 부사직, 을경(乙卿)은 현령이었다. 보통골에는 방근영(方根榮, 1931년생)등 후손이 살고 있다.

송촌(宋村)의 여산송씨는 정주목사 송수(宋壽, 1470~1518) 때에 살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진다. 수(壽)는 광주이씨 광원군 이극돈(李克墩, 1435~1503)의 사위로 장인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극돈이 생전에 사위를 자기 곁에 묻어달라고 해서 극돈의 묘 옆에 장사지냈다는 것이다.

부인 이씨는 남편이 일찍 죽자 친정 근처에 살면서 아들 넷을 성공시켰다. 아들 맹경(孟璟)은 중추부사 · 오위도총부부총관, 숙경(叔璟)은 사도첨정 · 왕자사부, 말경(末璟)은 양천현령, 범경(範璟)은 주부이었다. 손자 희민(希敏)은 한성부좌윤, 희성(希聖)은 의금부도사, 율(嶅)은 종성부사, 윤(崙)은 창녕현감, 입(岦)은 부사과이었다. 상대원에 세거한 송씨는 수(壽)의 3남인 말경의 후손인데, 말경의 손자 언신(言愼, 1542-1612)은 퇴계의 문인으로 5도 관찰사와 5조의 판서을 역임하였다. 송호범(宋鎬範, 1930년생)은 말경(末璟)의 17세손이다.

황촌(黃村)의 창원황씨는 황촌에 거주하는 황재남(黃再男,圭在, 1939년생)의 11대조인 황윤구(黃胤耉, 1607~1691)가 강원도 철원에서 이거하여 정착한 후 후손이 세거하여 황씨 촌락이 형성되었다. 윤구는 금성현령 담(澹)의 차남으로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를 역임했다. 윤구의 아들 복(鍑)은 진사, 창(錩)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선(鏇)은 증호조참판인데 그의 아들 성하(聖河)는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를 역임했다.

밀양박씨는 박형원(朴亨遠, 1945년생)의 7대조 통덕랑 박장민(朴長民, 1758~1813)의 부인 여산송씨가 그 아들과 함께 친정집 근처로 이주함으로써 그 후손이 세거하였다. 장민의 5대손 수병(壽秉)의 부인 전주이씨(李伯由后)는 청상과부로 만고풍상을 겪으면서 독자 용철(容

哲)을 잘 길러내고 세전된 유품과 문적을 보전하여 세상 사람들의 귀감이 되어 문중과 유림이 1990년 정열비(貞烈碑)를 세웠다.

남원양씨는 우참찬 중추부사를 역임한 양연(梁淵, ?~1542)의 후손이 세거하였는데 양명득(梁明得, 1909년생)은 양연의 16대손이다.

사기막골은 옛날 백제시대에 사기를 굽던 곳이라 불리워진 이름인데, 사기그릇 조각, 사기그릇을 굴때에 사용하던 그릇 받침 등이 출토되고 있다.

이곳에는 임(林)씨와 경주 최씨가 정착한 이래 김해김씨 · 진주강씨 · 해주정씨가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해김씨는 석성공파(石城公派)의 후손 김진희(金震熙)가 처음 정착하여 9대째 살고 있으며, 진주강씨는 통계공파의 16세손인 강만영(姜萬永,乙卯~乙酉)이 이천에서 조부 강세전(姜世傳)을 따라 서울에 와서 살다가 조부가 별세하자 이천으로 모시기 위하여 내려가던 도중, 길이 저물어 진외가(김씨) 댁에서 머무르게 되었는데, 시신을 붙잡고 이천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였다. 그 이유는 이천에서 산소를 호랑이혈에다 써서 자손에 변사가 자주 일어나 조부 세전이 만영을 데리고 개구멍으로 빠져 도망왔듯이, 이천으로 내려가면 또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강씨네가 정착하게 되었는데 강홍구(姜興求, 1925년생)는 강만영의 7대손이다.

해주정씨는 남한산성에서 이주하여 왔다고 한다. 새말(新村)은 6 · 25동란후에 새로 생긴 마을인데 박씨 등이 살고 있다.

중간말은 사기막골과 보통골 사이에 있는 마을로 사기막골의 김해김씨가 분가하였다.

(3) 산천(山川)

- 검담산 : 보통골 뒷산 일명 망덕산이라고 한다.
- 푸링산 : 보통골 남서방향에 길게 놓인 산. 장등넘어가 갈현동이다.
- 벌렁고개 : 논골서 농사지어 나르던 고개로 힘이 들어 헐레벌떡하

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 보통골고개 · 보통골서 사기막골로 가는 고개
- 이배재(二拜峴) : 광주읍 목현리(木峴里)로 이어지는 고개로 상대원 동쪽에 있는데 광주장 보러가는 길로 퇴계 이황(李滉)이 벼슬을 그만두고 낙향하다가 이 고개를 넘게 되었는데, 넘고 보면 황성이 보이지 않으므로 임금계신 한양을 향해 두번 절하고 떠났다고 하여 이배재라 칭하게 되었다 한다.
- 가락골 : 사기막골 동쪽 골짜기이다.
- 둥골 : 작은골과 탐탁골 사이의 골짜기이다.
- 부중골 : 사기막골 남서간에 위치해 있다.
- 은골 : 보통골 남쪽 광주가는 도로가 있는 골짜기이다.
- 작은골 : 사기막골 북쪽 화성사 뒷골짜기이다.
- 절골 : 사기막골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절이 있다가 바퀴벌레 때문에 폐사되었다고 한다.
- 탐탁골 : 작은골과 가락골 사이에 있다.

5. 성남동(城南洞)

(1) 동명의 유래

성남동은 본래 광주군 세촌면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에 탄리(炭里)라 해서 중부면에 편입시켰다. 1961년 재향군인회 모란단지가 개척되면서 갑자기 가시화됨에 따라 1964년 2월 중부면에 성남출장소를 두었다가 1971년 9월 경기도 성남출장소로 승격되고, 1973년 7월 성남시로 승격됨에 따라 탄리를 성남 · 신흥 · 태평 · 중동의 4동으로 분할하였다. 이에 따라 수진의 일부, 단대리 일부, 하대원리 일부 지역과 탄리 일부가 병합되어 성남동(城南洞)으로 분리 독립되었다.

성남동명(城南洞名)은 성남시가 개발되기 전에 가장 먼저 개척되었던 지역이므로 성남시의 상징이 되어야 한다고 해서 성남(城南)의 명칭을 그대로 붙인데서 연유한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성남동지역은 자연취락이 없었던 임야나 전답이었으므로 세거성씨는 찾을 수 없다. 다만 1961년 이북출신인 예비역 육군대령 김창숙이 「재향군인자활단」을 조직하여 재향군인 가족 50여 세대를 이주시켜 움막을 지어 살게 하고 자활의 발판으로 삼고 명칭을 자기의 고향인 이북 평양 모란봉에서 「모란(牡丹)」을 취하여 모란이란 새 지명이 붙게 되었다.

한편 지역개발을 꿈꾸던 김창숙은 현 공용터미널에 5일장을 개설하고 모란우체국과 모란학원을 설립하는 등 도시화를 가속화하여 수목(樹木)은 사라지고 촌락이 아닌 도시지역으로 급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성일여자고등학교 옆에는 이덕량(李德良, 1435~1487)의 묘등 완산이씨의 묘역이 남아 있다.

6. 여수동(麗水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 여수동(麗水洞) 지역이었는데 1914년 광주군 돌마면 여수리(麗水里)라 칭하였고,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 1973년 7월에는 성남시 여수동(麗水洞)으로 개칭되었고 1975년 3월 돌마출장소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89년 5월 중원구에 편입되었다.

여수동(麗水洞)이란 명칭은 이곳에 처음 정착하였다는 김윤탁(金允濯)이 마을 앞의 개울이 유난히 맑고 깨끗하다 하여 천자문에 나오는

글귀를 인용, 금생여수(金生麗水)라 칭한데서 유래하였다고 전해진다. 일명 예술, 여수울이라고도 한다. 결성장씨 개성파보에는 여수동 소만말 장씨 종산이 광주 석촌면(石村面)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돌마면을 한자화한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지(1982)에는 「이조초에 가차률리(加遮栗里)라 부르던 곳인데 선조때 임진왜란을 치룬 후에 하오리(下吾里)라 부르다가 1915년부터 여수리(麗水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순천김씨 족보에는 윤탁 이하의 묘소가 여수리(麗水里)로 기록되어 있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여수동에는 덕지벌 · 벌말 · 살나드리들 · 샛터말 · 소만말 · 속말 · 안말 · 회천말 등의 자연취락이 있다.

덕지벌은 그멀지기들과 탄천 사이에 있던 마을로 큰 벌판에 있어 덕지벌이라 칭하였다. 이곳에는 유씨 · 김씨 · 홍씨가 살았는데 하천의 범람으로 1960년대 폐동되었다.

벌말은 갈매기살이 명물로 등장한 음식점으로 이름난 곳인데, 안말 남쪽 허허벌판에 있어 벌말이라 칭한다. 이곳에는 고성이씨 · 동래정씨 · 평양조씨 등이 세거하여 왔는데 분당지구에 편입되어 폐동되었다.

살나드리들(마을)은 덕지벌 남쪽에 있던 마을로 방씨 · 최씨 · 홍씨 등이 살았는데 1960년대에 농경지로 변모되었다.

샛터말은 회천말에 살던 전주이씨 후손들이 분가하면서 새로 취락이 형성되었다.

소만말은 소(牛)가 누워있는 형국(臥牛穴)이라 하여 칭하게 되었다. 이곳에는 순천김씨 · 남양홍씨 · 전주이씨 · 결성장씨 등의 세거지로 알려지고 있다.

결성장씨는 결성부원군 장사(張楒)의 18세손으로 병조참판겸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역임하였으며 장씨 8관(八貫)의 족보를 10년간에 걸쳐

처음 편찬한 장취오(張聚五, 1684~1770)가 그의 부친 절충장군 장시서(張時瑞, 1653~1706)의 묘를 외가(남양홍씨) 동네인 여수동에 쓰고 연고를 갖게 되었다. 그후 취오의 장손(長孫) 장이검(張履儉)이 광주에서 3대를 살다가 충청도로 이주하였다. 마을 뒷산은 장씨 종산(宗山)이었다. 이검의 동생인 이신(履信)의 후손이며 시서의 9대손 기덕(基德, 1920년생)은 양평군 서종면 벽계에 세거하고 있어, 시서의 묘는 양평으로 천장하였다.

남양홍씨 중 일부는 도촌동에 정착한 홍처도(洪處道)의 후손이 이주하여 살고 있다.

속말은 산속 깊은 골짜기에 위치한 취락이라 속말이라고 하는데, 소만말에 살던 순천김씨 후손들이 분가하여 살기 시작하였고, 파평윤씨 · 전주이씨 · 평양조씨 등의 세거지가 되었다.

순천김씨는 상의원정 김사원(金嗣源)의 차남 윤탁(允濯)이 판교에서 분가하여 정착한 이래 세거하여 왔다. 울진 현령을 역임한 윤탁은 임진왜란 때 순절하여 의관(衣冠)으로 장사지냈다. 윤탁의 아들 자한(自漢)은 충자위 부호군이고, 자숙(自淑)은 해주진 수군병마만호이고, 손자 언국(彦國)은 충자위 부호군, 서룡(瑞龍)은 동몽교관이다. 여수동엔 윤탁의 15대손 봉연(鳳淵, 1934년생)이 살고 있다.

전주이씨는 완성부원군 이백유(李伯由, 1352~1399)의 부인 파평윤씨가 친정집에서 별세함으로 여수동에 장사지내고 그 자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유의 아들 속(粟)은 통훈대부 도승지, 자(粢)는 한성판윤, 균(稛)은 이조참의이었다. 이곳에는 균의 자손이 세거함으로써 성남의 토착민을 이루었다. 균의 현손 무주부사 예(藝)가 아들 여섯을 두었는데 여수동엔 장남 순신(純臣)과 3남 청신(淸臣)의 자손들이 살아왔다. 여수동 뒷골에는 이대열(李大烈, 1946년생)의 19대조인 백유(伯由)의 부인 정경택주 파평윤씨의 묘와 그 옆에 윤씨의 친정어머니 묘가, 그 건너편에는 백유의 동서인 조견(趙狷)과 그 아들 석산의 큰

묘가 있다.

안말은 여수동 중심지에 자리잡은 마을로 동에는 회천말, 서에는 소만말, 남에는 벌말, 북에는 속말 등이 있다. 이곳에는 순천김씨 · 전주이씨 등이 정착하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 회천말은 안말 동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옛날 이 마을 서당 선생의 호가 회천이라 그 호를 취해서 회천말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이곳엔 고성이씨 · 전주이씨 · 남양홍씨 등의 세거지로 알려지고 있다.

(3) 산천(山川)

- 빨부리산 : 여수파출소 동쪽에 있는 산으로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 샛터말고개 : 샛터말과 속말 사이에 있는 고개이다.
- 소막고개 : 소만말과 지방도 385번 도로 사이에 있는 고개
- 하대원고개 : 안말과 하대원동 사이에 있는 소로이다.
- 뒷골(後谷) : 회천말 뒤(동)에 있는 골짜기 말한다. 이곳은 명당자리가 많은데 평양조씨 · 전주이씨 · 순천김씨 · 남양홍씨 등의 묘가 있다.
- 밭소막치골 : 지방도 385번 도로 동쪽의 좁은 골짜기이며 농경지가 대부분이다.
- 삼태기골 : 삼태기 처럼 오목하게 생긴 좁은 골짜기로 대부분 논이다.
- 웃터골 : 안말 위(동북)에 있어 웃터골이라 칭하며 이곳에 검바위가 있다.
- 동경내 : 도촌동 소재 이왕이고개와 갈현동 소재 이부재고개에서 발원하여 도촌동 섬말 · 중말 · 여수동 벌말을 경유하여 탄천에 유입되는 하천이다.
- 못우물 : 웃터골 동쪽 논 가운데 있는 옛 안말의 대동우물로 농업

용수이다.

- 에게수우물 : 그멀지기들 논 가운데 있는데 삼남지방 사람이 한양 갈 때에 마시던 이름난 우물
- 옻우물 : 회천말 동쪽 산 밑에 있다.

(4) 일반지명

- 검바위 · 바위가 검게 생겨 검바위라 칭한다. 이 바위에 구멍이 있는데, 두 사람이 먹을 양의 쌀이 나왔다 하며 일명 쌀바위라고 한다. 검바위는 근래 힌바위로 변했다.
- 거멀지기들 : 논에 거머리가 많아 그멀지기들이라 칭하며 「거멀지기들」이라고도 한다.
- 다락치들 : 탄천에 보를 막아 논농사를 짓는데 토질이 토박하다.
- 마당바위 : 뒷골 조견(趙狷)의 묘에서 서쪽 50m 지점에 있는 넙적한 바위
- 보두시피들 : 숲이 많았던 곳으로 한발이 극심할 때에 관정(管井)을 판교 농업용수로 이용했을 만큼 샘이 잘나는 들이다.
- 선상 바위 · 검바위 남쪽 50여m 지점에 있는 바위로, 홉사 선생이 제자들을 훈육하는 형상이다. 황새를 닮았다고 황새바위라고도 한다.
- 여수교(麗水橋) · 여수파출소 서북 5m지점에 있는데 총연장 46m, 교폭 25m 1986년 3월 15일에 준공된 다리이다.
- 연적바위 · 선상바위 서쪽 20여m 지점에 있다. 연적(硯滴) 형상이라 한다.
- 원수머리들 : 방도 385번 도로와 소만말 사이 소막고개 주변인데, 이곳에서 원수(元帥)가 태어났다고 한다.

7. 은행동(銀杏洞)

(1) 동명의 유래

은행동은 1975년 7월 1일 성남시 조례 제 70호에 의하여 단대동의 은행정이를 갈라서 은행동이라 칭하고, 1979년 9월 15일 분동(分洞)하여 은행1 · 2동이 되었다. 1989년 중원구에 편입되었다.

동명은 은행정(銀杏亭)에서 유래한다. 은행시장 뒤편에 수고 30m, 둘레 6m, 수령 약 300년 가량의 은행나무가 있는데 여름이면 정자나무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정(銀杏亭)이라 불리우는데 으능쟁이 · 은행쟁이라고도 한다. 은행동(銀杏洞)은 바로 이 은행나무에서 그 명칭이 유래한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은행동에는 감나무골 · 안골 · 배나무골 · 이바리골이 있다. 은행동의 세거성씨로는 순흥안씨 · 단양우씨 · 동래정씨 · 해주오씨 · 유씨 · 이천서씨 · 황씨 등이 있다.

8. 중동(中洞)

(1) 동명의 유래

중동은 본래 광주군 세촌면 지역으로서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에 탄리(炭里)라 했고, 1946년 중부면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 1964년 5월 서울특별시의 「주택지 경영사업 실시」에 따라 1969년 4월부터 정지작업에 들어가 서울 철거민이 집단 이주하였고, 1973년 7월 성남시로 승격됨에 따라 독립된 행정동(洞)으로 발전하였다. 그 후 1989년 5월 중원구에 편입되었다.

중동(中洞)이란 명칭은 성남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중동은 원래 임야나 전답 혹은 벌판으로 자연취락이 없었고, 따라서 토착민이 없는 지역이다. 개발지역으로서 각성이 입주하여 새로운 도시로 발전한 지역이다.

9. 하대원동(下大院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세촌면 하대원리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하대원리(下大院里)라 하였고 1973년 7월 성남시에 편입되고, 1975년 3월 돌마출장소에 편입되어 여수동 관할이 되었다. 1989년 5월 중원구에 편입되었다.

하대원동은 송언신(宋言愼)의 서원이 있는 곳을 상대원이라고 칭하는데 대하여 이집(李集)의 서원이 있는 곳을 하대원이라 하였다는 설과, 고려 중엽에 사원이 건립되었던 곳을 원터 혹은 대원(大院)이라 부르다가 원터 아랫쪽을 하대원, 위쪽을 상대원으로 칭하게 되었다는 설이 있다.(상대원동 참고)

(2) 취락과 세거성씨

하대원동엔 곡달 · 뒷말 · 바깥말 · 안골 · 오룡골 · 웃말 등이 있었는데 안골이 중심이다. 곡달은 안골서 서쪽 현 동사무소 자리였고 광주이씨가 살았다. 뒷말은 안말과 곡달 사이로 밀양박씨의 세거지이다. 밀양박씨는 박상목(朴商睦, 1932년생)의 13대조인 자헌대부지 영부사 박

유(朴維, 1664~1736)의 장남 기동(起東)이 양주서 살다가 이주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바깥말은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광주이씨의 세거지가 되었다. 안골은 광주이씨의 본거지로 이씨 집성촌을 이루었다. 광주이씨는 시조 이집(李集, 1314~1384)이 벼슬을 사양하고 광주 땅에 은거함으로써 성남의 토성(土姓)이 되었는데, 장남 지직(之直)은 보문각 직제학을 역임하였다. 그는 광주 탄천변에 낙향하여 여생을 마쳤는데 호가 탄천(炭川)이라 세상에서 탄천선생이라 일컬었으니, 청백리에 오르고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차남 지강(之剛)은 예조판서를 역임하고 문숙(文肅)의 시호를 받았으며 3남 지유(之柔)는 목사이었다. 지직의 손자 극규(克圭)는 병조참의, 극배(克培)는 광릉부원군, 극감(趙玪)은 광성군, 극증(克增)은 광천군, 극돈(克墩)은 광원군, 극균(克均)은 좌의정에 오르는 등 자손이 번성하고 현달하였다. 이종설(李鍾卨, 1919년생)은 집의 19대손이다.

이룡골은 서쪽 공설운동장 지역으로 경주최씨가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웃말은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칠원윤씨의 세거지이다. 칠원윤씨는 순수공파의 사온서령 윤이(尹伊, 1502~1576)의 아들 탁연(卓然)이 여산송씨 송맹경(宋孟璟)의 딸을 부인으로 맞으면서 처가집 근처로 이주하여 10여대 살다가 일파는 광주로 일파는 해주로 갔다가 탁연의 13세손 윤병욱(尹病旭, 1865~1927)이 선대의 고향인 광주(성남)로 왔다. 윤이(尹伊)의 아들 탁연은 호조참판겸 오위도총부 도총관으로 칠계군에 봉해졌고 시호가 헌민(憲愍)이었다. 탁연의 아들 경원(慶元)은 양성현감으로 임란때 순사하여 정려를 받았고 시호가 충장(忠莊)이다. 길원(吉元)은 예문관 검열, 희원(喜元)은 충무위부사용, 상원(祥元)은 통덕랑, 영원(榮元)은 전력부위이었다. 손자 계기(啓基)는 한성부판관, 태기(泰基)는 선교랑, 안기(安基)는 예조정랑이었다. 하대원동 웃말엔

탁연의 15대손 철수(哲洙, 1941년생)가 살고있다.

기계유씨는 유영근(兪永根, 1922년생)의 증조부가 하남시에서 금광동으로 이주하여 살다가 부친 때에 웃말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3) 산천(山川)

- 매봉재 : 안골서 남쪽에 위치한 높은 봉
- 광능고개 : 하대원에서 중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둔촌의 신도비가 있다.
- 원터고개 : 하대원에서 공설운동장으로 가는 길
- 고불터골(古佛址谷) : 둔촌 묘 옆으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 한다.
- 광능골 : 북쪽 광주이씨 묘역이 있는 곳
- 전나무골 : 대야원에 있는 전나무가 많았다는 골짜기
- 기타 넓적바위, 검은바위, 봉바위가 있었다.

第 4 章 분당구(盆唐區)

1. 구미동(九美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용인군 수지면 죽전동(竹田洞) 일부와 원천동(遠川洞) 일부지역이었는데, 1914년 광주군 낙생면 구미리(九美里)라 칭하였고, 1971년에 경기도 성남출장소 관할에 편제되었다. 1973년 7월 성남시 구미동(九美洞)으로 개칭되었고 1975년 3월 낙생출장소에 편입, 금곡동 관할이 되었다.

구미동(九美洞)의 동명 유래는 설이 구구하나 어느 설이 정확한지는 알 수 없다. 일설에 의하면 마을 뒷산이 거북이 형국이라 구미(龜尾) 또는, 구산(龜山)이라 한데서 연유되었다고 한다. 또한 전하는 바에 의하면 전의이씨 · 김해김씨 · 밀양박씨 · 문화유씨 등의 아홉성씨가 각각 아홉개의 작은 취락을 이루어 살고 있어 구성리(九姓里)로 불렀다.

그런데 9개 성씨가 그 음이 달라서 구음리(九音里)라고 하였고, 그 아홉 성씨가 모두 화목하게 살았고 사람들이 모두 순하기 때문에 구순(九順)으로 부르다가 아름다운 일이 많다하여 구미리(九美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또는 금곡리와 동원리 경계 들판 가운데 있는 산이 거북이 형국이라 거북이 그늘 즉, 구음(龜陰)이라 한데서 나온 이름이라고도 한다.

(2) 취락과 세거성씨

구미동의 자연취락은 가운데구미(中九美) · 뒷구미(後九美) · 골안(石村) · 낭떨어지마을 · 넘말 · 머내(遠川) · 벌말(坪村) · 앞구미(前九美) · 오리뜰 · 잣골 등이다.

구미동에 최초로 정착한 성씨로는 전의이씨를 들을수 있다. 구미동의 중심을 이루는 부처지골은 경주이씨의 동지중추부사 우(佑)가 처음 배포하였다. 그러나 자손을 얻지 못하여 그의 사위인 전의이씨 20세손 경상우병사 이진경(李眞卿, 1576~?)이 차남 삼도통제사 지형(枝馨, 1608~?)으로 하여금 외손봉사하기로 정하였다. 지형은 여러 관직을 거치느라 이곳에 오지 못하고, 지형의 장자 참판 세선(世選, 1628~)도 또한 여러 관직을 수행하느라 직접 모시질 못하였다. 그러자 세선이 장자 하조(夏肇, 1647~?)를 이곳으로 보내서 전의이씨가 정착하게 되었으니 대략 1660년 경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그 옆 작은골에 불당을 짓고 집안의 안녕을 빌었다. 그리하여 불당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그 후에 빈대가 극성하여 불곡사(현재 고란사) 자리로 옮기게 되었다.

이 '佛堂'은 하조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보존 관리하였으므로 '전의이씨절' 혹은 '부처堂'이라고 불렀다. 이 불당은 약 30년 전에 마을 주민과 함께 개축하여 '불곡사(佛谷寺)'라 개칭하였다. 이리하여 부처지골, 불당골, 불곡산 등 부처와 관련된 지명이 생기게 되었다.

골안(石村)은 넘말과 벌말 사이에 있는 마을로 골짜기 안에 있어 골안이라 칭한다. 또 돌이 많다하여 돌말(石村)이라고도 한다. 골안에 최초로 정착한 성씨는 전의이씨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후 안동김씨 · 경주김씨 등이 정착하였는데 전의이씨 집성촌이었다. 1600년경 전의이씨는 하조가 골안에 자리를 잡고, 하조의 동생 창조(昌肇)의 넷째 손자인 윤명(潤明 1736~ ?)이 고부산(古阜山)골에, 4대손 후식(厚植, 1748~ ?)은 큰골에 묘를 쓰면서 그의 후손이 분가하여 집성촌을 이루게 되었다.

구미동은 분당지구 개발로 폐동됨에 따라 후손이 각지로 이거하였다. 구미동의 이춘섭(李春燮)은 하조의 10대손이고, 수진동의 이상윤(李相胤, 1915년생)은 윤명(潤明)의 6대손이고 궁내동으로 이거한 이상칠(李相七, 1921년생)은 하조(夏肇)의 10대손이다.

낭떨어지마을은 산밭채산 밑에 자리잡고 있어 낭떨어지마을이라 칭하였다. 넘말은 안골에 속했던 마을로 개울 건너(너머)에 있어 넘말이라 한다. 이곳엔 골안에 살던 전의이씨 · 경주김씨 등이 분가하여 취락이 형성되었다.

뒷구미(後九美)는 금곡동 샛터말 남쪽에 위치한 마을이다. 가운데구미 뒤에 있어 뒷구미라 칭한다. 이곳엔 밀양박씨 · 경주김씨 · 문화유씨 등이 세거하였는데 밀양박씨의 집성촌이었다.

머내(遠川)는 경부고속도로와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 사이에 있는데, 예전에는 삼남지방 사람들이 서울을 왕래할 때에 거쳐가는 지점이라 선술집 · 대장간 등이 성했다. 머내는 먼내(遠川)의 변음이다.

벌말(坪村)은 앞구미 동쪽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벌말이라 칭한다. 이 곳엔 전주이씨 · 김해김씨가 일제때 이주하여 살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

앞구미(前九美)는 구미동의 첫 마을로 구미동 최초의 취락이다. 이곳에는 문화유씨 · 김해김씨등이 최초로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리뜰은 성남시 최남단의 마을로, 예전에 마을 앞에 방풍림으로 오리나무를 심었는데 그후로 오리들(뜰)이라 한다. 일명, 부평이라고도 하였다. 이곳엔 김해김씨가 처음 정착한 이래 전의이씨 · 안동장씨가 세거하였는데 김해김씨 집성촌이었다.

잣골은 넘말 동북쪽에 있던 마을인데 고개(재) 너머에 있어서 잿골이라 하다가 잣골로 변음되었다. 이곳에는 전의이씨 · 문화유씨 등이 정착하여 왔었다.

김해김씨는 가선대부 김진국(金盡國)이 동원동에 정착한 이래 김현식등이 10대째 세거하였는데, 진국의 장남 인승(仁承)은 가선대부, 증손 선조(善祚)는 선약장군, 현손 수현(壽鉉)은 무과에 급제하여 선훈참의(宣訓參議)이었다.

밀양박씨는 박천종(朴天宗)이 처음 정착한 이래 9대째 세거하였다.

(3) 산천(山川)

- 불곡산(佛谷山) · 정자동 · 구미동과 광주군 오포면 삼현리에 걸쳐 있는 해발 312.9m의 산, 정자동에선 성덕산이라 부른다.
- 산발채산 : 낭떨어지 마을로 뒷구미 사이의 야산
- 서배재산 : 앞구미의 주산이다.
- 통미산 : 벌말 서쪽에 있는 산. 옛날 바닷물이 벌말에 들어왔을 때 불곡산 뎃박고개를 가자면 통나무배를 이용했다고 한다.
- 가운데말고개 : 뒷구미와 가운데말 사이의 고개
- 넘말고개 : 골안과 넘말사이의 고개
- 다지개고개 : 앞구미와 오리뜰 사이의 고개
- 뎃박고개 : 벌말과 가운데골 사이의 삼남지방 사람들이 한양을 왕래할 때 다니던 고개
- 뒷고개 · 앞구미와 가운데말을 왕래하던 고개
- 태재(台峴) · 골안과 오포면 신현리 사이의 수원장에 갈 때 다니던 고개
- 가골 : 뒷구미 동쪽에 있는 좁고 길게 생긴 산골
- 가운데골 : 가골 남쪽에 길게 생긴 산골
- 고부산골 : 큰골과 부처지골 사이의 산골
- 기와집골(瓦谷) : 내골과 뒷구미 사이의 기와집이 있었다는 골짜기
- 바른골 : 불곡산 줄기로 골안 동쪽 산골
- 부처지골 : 불당골 오른쪽 골짜기
- 불당골 : 골안사가 있어서 불당골(佛堂谷)이라 한다.
- 원수골 : 넘말에 있는 골짜기
- 작은절골 : 큰절골 남쪽에 있는 산골짜기
- 지네골 : 수지면 죽전리와 경계를 이루고 있는 골짜기로 지네형국이다.
- 큰골 : ① 골안에서 제일 큰 골짜기 ②뒷구미에서 제일큰 골짜기

- 큰절골 : 벌말에서 제일 큰 골짜기
- 연못둥지 : 불곡산 정상의 50평 크기의 연못
- 앞냇개 : 용인군 수지면 고기리에서 발원하여 동원동-머내-오리뜰을 경유하여 탄천에 유입되는 개울을 말한다.
- 옻우물 : 뒷구미 중앙에 있는 우물을 말한다.
- 탄천(炭川) : 분당지구내의 최대의 하천으로 용인군 구성면 청덕리 수청동 340고지에서 발원하여 북쪽으로 흘러 풍덕천에서 탄천이 되고, 구미동에서 동막천을 합하고 판교동에서 운중천을 합하여 탄천이라 부른다. 탄천에 대한 유래로는 이지직(李之直, 1354~1419)의 호가 탄천(炭川)이라는데 유래되지 않았나 보아진다. 이지직은 판전교사사(判典校寺事) 이집(李集)의 아들이며 학자로서 정몽주(鄭夢周)의 문인이다. 탄천(炭川)에 은거하며 독서를 일삼았는데,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모두 "탄천선생"이라 하였다. 탄천선생은 후에 청백리로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탄천과 관련된 전설이 즉 중국신화에 나오는 서왕모(西王母,女仙)의 복숭아를 훔쳐먹어 장수하였다는 「삼천갑자 동방삭(三千甲子東方朔)」의 속설이다.

(4) 일반지명

- 구미교 · 오리뜰 동쪽에 있는 다리, 총연장 48m, 교폭 6m로 1986년 12월 31에 준공하였다.
- 구미교양어장 : 구미교에서 골안쪽으로 있는데 1989년에 개장되었다.
- 국논들 : 뒷구미와 새능안골 사이의 곡창지대이다.
- 동안들 : 벌말 동쪽에 있으므로 동안들이라 한다.
- 등잔바위 : 봉바위 북쪽 100m지점에 등잔모양의 바위
- 무릉지들 : 구미동에서 제일 큰 들이다.
- 물방아거리들 : 웃말 북쪽에 물방아가 있어서 붙여진 지명

- 수평 : 앞구미 앞을 막아야 마을이 한정된다하여 방풍림을 조성했는데 그 후부터 수평이라 칭한다.
- 오리들속자리 : 오리뜰 남쪽에 오리나무가 많아 그 주변을 오리들속자리라 칭한다.
- 장승백이 ·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 사이 장승이 박혔던 곳
- 준저들 : 벌말에서 제일 큰 들이다.
- 진밭들 : 머내와 오리들 사이의 비올 때 질펀한 곳
- 평밭들 : 벌말 남쪽으로 오리뜰 사이에 있다.

2. 궁내동(宮內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낙생면 궁내촌(宮內村) 지역이었다가 1914년에 광주군 낙생면 궁내리(宮內里)라 칭하고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제되었다.

1973년 7월 성남시 궁내동(宮內洞)으로 개칭되고 1975년 3월 낙생출장소에 편입되어 금곡동의 관할이 되었다.

궁내동(宮內洞)의 명칭은 조선조 제 11대 중종의 다섯째 아들인 덕양군 이기(李岐)의 묘와 영희군부인(永禧君夫人) 권씨가 묻힌 무덤이 있어, 그 무덤을 관리하기 위한 작은 궁을 지었으므로 궁안 또는, 궁내(宮內)라 부르게 된데서 유래한다.

(2) 취락과 세거성씨

궁내동(宮內洞)의 자연취락은 궁안(宮內) · 밀린동 · 웃말 · 아랫말 등이 있다. 궁안은 조선시대에는 궁내촌(宮內村)으로 불리웠다. 이 마을에 세거한 성씨는 전주이씨 · 강릉최씨 · 창원황씨 등이다.

전주이씨가 들어오기 이전에 강릉최씨가 정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믿을만한 것이 못된다. 전주이씨는 중종의 제 5남인 덕양군 이기(李岐, 1524~1581)가 별세하자 장지를 용인으로 정하여 상여를 메고 가는데 마을 앞을 지날 때 상여꾼의 발짝이 안떨어지고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행성 앙장(仰帳)이 바람에 날려 현 묘자리에 떨어졌다. 이를 이상히 여겨 지관이 자리를 보니 천하 명당자리라 용인의 장지를 취소하고 이곳으로 묘자리를 옮길 계획을 세우니, 상여꾼의 발짝이 떨어졌다고 한다. 이곳은 덕양군이 평소 풍류와 사냥을 즐겼던 곳인데, 갓끈이 덤불에 걸려 끈에 달린 호박을 잃어버렸던 곳이다. 그런데 장사 지낼 때 광중에서 잃어버렸던 호박이 나왔다는 전설이 있다. 이런 연유로 이곳에 묘를 쓰고 덕양군의 묘를 관리하기 위한 궁을 지었고, 그후 덕양군의 10대손 이주신(李周新, 1745~1798)이 궁내동으로 이주하여 세거하여온 것으로 전하여 진다.

덕양군은 아들 풍산군 · 풍성군 · 풍천도정 · 풍해수를 두었고 풍산군(宗麟, 1538~1611)의 차남은 귀성군 섬(贍) · 귀천군 이수(李晬) · 귀원군 · 귀봉군 · 귀홍군을 두었으며, 귀천군은 봉래군 형윤(炯胤) · 봉원수 형준(炯儁) · 봉산군 형신(炯信) · 봉주정 형길(炯佶) · 봉창수 형엄(炯儼) · 하계군 형륜(炯倫) · 봉성령 형중(炯仲) · 봉풍령 형임(炯任) · 봉홍도정 형좌(炯佐) · 봉천령 형우(炯佑) · 봉계도정 형건(炯健) · 봉강도정 형급(炯伋)의 12아들을 두어 명문지족으로 후손이 번족하고 현달하였으니, 궁내동 뒷산에는 덕양군을 비롯하여 풍산군 · 귀성군 · 귀천군 · 봉래군 · 봉산군 등 후손의 묘가 있다. 궁내동에는 덕양군의 14대손 이대규(李大圭, 1912년생)등이 살고 있다. 이대섭(李大燮, 1930년생)은 덕양군의 15대손이 된다.

덕양군 손자인 이수(李晬)의 묘는 경기도 지방 기념물 제 54호로 지정되었다.

강릉최씨는 지평공파가 세거하고 있는데 문정공 최수성(崔壽城)의 5

대손 윤득(胤得, 1710~1745)이 수원 은행동에서 이거함으로써 최씨의 세거지가 되었다. 윤득의 증손 창화(昌華, 1788~1858)가 선략장군 용양위부사과를 지냈다. 최성규(崔聖圭, 1942년생)는 윤득의 9대손이다.

경주최씨는 도촌동 최상룡(崔商龍)의 차남 탑갑의 6세손 영환(榮煥, 1822~1873)이 도촌동에서 이주하여 5세손 병성(秉成, 1953년생)에 이르고 있다.

궁내동은 전주이씨의 사패지로 이씨 집성촌을 이루었으며 서쪽지역을 웃말(안말), 동쪽지역을 아랫말, 중간은 중간말이라 칭하는 큰 촌락이다.

밀린동은 본래 허허벌판이었는데 금곡동 샛터말 출신 류천만 · 전동춘이 처음 이주해옴에 따라 취락이 형성되었다. 그러므로 궁내동의 지역이 금곡동 사람에 의해 밀렸다고 밀린동이라 하였다.

(3) 산천(山川)

- 망재 : 궁안 아랫말과 백현동 새말 사이의 산등성이, 왜란 때 정자동 이진봉과 금곡동 승주골에서 군인들이 진을 치고 망(望)을 보던 곳이라 망재라 한다.
- 고재나무골 : 전주이씨 종산으로 덕양군의 묘가 있다. 고자의 묘가 있어 고재나무골이라 한다.
- 뒷골(後谷) : 중간말 뒤(북)에 있는 골짜기
- 봉바위골 : 절골 서쪽 봉바위가 있는 산골
- 서리실골 : 절골에서 북쪽으로 산너머에 있는 골짜기
- 절골 : 궁안 웃말 서쪽으로 절이 있었다.
- 자두골 : 궁안 웃말 남쪽 산골을 말한다.
- 두레우물 : 아랫말 식수원으로 두레박으로 물을 푸는 우물이다.
- 샘터 : 망재 아래에 있는데, 이홍객이 약탈로 부자가 되어 살던 곳

이다. 맹사성(孟思誠, 1360~1438)에게 발각되어 죽게 되자 재물을 샘터에 묻었다고 한다.

(4) 일반지명

- 감투바위 : 절골 북쪽에 있는데 감투처럼 생겼다.
- 대사들 : 절골에 살던 스님(대사)이 관리하던 논이라고 한다.
- 동안밭들 : 수리턱벌과 금곡동 사이의 들
- 밤나벌(들) : 장터거리 남쪽에 밤나무가 많았다하여 부르게 되었다.
- 밭터리들 : 궁내동 톨게이트와 밀린동 사이로 디딜방아가 있었다.
- 봉바위 : 부엉이처럼 생긴 큰 바위
- 산바래기 : 예전에 굿을 할 때에 신성시하던 곳
- 수리벅터벌 : 한국전쟁 직후 마을이 들어섰다.
- 오소리바위 : 감투바위 북쪽 절골에 있다.
- 원수동 : 능안 남쪽들. 옛날 원이 지나다가 마셨다는 큰 우물이있었다 하여 붙여진 명칭
- 장터거리(장터벌) : 백현동 새말과 궁내동 경계로 장(場)이 섰었다.
- 진늪들 : 지대가 낮아 비만오면 질펀한 곳 「진흙패들」이라고도 한다.
- 큰산바래기 : 궁안 중간말 북쪽 산봉우리. 궁안 주민이 산신제를 지내던 곳이다.

3. 금곡동(金谷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낙생면 금곡동(金谷洞) 지역이었는데, 1914년 광주군 낙생면 금곡리(金谷里)라 칭하였고 1971년 경기도 성남시 금

곡동(金谷洞)으로 개칭되고, 다시 1975년 3월 낙생출장소에 편입되었다. 그후 1977년 6월 동명칭 개편시 금곡(金谷)·궁내(宮內)·구미(九美)·동원(東遠)을 통합 관할하게 되었다. 1989년 5월 중원구에 편입되었다가 1991년 9월 분당구에 편입되었다.

금곡동(金谷洞)의 명칭은 쇠(金)가 났다는 쇠골(金谷)의 한자 표기에서 금곡리(金谷里)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쇠골(쇳골)은 지금 49번지에서 금을 채취하였다고 붙여진 이름인데 지금도 마을서는 쇠골이라 칭하고 있다.

(2) 취락과 세거성씨

금곡동의 자연취락으로는 샛터말(新基)·쇠골(金谷洞)·승주골(姓主谷·承旨谷) 등이 있다.

새터말(新基)은 광주군 낙생면 금곡리에 속했던 마을로 궁내동 궁안동남쪽에 있다. 이곳은 황무지였을 때 창원황씨 등이 정착하였고, 그후 김해김씨·안동권씨·금령김씨 등의 세거지로 벌굴안 또는, 서울 가까운 두메라 칭하기고 한다.

쇠골(金谷)은 샛터말 서북쪽에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낙생면 금곡동(金谷洞)이라 칭했다. 이 마을의 안동권씨는 참의공파로 권선한(權善漢 : 1942년생)의 13대조인 권득기(權得己, 1570~1622)가 처음 정착한 이래 후손이 세거하여 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득기는 산장등을 사이에 두고 있는 궁내동 귀성군 이첨(李瞻)의 사위가 된 연유로 쇠골에 배포하게 되었다고 한다. 귀성군은 외손 권심(權詵)이 봉제사를 하였는데, 심(詵)은 득기의 3남이다. 금곡동 일대의 권씨네 땅은 원래 궁내동 전주이씨의 사패지였는데 권씨네에게 주었다고 한다.

권득기는 공조참의 권령(權齡)의 현손으로 이조판서를 지낸 권극례(權克禮)의 아들이다. 그는 고산도찰방을 사임하고 야인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만회집·연송잡기(晩晦集·然松雜記)를 남겼다. 아들이 5형제

인데 장남 혁(詠)은 함창현감, 심(訦)은 송라찰방, 시(諰)는 여러 관직을 거쳐 한성좌윤에 임명되었으나 사양하였다. 후손이 번족하고 현달하였다.

승주골(姓主谷 · 承旨谷)은 샛터말 서남쪽에 있는 마을이다. 구전에 의하면 왜란때 이곳에 아군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물이 없어서 말을 씻기지 못하였다. 이를 안 적이 포위를 풀어주지 않자, 장수가 꾀를 내어 말 잔등에 쌀을 바가지로 퍼부어 목욕시키는 것처럼 하였더니, 먼곳에서 바라보던 적이 물이 있는 것으로 알고 후퇴하였다 한다. 그후 장수의 성도 이름도 몰라 「성주골」이라 하였으며 후대에 승주골로 불리웠다고 한다. 일설에는 창원황씨의 승지묘가 있어서 승지골(承旨谷)이라 칭한다고도 한다.

(3) 산천(山川)

- 안산 : 진재산의 연봉으로 쇠골 앞에 있다.
- 여사리산 : 진재산의 연봉으로 승주골 남쪽에 있는 산
- 진재산 : 새터말의 주산(主山)으로 예전에 전란이 있을 때에 진을 치고 망을 보던 곳이라 한다.
- 통미산 : 금곡동 서남쪽에 있는 산. 통나무처럼 둥글게 생겼다.
- 대장리고개 : 쇠골과 대장리 사이에 있는 고개
- 머내골고개 · 동원동 머내와 금곡동 샛터말을 왕래하는 고개
- 가골 : 쇠골 응달말 동쪽 끝
- 가마솥골 : 쇠골 소재 산소골 서쪽에 있는데 예전에 그릇을 구웠다고 한다.
- 도장골 : 금곡동 샛터말과 궁내동 경계 지역
- 머나골 : 구미동 뒷구미와 샛터말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일명 머내골이라고도 한다.
- 봉바위골 : 봉바위가 있는 골짜기이다.

- 산막골 : 샛터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
- 산소골 : 쇠골과 가마솥골 사이로 안동 권씨 묘가 많다.
- 큰적골 : 샛터말 서쪽 제일 큰 골짜기
- 파래골 : 대장리고개 동쪽 산골짜기
- 가물치웅덩이 : 금곡동 샛터말과 구미동 뒷구미 사이의 긴웅덩이
- 동네우물 : 샛터말의 우물. 나라의 큰 변괴시에 변화가 있다.
- 용바위우물 : 진재산 소재 용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로 용바위 약수라고도 한다.
- 중보(中洑) : 탄천 상류의 보로 궁내동과 금곡동의 경계과 된다.
- 찬물웅덩이 : 여름에도 뼈가 시릴만큼 찬 샘물이 나오는 웅덩이이다.

(4) 일반지명

- 돌다리(石橋) : 금곡동과 궁내동 사이의 다리
- 물밤나무바위 : 물밤나무바우골 개울가에 있다. 바위 위로 개울물이 흐른다.
- 봉바위 : 부엉이처럼 생긴 작은 바위
- 성경지 : 쇠골 양달말 초입 산모퉁이
- 솔개들 : 머내골과 뒷구미 사이의 논들
- 숯두지 : 가골과 경부고속도로 사이
- 용바위 : 진재산 정상에 있는 바위로, 주민들이 기우제를 지냈던 곳
- 점뒤들 : 예전에 그릇을 구웠던 곳
- 푯대발이 : 진재산 정상의 금곡동 측량 기준점

4. 대장동(大庄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낙생면 대장리(大庄里)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태릉 · 장투리 · 무두만이를 병합하여 대장리(大庄里)라 칭하였다. 1971년 성남출장소에 편제되고, 1973년 7월 성남시 대장동(大庄洞)으로 개칭되었다가 1975년 3월 낙생출장소에 편입되어 운중동의 관할이 되었다.

대장동(大庄洞)의 명칭은 태릉(胎陵)의 영향을 받은 것 같다. 태릉에 대하여는 두 가지 설이 있다. 하나는 대장동 남쪽에 무덤 모양의 큰 산이 있는데, 이 봉우리에 인조의 태를 묻었으므로 그 산을 태봉(胎峰) · 태릉(胎陵) · 태장산(胎藏山)이라 하였고, 본래 이곳 마을을 태장리(胎藏里)라 하였다가 태릉(胎陵)과 태장(太庄)으로 변하였고, 다시 대장리(大庄里)로 표기 하였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부락 안에 능과 같은 큰 무덤이 있어서 태릉(太陵)이라 했다고 한다.

(2) 취락과 세거성씨

대장동의 자연취락은 도장골 · 무두만이 · 장토리(壯土里) · 태릉(본동)으로 구분된다. 도장골(都庄谷)은 장토리 서쪽에 있는 마을로 윤씨가 살았었는데 폐동되었다. 일설에는 제사를 지내던 도장(道場)이 있어서 도장골이라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무두만이(舞頭滿以)는 태릉 북서쪽에 있는 마을로 무두만이산 밑에 있다. 이 마을은 해주오씨의 세거지로서 오종환(吳倧煥, 1934년생)의 12대조인 통훈대부 산음현감 증 승정원 좌승지 오윤함(吳允, 1570~1618)의 묘를 쓴 후 그 후손이 세거하면서 윤함의 호(月谷)를 따서 월곡공파를 이루었다. 윤함은 선공감역 오희문(吳希文)의 셋째 아들이요, 추탄공 영의정 오윤겸(吳允謙)의 아우이다. 이곳은 원래 추탄공이 자리

잡은 곳으로 동생(允諴)이 먼저 세상을 떠나자 이곳에 장사지내고 그 후손이 살기 시작하였는데, 아들 달정(達政)은 승정원 좌승지이다. 이 마을은 산골짜기로 들어가다 언덕을 이루고 산이 둥그렇게 에워싸고 있어 사방을 보아도 파란하늘만 보이는 평화롭게 느껴지는 마을이다.

장토리(壯土里)는 웃장토리와 아랫장토리로 구분되는데 웃장토리는 용인군 수지면에 속한다. 아랫장토리는 벌말이라고도 하는데 광주이씨 · 경주김씨 · 우계이씨 · 밀양박씨 등이 세거하였다.

광주이씨는 이만재(李萬載, 1926년생)의 9대조인 이요명(李堯明, 1657~1690)이 정착하여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 절골(寺谷)엔 요명과 그 후손의 묘역이 있다.

대장동의 중심인 태릉은 태봉이 있는 마을로 우계이씨 · 전의이씨가 세거하였다.

대장동에 최초로 자리잡은 우계이씨는 덕천군수 이인숙(李仁淑)의 차남 충좌위 부사정 이경연(李景衍)의 후손이 세거하여 왔다. 경연의 아들 선무랑 징(徵)의 아들 지방(之芳, 1466~1537)은 명장(名將)으로 일컬어지는데, 요직을 두루 역임하여 평안절도사에 이르렀고 지방의 손자 감(戡, 1516~1583)은 가의대부 사헌부 대사헌, 전(戩)은 공조참판 · 임란시에는 수성대장을 역임했고, 용(戵)은 함경북도병사를 역임하는 등 자손이 번족하고 현달하여 대장동의 토착 명문으로 집성촌을 이루고 세거하였다. 태릉의 이병각(李炳珏, 1922년생)은 경연(景衍)의 18대손이다.

전의이씨는 평간공(平簡公) 금성군 이예장(李禮長, 1406~1456)의 사패지가 되어 그 후손이 세거하였다. 예장의 장남 세보(世珤)는 원주목사, 차남 시보(時珤, 1433~1402)는 장례원 판결사를 역임하였다. 후손이 계속 현달하여 가문의 빛이 세상에 빛났다. 대장동의 이상흠(李相欽)은 예장의 19대손이다.

(3) 산천(山川)

- 무두만이산 : 태릉 북서쪽에 있는 산
- 태장산 : 태릉 남쪽에 있는 산. 봉우리(태봉)에 인조의 태를 묻었다고 한다.
- 두리봉 : 태릉서 도장골 넘어가는 고개, 둥그렇게 생겨서 두리봉이라 한다.
- 능고개(陵峴) : 태릉에서 백현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 동막고개 · 태릉에서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 동막으로 넘어가는 고개
- 무두만이 고개 : 무두만이서 태릉을 왕래하는 고개
- 서울고개 : 무두만이 뒷산고개로 하산운동 · 낙생초등학교 다니던 길
- 아랫고개 · 아랫말에서 장투리로 가는 고개
- 그시막골 : 태릉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심뱅이골 : 일명 씀바귀골이라고도 하며 태릉에 있는 골짜기
- 절골 : 태릉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절이 있었다.
- 손기천(孫基川) : 손이터 개울이라고도 한다.
- 오목내 : 장토리 앞을 흐르는 개울. 연못처럼 수심이 깊게 오목하게 파였다. 장수를 잃은 용마가 빠져 죽었다는 전설이 있다.

(4) 일반지명

- 가래터들 : 태릉마을 동쪽 들(논)
- 농바위 : 장토리(고기리) 개울 가운데 있는 바위
- 산신제터 . 두리봉에서 10년까지 산신제를 지냈다.
- 숲안창 : 고기리 가는 대장동 남쪽 들(논)
- 태릉 : 큰 무덤이 있었다고도 하며 태릉산을 칭하기도 한다.

5. 동원동(東遠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낙생면 동막동(일명 동원동) · 원천동과 용인군 수지면 원천동 일부 지역이었고 1914년 광주군 낙생면 동원리(東遠里)라 칭하였고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제되었다.

1973년 7월 성남시 동원동(東遠洞)으로 개칭되어 금곡동의 관할이 되었다.

동원동(東遠洞)은 동막동(東幕洞)의 동(東)자와 원천동(遠天洞)의 원(遠)자를 취하여 칭한 것인데 대원군의 천주교 박해와 관련이 있다. 동막(東幕)이란 동쪽이 막힌 곳. 혹은 동쪽에 막(집)이 있었던 곳에서 비롯된다. 먼내(遠川 · 개울)란 떠나온 고향과 멀다는 뜻의 한자화 표기라 하겠다.

(2) 취락과 세거성씨

동원동(東遠洞)의 자연취락으로는 광주머내 · 동막골 · 샛터(親基) · 안골 · 양짓말 등이 있다.

광주머내는 광주군 낙생면 원천리라 칭했던 마을로 용인군 수지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광주머내는 구미동의 머내가 용인군에 속하였던 것과 구별짓기 위하여 부른 명칭이기도 하지만 광주읍에서 제일 먼곳에 위치하고 있는데서 연유된다고 한다. 이곳에는 김해김씨를 비롯하여 제주고씨 · 원주이씨 · 남양홍씨 등이 세거해온 마을로 김해김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김해김씨는 석성공파로 사간원 정원 김희건(金希鍵)의 차남 가선대부 진국(盡國)이 낙향하여 정착함으로써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진국의 증손자 통정대부 우경(宇景)은 아들 셋을 두었는데 동원동에는 주로 차남 정희(正熙)의 후손이 살고 있다. 정희의 차남 세조(世祚)는 통정대부, 3남 성조(聖祚)는 공조참의이었다. 동원동에 김웅배(金雄培, 1936년생)는 진국의 10대손이다.

제주고씨는 군자감정 고광우(高光宇)의 아들 원철(元喆)이 해주에서 이주하여 살기 시작한 후 자손이 세거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원철(元喆)은 증 공조참의인데 이는 그 아들 영덕(永德, 1770~?)이 가선대부 한성좌윤의 공로로 추증된 것이다. 영덕의 아들 인화(仁和)는 통정대부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역임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고복동(高福童, 1971년생)은 광우의 6대손이다.

동막골(東幕洞)은 마을 서 · 남 · 북의 3면이 산으로 에워싸여 있으며 용인군 수지면 동천리 동막골과 경계를 이루고 있을 때 그 경계에 막(幕)이 있었다고 한다. 동막골은 서쪽지역을 웃말, 웃동막 동쪽지역을 아랫말, 아랫동막으로 부른다.

샛터(新基)는 광주 머내 남쪽에 있으며 남양홍씨와 김해김씨 등이 새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

안골은 동막골 웃말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1970년대 초에 민가가 처음 들어섰다.

양짓말은 섬배산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용지에 편입되어 폐동되었다.

(3) 산천(山川)

- 섬배산 : 허허벌판에 홉사 섬같이 생긴산이라 하여 섬배산이라 칭한다.
- 대장동고개 : 동막골과 대장동 사이에 있다.
- 뒷구미고개 : 구미동 뒷구미와 금곡동 사이에 있던 고개. 마루터기에 흰 흙이 많아 백토고개 또는 백두고개라고 한다.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 안말고개 : 광주 머내와 금곡동 안말 사이에 있는 고개
- 산소골 : 광주 머내 서북쪽 김해김씨 묘가 많은 곳이다.
- 작은 샘치골 : 큰 샘치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1990년 홍수로 대

부분 매몰되었다.

- 큰골 : 동막골 웃말 북쪽에 있는 동막골에서 제일 큰 골짜기
- 큰샘치골 : 안골 동북쪽 산등성이 너머에 있는 골짜기
- 광주머내개울 : 광교산에서 발원한 동막골 개울과 웃손골 개울이 합류되는 건개울 부근의 하천을 말한다.
- 낙생저수지 : 동막골과 웃말 서쪽에 있는 저수지. 몽리구역은 용인군 수진면 동천리 · 구미동 · 금곡동 · 궁내동 · 동원동 지역이다.
- 동막골개울 : 광교산에서 발원하여 동막골 웃말과 아랫말을 경유하여 웃손골 개울과 건개울이 합류되는 하천

(4) 일반지명

- 동원낚시터 : 1987년 설치된 유료 낚시터. 동막골 아랫말 동남쪽에 있다.
- 동원교 : 용인군 수지면과 연결되는 다리. 총연장 72m, 교폭 8.5m로 1968년 8월 10일에 준공되었다. 다리 밑으로 광주 머내개울이 흐른다.
- 서낭댕이 : 동막골 웃말 개울가에 서낭당이 있었는데 낙생저수지로 수몰되었다.
- 섬배산 밑 : 섬배산과 탄천사이로 웅덩이가 많다.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 양짓말벌(들) : 섬배산 남쪽에 있는 들.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 오룡들 : 광주 머내와 동원낚시터 사이에 있는 들. 풍수로 좌청룡에 해당된다.
- 장승배기 : 광주 머내 북쪽 지방도 옆에 장승이 있던 곳
- 장승배기들 : 장승배기 앞(남쪽)에 있는 논들을 가리킨다.

6. 백현동(柏峴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낙생면 백현리(柏峴里) 지역이었는데, 1914년 광주군 낙생면 백현리(柏峴里)로 칭하였고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제되었다.

1973년 7월 성남시 백현동(柏峴洞)으로 개칭되고 1975년 3월 낙생출장소에 편입되어 판교동의 관할이 되었다. 그후 1989년 5월 중원구에 편입되었다가 1991년 9월 분당구에 편입되었다.

백현동의 명칭은 잿넘어 마을 뒷고개 마루터기에 큰 잣나무가 있어 그 고개를 잣고개 · 재너머 · 백현이라 했는데, 마을이 고개 밑이므로 후에 마을의 명칭이 되었고 1973년 동제가 되면서 동명(洞名)으로 되었다.

(2) 취락과 세거성씨

백현동(柏峴洞)의 자연취락으로는 새말(新村)과 잿너머(柏峴)로 구분된다.

새말(新村)은 궁내동 궁안과 판교동 널다리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서 · 남 · 북의 3면이 산으로 둘러 싸였으며 마을 앞을 경부고속도로가 남북으로 관통한다.

이 마을엔 조선조 말엽 김해김씨 · 현풍곽씨 등에 의해 처음 취락이 형성된 곳으로 일명, 안궁안이라 칭한다.

잿너머(柏峴)는 조선시대 광주군 낙생면 백현리였는데 잣고개라 했다가 잿너머로 불리우게 되었다. 이 마을 내엔 웃말 · 아랫골 · 중간말 · 양짓말 · 수풍안 등의 취락이 있다.

웃말은 중간말 위 남쪽에 있어 웃말이라 칭하며 나주정씨 · 청주한씨 · 한양조씨 · 전주이씨 등의 취락이 형성되었다.

나주정씨는 우의정 정응두(丁應斗)의 차남 고암 정윤희(丁胤禧,

1531~1589)의 묘를 쓰고 후손이 세거하여 고암공파를 이루었다. 윤희는 강원도 관찰사겸 병마수군절도사를 역임했고 이들이 삼형제인데 호덕(好德)은 계공랑이었고, 호경(好敬)은 진사이었으며 호성(好誠)은 호조좌랑이었다. 손자 언탁(彦琢)은 참봉, 언규(彦珪)와 언연(彦衍)은 현감이었다. 백현동 정창영(丁昌榮, 1932년생)은 고암의 14대손이다.

아랫말은 중간말 북쪽에 있는데 평산신씨 · 남원윤씨 · 동래정씨 등이 촌락을 이루고 있다.

평산신씨는 증 호조참판 신명정(申命鼎, 1650~1698)의 차남 함(鍼)이 삼평동 보평에서 분가하여 정착한 이래 자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백현동 아랫말에는 함의 9대손 신현만(申鉉晩, 1954년생)등이 살고 있다. 현만의 13대조 동양부원군 순미(順美)는 진사 원(援)의 6남이고 보평의 최초 정착자인 용인현령 경일(敬一)은 원의 장남인 준미(遵美)의 장손이다.

중간말은 중간에 있는 마을로 백현 마을회관이 있다.

양짓말은 중간말 서쪽에 있다. 전주이씨 · 나주정씨 · 청주한씨 등의 세거지이다.

수풍안은 숲 안에 있어 수풍안이라 불렀던 마을로 동래정씨 · 나주정씨 · 전주이씨 등의 세거지이다.

(3) 산천(山川)

- 능안산 : 새말과 궁내동 능안에 걸쳐있는 산
- 도장산 : 판교동 너다리와 백현동 잿너머(마을)에 걸쳐있는 산
- 안산 : 잿너머 웃말과 장터벌 사이에 있는 마을 앞산
- 앞산 : 새말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늘어선 얕은 산.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 서낭고개 : 백현동 새말과 판교동 너다리 사이에 있다. 수원~판교간 지방도로상에 있다.

- 잿고개(柏峴) : 판교동 너다리와 잿너머 사이에 있다. 본래는 잣고개이다.
- 우족재 : 남서울컨트리클럽 오른쪽으로 김해김씨 묘역이 있는 곳
- 관골(貫谷) : 망재에 살던 이홍객이 소(牛)를 잡아 관으로 팔던 곳
- 국능골 : 새말 강골 서쪽 골짜기.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 아래뒷내골 : 앞산 뒤(북)에 있는 산골이면서 농경지
- 옻우물 : 국능골 안에 있는데 옻오른데 약효가 크다.

(4) 일반지명

- 가운데들(벌) : 잿너머 가운데 있는 들로 기름지고 수원이 풍부한 들
- 되링게모퉁이 : 새말 앞(남)에 있는 산 모퉁이.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 돌마교 : 정자동과 백현동 사이에 있다. 총연장 100m 교폭 6m, 다리 밑으로 탄천이 흐른다.
- 돌무더기들 : 농경지에 돌이 많아 그 돌을 한 군데 치워 쌓인돌이 있는 들.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 면답들(面畓坪) : 백현동 · 삼평동 · 이매동에 걸쳐있는 들
- 아랫벌 : 가운데들 아래에 있어 아랫벌이라 칭한다.
- 장터벌 : 돌마교와 궁내동 4통 사이에 장(場)이 섰던 일대를 칭함.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7. 분당동(盆唐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 분점리(盆店里) · 당우리(唐隅里) 지역이었는데, 1914년 광주군 돌마면 분당리(盆唐里)라 칭하였고,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제되었다.

다시 1973년 7월 성남시 분당동(盆唐洞)으로 개칭되었고 1975년 3월 돌마출장소에 편입되어 분당 · 정자 · 수내 · 율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그후 1989년 5월 중원구에 편입되었다가 1991년 9월 분당구에 편입되었다.

분당동(盆唐洞)은 분점리(盆店里)의 분(盆)자와 당우리(唐隅里)의 당(唐)자를 취하여 분당동이라 칭하게 되었다. 여기서 분점리(盆店里)는 동이를 구웠다는 옹기점(甕器店)에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하며, 당우리(당모루)에 대하여는 예전에 당(堂)집이 있어서 당모퉁이 동네라고 하던 것이 당모루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2) 취락과 세거성씨

분당동 일대에는 선사시대의 지석묘가 22기나 분포되어 있어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살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분당동은 벌터 · 안말 · 샛당모루 · 안당모루 · 양계촌 · 장터(당우리) · 점골(店村) · 정수터(定神坻) 등의 취락이 있다.

벌터는 안당모루와 점골 사이 허허벌판에 자리잡은 마을로 청주한씨 등이 정착하다가 분당지역 개발로 폐동되었다.

샛당모루는 안당모루에 속했던 마을로 안당모루와 정수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샛당모루는 신창맹씨의 사패지(賜牌地)로, 신창군 맹석흠(孟碩欽, 1429~?)의 자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석흠은 충청도 병마절도사로 이시애(李施愛)의 난을 평정하여 일등공신이 되어 신창군에 봉해졌고 분당동 일대를 사패지로 받아 맹씨네의 세거지가 되었다. 석흠의 아들 문인(門仁)은 남양부사이고 손자 응선(應善)은 평안도 병사이었다. 증손 신원군 삼천(三遷)은 아들 원(轅)과 진(軫) 형제를 두었는데, 분당동에 대대로 세거한 사람들은 통훈대부 예빈첨정 원(轅, 1521~1595)의 후손들이다. 후손이 현달하였는데 주로 무반(武班)이

었다. 성남동에 거주하는 맹형재(孟亨在, 1926년생)는 석흠의 12대손이다.

기계유씨는 유노주(兪魯柱)의 부인 권씨가 죽은 후, 자부(子婦,신창맹씨)의 친정어머니가 죽자 며느리가 친정살림을 돌보지 않을 수 없어 그 아들 유시환(兪是煥)과 함께 이곳으로 이거(移居)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후 청주한씨 · 한산이씨 등이 정착하여 오다 분당지역 개발로 폐동되었다.

안당모루는 당우리(唐隅里)라 불리웠던 마을로 수내동 넘어 역말과 샛당모루 사이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은 수내동 넘어역말에서 동쪽으로 가다 산모퉁이에 큰 당(堂)집이 있어 당모루로 칭하다가 후대에 와서 당우리로 불리웠다고 한다.

이곳도 신창군 맹석흠의 후손들이 세거하기 시작하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신창맹씨 시조는 고려말기 우리나라에 귀화한 당성(唐誠)이 시조이므로 그 후손이 사는 고을이라 하여 당모루라 칭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취락도 분당지역 개발에 따라 폐동되었다.

안말(內村)은 새능산 골짜기 안에 위치한 마을로 전주이씨 효령대군의 후손인 문화공(文化公)의 묘를 새능산에 쓴 후부터 그 후손이 모여 살기 시작했고 이어 전주이씨 양녕대군파의 달성서씨 · 순흥안씨 등이 대대로 세거하였다.

양계촌(養鷄村)은 1925(乙丑) 대홍수 때 분당천의 범람으로 폐허화되자 분당동 일대의 소를 이곳에다 매어 인근에서 「한나절강변」이라 불러 왔는데, 1970년대 외지인들이 양계 · 양돈을 하면서 취락으로 발전하였고 분당지역 개발에 따라 폐동되었다.

장터(盆唐里)는 수내동과 서현동 및 광주군 오포면을 잇는 삼거리에 위치한 곳이다. 예로부터 동이점과 주막과 시장(분당장)이 성행하면서 발달하였다. 분당장은 2 · 7일장으로 성남 · 광주 · 용인 · 풍덕천 등 40리 안 지역에서는 이 장을 이용하였다. 이 장은 1970년대에 성남 모란

장으로 이전되고 분당지역 개발로 폐장되었다.

점골(占谷 · 店村)은 분당초등학교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예전에 이곳에서 그릇을 구웠다 하여 점골이라 칭한다. 이 마을에 세거하여온 성씨는 신창맹씨 · 양천허씨 · 김해김씨 등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분당지역 개발로 폐동되었다.

분당동의 전주이씨는 효령대군의 손자 금성정 순(惇)의 네째 아들이 이건(李健)의 손자 완산부원군 이축(李軸, 1519~1555)의 묘를 쓰고 그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축의 아들 사제(思薺)와 사성(思省)의 후손이 세거하였는데 사재의 아들 번(潘)은 홍문관 직제학, 자(濟)는 호조참판이었다. 사성(思省)은 관직이 집의이었다. 이익재(李益宰, 1939년생)는 사성의 13대손이다.

또 다른파의 전주이씨는 정종대왕의 7남 수도군 이덕생(李德生)의 13대손 이동심(李東心, 1770~?)이 양주에서 이사와 정착함으로써 후손이 세거하였다고 한다. 태평동의 이병한(李丙翰, 1941년생)은 동심의 7세손이다.

청주한씨는 문정공 한계희(韓繼禧)의 차남 한성판관 사무(士武, 1452~1482)의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무의 아들 승원(承元)은 정선군수, 승형(承亨)은 성주목사, 승정(承貞)은 대사간, 승인(承仁)은 호군, 승의(承義)는 처사이었다.

(3) 산천(山川)

- 맹산(孟山) : 샛당모루 남족에 위치한 산. 이 산엔 신창군(孟碩欽)을 비롯한 맹씨 선조의 묘가 있다.
- 새능산 : 안골 동남쪽에 있다.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후손인 문화공(文化公)의 묘가 있으므로 새능산이라 한다.
- 점골산(店谷山) : 양영실업고등학교 뒤(동)에 있는 산이다. 전주이씨 효령대군파 후손 이자(李濟)와 이원철(李元哲, 원주현감)등

의 묘가 있다.

- 청룡오리산 : 태재고개 북쪽에 위치한 산으로 해발 113m이다. 산 내룡이 좌청룡에 해당된다고 하며 전주이씨 효령대군파의 종산이다.
- 갈미봉 : 청룡오리산 동쪽에 있는데, 먼옛날 천지개벽 때 갈매기가 앉을 만큼 남은 봉우리라 하여 「갈미봉」이라 한다.
- 바탕골고개 : 샛당모루 상나무골 사이에 가파른 소로(小路) 고개이다.
- 향나무고개 : 상나무골과 바탕골 사이에 있는 소로로 예전에 큰 향나무가 있었다하여 「상나무고개」라 칭한다.
- 새말고개 : 태재(가실)고개 동쪽에 있는 고개로 옛날 분당동 주민들이 광주 경안장 보러갈 때 이용하였으나, 1937년 태재고개를 새로 개설하면서 폐로가 되었다.
- 태재(泰峴,台嶺,楸嶺) : 가실고개라고도 하며 분당동 안말과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에 걸쳐 있으며 분당신도시 지역내에서는 가장 험준한 고개이다. 이 고개의 명칭은 동국여지승람과 조선지지 자료에는 추령(楸嶺), 광주읍지와 남한지 및 경주김씨 상촌공파 세보에는 추령(秋嶺), 한국지명총람에는 태현(台峴), 일반지지 자료에는 태현(泰峴)으로 기록되어 있다. 고개 마루터기에는 고려 우왕 때 賢臣인 김자수(金子粹)의 묘가 있다.
- 금정골 : 일제 강점기 때 금을 채광하였다는 곳으로 검바위가 있다.
- 버머턱골 : 갈미봉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범의 서식처였다고 한다.
- 비끼골 : 새능산 남쪽에 있는 긴 골짜기이다.
- 삼형제골 : 같은 유형의 골짜기가 셋이 있다하여 삼형제골(三兄弟谷)이라 부른다.
- 약사골(藥師谷) : 안당모루 위(남)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약사

암이란 절이 있어서 약사골이라 칭한다. 구전에 따르면 이곳에 세거해온 맹씨의 선조가 논밭을 갈 때 부처가 출토되어 그곳에 절을 세웠다고 한다.

- 작은범적골 : 큰 범적골 서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전주이씨 양녕대군파의 묘가 있다.
- 큰범적골 : 새능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분당동 주민들이 호랑이가 많다하여 접근을 못했다고 한다.
- 오리물 : 안말과 분당저수지 제방 사이에 있던 주민들의 바가지 우물. 물이 잘 나와 흐르는 물에 오리가 서식했다고 한다.
- 추령고개우물 : 태재정상의 바위틈에서 나오는 옹달샘 우물이다. 우물 위에 김자수의 신도비가 있다.

(4) 일반지명

- 가실고개골 : 태재고개 밑에 있으며 분당동 361-1. 367-2 논에서 1989년 한양대 박물관 조사팀에 의해 지석묘 12기가 발견되었다.
- 검바위 : 금정골에 있는데, 일명 금바위라 하다가 검바위로 불리우고 있다.
- 남대문거리 : 예전에 분당동 주민들이 지게 나무짐을 지고 쉬던 곳
- 동이주점막 : 장터 삼거리 돌마다방(분당동 239-1)이 있는 주막, 서현동과 수내동과 광주 오포면을 잇는 삼각지점이다.
- 두껍능 : 맹산 북쪽으로 약사암 남쪽, 구전에 따르면 옛날 어떤 이가 선조 묘를 쓰려고 광중을 파는데 암반이 나오자 더 파내렸더니 두꺼비가 나와 명당자리의 효과를 상실하여 패가망신하였다고 한다.
- 명문바위 : 새말고개 중턱에 있으며 구전에 의하면 옛날 한 장수가 바위에 앉아 잠시 쉬어 갔는데 장수의 발자국이 새겨져 있어 명문바위라고 한다.

- 분당교(盆唐橋) : 돌마파출소와 양영실업고교 사이에 있는 분당동과 서현동을 왕래하는 다리이다. 총 연장 18m, 폭 8m로 1968년 10월 20일 준공되었다. 다리 밑으로 분당천이 흐른다.
- 점터들 : 장터와 안말 사이의 제2분당교 앞에 있는 들. 마을에서는 「뒤지머리」라 칭한다. 질그릇 조각이 출토되고 있다.
- 제2분당교 : 안말과 장터 사이에 있다. 길이 8m, 폭 8m로 1970년 6월 20일에 준공되었다. 분당동과 태재고개를 연결하는 교량이다.
- 횟것모루 : 두껍능 내룡으로 안당모루와 수내동과 광주군 도로 사이를 말한다. 옛날에 비나 눈이 오면 도깨비(횟것)가 나타났다고 한다.

8. 삼평동(三坪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낙생면 삼거리(三街里) · 보평리(洑坪里) 지역이었는데, 1914년 광주군 낙생면 삼평리(三坪里)라 칭하고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제되었다.

1973년 7월 성남시 삼평동으로 개칭되고 1975년 3월 다시 낙생출장소에 편입되었다. 그 후 1989년 5월 중원구에 편입되었다가 1991년 9월 분당구에 편입되었다.

삼평동의 명칭은 삼거리(三巨里,三街里)의 삼(三)자와 봇들(洑坪, 福坪)의 평(坪)자를 취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삼평동에서는 빗살무늬토기가 발견되어 선사시대의 인류의 생활 흔적을 짐작할 수 있다. 삼평동의 자연취락은 독점 · 미듬골 · 봇들 · 삼거

리(三街里) · 성내미(城南)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독점은 미듬골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예전에 옹기점이 있었고, 한국전쟁 후에 난민들이 옹기를 구웠다. 그래서 점말(店村) 혹은, 수용소(收容所)라 부르기도 한다.

미듬골은 독점과 삼거리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광산김씨 · 양근함씨 · 경주최씨 등의 세거지이다. 마을이 벌판 밋밋한 곳에 자리잡아 미듬골이라고 한다는 설과, 마을 중앙의 대동우물의 물맛이 좋고 깨끗하며 취락이 아름답다하여 미동골(美洞谷)이라 하였다가 후에 미듬골로 변음되었다는 설이 있다.

봇들(洑坪)은 화랑보(또는 채산보) 앞 들판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칭한 명칭이다. 이곳엔 평산신씨가 세거하였는데, 평산신씨는 신준미(申遵美)의 손자 경일(敬一, 1551~?)과 정미(廷美)의 손자 공일(恭一, 1560~1664)과 순미(順美)의 아들 예조판서 점(點)의 차남 수일(粹一)의 자손들이 세거하여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경일은 용인현령, 아들 유(愉)는 주부, 손자 명직(命稷)은 통덕랑, 명설(命卨)은 증호조참판이었다. 공일은 무과에 합격하여 도총관에 이르고 아들 황(愰)은 황산도찰방, 손자 명중(命重)은 선교랑, 명열(命說)은 진사이었다. 점(點)은 예조판서 겸 의금부사를 역임했으며 평성부원군과 충경(忠景)의 시호를 받았다. 수일(粹一)은 감찰, 아들 절(節)은 어모장군 용양위 부사과, 증손 감(鑑)은 첨지중추부사이다. 보평과 백현동에는 주로 수일의 후손들이 세거하고 있는데 웅철(雄澈, 1940)은 수일의 12대손이다.

신씨네 다음으로 연일정씨 · 청풍김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삼거리(三街里)는 수원 · 서울 · 경안으로 가는 3각 교차점에 위치한 마을로 주막거리로 불리우기도 한다. 삼거리는 정씨 · 노씨 · 단양우씨의 세거지로 알려지고 있다.

성내미(城南)는 삼거리 서쪽에 위치한 마을로 서 · 남 · 북의 3면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다. 이곳엔 큰 부자가 살면서 볏섬을 높게 쌓았는데, 그후부터 외지에서 섬(볏섬)을 높게 쌓아 내민 곳이라 하여 섬내미라 했다가 후대에 오면서 성내미(城南)으로 칭하게 되었다고 한다.

성내미에는 건너말 · 웃말 · 중간말 · 수풍박 등이 있었으나 중간말과 수풍박은 1950년대에 폐동되었다. 이곳에 최초로 정착한 성씨(姓氏)는 청주정씨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후 광산김씨 등이 세거하여왔다. 청주정씨는 충좌위 부사과를 역임한 정창로(鄭昌老)의 아들 흠(欽,丙戌～丙午)이다. 흠은 통훈대부 첨지중추부사 부호군이었고 그 아들 이태(履泰)는 사복시정, 손자 득빈(得彬)은 승정원 좌승지를 역임하였다. 성남리에는 정흠의 10대손 정주호(鄭周鎬, 1923년생)가 살고 있다.

(3) 산천(山川)

- 쉼막산 : 도성고개 동쪽에 있는 창원황씨 종산을 말한다.
- 안산 : 삼거리 앞에 있어 안산이라 칭한다. 산 정상에는 도당재가 있다.
- 삼태봉 : 성내미 샛골과 장자골 사이에 있는 3개의 봉우리를 삼태봉이라 한다.
- 도성고개 : 독점과 고등동 사이의 393번 지방도로상에 있는 고개. 도선(道詵 : 827～899)이 지나갔던 고개라 한다.
- 메무리고개 : 성내미 주민들이 하산운동 · 운중동을 다닐 때 이용하던 소로이다.
- 미듬골고개 : 미듬골과 성내미의 중간에 있는 고개
- 옛너머 고개 : 성내미에서 낙생국민학교로 가는 고개
- 원너머고개 : 조선시대 원님이 다니던 고개
- 궁골 : 쉼막산 낙맥에 있는 작은 골짜기. 평산신씨의 사패지
- 농바위골 : 농바위가 있는 골짜기

- 뒷골 : 아랫말 뒤(북)에 있는 골짜기
- 불당골(佛堂谷) · 신선바위 서쪽 예전에 절이 있었던 골짜기
- 샛골(間谷) : 장자골과 불당골 사이를 샛골이라 한다.
- 쉼막골 : 도성고개가 높아 길손이 이곳에서 쉬어간다고 하여 쉼막골이라 한다.
- 어리골 : 성내미 건너말 뒤에 있다.
- 음골(陰谷) : 음지에 있는 골짜기. 평산신씨 사패지이다.
- 두레우물 : 봇들 가운데 있던 두레박 우물이다.
- 동안보 : 한의들보 동쪽 섬벌보 사이에 있다.
- 마른개울 : 화랑보개울 북쪽에 있는 하천.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미듬골 삼거리 봇들을 경유하여 탄천에 유입된다.
- 미듬골우물 : 미듬골 중앙에 있던 대동우물. 일명 미동공우물로 폐정됨.
- 섬벌보 : 동안보에서 북쪽 100m 쯤에 있다.
- 한강나드리보(漢江洑) : 건쟁이들 동쪽 탄천에 있는 보
- 한의들보 : 안산 서쪽 화랑보 개울에 있다.
- 화랑보 : 판교동 너다리와 삼평동 사이에 있는 화랑보개울을 막은 보
- 화랑보개울 : 운중동에서 발원하여 판교동 너다리를 거쳐 삼평동의 삼거리~봇들을 경유 탄천에 유입된다.

(4) 일반지명

- 건쟁이들 : 토질이 메말라 밭으로 되고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 고려장터 : 고구려때 늙고 병든 사람을 산채로 장사지냈던 곳
- 농바위 : 장농처럼 생긴 바위. 불당골 남쪽에 있다.
- 도당재 : 삼거리 안산 정상에 옛날 주민들이 제사(都堂祭) 지내던 곳

- 마당바위 : 마당처럼 넓고 평평한 바위. 성내미 샛골 남쪽에 있다.
- 삼거리주막터 : 삼거리 도로변에 있던 주막집 터
- 삼평이교(三坪二橋) : 판교주유소 동쪽 약 100m 지점에 있는 다리. 총연장 30m, 교폭 6m로 1985년 9월에 준공되었다.
- 섬벌들 : 논이 밭으로 변했는데 지대가 높다하여 섬벌들이라 한다.
- 수풍 : 성내미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인데, 마을(성내미)이 높게 매달려 있는 형국이므로 풍수상 좋지 않다하여 남북으로 약150m에 이르는 곳에 소나무 · 오리나무 · 전나무 · 참나무 등을 심어, 숲을 이루고 있다.
- 신선바위 : 마당바위에서 남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는데 신선이 놀던 바위라 한다.
- 재찬목들 : 물을 많이 대도 버쩍버쩍 스며든다는 들
- 제일삼평교 : 독점과 미듬골 사이에 있는데 총연장 50m, 폭 10m로 1976년 10월 20일 준공되었다.
- 조산들 : 조가의 산이었던 들
- 한의들 : 한없이 물이 많아 아무리 가물어도 농사를 짓는 곳.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 화랑모래이 : 안산 동쪽 산 모퉁이

9. 서현동(書峴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突馬面) 돈서촌(遯書村) · 양현리(陽峴里) 지역이었는데, 1914년 광주군 돌마면 서현리(書峴里)라 칭한 후,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제되었다.

다시 1973년 7월 성남시 서현동으로 개칭되고 1975년에 돌마출장소

에 편입되어 이매동 관할이 되었다. 그후 1992년 5월 1일 시 조례 1192호에 의거 재편되었다.

서현동(書峴洞)의 명칭은 돈서촌(遯書村)의 서(書)자와 양현리(陽峴里)의 현(峴)자를 취하여 칭한 이름이다.

일설에는 3백년 전에 베고개(피고개) 너머 서당(書堂)이 있었는데 그로 인하여 서당이 있는 고개 즉, 서현(書峴)으로 불리우게 되었다고 한다.

돌마(突馬)의 지명유래는 병자호란 후에 어느 날 서현동에서 주인 없는 수많은 말떼가 발견되어 붙여진 지명이라고 하나, 1991년 정자동(亭子洞)의 태안군 이방수(李彭壽)의 부인 안산김씨(安山金氏, 1523~1579) 무덤을 발굴·이장할 때에 출토된 묘지명(墓誌銘)에 보면, 광주 동쪽 토을마리(吐乙馬里)에 안장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톨마의 한자표기로 보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乙」자는 「ㄹ」 발음으로 「토」의 받침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530년 간행된 ≪신증동국여지승람≫ 제 6권 광주군 방면조에 보면 「돌마(突馬),남쪽으로 첫머리가 20리요 끝이 30리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안구(安玖, 1417년 장원급제)의 묘소도 「영장산 돌마방(突馬坊) 율리 구봉하(龜峰下)」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면 「돌마」란 지명의 사용은 조선초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서현동의 자연취락으로 된섬말(遯書村)·볕고개(陽峴)·안골·은행쟁이·절말·통로골 등이 있다.

된섬말(遯書村)은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 돈서촌으로 불리웠던 마을로 너머된섬말과 숲안 사이에 위치하여 있다.

이 마을은 수내동 숲안에 살던 한산이씨 봉화공과 후손들이 분가하여 살면서 형성된 취락이다. 구전에 의하면 조선시대 한 거사(居士)가 마

을에 은거하면서 서당(書堂)을 짓고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뜻에서 돈서말로 불리우다가 후대에 된섬말로 칭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분당지구에 편입되어 폐동되었다.

볕고개(陽峴)는 된섬말과 이매동 가골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 양현리(陽峴里)로 불리다가 햇볕이 잘드는 고개라하여 볕고개(陽峴)라 칭하였다.

볕고개는 풍수지리설로 보면 용의 머리에 해당되는 용두혈인데, 일제때 385번 지방도로를 개설하면서 파헤치자 피가 솟았다고 하여 핏고개라고도 한다. 한편 그 후부터는 서현동에 인물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 이 마을은 경주최씨 · 전주이씨 세거지로 서쪽 지역은 아랫말, 동쪽 지역은 웃말이라 칭했다. 분당지구에 편입되어 폐동되었다.

안골은 볕고개 웃말과 은행쟁이 사이에 위치하여 이진봉 골짜기 안에 아늑하게 자리잡은 마을이라 안골이라 한다.

안골에는 전주이씨 효령대군파와 경주최씨 · 한산이씨 · 창녕이씨 등이 세거하였다.

경주최씨는 도촌동 최상룡(崔商龍)의 장남 업갑의 5세손 성주(聖柱)의 차남 영대(榮大, 1801~?)와 3남 영달(榮達, 1803~1864) 형제가 이주하여 정착한 이래 6대째 후손이 세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창녕이씨는 무공랑파의 이석주(李石柱, 1680~1734)가 처음 정착한 이래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무공랑 이경구(李景球)의 손자 석주는 가선대부이었고 아들 병룡(秉龍)은 가선대부 행용양위부호군, 손자 한민(漢敏)은 선략장군 행용양위부사과이었다. 서현동 이현덕(李鉉德, 1965년생)은 석주의 12대손이다. 경주최씨의 밀집지역인 아랫말 지역은 분당지구에 편입되었고 전주이씨 집성촌인 웃말은 미편입되었다.

은행쟁이는 안골과 율동 서근배미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통로골에서

는 진너머라 칭하기도 한다. 경주이씨 · 제주고씨 · 달성이씨 등의 세거지이다.

절말은 안골 남쪽에 있던 마을로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이곳은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통로골(遜路洞 · 通路谷)은 광주군 통로동(通路洞)이라 불리웠던 마을로 은행쟁이 남쪽에 있다. 서현동 볕고개에서 율동 서근배미를 가자면 앞에 작은 통로가 있어 통로골이라 칭했다고 한다. 통로골 뒷산에는 노장군(盧將軍)이 부자로 살았는데, 집에 손님이 너무 많이 찾아왔다. 노장군은 이를 귀찮게 여겨 도사에게 물었더니 도랑물을 다른 곳으로 물길을 돌리라고 하였다. 그대로 하였더니 손님도 안오고 망했다고 한다. 노장군은 오래 살았는데 밑에골 약수를 먹고 장수했다고 한다.

통로골은 전주이씨 효령대군 후손들의 세거지이다. 전주이씨는 효령대군파의 옥산부정 이은(李殷)의 7대손 이부영(李富榮, 1646~?)이 처음 자리잡은 후 자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서현동 이강선(李康先, 1944년생)은 부영의 10대손이 된다.

(3) 산천(山川)

- 된뫼산 : 된섬말과 아랫말 사이에 있는 산. 일부는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 모란봉(牧丹峯) : 서현동 통로골과 율동 서근배미 및 이매동에 걸쳐있다. 산봉이 모란이 핀 형상이라 한다. ○○군 부대가 주둔해 있다.
- 이진봉(壬辰峯) : 이매동 안말과 서현동 안골에 걸쳐있는 산으로 임진왜란 때 진(陣)을 쳤던 곳이며, 임진봉이라고도 한다.
- 분당고개 : 분당동 점골과 통로골 사이에 있는 고개로, 된섬말 어린이들이 분당초등학교 다닐 때 이용하던 고개이다.
- 진너머고개 : 통로골과 은행쟁이 사이에 있는 비포장 도로로 은행

쟁이에서는 통로골고개라 한다.

- 뒷골 : 영장산 동북쪽에 있다. 수내동 웃말 뒷에 있는데, 분당지구로 편입되었다.
- 미근배미골 : 은행쟁이 동북쪽 비탈진 골짜기에 작은 논배미가 층층으로 있다.
- 모란골(牧丹谷) : 모란봉 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들이 서현동 · 이매동 양민을 학살한 곳이다.
- 밑에골 : 통로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노장군이 마셨다는 약수가 있다.
- 서현저수지 : 통로골 동쪽에 있는데 몽리면적은 24헥타에 이르이고, 몽리구역은 서현동의 통로골 주변의 농경지이다.

(4) 일반지명

- 고래실들 : 은행쟁이 앞(남)에 있는 비옥한 고래논이다.
- 서현교 : 1972년 5월 30일에 준공된 다리로 총연장 33m, 교폭 9.3m이다.
- 신경들 : 된섬말 서쪽에 있는 들로 분당지구에 편입되었다.
- 황새울들 : 서현교 북쪽에 있는 넓은 들로 황새의 서식처였다고 한다.

10. 석운동(石雲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낙생면 석운리(石雲里)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바라미를 병합하여 석운리(石雲里)라 칭하였다. 그 후 1971년 성남출장소에 편제되고 1973년 7월 성남시에 편입되었다.

1975년 낙생출장소에 편입되었으며 운중동 관할이 되었다.

석운동(石雲洞)은 도루니, 되루니, 돌운, 도롤니, 석운, 도륜니(道倫里) 등으로도 불리운다.

동명의 유래는 산이 높고 골이 깊어 구름이 자주 끼고 돌이 많아서 석운리(石雲里)라 칭하게 되었다는 설과 예전에 길가던 선비가 해가 저물어 이곳에서 머물러 갔는데, 이로 인하여 일이 잘못되어 서운하게 되었다고 하여 「서운리」라하던 것이 한자로 표기되면서 석운리가 되었다는 설이 있다. 또한 이경석(李景奭, 1596~1671)이 낙향하여 살면서 도륜리(道倫里) 또는, 수신동(修身洞)이란 명칭을 붙였다고 한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석운동의 취락은 고갯말 · 논골 · 바라산리 · 도루니(석운동)가 있는데 석운동이 중심이 된다. 바라산리는 망산리(望山里), 바라미, 발화산리라고도 칭하는데 산이 가파르고 높아서 그쪽으로 가는 나그네가 산을 바라보면서 간다고 하여 「바라산리」라 불리워지다가 「발화산리」로 변했다고 한다. 그 위치는 석운동과 웃장토리 사이의 석운교 합수지점에서 왼쪽으로 외지인의 민가 두채가 있는 곳이다.

도루니는 전주이씨가 정착, 세거한 이래 밀양박씨가 입주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주이씨는 덕천군(定宗의 子)의 아들 신종군 공간공 이효백(李孝伯, 1416~1487)이 석운동에서 사냥을 즐겼는데,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죽거든 이곳에 묻어달라」고 하였다. 이런 연유로 신종군의 묘를 석운동에 쓰고 자손이 왕래하였는데, 신종군의 현손 영의정 · 대제학을 역임한 이경석(李景奭)이 배포하여 자손이 세거함으로써 전주이씨 집성촌락이 형성되었다.

이경석은 효행으로 정려(旌閭)가 내렸고 문충(文忠)의 시호를 받았으며 경석의 아들 철령(哲英)은 평시서령, 손자 우성(羽成)은 정랑, 증손자 진양(眞養)은 현령, 진망(眞望)은 대제학 · 예조판서, 현손 광덕

(匡德, 1690~1748)은 호조참판 · 대제학을 지내는 등 자손이 출사 · 현달하여 명문(名門)을 이루었다.

(3) 산천(山川)

- 된봉산 : 석운동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가는 뒷산 고개로 매우 가파르다.
- 망산(望山) : 바루산리 뒷산으로 망을 보던 산이라 한다.
- 쇠직이산 : 석운동의 남쪽에 있는 산이다.
- 덕고개 : 석운동에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으로 가는 고개
- 천왕골고개 : 예전에 석운동 사람들이 안양을 왕래하던 고개
- 당골 : 석운동 남족에 있는 산신제터가 있는 골짜기
- 뒷골 : 석운동 뒤에 있는 골짜기

11. 수내동(藪內洞)

(1) 동명의 유래

수내동 지역은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 수내촌(藪內村) 지역이었다가 1914년 광주군 돌마면 수내리(藪內里)라 칭하였고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제되었다.

다시 1973년 7월 성남시 수내동으로 개칭되었고, 1975년 3월 돌마출장소에 편입되어 분당동의 관할이 되었다.

수내동(藪內洞)은 고려 공민왕 때는 낙계(落溪)라 부르던 곳인데, 조선조 경종 때 청백리 이병태가 숲을 가꾸어 숲안이라 부르다가 한자로 표기되면서 숲안(藪內)이라 부르게 되었다. 조선중기에 취락이 형성된 것으로 알려진 이곳은 한산이씨 선조 묘와 신도비, 정려(旌閭門), 고가(古家,李宅求의 家), 사당, 지석묘(支石墓), 보호수 등의 문화유

적이 있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수내동 숲안마을 야산에는 선사시대의 지석묘 13기가 발견되어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정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수내동에는 너머역말 · 숲안 · 역말 · 요골(龍谷) · 절곡(寺谷) 등의 자연취락이 있다.

너머역말은 역말에서 동쪽 산등성이 너머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곳은 한산이씨 봉화현감을 지낸 봉화공(奉化公) 이장윤(李長潤)의 후손들이 세거하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는데, 일명, 작은 역말이라 한다. 분당지구 개발 구역으로 1990년 폐동되었다.

숲안(藪內)은 조선시대 광주군 돌마면 수내촌이라 칭했던 마을이다. 한산이씨 족보에는 돌마리(突馬里)로 기록되어 있다. 이곳은 분당천과 마을 사이에 밤나무 등의 나무 숲을 이루어 그안에 있으므로 「숲안」으로 부르게 되었다는데, 나무를 심고 숲을 가꾼 사람은 한산이씨 봉화공 7대손으로 이조참의를 지낸 문청공(文淸公) 이병태(李秉泰, 1688~1758)로 전해진다.

마을이 동서로 길게 생겼는데, 동쪽지역은 웃말, 서쪽지역은 아랫말이라 한다.

이 마을에 최초의 정착자로 알려진 봉화현감 이장윤(李長潤, 1455~1528)은 성균관 대사성 우(堣)의 아들이다. 장윤이 별세하자 그의 손자 토정 이지함(李之函, 1517~1578)이 마을 뒤 영장산에 자리를 잡고 묘를 쓰고 세거함으로써 한산이씨 집성촌을 이루고 뒷산은 이씨 묘역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한산이씨 숲안종친회」를 형성하게 되었다.

장윤의 아들 질(秩)은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 · 한성군, 치(穉)는 수원판관, 온(穩)은 현감, 정(程)은 어모장군 행충좌위부호군, 손자 지숙(之菽)은 종묘서령, 지숙의 아들 탄(坦)은 종친부전부, 증(增)은 아천군 예조판서를 역임했고 시호가 의간(懿簡)이

다. 대대로 후손이 출세하고 현달하여 가문을 빛냈고, 후손들에게 자존심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고 하겠다. 숲안이 세거하다 도시개발로 인하여 금광동에 이주한 이형구(李亨求, 1938년생)는 장윤의 16대손이 된다. 수내동 한산이씨 묘역 일원은 경기도기념물 제116호로 지정되었다.

역말(驛村)은 숲안과 정자동 능골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옛날 양재도(良才道) 찰방(察訪)에 딸린 낙생역(돌마역 · 수내역)이 있어 형성된 취락이라고 한다.

고려말기 이색(李穡)의 아버지 이곡(李穀, 1292~1351)이 지은 기문에 「지정 기축(至正己丑, 1349)년 여름 4월에 어버이를 뵈오려 고향으로 가는 길에 낙생역(樂生驛)에 이르니 광주목사 백화부(白和父)가 글을 보내 초청하고……운운」하였음을 볼 때에 낙생역은 고려 충정왕 1년(1349)에 이미 설치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러나 그 위치는 분명하지 않다. 낙생(樂生)의 오랜 지명은 여기서 고증할 수 있겠다.

이 마을은 숲안의 한산이씨들이 분가하여 살면서 취락이 형성되었고 역이 위치하면서 발전했을 것으로 보인다.

요골(龍谷)은 본래 역말에 속한 마을이었으며 연일정씨 · 전주이씨 등이 거주하다 1990년에 폐동되었다.

절골은 숲안 웃말 뒤에 있는 지역인데 예전에 절이 있었다고 한다.

(3) 산천(山川)

- 영장산(靈長山) : 내동 숲안과 된섬말에 걸쳐 있는 해발 70m의 산으로, 수내동 산1-2번지에 속한다. 숲안에서는 마을 뒤에 있는 산이라 「뒷뫼」라 부르기도 하고 임진왜란 때 군인들이 진(陣)을 쳤던 곳이라 이진봉(移陣峯 · 壬辰峯)이라 칭하기도 한다. 또한 복정동, 신흥동, 단대동에 걸쳐있는 해발 193.6m의 산도 영장산이라고 한다. 그러나, 남한산성 남쪽 성남시내에 걸쳐있는 일대의 산들이 모두 영장산으로 기록되었음은 각 성씨 족보에 기록된 묘의

소재 명칭에서 알 수가 있다.

수내동의 영장산은 한산이씨 종산으로 이장윤(李長潤) · 이증(李增) · 이경류(李慶流) 등의 묘가 있다.

- 요골산(龍谷山) : 요골(용곡) 마을 뒤에 있는 산인데,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좌청룡(左靑龍)에 해당된다고 한다. 한산이씨 선대묘는 분당지구 개발에 따라 폐묘되었다.
- 파리봉(發梨峯) : 맹산 서쪽으로 수내동과 분당동에 걸쳐 있다. 구전에 따르면 옛날 천지개벽 할 때 파리가 앉을 만큼 남아 「파리봉」이라 칭했다고 하나 조선 지자료에는 발이봉(發梨峯)으로 기록되어 있다.
- 넘말고개 : 넘말과 역말 사이에 있는 고개로 넘말에서는 역말고개라 칭한다.
- 달기집재 : 영장산 서쪽에 있는 고개인데 현재는 논이다.
- 씨앗고부통이 고개 : 역말과 정자동 웃말 사이에 있는 고개인데 수내동 정자동 나무꾼이 다니던 오솔길이다.
- 지령고개 : 역말과 분당동 안당모루 사이의 소로이다. 예전에 이곳에 살던 전주이씨가 부자로 살면서 손님들이 들끓는 것을 귀찮게 여기던 중, 한 스님의 말을 듣고 산 혈을 끊었더니 손님도 오지 않고 부자도 망했다는 전설이 있다.
- 당골(堂谷) : 역말과 분당동 안당모루 사이의 집이 한채 있었으므로 당골이라 부른다. 집이 헐린 후 농경지로 변했다.
- 문박사골 : 영장산 동쪽 지류로 옛날에 문박사란 절이 있었다고 한다.
- 산수골 : 산소골이라고도 한다. 한산이씨 선조 묘가 많았다.
- 삼밭골 : 역말 뒤 정자동과 분당동 사이에 있는 넓은 골짜기로 예전에 삼밭이 있었다고 한다.
- 탁자뿌리 : 영장산에서 서북쪽으로 길게 뻗은 산 줄기이다.

- 넘말우물 : 넘말 논 가운데 있었다. 옛날 넘말 · 역말의 대동우물
- 덕고개우물 : 덕고개 아래에 있는 우물로 역말의 대동우물
- 분당천(盆唐川) : 율동 큰매지봉에서 발원하여 서근배미를 거쳐 분당저수지, 안말(분당동), 숲안을 경유 탄천에 유입되는 하천이다. 숲안에서는 앞개울, 또는 벌치개울, 안말에서는 뒷개울로 부른다.

(4) 일반지명

- 광신터들 : 역말과 분당동 안당모루 사이에 있는 들로 일명, 광수터(광시터)라 칭하기도 한다.
- 기우제단터(祈雨祭壇址) : 숲안, 역말 주민들이 가물 때에 기우제를 지내던 곳으로 영장산 정상에 있다.
- 넙쩍바위 : 편던 아래(서부)에 넙적하게 누워있는 바위로 두껍바위라고 칭하면 인물이 나고, 넙쩍바위라면 인물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부근에는 산소를 안쓴다고 한다.
- 마루들 : 돌마교 북쪽으로 이곳 들이 다른 들보다 높다 하여 마루들이라 하는데 천수답이었다가 탄천 보(권순네보)를 막아 이용하면서 수답이 되었다.
- 말무덤 : 조선조 병조좌랑 이경류(李慶流)가 상주에서 왜병과 싸우다가 전사하자 수내동 윗산에 장사를 치른 후, 상주에서 주인의 피묻은 한삼과 유서를 물고 500리를 왔던 말이 3일간 죽을 먹지않고 슬퍼하다 3일만에 죽자 주인(李慶流) 무덤 앞(아래)에 말을 묻었다. 이 충절의 말무덤이 아직도 남아 있다.
- 수내교 : 숲안 아랫말 앞에 있는 다리. 1974년 새마을 사업으로 가설되었는데, 길이 20m, 폭이 4m이다. 다리 밑으로 분당천이 흐른다.
- 숲안교 : 1976년 가설한 다리로 길이 14m, 폭이 4m인데 다리 밑으로 분당천이 흐른다.

- 연당(蓮塘) : 숲안 아랫말 느티나무 옆에 있다. 본래는 홍연(紅蓮)이었는데, 어쩌다 백년(白蓮)이 되면 문중에서 재상이 배출한다는 속설이 있다. 면적은 약 200평이다.
- 장수발작바위 : 숲안에서 서현동 된섬말 가는 한천가에 있는데 장수의 발자욱이 있는 바위라 한다.
- 정자터 : 한산이씨 선조들이 자제들의 교육을 위해서 세운 사당이었던 터.
- 편던 : 산수골과 정자동 웃말 사이로 이곳 일대가 평평하므로 편던(번던)이라 부른다.

12. 야탑동(野塔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 오야소동(梧野所洞) · 상탑동(上塔洞) · 하탑동(下塔洞) 지역이었는데, 1914년 광주군 돌마면 야탑리(野塔里)라 칭하였고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

다시 1973년 7월 성남시 야탑동(野塔洞)으로 개칭되고 이매동의 관할이 되었다.

야탑동(野塔洞)의 동명칭은 오야소(梧野所)의 야(野)자와 상탑 · 하탑(上塔 · 下塔)의 탑(塔)자를 취한 것이다. 오야소란 원래 앞의 들이 넓고 마을 주위에 오동나무가 많았기 때문에 「오동나무 들마을」이라 하다가 오동나무 열매가 많이 열리는 마을(梧野實)로 변하였고, 그것이 다시 「왜실」로 줄었다가 한자화 할 때에 오야소(梧野所)로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또 상탑(上塔) · 중탑(中塔)의 탑은 언제 어떻게 축조되고 해체 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으나 구전에 의하면 약 300여년 전에 탑(塔 · 土塔)

이 있어서 탑골(塔谷)로 불리웠다고 한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야탑동 169-3畓, 175畓, 176畓, 185林, 191-1垈, 198-3畓, 210田 등에 54기의 지석묘(支石墓)가 분포되어 있어서 선사시대부터 인류가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야탑동에는 오야소(梧野所)·웃탑골(上塔谷)·중탑(中塔) 등이 있다.

오야소(梧野所)는 조선시대 광주군 돌마면 오야소동(梧野所洞)으로 불리웠던 마을로 이매동 물방아거리와 여수동 벌말 사이에 위치한다. 이곳에는 오동나무가 많아 오야소(梧野所)라 칭하였으며 문헌에 따라 왜소·와소(瓦所)로 기록하고 있다.

오야소에 최초로 세거한 성씨는 동래정씨이고 이어 경주최씨가 정착하였다.

웃탑골은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 상탑동(上塔洞)이라 칭하였던 마을로 남서울공원묘지와 중탑 사이에 위치하여 있다. 중탑을 하탑이라고 한데 반하여 그 위에 자리잡고 있어 웃탑골이라 부른다.

웃탑골은 광주이씨·동래정씨·성주이씨·경주이씨 등이 세거했던 마을이다.

중탑은 오야소와 상탑 사이에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 하탑동(下塔洞)이라 칭하였던 곳이다. 탑이 어디에 세워졌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일제때 상탑·하탑·오야소가 야탑리로 되면서 그 중간지점에 있어 중탑(中塔)이라 칭한다.

경주이씨는 이주철(李柱哲, 1918년생)의 11대조인 이경표(李慶標)가 양주군에서 이주하여 정착한 후에 후손이 세거하여 집성촌을 이루었다. 당시 6촌인 경담(慶覃)은 상탑골에 배포하였다. 경표는 찰방 숙(潚, 1590~1636)의 5남으로 첨지중추부사이었고 아들 현(炫)은 군자감정, 손자 위기(渭基)는 증 참의이었고 증손 영(鍈)은 도사이었다. 경

담은 문경현감 호(灝, 1578~1638)의 3남으로 통사랑, 아들 현(炫)은 참봉, 황(熿)은 군자감 봉사, 손자 태기(泰基)는 첨정, 증손 은(銀)은 첨사이었다. 이상기(李相冀, 1957년생)은 경담의 11대손이다.

성주이씨는 참판 수암(壽巖)의 아들 이달원(李達源)이 상탑동에 처음 정착한 뒤에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달원은 병조참판, 손자 덕윤(德潤)은 훈련원 주부이다. 상탑은 성주이씨 집성촌이었는데 14대손 이정순(李正淳, 1941년생) 등이 살다 신도시 개발에 따라 이주했다.

동래정씨는 참봉공파의 정광남(鄭廣南)의 차남 익화(翼和)가 화성군 속달리에서 난리를 피해 상탑에 이주하여 정착한 이래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광남의 장남 신화(信和)는 사헌부 감찰, 손자 재열(載悅)도 사헌부 감찰이었다. 그리고 익화의 손자 영선(永先)은 양근군수를 지냈다. 정태호(鄭泰浩 · 鶴謨 : 1939년생)는 익화의 10대손이다.

광주이씨는 인손(仁孫)의 3남 이극증(李克增, 1431~1494)이 상탑에 자리잡은 후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극증은 광천군에 봉해지고 판중추부사를 역임했다. 아들 세홍(世弘)은 공주목사, 손자 복흥(復興)은 부사과이었다.

(3) 산하(山河)

- 안산 : 중탑 양지마을 동쪽에 있는데, 경주이씨의 종산(宗山)이다.
- 아랫장구봉 : 웃장구봉 서쪽에 있는데, 예전에 호랑이가 물마시던 곳이라하여 주민들이 접근을 꺼려했다. 옥돌이 매장되었다고 한다.
- 웃장구봉 : 큰매지봉의 연봉으로 남서울 공원묘지 서남쪽에 있는데 장고처럼 생긴 봉우리다.
- 능안골 : 웃탑골 북쪽에 있는 광주이씨 묘역인데, 기와 조각이 출토된다.
- 덕골(德谷) : 웃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부처바위가 있다. 여기

에 치성을 드리면 부처님으로부터 덕을 받는다하여 덕골(德谷)이라하며 부처골이라 칭하기도 한다.

- 산소골고개 : 오야소와 중탑 중간지점에서 도촌동 증말을 왕래하는 고개로 이곳 일대에 고성이씨 선대묘가 있다.
- 똥고개 : 야탑동에 있는 마귀할미가 똥을 누고 간 고개라 한다.
- 불당골 : 능안골 서쪽에 있는데, 사찰이 있었다하여 불당골(佛堂谷)이라 칭한다. 기와 조각이 출토된다.
- 산소골 : 경주이씨 산소가 많은 양지마을 북쪽 골짜기이다.
- 성지골 : 남서울공원묘지 골기 일대를 말한다.
- 웃골(上谷) : 웃탑골 위(동)에 있어 웃골이라 부른다.
- 큰골 : 야탑동에서 제일 큰 골짜기인데, 큰매지봉 낙맥으로 중탑 응달말 동쪽에 있다.
- 야탑천(野塔川) : 남서울공원묘지 뒤(큰매지봉)에서 발원하여 웃탑골, 중탑, 오야소를 경유하여 탄천에 유입된다.
- 앞순내 : 오야소 앞(서)에 있던 하천으로 1960년대 농경지 정리로 폐천되었다.

(4) 일반지명

- 무잡모퉁이 · 야탑양수장 남쪽 약 50m 지점에 큰 웅덩이가 있어 무잡모퉁이라 칭한다. 이곳은 수심이 매우 깊었다고 한다. 예전에 탄천에 보를 막는데 힘이 미치지 못하자 이곳에서 하염없이 울었다 하여 운여울모퉁이라 칭하기도 한다.
- 바른고개 번던 . 바른고개에 있는 버덩으로 이곳을 넘으면 광주읍 직리 곧은골에 이른다.
- 부처바위 . 부처골에 있는데, 이곳에 머리 없는 부처가 있어 부처바위라 칭하게 되었다. 이 돌부처는 도난당했는데 주민들이 비슷한 부처를 만들어 놓고 치성을 드린다.

- 안산건너들 : 중탑 양지마을 북쪽에 있는 들로 경주이씨 선대묘가 있다.
- 안테들 : 중탑 안산건너들 안에 있는 들이라 안테들 또는 안티들이라 칭한다.
- 야탑교 : 돌마초등학교 남쪽 100m 지점에 있는 다리로 연장 22m, 폭이 10m인데 1982년 5월 19일 준공되었다.
- 장승박이 · 돌마초등학교 중탑사이로 일제시대까지 장승이 있었으며, 또 하나가 무잡모퉁이에 있었다고 한다.
- 황새바위 : 사람 형상을 하고 있어 장사바위라 칭하다가 다리가 황새모습을 하고 있다하여 황새바위라 하는데, 황새그림이 새겨져 있다고 한다.

13. 운중동(雲中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낙생면의 지역이었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중산운리(中山雲里)와 산운리(山雲里)를 병합하여 운중리(雲中里)라 하였다.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제되고 1973년 7월 성남시 운중동(雲中洞)으로 개칭되어 운중 · 하산운 · 대장 · 석운동을 관할하였다. 다시 1975년 3월 낙생출장소에 편입되었고 1977년 6월 동명개정시 운중동으로 통합개칭하였다. 그후 1989년 5월 중원구에 편입되고 1991년 9월 분당구에 편제되었다.

운중동(雲中洞)의 명칭은 국사봉(國寺峯) 밑이 됨으로 뫼루니, 뫼룬, 산운리(山雲里)라 하였는데 계곡이 길고 깊으며, 앞 뒷산에 구름이 많이 끼어 있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이 골짜기는 한양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 산운리는 상산운리(上山雲里, 윗

뫼루니) · 중산운리(中山雲里,아랫뫼루니)로 구분된다. 여기서 운(雲)자와 중(中)자를 취하여 운중동(雲中洞)이라 칭하게 되었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운중동은 상산운동, 중간말로 크게 대별 된다. 상산운리(웃뫼루니)에는 안동김씨가 정착한 이후 고성이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동김씨는 김순년(金順年, 1916년생)의 9대조 김이찬(金履纘, 1694~1765)이 양주 석실부락에서 이주하여 왔다. 이찬의 장남은 노순(魯淳), 차남 정순(鼎淳, 1731~1815)은 부호군이었다. 운중동에서 석운동으로 가는 고개 일대가 김씨 종산인데 김이찬의 묘는 고개길 중간쪽 백당골(柏堂谷)에 있다.

중간말에는 경주이씨, 용인이씨, 전주이씨 등이 세거하였다. 전주이씨는 공조참의 이서(李緖)의 아들 삭령군수 이제언(李悌彦)때에 정착한 것으로 전해진다. 아들 곤수(坤首)는 어모장군 용양위부사직이었다. 제언은 이규삼(李圭三, 1916년생)의 14대조이며 이서(李緖)의 무덤은 율동에 있다.

용인이씨는 29세손 이보천(李寶天)의 아들 경우(敬祐, 1834~?)가 이주하여 자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분당에 거주하는 이건영(李建榮, 1946년생)은 경우의 7대손이다.

(3) 산천(山川)

- 긴골산 : 진골산이라고도 하며 웃뫼루니 방죽옆에 위치하여 있다.
- 동녘산 : 중산운리 동쪽에 있는 산
- 신당게산 : 산신제를 지내던 산으로 청계산 낙맥이며 운중동 뒷산
- 앞절산 : 중산운리 앞 동사무소 아래 절이 있던 산
- 응달산 : 운중동 북쪽에 있는 산
- 자지봉 : 운중동 뒷산, 장등이 자지처럼 하나 뻗었음

- 청계산 : 운중동 뒷산
- 하오개산 : 화의고개가 있는 산
- 뫼루니고개 . 운중동에서 석운동으로 가는 고개
- 학현(鶴峴) : 화의고개라고 하며 운중동에서 화성군으로 넘어가는 고개
- 가골 : 운중동 아랫말 남향판의 골짜기
- 개경주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후문 옆 골짜기
- 백당골(柏堂谷) : 석운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중간 골짜기. 잣나무가 많았다.
- 사그막골 : 운중동 서쪽으로 저수지에 침수되었다.
- 삼바골 : 석운동 가는 고개 좌측 골짜기
- 서설골 : 문턱이라고도 하며 중간말 위(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돌이 많다.
- 안골 : 석운동 가는 길에 있는 골짜기
- 앞작골 : 상산운리 앞에 있는 작은 골짜기
- 웃벌골 : 학현 위에 있는 골짜기
- 제부골 : 운중동에 있는 골짜기
- 하나골 : 운중동의 골짜기

(4) 일반지명

- 개경주들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후문 옆들
- 귓대바위 : 절터에 있는 바위
- 동녘논 : 동녘산 밑에 있는 들(논)
- 망수논들 : 동사무소 앞 하천가 동사무소쪽에 있는 논.
- 쇠실들 : 운중동 동사무소 앞들
- 양천게 : 양첨지 모이게. 예전에 지게질 할 때 쉬던 곳
- 족두리바위 : 족두리 같이 생긴 바위

14. 율 동(栗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 율리(栗里)였는데, 1914년 광주군 돌마면 율리(栗里)로 칭했고,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

다시 1973년 7월 성남시 율동(栗洞)으로 개칭되었고, 1975년 3월 돌마출장소에 편입되어 분당동 관할이 되었다.

율동(栗洞)의 명칭은 밤의 명산지에서 유래한 것 같다. 서근(三斤)이나 되는 밤이 생산되었다고 풍자할 만큼 밤의 고장이라서 옛부터 취률리(取栗里), 석물을 갖춘 묘역이 많아서 석인리(石人里)라 했다고 한다. 성남시지에는 조선조 중엽에 「산일리」라 부르기도 했는데, 1915년에 율리(栗里)라고 한것이 오늘에 이르고 있다고 기록되었다. 그러나 안골 순흥안씨 족보에 보면 안침(安琛, 1445~1515)등의 묘지가 율리(栗里)로 기록되어 있고, 영의정 이종성(李宗城, 1692~1759)이 지은 대사간 유상재(柳尙載) 묘갈문에도 율리(栗里)로 표기되었으며, 유상재 형 유상경(柳尙敬)의 묘갈문에는 율촌(栗村)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볼 때에 1915년 설은 틀린 것이다.

율동에는 순흥안씨, 진주유씨, 청주한씨, 한산이씨 등의 선조묘가 있으며 새마을중앙연수원 분당저수지 등이 있다.

구전에 따르면 풍수설 또는 정감록에 율동 일대에는 58대장성 10승지지(十勝之地)가 있다하여 사방에서 풍수가들이 찾아왔다고 한다. 이를 입증이나 하듯 한국전쟁 당시에도 이 지역은 안전하였으며 분당지구 개발구역에서도 제외되었다. 율동에 새마을 연수원이 들어선 것을 두고 사람들은 풍수지리설이 맞는 것 같다고 한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율동은 도랫말 · 샛말 · 서근배미 · 안골 · 양지골 · 웃말 · 응달말 등의

자연취락이 있었다.

도랫말은 분당저수지 동쪽 가에 위치한 마을이다. 이 마을은 본래 서근배미에 속하였던 취락으로 옛날 서근배미의 가운데말과 샛말 사이에 소나무가 많았는데, 이 마을을 왕래하자면 그 밑으로 돌아가야 했으므로 「도랫말(回村)」이라 칭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랫말은 청주한씨 한계희(韓繼禧)의 후손이 최초로 정착한 이래 의령남씨 · 문화유씨 등이 세거하였다. 문화유씨는 유상운(柳尙運, 1636~1707)과 유상재(柳尙載, 1644~1703) 형제가 살았다. 율동에서 살다 율동에서 별세한 유상운은 호조 · 이조 · 형조판서를 거쳐 영의정에 올랐고, 시호는 충간(忠簡)이다. 아우 상재는 예조참판 대사간을 역임했다.

샛말은 응달말과 양지말 사이에 있는 마을이다. 서근배미는 어언면(於焉面)에 속하였던 마을로 율리(栗里)로 불리웠던 마을이다. 조선시대에는 밤의 명산지로 밤나무가 많고 해마다 풍년이 들었는데, 그 중 가장큰 밤알 하나가 3근이나 되었다고 하여 서근밤(三斤栗)이라 칭하다가 후세에 「서근배미」, 「서근바미」라고 했다. 또 3근이나 되는 밤을 심었더니 썩었다 하여 「썩은밤」, 「썩은바미」라고 하기도 한다.

이 마을에는 조선조 성종 때의 좌찬성을 지낸 한계희(韓繼禧, 1423~1482)의 묘를 분당저수지 위(북) 쪽에 쓰고 이 일대를 사패지로 받고 그 후손이 세거하면서 「한씨촌」을 형성하였다. 관찰사 한혜(韓蕙)의 아들 문정공 한계희는 아들 여섯을 두었는데, 사문(斯文)은 시호가 공간으로 서천군, 사무(士武)는 한성판관, 사신(士信)은 삼등현련, 사개(士介)는 목사이었다.

율동에는 주로 사신(士信)의 차남 도정공 석(碩, 1479~?)의 후손이 많은데, 한백관(韓百寬, 1938년생)이 살고 있다. 석은 훈련원도정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 아들 인원(仁源)은 동북현감, 예원(禮源)은 감찰, 지원(智源)은 교리를 역임하였다. 지원의 아들 술(述)은 참판, 회

(懷)는 승지이다.

서근배미는 매지봉에서 발원한 샘이 마을을 동서로 가로 질러 분당 저수지에 유입되는데, 그 북쪽지역을 양지말 남쪽은 응달말, 동쪽은 웃말, 응달말 남쪽은 가운데말 또는 건너말, 가운데말 남쪽은 샛말이라고 한다.

진주유씨는 호조참판 유(柔)의 차남 유종선(柳從善, 1519~1578)이 양주에서 이주하여 처음 정착한 후에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종선은 통정대부 호조참의 홍문관 직제학을 역임했고 아들 석보(錫輔)는 조산대부 현감, 손자 경붕(景朋)은 수문판관 정사공신이었고, 신붕(信朋)은 효행으로 일생을 보냈다. 동막골 묘하에 살아온 유씨는 종선의 16대손 희춘(熙春)의 고조부 때에 큰말에 내려와 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큰말에는 종선의 16대손 희일(熙日)이 살고 있다.

율동의 최초의 배포자로 알려진 순흥 안씨는 시조 안자미(安子美)의 9대손인 해주목사 안종약(安從約, 1355~1424)의 장남 구(玖)가 정착한 이래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구는 1417년 장원급제 후 통정대부 판군자감에 이르렀으며 1441년에 별세하였다. 구의 아들 지귀(知歸)는 홍문관 · 예문관 대제학을 역임했고 장손 호(瑚)는 공조참판, 선(璿)은 부정, 침(琛)은 공조판서, 종(琮)은 임실현감, 기(璣)는 성균관 전적 겸 남학교수를 지냈다. 그리고 호의 아들 처신(處信)은 부사, 처관(處寬)은 감역, 침의 아들 처명(處明)은 회양부사를 역임했다. 기의 아들 처경(處經)은 장수현감을 역임하였다.

안씨네는 구의 동생인 경(璟)의 4남 돈후(敦厚)의 3남 정민공 당(瑭)이 조광조(趙光祖)를 추천 등용시켰다는 이유로 1519년 기묘사화와 송기련(宋杞漣)의 무고로 1521년 신사무옥에 연류되어 멸문지화를 당하였다. 이때 율동에 있는 호(瑚)의 고가도 화재를 당하고 기(璣)의 아들 처경(處經)도 율동의 고대광실을 버리고 남원으로 내려가 은둔생활을 하였다.

안씨네가 율동을 떠난 후 세월이 수백년 흐른지라 새마을 연수원 일대 안씨종산의 묘소가 도굴꾼에 의해 훼손되고 석물은 가져가고 유적은 흔적도 없으며, 묘를 실전하는 변괴를 당하였다. 안씨네는 묘소를 관리하고 조상을 받들기 위하여 1974년 구의 18대손이요 기(璣)의 사손인 재덕(在德)의 3남 안봉선(安鳳善, 1898~1977)이 남원에서 옛조상이 살던 곳인 율동으로 이거하였다. 현재는 그의 아들 준근(準根, 1946년생)이 율동 재실에 살고 있다.

안씨네는 처선의 아들 정(珽)의 3녀가 한계희(韓繼禧)의 후손인 월탄 한효순(韓孝純)에게 출가하여 율동 청주한씨와는 사돈지간이 된다.

(3) 산천(山川)

- 서평능산 : 분당저수지 북쪽에 있는 해발 122.4m의 산인데 서평군(西平君) 한계희의 묘가 있어 서평능산이라 부른다.
- 작은매지봉 : 큰매지봉 남쪽에 있는 산으로 율동과 광주읍 직동리 곧은 골에 걸쳐있다.
- 천리봉(千里峯) : 큰말(양지말) 동쪽에 있는 산인데 천리마(千里馬)가 달리는 형상이라 한다.
- 큰매지봉 : 옛날 천지개벽 때 매가 한마리 앉을 만큼 남았다하여 매지봉이라 칭한다. 또 일설에는 망아지처럼 생겼다고 하여 망아지봉, 또는 구봉산(駒峯山)이라고도 한다. 율동과 야탑동에 걸쳐 있으며 석회석이 지질을 이루고 있다.
- 아리랑고개 : 서근배미 샛말과 웃말 사이에 있는 비포장 오솔길이다.
- 이매동고개 : 이매동과 서근배미 큰말 사이에 있는 소로로 고개 마루터기에는 서낭이 있다.
- 장고개(場峴 · 長峴 · 千鳥長谷) : 율동과 광주읍 직동리 사이에 있는 고개인데, 율동 · 서현동 · 수내동 · 분당동 · 이매동 주민들이

광주군과 경안장을 갈 때 이용하던 고개로, 일명, 천조장골고개, 곧은 골고개라 칭한다.

- 통로골고개 : 서현동 통로골과 율동 서근배미 큰말에 걸쳐있는 고개로1983년 새마을 중앙연수원이 설립되면서 확장 · 포장되었다.
- 거북안골 : 서근배미와 새마을 중앙연수원 사이에 있는 골짜기, 일명 거북능안골이라 칭한다.
- 동막골 : 양지마을 동쪽에 있는 산골로 돌이 많다.
- 부처중골 : 응달말 동쪽에 있는 작은 살골로 예전에 부처가 있었다 하여 칭하게 되었다.
- 북당골 : 불당골이라고도 하는데 응달말 뒤(동)에 있다.
- 서편능안골 : 분당저수지 북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한계희 등의 묘가 있다.
- 절골 : 새마을중앙연수원 동쪽인데 예전에 사찰이 있었다고 한다.
- 큰능안골 : 전주이씨 세대의 묘가 있었으므로 큰능안골이라 칭한다.

(4) 일반지명

- 검은바위 : 부처중골 하천 길가에 있는 바위로 1970년대 새마을 사업 때 바위 일부가 파괴되었다.
- 아랫장주리 : 옛부터 천하 명당터가 있다고 전해지는 곳으로 도랫말 동쪽 다랑치논을 말한다.
- 안씨터 : 안침 묘하 좌측으로 안호(安瑚)의 기와집터
- 웃장주리 : 아랫장주리 위(동남)를 말하는데, 현재 농경지(논)로 명당자리가 있다고 한다.
- 율동교(栗洞橋) : 성남시에 의해 1983년 5월 말경 준공된 총연장 7.5m의 다리이다.

15. 이매동(二梅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 이매동(二梅洞)이었다가 1914년 광주군 돌마면 이매리(二梅里)라 칭하였고,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

다시 1973년 성남시 이매동(二梅洞)으로 개칭되고 행정동으로서 서현동 · 야탑동 등을 관할하였다. 1975년 3월 돌마출장소에 편입되고, 1977년 6월 이매동(二梅洞)으로 통합개칭되었다. 그 후 1989년 5월 중원구에 편입되었다가 1991년 9월 분당구에 편입되었다.

이매동의 명칭은 이매동 사무소(이매동 96)와 탄천 사이에 있는 들을 「이무슬들」이라하여 이곳 지세가 매화꽃이 떨어지는 형국(梅花落之穴)에서 유래되었다고 한다. 일설에는 약 200년 전에 순흥안씨가 입주하여 마을을 이루고 「임의 술」이라 부르다가 이매동(二梅洞)또는 임의곡(任意谷)으로 불렀다고도 한다. 진주유씨 세보에는 이매곡(二梅谷) 도는 임의곡(任意谷)으로 기록되어 있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이매동의 자연취락으로는 갓골 · 물방앗거리 · 안말 등이 있다. 갓골은 갓처럼 오목하게 생긴마을로 안말 북쪽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일명, 가골(佳谷 · 佳洞)이라고도 한다. 이 마을은 지세가 갓형국이라서 재물이 쌓이면 흩어지므로 어느 정도 부(富)를 축적하면 마을을 떠나야 부를 지탱할 수가 있다고 한다.

이 마을은 밀양박씨, 경주최씨, 수원최씨, 안동김씨 등의 세거지로 알려지고 있다. 수원최씨는 100여년 전 최홍출(崔洪出)이 광주읍 쌍영리에 살다가 이곳으로 이주하여 최씨 세거지가 되었다.

물방앗거리는 갓골과 야탑동 오야소(梧野所)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는 예전에 경부고속도로 진입 삼거리에 물방아가 있었다 하여 물방앗거리라 칭하게 되었다. 동서로 길게 생기 이 마을은 동쪽지역을 웃말, 서쪽지역을 아랫말이라 부른다.

물방앗거리에는 경주최씨, 안동김씨 등이 세거하여 온 것으로 전해진다. 안말은 갓골 동쪽에 있는데, 구진버리산 아래에 아늑하게 자리잡은 마을이라하여 안말(內洞)이라 불리우고 있으며 동·서로 길게 생겨 동쪽지역을 웃말, 서쪽지역을 아랫말이라 칭한다.

안골의 안동김씨는 안렴사공파의 참봉 김윤후(金允厚)의 셋째 아들 방어사 주(碉, ?~1693)가 처음 정착한 이래 자손이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는 동생 확(碻)의 장남 사정(嗣鼎)을 계자로 삼았는데, 8대를 독자로 내려오다 세연(世演)에 이르러 4남을 두었다. 사정은 무산 도호부사 겸 무산진병마 동첨절제사, 아들 연(璉)은 통덕랑, 손자 익보는 통정대부이었다. 안골 김혜경(金惠卿, 1919년생)은 방어사 주의 9세손이다. 김씨 다음으로 단양우씨가 세거하고 있다.

물방앗거리의 경주최씨는 도촌동 최업갑(崔業甲)의 5세손 통정대부 최성주(崔聖柱)의 장남 영소(榮肖, 1798~?)가 분가하여 자리잡은 이래 지금에 이르고 있다. 병익(秉益, 1926년생)은 영소의 현손이다. 또한 강릉 김씨는 만호 김경인(金敬仁)의 14세손 연호(演鎬, 1854~?)가 이주하여 그의 손자 진영(振榮, 1930년생)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 골짜기의 원주민은 문화유씨로 오래전 서울로 이주한 유석홍(柳錫興)의 선대로 알려지고 있다.

(3) 산천(山川)

- 구진버리산 : 큰매지봉 서쪽으로 이매동 안말과 군부대 사이에 걸쳐있는 산이다.
- 외탁굴산 : 물방앗거리 동쪽에 있는 산으로 조선시대에 절이 있었다고만 전해진다.

- 종지봉 : 천지개벽 때 종지만큼 남았다는 산으로 물방앗거리 동쪽에 있다.
- 갓골고개 : 갓골과 안말 사이에 있는 비포장의 소로길, 일명 안말고개이다.
- 막으내미고개 : 서현동 은행쟁이와 안말 사이에 있는 고개로 서현동 · 율동 어린이들이 돌마초등학교 다닐 때 이용하던 고개였다.
- 박석고개 : 율동 서근배미와 이매동 안말 사이에 있는데 고개 마루턱에 서낭이 있었다. 군부대에 편입되었다.
- 탁굴고개 : 이매동에서 야탑동 탁굴로 넘어가는 고개
- 통로골고개 : 서현동 통로골과 안말 사이에 있는 비포장 소로인데 1970년대 말경 군부대 설치로 폐로가 되었다.
- 파래골고개 : 물방앗거리 웃말과 야탑동 중탑에 걸쳐 있던 고개인데 1980년대 통신학교 설립으로 폐로가 되었다.
- 혜매기고개 : 갓골 동북쪽으로 갓골과 물방앗거리에 걸쳐있는 소로
- 구진버리골 : 안말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토질이 비옥하다.
- 덜봉골 : 좁고 긴 골짜기로 구진버리산 북쪽에 있다.
- 삼천병마골(三千兵馬谷) : 이진봉 서쪽으로 안말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병자호란 때의 정세규(鄭世規, 1583~1661) 장군의 격전지로 유명하다. 충청도 관찰사였던 정세규는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으로 인조를 구하려고 올라오다 용인에서 패하였고, 남은 군졸을 이끌고 광주땅인 지금의 성남지역으로 와서 다시 싸우다가 크게 패전하였다. 45일만에 조선의 굴복으로 호란이 끝난 후 어느날 이매동(또는 서현동) 산 골짜기에서 수 많은 말 떼가 발견되었는데, 주인을 잃은 정세균 군졸의 말이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이곳의 지명이 돌마면(突馬面)이 되었고 말 떼가 발견된 곳이 삼천병마골이 된것이다.(서현동 참고)

- 조고리골 : 물방앗거리 동쪽에 위치하는데 골짜기에 돌이 많아 토박하고 곡식이 잘 안된다.
- 파대골 : 외탁굴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로 후미진 곳이라 산적의 들실거림으로 있던 민가가 외지로 이주하여 폐동되었다.
- 혜매기골 : 이무술에 있는 골짜기로 예전에 큰 부자가 살았다. 그 부자집엔 손님이 많이 찾아왔는데 이를 귀찮게 여긴 주인은 시주하러 온 스님이 일러준대로 물방앗거리와 야탑동 중탑 사이의 산허리를 끊었다. 그후 손님도 안오고 부자는 망했다는 전설이 있다.
- 서가산우물(徐家山井) · 안말 개울에 있던 우물로 1960년대 말까지 안말의 대동식수였다.
- 앞개울 : 종지봉과 안말 뒤(똥고개)에서 발원하여 물방아거리 앞을 거쳐 탄천에 합류되는 하천이다.
- 옻우물 : 옻이 올랐을 때 마시면 효험이 있다는 우물
- 이매저수지 : 갓골 앞에 있는 저수지로 몽리면적 22헥타르인데 탄천과 385번 지방도 사이의 농경지 농업용수로 이용되며 낚시꾼들의 낚시터로 한 몫을 차지한다.
- 큰보(大洑) : 탄천에 있는 보로 조선조 말기에 설치했다고 한다.

(4) 일반지명

- 구레들 · 이무술들 남쪽에 있는 들로 분당지구 개발구역에 편입되었으며 분당역이 있다.
- 굴바위 · 종지봉 정상 부근에 있는데 바위 밑에 굴이 있다. 예전에는 금수의 서식처였다.
- 도랑터(都堂址) · 이매동 주민들이 음력 9월 초에 마을의 안정과 풍년을 기원하는 산신제단을 말한다.
- 마루들 : 탄천과 이무술 사이의 들인데 들이 높으므로 마루들이라 한다.

- 병풍바위 : 굴바위 서쪽에 있는 병풍을 친 형상의 큰 바위이다.
- 이매교(二梅橋) : 이매동 동사무소 북쪽 20m 지점에 있는 다리, 총연장 11m, 교폭 10m로 1982년 5월 19일 준공되었다. 1988년에 다리에 인도교가 가설되었다.
- 이무슬들 : 마루들과 385번 지방도 사이에 있다. 판교와 사송동일대에서는 「거지들」이라 한다. 풍수지리설로 매화꽃이 떨어지는 형국(梅花落之穴)이라고 한다.
- 탄천교(炭川橋) . 물방앗거리 서쪽 250m 지점에 있는 다리. 총연장 160m, 교폭 20m로 1985년 12월 31일 준공되었다.
- 토끼바위 : 굴바위 남쪽에 있는 바위로 토끼가 앉아있는 형상이다. 이 일대가 토끼의 서식처라고 한다.

16. 정자동(亭子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돌마면 정자동(亭子洞)이었다가 1914년 광주군 돌마면 정자리(亭子里)라 칭한 후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

다시 1973년 7월 성남시 정자동(亭子洞)으로 개칭되고, 1975년 3월 돌마출장소에 편입되여 분당동의 관할이 되었다.

정자동(亭子洞)의 명칭은 조선 중기에 이천부사겸 광주병마진관 등을 역임한 이경인(李敬仁, 1575~1642)이 이곳 탄천 상류에 정자를 짓고 학문에 전념하였는데, 그 후 정자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정자리(亭子里)로 부르게 되었다 한다. 정자리는 전주이씨의 집성촌인데, 성종(成宗)의 아들 무산군(茂山君)의 5남 태안군(泰安君;李彭壽, 1520~?)이 유람하던 곳으로 400여년 전 그의 증손인 이경인이 정자를 지

었는데, 그의 아호가 또한 정촌(亭村)으로 이 일대를 정자리(亭子里)라 한다.

이곳에는 전주이씨 선대의 묘와 묘비, 지석묘, 봉수지 등의 문화유적이 소재하여 있다. 정자동 일부는 분당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 그 구역에 편입되었다.

(2) 취락과 세거성씨

정자동 82, 274번지 일대에 지석묘 11기가 분포되어 있어 선사시대의 인류의 발자취를 짐작할 수 있다. 정자동은 너머능골 · 넘말 · 새능안골 · 양지쪽 · 웃말 · 중간말 등의 자연취락으로 형성되었다.

너머능골은 능골 북쪽너머에 있는데, 능골에 살던 풍산홍씨, 전주이씨 등이 분가하면서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분당지구개발에 편입되어 폐동되었다.

넘말은 웃말 북쪽 산 등성이 너머에 있는 마을인데 일명, 구석말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주이씨의 세거지로 전주이씨 무산군파의 별묘(別廟)가 있었다.

능골(陵谷)은 중간말 서쪽에 자리잡은 마을로 성종의 손자인 태안군(泰安君) 이방수(李彭壽)의 묘가 있어 능골이라 한다. 능골은 경주이씨 · 파평윤씨 등의 세거지로 폐동되었다. 새능안골은 능골 남쪽인데 1970년대 말경에 정자동 출신 이방우가 처음 정착하면서 취락이 형성되었다.

양지쪽 마을은 중간말 남향에 위치한 마을로, 광주이씨가 이거한 이래 전주이씨 등이 세거하였다.

중간말은 능골과 웃말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다. 전주이씨 무산군파와 파평윤씨 · 최씨 등의 세거지로 전주이씨의 집성촌이었다.

정자리에는 광주이씨도 세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행백(行百)의 아들 이경민(李敬敏)이 정착한 이래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경민은 예조정랑, 아들 성철(聖喆)은 참봉, 손자 기원(基元)은 통덕랑이었다. 정자리에는 경민 이하 성재(成載)에 이르는 8대가 세거하다가 성재의 아들 종성(鍾聲)때에 충청도로 이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전주이씨는 성종대왕의 12남인 무산군 이종(李悰, 1490~1525)의 장남 영선군 귀수(龜壽)와 3남 영안정 학수(鶴壽)의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선군(永善君)의 후손은 그의 현손 이석구(李錫耉, 1626~1664)가 정착한 후에 자손이 세거하여 온 것으로 전해진다. 석구의 양자 정흥(鼎興)은 호조좌랑, 손자 수대(遂大)는 진사이었다. 영선군의 16세 종손 민우(敏雨, 1920년생)는 초대 돌마면장을 역임한 준구(浚九)의 아들이다.

영안정(永安正)의 후손은 그의 손자 이체(李棣, 1549~1612)이래로 자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체는 화능부정 수혜(秀蕙)의 아들로 태산수(泰山守)였고, 아들 경유(敬裕)는 참봉, 손자 몽익(夢翼)은 진사이었다. 이서구(李序九, 1930년생)는 영안정의 15세손이다.

태안군 이방수(李彭壽)는 부인 안산김씨(安山金氏,충좌위부호군 瑛의 딸)와 정자동에 배포한 이래 후손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진다. 안산김씨는 자녀가 없자 화능부정의 차남인 강(橿)을 태어난 달(1551년 12월)에 데려다 양손(養孫)으로 삼았다. 인원수 이강(李橿, 1551~1585)은 아들 경인(敬仁)과 경의(敬義)를 두었는데, 경인은 아호가 정촌(亭村)으로 정자동에 정자를 지어 현 정자동(亭子洞)의 지명의 기원을 이루었다. 경인은 이천부사 광주진병마진관동첨절제사를 역임했고 경의는 목사를 지냈다. 태안군의 묘역은 경기도 기념물 제118호로 지정되었다. 이방우(李邦雨, 1934년생)는 정촌(亭村)의 13대손이다.

동래정씨는 신흥동 사암 정대년(鄭大年)의 4남 순복(純復)의 후손이 광주 태전리에서 살다가 순복의 13대손 정종현(鄭宗鉉, 1930년생)의 증조부 수설(秀卨)이 이사와서 살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3) 산천(山川)

- 동그란산 : 능골 앞(남)에 있는 산으로 동그랗게 생겼다. 전주이씨 선대 묘역이 있었다.
- 성덕산(聖德山) : 웃말 동쪽에 위치한 산으로 광주군 오포면 신현리와 웃말 구미동에 걸쳐있는 해발 340m의 산이다. 광복 직전까지만 해도 주민들이 산신제(山神祭)를 지내던 곳이다. 산중턱 큰 절골과 작은절골에 절터가 있어서 불곡산(佛谷山)이라 칭하기도 한다.
- 장자골산(長子谷山) : 성덕산(불곡산) 지류로 장자골 남쪽에 있는 해발 79m의 작은 산이다.
- 태밑산 : 웃말과 중간말에 걸쳐있다. 태재고개 밑에 있어서 태밑산이라 한다. 임진왜란 때 군인들이 진을 치고 있었으므로 임진봉(壬陣峯,壬辰峯)또는, 이진봉으로 칭하기도 한다.
- 덕고개(德峴) : 웃말과 수내동 역말 사이에 있다. 고개가 크므로 덕고개라 하며 고개 마루터기에 서낭이 있다.
- 봉우재 : 웃말 서남쪽에 있는데 정자동 주민들이 구미동을 왕래할 때에 이용했던 해발 109.1m의 고개이다.
- 붉은고개 : 중간말과 능골 사이에 고개길인데 황토라서 붙여진 이름이다.
- 새우고개(新峴) · 정자동 주민들이 구미동을 왕래하기 위하여 새로 고개길을 닦고 다녔는데 샛고개(間峴) 또는, 새고개(新峴)라 불리다가 후대에 새우개, 새우고개 등으로 칭하게 되었다.
- 뒷골(後谷) . 웃말 뒤(북)에 있는 작은 골짜기이다.
- 모퉁밖 : 웃말과 성덕산 사이 산모퉁이로 정자동 나무꾼들이 쉬던 곳이다.
- 작은절골 : 성덕산 줄기로 큰 절골에서 동북으로 약 1m 지점의 골짜기, 예전에 사찰이 있었는데 빈대 때문에 폐사되었다. 기와조

각 주춧돌이 출토된다.

- 장자골(長子谷) : 수내동 역말과 능골사이의 골짜기로 조선시대에 큰 부자가 살았다. 1989년 한양대 박물관조사팀에 의해 지석묘 7기가 확인되었다.
- 큰절골(大寺谷) : 웃말 동쪽 성덕산 초입인데 큰 절이 있었다고 하며 와편등이 출토되고 있다.
- 칠성당우물(七星堂井) : 중간말 중앙에 있는 대동 우물로, 일제시대 이희춘(李喜春)이 자손을 위해 치성드리기 위하여 팠다고 한다.

(4) 일반지명

- 가내들(細谷) : 들이 좁고 가늘므로 가내들(細谷) 또는, 가느들이라 한다.
- 무쇠말잔등 : 큰절골에서 태밑산을 거쳐 병풍바위에 이르는 지역. 이곳은 일제때에 일인들이 큰 인물이 나지말도록 쇠말뚝으로 혈(穴)을 끊었다고 한다.
- 병풍바위 : 정자보 앞에 있는데 병풍처럼 생긴 바위로 절벽을 이루고 바위 옆이 깊어서 명주실 한타래를 다 풀어도 끝이 안닿는다고 한다.
- 소금장(鹽場) : 장터거리 지늪들 안에 있었는데 지대가 낮아 비만 오면 탄천이 범람하여 폐장되었다고 한다. 소금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분당지구 개발 후 정자역(亭子驛)이 들어섰다.
- 수평(樹坪) : 평평한 곳에 나무가 많아 숲을 이룬 곳이라 수평이라 부른다.
- 정자보 : 능골과 구미동 사이 탄천에 있는 보를 칭한다.
- 지늪들(泥坪) : 탄천 서쪽에 있는 들로 「진입께」라 부르며 지대가 얕아 비가 조금만 와도 질펀한 곳이다.

17. 초림동(草林洞)

(1) 동명의 유래

초림동은 1992년 5월 1일 성남시조례 제 1192호에 의거 새로 정해진 동명이다. 초림동은 성남시 수내, 정자, 궁내동의 일부를 분할 · 병합하여 동명을 정한 것이다.

18. 판교동(板橋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낙생면(樂生面) 판교(板橋)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너분배를 병합하여 판교리라 하였다.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고 1973년 7월 성남시 판교동(板橋洞)으로 성남시에 편입되었다. 1975년 3월 낙생출장소에 편입되어 판교 · 삼평 · 백현의 3개동을 관할하다가 그후 1989년 5월 중원구에 편입되었다가 1991년 9월 분당구로 편입되었다.

판교동(板橋洞)의 명칭은 서출동류(西出東流)하여 판교 앞을 흐르는 운중천에 널판지로 다리를 놓고 다녀서 「널다리」라고 부르다가 「너다리」로 변했다. 이것이 한자로 판교(板橋)라고 표기 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한다. 1530년 간행된 ≪신중동국여지승람≫ 광주목 역원조에 판교원(板橋院)이 주(州) 남쪽 45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판교란 지명이 사용된 시기는 조선초기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낙생면(樂生面)의 낙생(樂生)의 지명은 백현동 앞에서 열렸던 낙성시장(落城市場)이 낙성(落城)으로 다시 낙생(樂生)으로 변했다고 한다. 또는 병자호란 때에 충주병사 정세규(鄭世規)가 남한산성을 지키기 위하여 북진하여 오다 판교에서 패전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왕이 항복하

였기 때문에 낙성(落城)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 광주목(廣州牧)에 보면, 고려 충정왕(忠定王) 때의 이곡(李穀, 1298~1351)의 기문(記文)에 1349년 4월 고향가는 길에 낙생역에 이르니, 광주목사 백화부(白和父)가 운운하였으니, 낙생이란 지명은 고려 때부터 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취락과 세거성씨

판교동의 옛 취락명칭은 너분바위와 판교(널다리)가 있다. 너분바위는 약 50여평 가량의 바위가 운중천변에 깔려 있고 큰 느티나무가 있어서 정자나무가 되었고, 선비들이 머무는 곳이 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너분바위(廣岩)가 마을의 명칭이 된 것이다.

너분바위에는 연안이씨가 최초로 정착하였는데 판교 일대가 연안이씨 사패지이다.

연안이씨는 춘천부사를 역임한 이속(李續)의 후손이 살기 시작하였다. 이속은 근강(根剛)·근건(根健)·근정(根精)·근수(根粹) 4형제를 두었는데, 차남 근건(?~1456) 때에 정착한 이래 세거하여 온 것으로 전해진다. 근건의 아들 인문(仁文)은 첨지중추부사로 연안군(延安君)에 추봉되고, 인충(仁忠)은 청백리로 선정되었다. 인문의 아들 오(塢)는 진위현령, 전(戩)은 경주부윤, 광(垙)은 상의원별좌, 곤(坤, 1462~1524)은 가선대부 오위장으로 연성군(延城君)에 추봉되었고, 말(抹)은 삼척도호부사 겸 강릉진병마 동 첨절제사를 지내는 등 자손이 번성하고 현달하여 집성촌을 이루고 판교의 원주민으로 세거하고 있다.

판교동 너분바위에는 근건의 16대손 이의권(李義權, 1936년생)등 후손이 세거하고 있다.

널다리에는 나주나씨가 처음 자리잡은 이래 평산신씨, 김해김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전해지는데 나철재는 그 후손이다. 김해김씨는 김길(金吉)·김수업(金守業) 형제가 살기 시작한 이래 8대손(김완길)에 이르

고 있다고 한다. 순천김씨는 통훈대부 상의원정 김사원(金嗣源)이 처음 정착한 이후 후손이 세거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원은 연안이씨 이근건(李根健,?~1456)의 사위로 처가 근처에 살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원의 차남 윤탁(允濯)과 그 자손이 여수동으로 분가하여 그들의 묘역은 여수동에 있고, 사원 이하 9대의 묘가 판교 연안이씨 종산에 있었다. 사원의 아들 윤제(允濟)는 평안병사부총관, 윤탁(允濯)은 울진현령, 손자 자호(自湖)는 군자감판관이다.

(3) 산천(山川)

- 느리고개 : 판교 남쪽에 있는 고개, 성남지방서 판교쪽으로 들어오는 고개를 말한다.
- 원너머고개 : 판교 북쪽에 있는 서울가는 고개를 가리킨다.
- 도터골 : 판교 북쪽의 전답과 산야로 이루어진 골로 더터골이라고도 칭한다.
- 비석골 : 일명 비성골이라 하는데 연안 이씨 묘의 비석이 있어 부르게 된 지명이라고 한다.
- 운중천 : 판교 앞을 흐르는 개울을 지칭하는 말이다.

(4) 일반지명

- 가내바닥들 : 판교 2통 앞들, 공장, 양계단지가 들어섰다.
- 너븐바위 : 판교 2통에 있는 바위인데, 바위 위에 집을 지어 도로에서는 일부만 보인다.
- 뉘에머리끝 : 판교 2통 하산운동과 판교동의 경계를 이루는 뉘에 같이 뻗은 산 끝
- 느티나무게 : 판교2통 연안이씨 선대가 심었다는 수백년된 느티나무가 있는 곳
- 망곡터(望哭址) : 예전에 국상(國喪)이 났을때 예의를 하던 곳,

소방소 옆으로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었다.

- 도당터(山神祭址) : 판교 동쪽 약 500m 지점의 마을 제사를 지내던 곳
- 물방앗거리 : 판교 동북간 300m 지점으로 예전에 물방아가 있던 곳
- 수용소 : 6.25당시 피난민이 임시 거주했던 곳
- 의식곡(衣食谷) : 뉘에머리산 못미처에 집이 있었는데 연안이씨가 살던 곳
- 이문(里門) : 마을 문으로 입구문과 출구문이 각각 있었다.
- 장터거리 : 판교서 분당가는 길 약 112m 지점에 옛날 장이 섰던 곳
- 초적재(草績載) : 낙생중학교 옆들
- 화랑모게 : 판교 제일 아래 산너머에 주막이 있었는데, 주모가 죽어서 묻은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19. 하산운동(下山雲洞)

(1) 동명의 유래

조선시대에는 광주군 낙생면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두밀(杜密)을 병합하여 하산운리(下山雲里)라 하였다. 1971년 경기도 성남출장소에 편입되었다가 1973년 7월 성남시에 편입되고, 1975년 3월 낙생출장소에 편입되어 운중동의 관할이 되었다.

하산운동의 명칭은 하산운리(下山雲里)를 살려서 동명화(洞名化)한 것이다.

(2) 취락과 세거성시

하산운동은 두밀과 아랫뫼루니로 구분된다. 하산운동에는 연안이씨 · 파평윤씨 · 전주이씨 등이 세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안이씨는 연성군 이곤(李坤, 1462~1524)의 차남 사평공 이공승(李公升, 1501~1533)이 판교동 너분바위에서 분가하여 삶으로써 사평공파(司評公派)를 형성하였다. 공승의 아들 간(侃)은 고성군수이었고, 손자 대로(大老)는 돈녕교위, 홍노(弘老)는 경기도 관찰사, 국로(國老)는 장례원 판결사이었다. 증손 승설(承說), 승윤(承尹)은 임진왜란시 순절(殉節)했고, 승정(承貞)은 용양위부호군을 역임 하는 등 자손이 번성하고 가통이 이어져 하산운동의 토착인으로서 세거하여 왔다. 이의덕(李義德)은 사평공의 14대손이다.

(3) 산천(山川)

- 수루너머산 : 현대사회연구소에서 금토동으로 가는 산 고개를 수루너머 고개라 한다.
- 성내미고개 : 하산운동에서 삼평동으로 가는 고개
- 거무래골 : 아랫뫼루니 남쪽으로 현 남서울골프장이 위치한 곳
- 두물(두밀,杜密) : 하산운 서남쪽 현 판교농원 뒤 쓰레기 메운 골짜기. 그 일대 산을 두밀산이라 한다.
- 앞작골 : 두밀 앞 중간말과 아랫뫼루니 경계를 이루는 지역
- 서리실 : 남성골프장이 자리 잡은 산
- 말무덤(길) · 하산운동과 운중동의 중간, 한절에 말무덤이 있었다.
- 한절 : 옛날에 절이 있던 곳이다.
- 한절하천 : 청계산에서 발원하여 판교를 경유 송파로 흐르는 하천

第2 編　城南의 人物

제 1 장　姓氏別 人物)

제 2 장　贈諡 및 封君人物

제 3 장　殉節·孝子·淸白吏
·抗日運動·著者人物

第1 章 姓氏別 人物

성남지역은 선사시대의 유물유적이 발견됨에 따라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아왔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어느 시대의 누가 살았는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유사시대의 문헌을 더듬어 알 수 있는 것은 여말조초(麗末朝初)의 인물 몇 사람이 가장 오래된 인물로 기록될 것이다.

성남과 관련이 있는 가장 오래된 인물은 온조왕과 이색의 부친 이곡, 강천명, 김약시, 방순, 조견, 김자수, 남경문, 목균경, 이존비, 이암, 이집 등이다.

여기에 수록된 인물은 실록이나 지리지나 각 문중의 족보 등을 조사하여 주로 출신지가 성남이거나, 墓가 성남에 있었거나, 충효나 관직경력이 있는 인물들이다. 수록된 55개 姓氏의 인물 총 720명 중에서 시호(諡號)를 받은 사람은 41명, 군(君)으로 피봉된 사람은 52명, 사절(死節)한 사람은 13명, 효자는 12명, 청백리(淸白吏)는 5명, 조선말기 항일운동자는 18명이다.

본 「城南의 人物」은 성남시민의 정신문화의 근간을 이루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시되어야 한다. 수록된 인물의 기록이 잘못 되었거나, 누락된 인물은 필자에게 연락하여 주면 다른 기회에 수정 · 증보할 것이다.

◈ 姜 氏 ◈

○ 姜 老(1438~1474) : 晋州人, 字는 少之, 諧의 1男, 生員 · 文科, 관직은 成均館 대사성 〈복정동〉

○ 姜栢齡 : 晋州人, 濱의 1男, 進士, 봉렬대부 典設司別提 〈복정동〉
○ 姜 濱 : 晋州人, 熙臣의 5男, 生員, 강릉 현감 〈복정동〉
○ 姜聖益(1706~1758) : 晋州人, 樸의 1男,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孝友, 儒林重望 〈금광동〉
○ 姜叔淮 : 晋州人, 進士, 남원 부사·濟用監正 〈복정동〉
○ 姜 璋(1820~1884) : 晋州人, 자는 仲武·葦玉·堯草, 호는 秋琴·古歡堂, 鎭華의 子, 閔魯行·金正喜 門人, 시인, 저서로 「東文子母分解」, 「庸學解」, 「孫武子注評」, 「古歡堂集」 등 〈복정동〉
○ 姜 隱 : 晋州人, 자는 之顯, 호는 格齋, 天命의 1男, 牧隱의 門人, 官職은 동지밀직사 겸 수문전 학사 〈복정동〉
○ 姜靜一堂(1772~1832) : 晋州人, 在洙의 딸, 제천출신, 靜一堂은 號, 夫는 尹光演, 조선후기 여류문인, 저서 「靜一堂遺稿」, 묘소는 향토유적 제1호로 지정 〈금토동〉
○ 姜廷俊 : 晋州人, 栢齡의 1남,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 〈복정동〉
○ 姜天命 : 晋州人, 元吉의 1남, 고려조의 예의판서 성균관 대제학, 정헌대부, 墓碣文은 李家源 撰 〈복정동〉
○ 姜 樸(1685~ ?) : 晋州人, 자는 文卿, 碩望의 次男, (증) 통훈대부 사복시정 〈복정동〉
○ 姜 諧 : 晋州人, 隱의 一男, 통훈대부 종부사 少尹 〈복정동〉
○ 姜 詷 : 晋州人, 자는 子悟, 廷俊의 1男,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 〈복정동〉
○ 姜熙臣(? ~1519) : 晋州人, 자는 士光, 호는 默菴, 叔淮의 1男, 進士, 철원 부사 (증) 이조 참의, 墓碣文은 閔箕 述, 金魯書 〈복정동〉

◈ 高 氏 ◈

○ 高奉遠 : 濟州人, 자는 敬道, 仁和의 2男, 五衛將을 역임 〈동원동〉

○ 高永德(1770~ ?) : 濟州人, 자는 汝洪, 元吉의 1男, (증) 가선대부 한성 좌윤 〈동원동〉

○ 高元喆 : 濟州人, 光于의 1男, (증) 공조 참의 〈동원동〉

○ 高仁和(1816~ ?) : 濟州人, 永德의 3男, 통정대부 오위도총부 부총관 〈동원동〉

◈ 權 氏 ◈

○ 權 憬(1579~1655) : 安東人, 자는 省吾, 호는 淸溪, 徵의 5男, 영평 현령 (증) 좌승지, 묘갈명은 현손 權胤이 지음 〈금토동〉

○ 權 佸 : 安東人, 攀의 1男, 충훈부 도사, (증) 승정원 좌승지 〈금토동〉

○ 權 弦(? ~1568) : 安東人, 자는 聖甫, 愚의 1男, 趙光祖의 門人, 충좌위 부사과, (증) 이조판서, 추가로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諡號는 忠定, 花城君 〈금토동〉

○ 權兢(1527~1607) : 安東人, 자는 壽翁, 弦의 1男, 어모장군 行 충좌위 대호군 〈금토동〉

○ 權得己(1570~1622) : 安東人, 자는 重之, 호는 晩晦, 이조판서 克禮의 子로 克寬에게 입양, 진사, 文科, 고산도 찰방, (증) 이조 참판, 墓誌는 沈之源이 짓고 墓碣은 許穆이 지었다. 저서로 「晩晦集」·「然松雜記」가 있다. 공주 도산서원에 제향 〈금곡동〉

○ 權 攀(1419~1472) : 安東人, 자는 子龍, 호는 無盡亭, 陽村 權近의 손자이며 찬성 權踶의 子, 음보로 顯陵 직장, 형 擘과 함께 癸酉靖難에 가담, 佐翼功臣 2등, 典農寺 少尹, 文科, 가선대부에 올라 花山君 피봉, 경기도 관찰사, 개성부 유수, 諡號는 安襄, 有賜碑文 〈금토동〉

○ 權 恂 : 安東人, 자는 士正, 兢의 4男, 중훈대부 호조 정랑 〈금토동〉

○ 權 授 : 安東人, 자는 天卿, 호는 雲谷, 사마, 현감, 孝子 〈금토동〉

○ 權 諰(1604~1672) : 安東人, 자는 思誠, 호는 炭翁, 좌랑 得己의 子, 한성 판윤 〈금곡동〉

○ 權 訣(1600~1673): 安東人, 호는 樂素, 得己의 2男, 송라찰방 〈금곡동〉

○ 權 愚 : 安東人, 자는 希顔, 佸의 1男, 원주 목사 (증) 대사헌, 永嘉君 〈금토동〉

○ 權 仍 : 安東人, 硡의 2男, 司襄判官, (증) 승지 〈금토동〉

○ 權 詵 : 安東人, 得己의 1男, 함창 현감 〈금곡동〉

○ 權 徵(1538~1598) : 安東人, 자는 而遠, 호는 松菴, 硡의 4男, 문과, 충청도·강원도 관찰사, 형조 참판, 함경도 관찰사, (증) 영의정, 諡號는 貞翼, 비문은 宋時烈이 짓고 諡狀은 李景奭이 지었다 〈금토동〉

○ 權 怗 : (1573~ ?) : 安東人, 자는 靜吾, 호는 東里, 공조판서 徵의 4男이다. 생원, 文科, 경주 부윤, 가선대부 형조 참판 〈금토동〉

○ 權 惘 : (1571~1633) : 安東人, 자는 子誠, 兢의 2男, 명천 부사, 청백리, 위원·정평에 頌德碑가 있고, 有碑文及行狀 〈금토동〉

○ 權 恰(1563~1638) : 安東人, 자는 正夫, 徵의 2男, 현감 〈금토동〉

◈ 金 氏 ◈

○ 金 璥 : 延安人, 麟趾의 子, 의금부도사 〈양지동〉
○ 金光業 : 順天人, 檣의 3男, 병절교위 〈판교동〉
○ 金克俊(1761~1818) : 順天人, 자는 時卿, 趾祥의 1男, 武科, 선전관 〈여수동〉
○ 金魯奎(1764~ ?) : 慶州人, 승정원 좌승지 〈상적동〉
○ 金大熙 : 金海人, 통정대부 〈복정동〉
○ 金德根(1701~1774) 光山人, 자는 潤甫, 華壽의 子, 첨지중주부사 〈성남시〉
○ 金得遇(1729~ ?) : 光山人, 자는 夢與, 德根의 3男, 武科, 營將, (증) 승정원 좌승지 〈금광동〉
○ 金洛敍(1766~1820) : 光山人, 자는 仲瑞, 得遇의 子, (증) 호조 참판 〈금광동〉
○ 金 潼 : (1602~1619) : 光山人, 자는 登甫, 호는 易安堂, 宣務郎 〈창곡동〉
○ 金萬成(1631~1680) : 光山人, 자는 中集, 宇仁의 2男, 進士, 호조 정랑 〈금광동〉
○ 金 泂 : 順天人, 字 宗宇, 日新의 子, 進士 〈판교동〉
○ 金事結 : 延安人, 예조참판 滉의 孫子, 양양 부사 〈양지동〉
○ 金嗣源 · 順天人, 자는 孝甫, 文科, 통훈대부 행 상의원정, (증) 가선대부 병조참판 〈판교동〉
○ 金嗣鼎 : 安東人, 碉의 系子(生父 碏), 무산 도호부사 겸 무산

진 병마동첨절제사 〈이매동〉

○ 金相善 · 光山人, 자는 稚承, 洛敍의 1男, 첨지중추부사 〈금광동〉

○ 金商集(1828~ ?) · 慶州人, 俊喜의 子, 관직은 五衛將 〈상적동〉

○ 金世德(1481~1520) : 光山人, 嘏의 子, 鄭光弼의 문인, 司馬, 乙巳禍 〈금광동〉

○ 金壽宗 · 順天人, 自湖의 子, 돈녕교위 〈판교동〉

○ 金順成(1429~1481) : 光山人, 자는 景純, 笋의 子, 생원, 평양 庶尹, 유갈문 〈창곡동〉

○ 金 鑰(1624~1699) · 順天人, 자는 士守, 衡弼의 系子(生父 洪弼), 孝子 〈여수동〉

✓ ○ 金若時(1335~1406) : 光山人, 호는 陰村, 鼎의 3男, 司馬 · 文科, 직제학, (증) 조선, 자헌대부 이조 판서, 諡號는 忠定, 碣文 李穡撰, 有行狀 〈금광동〉

○ 金 讓(? ~1585) : 光山人, 자는 彦謙, 世德의 子, 사마, 삼가 현령, (증) 호조참판 〈창곡동〉

○ 金彦國 · 順天人, 자는 士義, 自漢의 2男, 어모장군 행 충좌위 부호군 〈여수동〉

○ 金 璉 : 安東人, 嗣鼎의 1男, 통덕랑 〈이매동〉

○ 金允灌 : 順天人, 嗣源의 5男, 숙천 부사 〈판교동〉

○ 金允濟 : 順天人, 자는 子舟, 嗣源의 1男, 武科, 가선대부 평안 병사, 부총관 〈판교동〉

○ 金允濯 · 順天人, 嗣源의 2男, 통정대부 합천 군수, 울진 현령, 임진왜란 때 殉節 〈여수동〉

○ 金翼輔 · 安東人, 璉의 1男, 통정대부 〈이매동〉

○ 金日新 : 順天人, 자는 子進, 光業의 子, 병절교위 〈판교동〉

○ 金子粹(?~1392) : 慶州人, 자는 純仲, 호는 桑村, 형조판서, 절의충신 효자 〈분당동〉

○ 金自淑 : 順天人, 允濯의 子, 해주진 수군병마 만호

○ 金自淵 : 順天人, 允灌의 1男, 통훈대부 군자감 판관 〈판교동〉

○ 金自漢 : 順天人, 允濯의 3男, 부호군 〈여수동〉

○ 金自湖 : 順天人, 允濟의 1男, 통훈대부 군자감 판관 〈판교동〉

○ 金 檣(1531~ ?) : 順天人, 壽宗의 1男, 진사, 조산대부 강도 현령 〈판교동〉

○ 金在九(1858~1894) : 光山人, 자는 道淳, 箕奭의 子, 武科 司果 〈창곡동〉

○ 金在麟(1828~1893) : 光山人, 자는 士公, 義敎의 子, 통사랑, 선공감역 〈단대리〉

○ 金在聲(1867~1928) : 光山人, 자는 振玉, 箕三의 4男, 武科, 司果 〈금광동〉

○ 金在榮(1861~1895) : 光山人, 자는 允一, 箕三의 3男, 武科, 첨정 〈금광동〉

○ 金 節 : 光山人, 若時의 2男, 현감 〈금광동〉

○ 金鼎淳(1731~1815) : 安東人, 履纘의 2男, 부호군 〈운중동〉

○ 金濟元 : 金海人, 자는 鎭福, 淑鉉의 1男, 충위참봉 〈구미동〉

○ 金濟春 : 金海人, 國鉉의 1男, 절충장군 〈구미동〉

○ 金 碉 : 安東人, 允厚의 2男, 武科, 방어사, 有誌石〈이매동〉

○ 金俊喜(1798~ ?) : 慶州人, 魯奎의 子, 호조참의 동지의금부사 〈상적동〉

○ 金止男(1559~1679) : 光山人, 자는 子定, 호는 龍溪, 讓의 系子, 사마시, 청풍 군수, 墓碣文은 金宇亨이 지음, 저서 「龍溪集」〈창곡동〉

○ 金盡國 : 金海人, 자는 得男, 希鍵의 1男, 가선대부 〈금곡동〉

○ 金 萃 : 光山人, 若時의 1男, 司馬試, 지상원군사, 有行狀 〈금광동〉
○ 金 碬(1453~1503) : 光山人, 자는 殷佐, 順成의 子, 사마시 〈금광동〉
○ 金台壽(1660~1720) : 光山人, 자는 巨山, 萬翼의 3男, 사마·문과, 시강원 문학 〈금광동〉
○ 金 鎬(1621~1701) : 順天, 자는 士宗, 弘弼의 1男, 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 3년간 侍墓, 孝子 〈여수동〉
○ 金 滉 : 延安人, 文科, 예조 참판 〈양지동〉

◈ 南 氏 ◈

○ 南景文 : 宜寧人, 의령부원군 南在의 子, 봉정대부 행 병조 의랑, (증) 영의정 〈수진동〉
○ 南啓夏 : 宜寧人, 자는 養伯, 호는 龜峰, 첨지충주부사, 詩人 〈태평동〉
○ 南公轍(1760~1840) : 宜寧人, 자는 元平, 호는 思穎, 有容의 子, 文科, 영의정, 諡號는 文獻, 文章 글씨로 유명, 저서로 「金陵集」·「歸隱堂集」·「穎翁績稿」·「高麗名臣傳」등 〈금토동〉
○ 南 琯(1536~1576) : 宜寧人, 자는 伯獻, 應雲의 1男, 판관 〈성남시〉
○ 南綺元(1809~1890) : 宜寧人, 자는 稚皓, 공조 참판 〈금토동〉
○ 南 垕(1648~1741) · 宜寧人, 자는 公望, 泳의 1男, 어모장군, (증) 호조참판, 宜림군 〈태평동〉

○ 南大佑 : 宜寧人, 자는 重卿, 延慶의 子, 좌랑, (증) 영의정, 宜寧府院君 〈성남시〉
○ 南斗臨(1588~1622) : 宜寧人, 상원 군수 〈성남시〉
○ 南斗燦(1590~1634) : 宜寧人, 자는 叔瞻, 澈의 3男, 忠義衛 〈낙생면〉
○ 南斗樞(1605~1682) : 宜寧人, 자는 子居, 以吉의 子, 宗廟令 〈탄리〉
○ 南勉敎(1774~1845) : 宜寧人, 자는 景黃, 履慶의 2男, 사마시, 순흥 부사 〈낙생 술운현〉
○ 南忭(1454~1499) : 宜寧人, 자는 叔懼,의 子, 進士, 삭녕 군수, (증) 병조참판, 墓碣銘은 金安國 撰 〈태평동〉
○ 南保身 : 宜寧人, 충좌위 부호군 〈태평동〉
○ 南相穆(1876~1908) : 宜寧人, 자는 文一, 항일의병장 · 옥중 병사, 건국포장 추서, 독립유공자 〈하산운동〉
○ 南相星(1632~1700) : 宜寧人, 자는 子卿, 斗綱의 子, 부호군, (증) 호조 참판 〈태평동〉
○ 南瑞雲 : 宜寧人, 자는 政淑, 첨지 〈여수동〉
○ 南世健(1484~1552) : 宜寧人, 자는 伯順, 忭의 6男, 예조 참판, 묘비문은 金貴榮 撰 〈성남시〉
○ 南世彦 : 宜寧人, 자는 子俊, 忭의 7男, 인천 부사, 碑文 10대손 南啓哲 撰 〈성남시〉
○ 南世雄 : 宜寧人, 자는 國幹, 忭의 1男, 武科 · 文科, 병조 참판 〈성남시〉
○ 南世準(1478~1533) : 宜寧人, 자는 正卿, 忭의 4男, 進士 · 文科, 이조참판 〈성남시〉
○ 南世珍(1654~1729) : 宜寧人, 자는 君玉, 문과, 병조참의 〈도촌동〉

○ 南世則 : 宜寧人, 자는 平仲, 忭의 5男, 병절교위 〈성남시〉
○ 南世秤 : 宜寧人, 忭의 3男, 안성 군수, (증) 이조 판서 〈성남시〉
○ 南世衡 : 宜寧人, 忭의 2男, 부사 〈성남시〉
○ 南世興 : 宜寧人, 자는 益章, 부사 〈도촌동〉
○ 南 俶(1469~1501) : 宜寧人, 자는 始之, 瞎의 3남, 삭녕 군수 〈여수동〉
○ 南舜民(1484~1569) . 宜寧人, 자는 可封, 충청도 수군절도사 南孝元의 子, 文科, 승문원 부정자, 검열, 첨지중추부사, 오위장 〈태평동〉
○ 南延慶(1513~ ?) : 宜寧人, 자는 士吉, 世秤의 1男, 한림좌랑〈성남시〉
○ 南衍明(1706~1774) : 宜寧人, 五熏의 3男, 동지중추부사〈사송동〉
○ 南五熏(1643~1719) : 宜寧人, 순흥 부사 〈사송동〉
○ 南 瑋(1546~1581) : 宜寧人, 자는 子獻, 應雲의 4男, 군자주부, (증) 참판 〈성남시〉
○ 南 瑜(1522~1597) · 宜寧人, 자는 時望, 應龍의 2男, 나주목사, (증) 좌의정, 宜川府院君, 임진왜란 때에 전사, 정려, 碑文 徐明善 撰 〈성남시〉
○ 南有容(1698~1773) : 宜寧人, 자는 德哉, 호는 雷淵, 漢記의 子, 李縡의 門人, 文科, 형조판서, (증) 영의정, 諡號는 文淸, 저서 「雷淵集」 30권 〈율동〉
○ 南 崙(1517~ ?) : 宜寧人, 孝錫의 子, 부호군 〈여수동〉
○ 南應年 : 宜寧人, 世健의 3男, 관상감정, (증) 호조참의 〈성남시〉
○ 南應老(1509~1558) : 宜寧人, 자는, 世準의 子, 군수 〈성남시〉
○ 南應龍(1514~1553) : 宜寧人, 자는 景霖, 호는 二樂堂, 世健의 2男, 공조참의 〈성남시〉

○ 南應壽 : 宜寧人, 世健의 4男, 통정대부, (증) 호조 판서 〈성남시〉
○ 南應植(1516~ ?) : 宜寧人, 자는 士男, 世彦의 子, 가선대부 관찰사 겸 순찰사 〈성남시〉
○ 南應雲(1509~1587) : 宜寧人, 자는 致遠, 호는 菊窓 · 蘭齋 · 灌遠, 참판 世健의 1男, 별시문과, 검열, 승정원 주서, 길주목사, 판결사, 우부승지, 참찬관, 황해도 관찰사, 우승지, 함경도 병마절도사, 동지중추부사, 경상도 관찰사, 공조참판, (증) 좌찬성, 글씨로 특히 篆書와 주서에 뛰어났다. 유필로는 개성의 「徐花潭敬德碑」, 운봉의 「荒山大捷碑」, 장단의 「許琮神道碑」, 용인의 「許曄神道碑」 등이 있다. 神道碑銘 權正達 撰. 〈태평동〉
○ 南應井(1522~1577) : 宜寧人, 자는 文仲, 世則의 系子, 부사직 〈성남시태평동〉
○ 南以聖(1558~1636) : 宜寧人, 자는 益明, 琯의 1男, 함양군수 〈성남시〉
○ 南以興(1576~1627) : 宜寧人, 자는 士豪, 호는 城隱, 瑜의 1男, 武科, 평안병사, (증) 좌의정, 병자호란시에 안주성에서 殉節, 諡號는 忠莊, 宜春府院君 〈태평동〉
○ 南益補(1737~1780) : 宜寧人, 자는 可遠, 啓의 5男, 武科, 부사〈독정리〉
○ 南益述 : 宜寧人, 자는 允中, 壽 · 通政大夫 〈성남시〉
○ 南益朝(1710~1792) : 宜寧人, 자는 德遠, 巇의 系子, 첨지중추부사 〈상대원동 사기막골〉
○ 南益華(1667~1733) : 宜寧人, 자는 平淑, 垐의 1男, 가선대부 칠곡 부사 〈성남시 은촌〉
○ 南麟耆(1748~1824) . 宜寧人, 자는 仁瑞, 돈녕부 도정, (증) 이조 참판 〈율동〉
○ 南廷國 : 宜寧人, 자는 景周, 통정대부 〈판교동〉

○ 南正倫(1737~1805) : 宜寧人, 자는 剛汝, 益裕의 2男, 武科, 통정대부 군수 〈탄리〉
○ 南廷愚(1860~1928) : 宜寧人, 자는 爰明, 武科, 군수 〈사송동〉
○ 南挺蕤(1537~ ?) : 宜寧人, 자는 國聲, 應老의 1男, 찰방, (증) 승정원 좌승지, 왜적에 굴복하지 않고 殉死, 旌閭, 兪拓基 撰碣文 〈성남시〉
○ 南挺芝(1552~1598) : 宜寧人, 자는 伯馨, 應井의 1男, 병절교위 〈성남시〉
○ 南廷鶴(1819~ ?) : 宜寧人, 자는 松 , 勉教의 1男, 司馬, 상주 목사 · 승지 〈운중동〉
○ 南廷獻(1848~1914) : 宜寧人, 자는 聖邦, 府使 〈금토동〉
○ 南挺華(1543~1615) : 宜寧人, 자는 國實, 應老의 2男, 가선대부 〈성남시〉
○ 南周獻(1769~1821) : 宜寧人, 자는 文甫, 호는 宜齋, 司馬, 춘천부사 (증) 대제학, 유문집 〈율동〉
○ 南 俊 : 宜寧人, 簡의 子, 사헌부 감찰, (증) 호조 참판, 비문 8대손 南翼 撰 〈성남시〉
○ 南重澤 : 宜寧人, 첨사, (증) 호조 참판 〈성남시〉
○ 南重河 : 宜寧人, 만호 〈성남시〉
○ 南昌元(1850~ ?) : 宜寧人, 자는 敬錫, 첨지중추부사 〈율동〉
○ 南天擧(1650~1738) : 宜寧人, 자는 雲翟, 弼星의 2男, 동지중추부사 〈하산운동〉
○ 南忠世(? ~1504) : 宜寧人, 孝溫의 子, 사복시정 〈판교동〉
○ 南 琛(1539~1596) : 宜寧人, 자는 叔南, 應雲의 3男, 통천군수 〈성남시〉
○ 南 倜: 宜寧人, 智의 2男, 내섬시 부정, (증) 호조 참의, 갈문은 南舜民 지음 〈성남시〉

○ 南弼星(1627~1693) : 宜寧人, 자는 子輔, 斗燦의 子, 선교랑 〈낙생 후천동〉
○ 南弘壽 : 宜寧人, 부호군 〈태평동〉
○ 南 璜 : 宜寧人, 호는 菊史, 應龍의 1男, 조봉대부 司畜署別提 〈탄리〉
○ 南孝元(1454~1521) : 宜寧人, 자는 居仁, 恬의 子, 사마시, 수사 (증) 참판 〈태평동〉
○ 南熙壽 : 宜寧人, 영종 만호 〈태평동〉

◈ 盧 氏 ◈

○ 盧　瓊 : 長淵人, 孝恭의 1男, 종친부 전섬 〈복정동〉
○ 盧自庸(1487~1543) : 長淵人, 장사랑 〈복정동〉
○ 盧孝恭 : 長淵人, 대제학 龜山의 3男, 자헌대부 한성 판윤, 고양 현감, 有碣文 〈복정동〉

◈ 孟 氏 ◈

○ 孟萬章(1666~1727) : 新昌人, 修瑞의 1男, 가선대부 행 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 〈분당동〉
○ 孟碩欽(1429~ ?) : 新昌人, 世子翊衛司洗馬 繼曾의 1男, 武科, 충청도 병마절도사, 敵愾功臣 2等에 녹선, 虎賁衛 大護軍, 新昌君, 嘉靖大夫 〈분당동 형제봉下 香木谷〉
○ 孟修瑞(1641~1708) : 新昌人, 世禎의 1男, 가선대부 어모장군 동지중추부사 〈분당동 향목용〉

○ 孟孝述(1863~1886) : 新昌人, 자는 武善, 호는 東隱, 胤淳의 系子, 生父 賢淳, 통사랑 선공감역 〈분당동〉

◈ 睦 氏 ◈

○ 睦君慶 · 泗川人, 직제학 俊平의 子, 중현대부, 興威衛 大護軍 〈상적동〉

○ 睦孫儉 : 泗川人, 진사 忠達의 子, 호조 참판 進恭(1389)의 父, 신호위 낭장 〈상적동〉

◈ 閔 氏 ◈

○ 閔德賢(丁丑~丙午) : 驪興人, 武科, 司果 〈사송동〉

◈ 朴 氏 ◈

○ 朴性九 · 본관은 密陽人, 자는 性萬, 중추부사 時令의 1男, 오위장 〈도촌동 대재용〉

○ 朴性煥 : 密陽人, 자는 三乭, 憲來의 1男, 통정대부 〈대제곡〉

○ 朴時烈 : 密陽人, 자는 八孫, 聖煥의 1男, 가선대부 〈도촌동〉

○ 朴時令 · 密陽人, 자는 八龍, 聖煥의 2男, 동지중추부사 〈돌마면 대제곡〉

○ 朴興九(乙未~ ?) : 密陽人, 자는 聖祿, 時烈의 1男, 통덕랑 〈대제곡〉

◈ 方 氏 ◈

○ 方 淑 : 溫陽人, 군수 〈상대원동〉
○ 方 恂 . 溫陽人, 호는 晩松堂, 彦暉의 1男, 文科, 예조 참의, 諡號는 文毅 〈탄리〉
○ 方 深 : 溫陽人, 첨정 〈상대원동〉
○ 方有良 : 溫陽人, 호는 普通, 恂의 3男, 鄭夢周의 門人, 상주 목사 〈상대원동〉
○ 方 澤 : 溫陽人, 조선조 개국공신 〈상대원동〉

◈ 裵 氏 ◈

○ 裵漢孫(1564~1645) : 慶州人, 忠果의 子, 건원능참봉 〈창곡동〉

◈ 宋 氏 ◈

○ 宋大顯(1862~1926) : 礪山人, 자는 仁淑, 耆會의 1男, 教官 〈상대원동〉
○ 宋　崔(1524~1564) : 礪山人, 자는 卓爾, 호는 琴軒, 末璟의 1男, 생원 · 진사 종성부사, (증)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상대원동〉
○ 宋末璟(1507~1570) : 礪山人, 자는 彦圭, 壽의 3男, 진사, 양천 현령 (증) 이조 참판, 孫子 言信이 立碑 〈상대원동〉
○ 宋孟璟 : 礪山人, 壽의 1男, 武科, 오위도총부 부총관 〈하대원동〉
○ 宋文吉(1582~1677) : 礪山人, 자는 在鉉, 호는 栢村, 駿의

1男, 司馬, 사헌부 감찰 (증) 이조 참의 〈상대원동〉

○ 宋範璟 : 礪山人, 주부 壽의 子, 주부 〈상대원동〉

○ 宋性吉(1602~1637) : 礪山人, 자는 子善, 駿의 4男, 진사, 헌능 참봉

○ 宋 壽(1470~1518) : 礪山人, 자는 耆叟, 胤殷의 1男, 진사, 정주 목사 (증) 병조참판 〈하대원동〉

○ 宋淑璟 : 礪山人, 자는 仲圭, 壽의 2男, 생원, 통훈대부 안성 군수, 왕자사부 〈하대원동〉

○ 宋言愼(1542~1612) : 礪山人, 자는 寡尤, 호는 壺峰, 종성 부사 崔의 2男, 退溪 李滉의 門人, 사마시, 문과, 병조 판서, 이조 판서 역임, 저서 「聖學指南」, 諡號 榮襄, 행장은 柳 이 짓고, 신도비명은 姜百年 撰, 諡狀은 尹熟 撰, 저서 「壺峰集」 〈상대원동〉

○ 宋維四(1630~1671) : 礪山人, 자는 張之, 相鼎의 1男, 생원, 선공감역 〈상대원동〉

○ 宋 磔(1575~ ?) : 礪山人, 자는 允甫, 希聖의 1男, 진사, 통훈대부 돈녕부 판관, (증) 사헌부 집의 〈하대원동〉

○ 宋在顯(1865~ ?) · 礪山人, 자는 鳳叔, 耆會의 2男, 武科, 선전관 〈대원동〉

○ 宋 駿(1564~1643) : 礪山人, 자는 晋甫, 호는 省庵, 판서 言愼의 系子로 生父는 承禧, 司馬, 文科, 부제학, 이조 판서, 병조 판서, 형조 판서 역임, 행장 任相元 撰, 신도비명 尹淳 撰 〈상대원동〉

○ 宋贊會(1849~ ?) : 礪山人, 覺勉의 3男, 武科, 통훈대부 의금부 도사 〈대원동〉

○ 宋必顯(1884~ ?) . 礪山人, 자는 慶叔, 贊會의 1男, 군부 참위 〈대원동〉

○ 宋行吉(1595~ ?) . 礪山人, 자는 汝五, 駿의 2男, 文科, 평안도 장시도사 〈단대리〉

○ 宋彙敏(1731~1795) · 礪山人, 자는 汝訥, 濡의 1男, 장수 현감 〈상대원동〉

○ 宋希敏 : 礪山人, 壽의 子, 한성부 좌윤 〈상대원동〉

○ 宋希聖(1543~ ?) : 礪山人, 자는 汝賢, 叔璟의 系子, 生父는 湖, 進士, 통훈대부 의금부 도사 〈하대원동〉

◈ 申 氏 ◈

○ 申敬一(1551~ ?) : 平山人, 壽의 1男, 生員, 용인 현령 〈대왕 도성현〉

○ 申恭一(1560~1664) : 平山人, 자는 肅甫, 黯의 1男, 武科, 都總管 〈사송동 샘골〉

○ 申命稷 : 平山人, 愉의 子, 통덕랑 〈삼평동 보평〉

○ 申　愉(1576~1664) : 平山人, 자는 子和, 敬一의 1男, 동부주부 〈삼평동 보평〉

○ 申　鑊(1638~1708) · 平山人, 자는 公擧, 命稷의 2男, 조봉대부 〈삼평동〉

◈ 沈 氏 ◈

○ 沈宜晋(1782~1844) · 靑松人, 자는 景昭, 能烈의 子, 사마, 문의현령, 양양 부사, (증) 이조판서, 비문은 영의정 金炳學 撰, 홍문관 부응교 金明鎭 書 〈야탑동〉

○ 沈承澤 : 靑松人, 자는 穉敬, 宜晋의 子, 武科, 예조 판서 〈야탑동〉

◈ 安 氏 ◈

○ 安光沃 : 順興人, 琛의 6男, 부사과 〈단대동〉
○ 安 玖(? ~1441) · 順興人, 從約의 1男, 文科, 통훈대부 판군자감사, (증) 가정대부 의정부 좌참찬, 墓誌는 安永時 撰, 墓碣文은 金甯漢 撰, 尹用九 書 〈율동〉
○ 安名世(1518~1548) : 順興人, 자는 景應, 燼의 子, 文科, 예문관 검열, (증) 통훈대부 홍문관 직제학, 墓碣銘은 金孝元 撰 〈심곡동〉
○ 安瑞國(1545~ ?) : 順興人, 珽의 3男, 生員, 평강현감 〈율동〉
○ 安知歸 : 順興人, 玖의 1男, 進士, 文科, 가선대부 전주 부윤, (증) 의정부 좌찬성, 墓碣 閔丙承 撰 〈율동〉
○ 安 珽(1494~1570) : 順興人, 자는 挺然, 호는 竹窓, 좌랑 處善의 1男, 生員 · 文科, 성균관 전적, 비문 韓擭 · 許峮撰 〈율동〉
○ 安處善 : 順興人, 瑚의 系子, 生員, 文科, 병조 좌랑 〈율동〉
○ 安處直 · 順興人, 璿의 1男, 부사 〈율동〉
○ 安 琛(1445~1515) : 順興人, 자는 子珍, 호는 竹溪, 知歸의 3男, 進士 · 文科, 공조판서, 신도비문 李若 撰 〈율동 영장산〉
○ 安 瑚(1425~1503) : 順興人, 자는 可獻, 知歸의 1男, 進士 · 文科, 공조 판서, 行狀 朴閭 撰 〈율동 망월동〉

◈ 梁 氏 ◈

○ 梁　淵(1485~1542) : 본관은 南原, 자는 巨源, 호는 雪翁, 좌리공신 梁誠之의 손자이며 현감 琥의 3男이다. 文科, 승정대부 좌찬성 겸 의금부사, 신도비문 閔齊仁 撰 〈상대원동 망덕산 심점동〉

◈ 吳 氏 ◈

○ 吳達權(1605~1658) : 海州人, 자는 士仲, 允 의 6男, 從仕郎, (증) 호조참판 〈대장동〉

○ 吳達政(1595~1629) : 海州人, 자는 士正, 允 의 1男, (증) 승정원 좌승지 〈대장동〉

○ 吳命斗(1716~1795) : 海州人, 遂俊의 1男, 통덕랑 〈대장동〉

○ 吳命始(1673~1734) : 海州人, 자는 伊老, 遂錫의 1男, 司馬, 통훈대부 의금부도사 〈대장동〉

○ 吳遂雄(1665~1716) : 海州人, 자는 英伯, 道弘의 3男, 통정대부 길주 목사 〈대장동〉

○ 吳遂俊(1680~ ?) : 海州人, 자는 秀伯, 道弘의 5男,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사과 〈대장동〉

○ 吳遂協(1669~ ?) : 海州人, 자는 和伯, 道弘의 4男, 선전관 〈대장동〉

○ 吳允諴(1570~1618) · 海州人, 자는 汝 , 호는 月谷, 希文의 子, 영의정 吳允謙의 弟, 成渾의 門人, 司馬, 산음 현감,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묘갈 韓晩裕 撰, 문집 1권 〈대장동 월용〉

◈ 龍 氏 ◈

○ 龍龜碩(1728~ 1797) · 洪川人, 世沆의 1男, (증) 통정대부 〈상적동〉

○ 龍德顔(1728~ 1797) : 洪川人, 자는 子厚, 處弘의 1男, (증) 통정대부〈상적동〉

○ 龍明遠(1559~ 1611) : 洪川人, 水麟의 1男, (증) 통정대부 〈상적동〉

○ 龍世沆 : 洪川人, 자는 範維, 鎬康의 1男, (증) 통정대부 〈상적동〉

○ 龍水麟(1532~ 1594) : 洪川人, 世補의 子, (증) 가선대부 〈상적동〉

○ 龍友麟(1585~ 1612) : 洪川人, 雲의 1男, 靖社原從功臣, 어모장군 행 용양위 부사과 〈광주 동오〉

○ 龍誼生(1629~ 1712) : 洪川人, 達英의 1男, (증) 통정대부 〈상적동 수용〉

○ 龍徐珠(1614~ 1673) : 洪川人, 龜碩의 1男, 절충장군 행 충좌위 蝟鳥僉使 〈상적동〉

○ 龍處泓(1614~ 1673) : 洪川人, 자는 汝潛, 友麟의 1男, 감역, 통훈대부 〈광주 동우〉

○ 龍鎬康(1660~ 1732) : 洪川人, 誼生의 1男, 조봉대부, 장례원 정 〈수진동〉

○ 龍鎬仁(1685~ 1756) · 洪川人, 誼生의 3男, (증) 통훈대부 〈수진동〉

◈ 元 氏 ◈

○ 元景夏(1698~1761) : 原州人, 자는 華伯, 호는 蒼霞, 命龜의 1男, 文科 이조 판서 (증) 영의정, 諡號는 忠文, 墓誌 元義孫 撰 〈사송동〉

○ 元繼孫(1733~1772) : 原州人, 자는 子承, 호는 換凡齋, 景祚의 系子, 生父 景夏, 진사, 서흥 현감, 묘지 黃景源 撰, 有遺稿 〈사송동〉

○ 元孟康 : 原州人, 자는 和伯, 孝廉의 1男, 文科, 사헌부 감찰, (증) 대사성 〈복정동〉

○ 元錫圭(1786~1822) · 原州人, 자는 玄成, 호는 肯霞堂, 在行의 1男, 포천현감, 有遺稿 〈사송동〉

○ 元錫五(1747~1799) : 原州人, 자는 極敍, 在恭의 1男, 武科, 자헌대부 한성판윤 〈사송동 송현〉

○ 元世胤(1811~1879) : 原州人, 자는 稡永, 호는 芝山, 錫圭의 1男, 통덕랑 〈사송동〉

○ 元世昌(1773~1830) : 原州人, 자는 國獻, 錫五의 1男, 武科, 통정대부 평해군수 〈사송동〉

○ 元 蘁 · 原州人, 동몽교관 〈복정동〉

○ 元胤宗 : 原州人, 孟康의 1男, 성균 생원, (증) 이조 참판 〈복정동〉

○ 元以坤 : 原州人, 蘁의 2男, 헌릉 참봉 〈복정동〉

○ 元義孫(1726~1793) : 原州人, 자는 子方, 호는 慕窩, 景游의 系子, 生父 景夏, 文科, 대사헌정, 묘비문 黃景源 撰 〈사송동〉

○ 元在誠(1772~1821) : 原州人, 자는 汝實, 義孫의 3男, 武科, 통정대부 보령 현감 〈사송동〉

○ 元在行(1767~1853) : 原州人, 자는 健中, 호는 彊菴, 義孫

의 1男, 통덕랑, 有遺稿 〈사송동〉

○ 元貞常(1817~1890) · 原州人, 자는 聖心, 世昌의 1男, 재무서상 〈사송동〉

○ 元 集(1507~1566) : 原州人, 자는 浩然, 胤宗의 1男, 進士 · 文科, 연안 부사, (증) 통정대부 이조참판 〈복정동〉

◈ 柳 氏 ◈

○ 柳景朋(1574~1637) · 晋州人, 자는 西敬, 錫輔의 2男, 수운판관, 靖社功臣,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율동〉

○ 柳季聞(1383~1445) · 文化人, 자는 叔行, 우의정 寬의 3男, 生員, 文科, 형조판서, 諡號는 安肅, 신도비명 成九鏞 撰 〈복정동〉

○ 柳 睒: 文化人, 자는 明仲, 季聞의 1男, 進士 · 文科, 병조참판 〈복정동〉

○ 柳尙運(1636~1707) : 文化人, 자는 悠久, 號는 約齋, 시호는 忠簡, 좌랑 誠五의 子, 文科, 우의정, 영의정, 판중추부사 〈율동〉

○ 柳錫輔(1550~ ?) : 晋人州, 자는 汝翼, 첨지중추부사 從善의 子, 진사, 조산대부,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율동〉

○ 柳錫祚(1667~1690) · 晋州人, 자는 士昌, 之發의 1男, (증) 사복시정 〈이매동〉

○ 柳信朋(1578~1638) · 晋州人, 자는 子順, 錫輔의 4男, 孝行, (증) 통정대부승원원좌승지경연참찬관 〈栗洞〉

○ 柳從善(1519~1578) · 晋州人, 자는 擇仲, 호는 謙齋, 호조참판 柔의 3男, 進士 · 文科, 통정대부 호조 참의, 홍문관 직제학, 승정원 우승지, 墓誌 李濟臣 撰 〈율동〉

○ 柳終孫 : 文化人,의 系子, 사복시정, (증) 좌찬성 〈복정동〉
○ 柳之發(1633~1705) : 晋州人, 자는 起之, 호는 陶隱 · 石村, 총융사 琳의 3男, 文科, 도승지, 묘갈 尹趾完 撰 〈이매동〉

◈ 尹 氏 ◈

○ 尹 楷(1589~1650) : 南原人, 자는 景式, 평양서윤 衡彦의 1男, 상의원 직장 〈금토동〉
○ 尹慶元(1560~ ?) : 漆原人, 자는 善餘, 卓然의 1男, 통훈대부 한성부 서윤, 양성 현감, 임란 때 殉死, (증) 자헌대부 이조판서, 諡號는 忠莊, 漆坪君, 旌閭, 行狀 尹師國 撰, 諡狀 洪良浩 撰 〈하대원동〉
○ 尹敬之(1604~1659) : 海平人, 자는 惟一, 暉의 3男, 홍천 현감 〈복정동〉
○ 尹啓基(1586~1636) : 漆原人, 자는 啓初, 慶元의 1男, 통훈대부 한성부 판관, (증) 통정대부 병조 참의 〈하대원동〉
○ 尹克新(1527~1587) : 南原人, 자는 伯修, 進士 · 文科, 홍문관 응교, (증)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금토동 금현〉
○ 尹吉元(1562~1534) : 漆原人, 자는 敬勝, 卓然의 2男, 文科, 조봉대부 예문관검열 겸 춘추관 기사관 〈하대원동〉
○ 尹 曒(1551~1612) : 南原人, 자는 汝昇, 호는 竹窓, 克新의 2男, 進士 · 文科, 자헌대부 공조판서, 諡號는 孝貞, 行狀 李瀷, 신도비명 睦萬中, 諡狀 蔡濟恭, 表石陰記 權是憲 書 〈금토동〉
○ 尹祥元 : 漆原人, 卓然의 子, 통덕랑 〈하대원동〉
○ 尹世績(1656~1716) : 漆原人, 자는 濟淑, 湯弼의 系子, 生

父 遇聖, 어모장군 용양위 부사과 〈하대원동〉

○ 尹安基(1600~1661) : 漆原人, 자는 定叔, 喜元의 系子, 生父 復元, 文科, 통훈대부 예조정랑 겸 춘추관 기사관 〈하대원동〉

○ 尹 曄(1549~1604) : 南原人, 자는 汝晦, 克新의 1男, 文科, 지제교, (증)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 〈금토동〉

○ 尹 伊(1502~1576) : 漆原人, 자는 華叟, 文亨의 2男, 통훈대부 행 司醞署令 (증) 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龜原府院君, 묘지 尹昌誼 撰 〈하대원동〉

○ 尹以壽(1642~1702) · 南原人, 자는 仁老, 林의 1男, 현감 〈금토동 월우천〉

○ 尹而烈(1765~1821) : 海平人, 자는 渭老, 翼東의 1男, 武科, 東道參軍 〈복정동〉

○ 尹載五(1750~1809) : 漆原人, 자는 剛中, 衡國의 1男, 통훈대부 행 河陽縣監 〈하대원동〉

○ 尹在鎏(1876~1971) : 南原人, 본명 在元, 자는 致章, 형섭의 자, 항일애국지사, 독립유공자 〈금토동〉

○ 尹鼎弼(1619~1656) : 漆原人, 자는 南卿, 啓基의 子, 통덕랑 〈하대원동〉

○ 尹卓然(1538~1594) : 漆原人, 자는 尙中, 호는 重湖, 伊의 1男, 退溪의 門人, 文科, 정헌대부 호조 판서, 漆溪君, 諡號는 憲敏, 行狀 李墍, 신도비명 南龍翼 撰, 有文集二卷 〈하대원동〉

○ 尹湯弼(1614~1652) : 漆原人, 자는 湯卿, 啓基의 1男, 어모장군 용양위 부사과 〈하대원동〉

○ 尹泰基 · 漆原人, 선교랑 〈하대원동〉

○ 尹衡東(1749~1816) · 海平人, 자는 聖平, 得泰의 4男, 武科, 통정대부 무사부사 〈복정동〉

○ 尹衡彦(1571~1631) · 南原人, 자는 應聖, 호는 檜園, 曄의

1男, 進士 · 文科, 平壤庶尹 (증)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 〈금토동〉

○ 尹衡哲(1577~1631) : 南原人, 자는 應明, 暾의 2男, 進士, 호조 좌랑, (증) 사헌부 집의 〈금토동〉

○ 尹喜元 : 漆原人, 자는 公度, 卓然의 3男, 충무위 부사용, 묘갈 趙絅 撰 〈하대원동〉

◈ 李 氏 ◈

○ 李　衍(1588~1616) : 全州人, 淸臣의 2男, 현감, (증) 승정원 좌승지 〈여수동〉

○ 李　侃(1523~1584) : 延安人, 和仲, 公升의 1男, 고성 군수, (증) 이조 참판 〈판교동〉

○ 李　戡(1516~1583) : 羽溪人, 軾의 1男, 生員 · 文科, 가의대부 사헌부 대사헌, (증) 자헌대부 이조 판서 〈대장동〉

√○ 李　岡(1333~1368) · 固城人, 자는 思卑, 호는 平齋, 수문하시중 昷의 4男, 文科, 진현관 대제학, (증) 대광보국숭독대부 의정부 좌의정, 諡號 文敬, 서예로 유명 〈도촌동 중말〉

○ 李 健(1471~ ?) · 全州人, 자는 允錫, 惇의 4男, 명신대부 송산도정 〈서현동〉

○ 李　潔 : 固城人, 嶇의 1男, 군자주부 〈도촌동〉

○ 李　誙 : 慶州人, 仁彦의 3男, 호조 참의 〈오양동〉

○ 李烱佶(1608~1663) : 全州人, 자는 汝慶, 睟의 4男, 창선대부, 묘지명 李箕弘 撰 〈궁내동〉

○ 李慶覃 · 慶州人, 灝의 3男, 통사랑 〈야탑동〉

○ 李慶流(1564~1594) · 韓山人, 자는 長源, 호는 伴琴, 판서

增의 4男, 司馬 · 文科, 병조 좌랑, (증) 직제학, 임진왜란시 殉節, 旌閭, 墓碣銘 李綷撰, 行狀 李潗 撰 〈수내동〉

○ 李敬敏(1730~1750) : 廣州人, 行百의 1男, 예조정랑 〈정자동〉

○ 李景閔(1578~1652) · 德水人, 자는 汝閒, 호는 陽村, 適의 孫子, 生父는 通, 통정대부 백천 군수 겸 해주진관 병마절도사,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좌의정 〈고등동〉

○ 李景奭(1595~1671) : 全州人, 자는 尙輔, 호는 雙磎 · 白軒, 동지중추부사 惟侃의 3男, 進士 · 文科, 영의정, 諡號는 文忠, 孝子 旌閭, 行狀 崔錫鼎 · 墓表 李匡會 · 신도비문 朴世堂 撰, 저서고 「白軒集」이 있다. 〈석운동〉

○ 李景顔(1572~1614) : 德水人, 자는 汝愚, 호는 松石, 通의 1男, 進士 · 文科, 통훈대부 사간원 정언 겸 춘추관기사관, (증)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 〈고등동〉

○ 李景衍 · 羽溪人, 자는 觀甫, 仁淑의 2男, 昭威將軍 행 충좌위 부사정 (증) 통정대부 형조참의 〈대장동〉

○ 李景容(1580~1635) : 德水人, 자는 汝復, 호는 杜谷, 증 영의정 通의 3男, 進士 · 文科, 가선대부 전라고 관찰사 겸 병마수군절도사 순찰사 〈상적동〉

○ 李烱胤(1593~1645) · 全州人, 자는 汝承, 호는 滄州, 睟의 1男, 중의대부 오위도총부 부총관, (증) 승헌대부 도총관 蓬來君, 비문 李敬與 撰 · 李綷 書, 유유고 〈백현동〉

○ 李敬仁(1575~1642) · 全州人, 자는 克甫, 호는 亭村, 仁原守의 1男, 鄭逑의 門人, 통정대부 이천도호부사 겸 광주진관 동첨절제사 〈정자동〉

○ 李慶標 : 慶州人, 瀟의 5男, 첨지중추부사 〈야탑동〉

○ 李慶弼(? ~1923) : 全州人,冕春의 1男, 의금부 도사 〈정자동〉

○ 李慶涵(1553~1627) : 韓山人, 자는 養源, 호는 晩沙, 판서 增의 子, 사마, 문과, 경기도 관찰사, 의금부사, 호조 참판 〈수내동〉
○ 李景憲(1585~1651) : 德水人, 자는 汝思, 호는 芝田, 증영의정 通의 4男, 進士 · 文科, 가의대부 병조 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증) 자헌대부, 이조 판서 〈상적동〉
○ 李　坤(1462~1524) : 延安人, 자는 子靜, 호는 鹿窓, 병조참의 연안군 仁文의 4男, 生員 · 文科, 가선대부 오위장, (증) 자헌대부 예조 판서, 延城君 〈판교동〉
○ 李坤首 : 全州人, 어모장군 용양위부사직 〈운중동〉
○ 李公升(1501~1533) : 延安人, 자는 秀夫, 坤의 2男, 사평, (증) 승정원 좌승지, 묘갈명 鄭惟吉 撰 〈판교동〉
○ 李　灌(1711~1791) · 德水人, 자는 習之, 호는 晩隱, 德恒의 1男, 壽職 가선대부 豊安君 〈고등동〉
○ 李觀濟(1670~1739) : 全州人, 자는 大仲, 著徵의 1男,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궁내동〉
○ 李匡國 : 廣州人, 孟昌의 1男, 여산 현감, (증) 제용감정 〈대원리〉
○ 李匡德(1690~1748) : 全州人, 자는 聖賴, 호는 冠陽, 景奭의 玄孫, 진사, 文科, 평안도 관찰사, 암행어사, 저서로 「觀陽集」〈석운동〉
○ 李匡元(1688~1740) : 全州人, 眞養의 2男, 금부 도사 〈대장리〉
○ 李　嶠(? ~1516) : 固城人, 자는 凌雲, 陸의 4男, 奮順副尉, (증) 병조참판 〈도촌동〉
○ 李敎復(1828~1886) : 全義人, 熙廷의 系子, 生父 普植, 武科, 현령 (증) 의정부 좌참찬 〈구미동〉
○ 李敎性(1840~1867) · 全義人, 자는 道一, 熙命의 2男, 武科, 병사 〈구미동〉

○ 李敎英(1826~1892) : 全義人, 자는 樂叙, 熙命의 1男, 武科, 통정대부 현감 〈구미동〉
○ 李 玖(1659~ ?) : 延安人, 자는 大王, 汝舟의 5男, (증) 호조 참판 〈판교동〉
○ 李 嶇 : 固城人, 陌의 2男, 통훈대부, 거창 현감 〈도촌동〉
○ 李國老(1554~1644) · 延安人, 偃의 1男, 선공감역, (증)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 〈판교동〉
○ 李權生 · 慶州人, 進의 3男, 영변 판관 〈복정동〉
○ 李貴宗 : 延安人, 자는 宗之, 塢의 1男, 文科, 연안 부사 〈판교동〉
○ 李克堪(1427~1465) : 廣州人, 증 영의정 仁孫의 子, 進士, 文科, 좌익공신, 廣城君, 형조판서, (증) 좌의정 겸 世子傅, 諡號는 文景 〈야탑동〉
○ 李克圭 : 廣州人, 자는 公瑞, 長孫의 1男, 文科, 통정대부 병조 참의, 淸白志節, 碑文 李秉鶴 撰 〈상대원동〉
○ 李克均(1437~1504) : 廣州人, 자는 邦衡, 호는 五峰, 仁孫의 5男, 文科, 좌찬성, 좌의정, 廣南君, 갑자사화 때 부관참시됨 〈야탑동〉
○ 李克基(1426~1491) : 廣州人, 자는 伯溫, 호는 圓峰, 禮孫의 1男, 生員 · 文科, 공조판서, 비문 安浩相, 묘정비 尹丁鎭 撰 〈하대원동〉
○ 李克墩(1435~1503) : 廣州人, 자는 士高, 호는 四峰, 우의정 仁孫의 4男,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廣原君 〈하대원동〉
○ 李克培(1422~1495) : 廣州人, 자는 謙甫, 호는 一峯, 牛峯, 梅月堂, 許稠의 門人, 생원, 문과, 우의정, 廣陵府院君, 궤장을 하사 받음, 諡號는 文敬〈하대원동〉
○ 李克增(1431~1494) : 廣州人, 자는 景撝, 호는 三峰, 仁孫

의 3男, 文科 숭정대부 판중추부사, 諡號 恭長, 廣川君, 신도비문 1985년 국민대교수 金都鍊 撰 〈야탑동 상 탑〉

○ 李根健(? ~1456) : 延安人, 자는 野叟, 續의 2男, 성균 생원, (증) 이조참의 〈판교동〉

○ 李　岐(1524~1581) : 全州人, 자는 伯高, 중종대왕의 五子, 德陽君 〈궁내동〉

○ 李箕相(1628~1683) : 全州人, 자는 說卿, 至의 子, 文科, 병조 좌랑, (증) 가선대부 이조 참판 오위도총부 부총관, 비문 李綽 撰 〈궁내동〉

○ 李箕敍(1636~1688) : 全州人, 자는 君陳, 厓의 2男, 司馬, 통정대부 청도군수 겸 대구진관 병마첨절제사 〈樂生 槽山〉

○ 李箕壽(1656~1729) : 全州人, 자는 仁叟, 栽의 1男,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백현동〉

○ 李其元 : 廣州人, 聖喆의 1男, 통덕랑 〈정자동〉

○ 李箕佐(1656~1732) : 全州人, 자는 君弼, 耋의 2男, 중추부사, 통훈대부, 행 과천 현감 병마절제사 〈궁내동〉

○ 李吉男(1561~1644) : 羽溪人, 자는 錫甫, 成憲의 2男,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대장동〉

○ 李魯植(1759~1787) : 全義人, 자는 景參, 閏恒의 2男, 武科, 통정대부 부사 〈구미동〉

○ 李　臺(1394~1443) : 固城人, 자는 子益, 호는 鈍齋, 좌의정 原의 1男, 상주목사,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 〈도촌동〉

○ 李大老 · 延安人, 자는 郡甫, 侃의 1男, 돈용교위 〈판교동〉

○ 李大升(1467~1557) : 延安人, 坤의 1男, 재령 군수, (증) 통례원 좌통례 〈판교동〉

○ 李德良 : 全州人, 충자위 부사과 〈성남동〉

○ 李德老(1564~ ?) : 延安人, 자는 得甫, 偃의 2男, 금화 현

감 〈판교동〉

○ 李德老(1692~1749) : 全義人, 자는 仁叟, 臣龍의 1남, 進士, 형조좌랑 〈대장동〉

○ 李德英(1721~1781) : 全州人, 황해도 관찰사 〈창곡동 세죽골〉

○ 李德重(1721~1781) : 韓山人, 자는 子彝, 秉謙의 1男, 司馬 · 文科, 홍문관 부제학 〈수내동〉

○ 李德恒(1682~1744) : 德水人, 자는 久而, 培의 1男, 함열 현감, (증) 호조참판, 德思君 〈고등동〉

○ 李 惇(1440~ ?) . 全州人, 의성군 宋의 2男, 금성정, 창선대부 〈서현동 추현〉

○ 李東酤(1726~1801) · 全州人, 자는 汝閏, 觀濟의 2男, 자헌대부 동지중추부사 〈궁내동〉

○ 李東樸(1756~1835) · 全州人, 자는 聖贊, 舜濟의 3男, (증) 가의대부 호조참판 〈동원동〉

○ 李東善(1759~1804) : 全州人, 자는 而元, 舜濟의 4男, 文科, 가선대부 전라병사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 〈서현동〉

○ 李東植(1738~1803) : 全州人, 자는 善培, 舜濟의 1男, 武科,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 〈동원동〉

○ 李得會 · 廣州人, 其元의 1男, 선략장군 〈정자리〉

○ 李 秣(1603~1650) · 德水人, 자는 秋賓, 호는 菱湖, 景閔의 3男, 進士 · 文科,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지제교, (증) 간선대부 이조 참판 〈고등동〉

○ 李良潤(1585~ ?) : 全州人, 자는 子賢, 平陵君 儼의 5男, 정의대부, 雲山君 〈단대리〉

○ 李 礫(1500~1561) 固城人, 자는 精仲, 滉의 1男, 참봉, (증) 승정원 승지 〈율동〉

○ 李 潞 . 固城人, 자는 希文, 효자, 偸葬 발견 파묘 〈갈현동〉

○ 李 琳(1427~1445) · 全州人, 자는 珍之, 호는 謹行堂, 세종대왕 7자, 詩 · 大學衍義에 숙달, 平院大君, 시호는 靖德
○ 李 麟 : 固城人, 자는 希平, 陌의 1男, 개천 군수 〈도촌동〉
○ 李麟祥(1511~1560) · 德水人, 자는 禎甫, 菡의 1男, 禦侮將軍,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德安君 〈고등동〉
○ 李晩器(1672~1724) : 延安人, 자는 의 1男, 禦侮將軍,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德安君 〈고등동〉
○ 李晩器(1672~1724) : 延安人, 자는 大仲, 汝相의 2男, 의금부 도사 〈판교동〉
○ 李 陌(1455~1528) : 固城人, 자는 井夫, 호는 槐山, 墀의 4男, 司馬 · 文科, 중추부사, 신도비문 판서 成世昌 撰 〈도촌동〉
○ 李孟衍 : 廣州人, 秀蓁의 4男, 이천 부사, (증) 이조 참판 〈대왕리〉
○ 李孟昌 : 廣州人, 秀蓁의 2男, 서산 군수 〈대왕리〉
○ 李勉行(1614~1686) : 廣州人, 尙安의 1男, 현릉 참봉, (증) 호조 참판 〈대왕리〉
○ 李 莫(1647~ ?) : 全州人, 자는 聖瑞, 元哲의 3男, 군수 〈분당동〉
○ 李 溟 : 全州人, 元彬의 1男, 통덕랑 〈여수동〉
○ 李命夏(1878~1921) : 全州人, 柳麟錫의 門人, 독립운동가, 순국, 건국훈장 단장, ~~독립유공자~~ 〈궁내동〉
○ 李 穆(1589~1642) : 德水人, 자는 仲深, 호는 北溪, 宗建의 系子, 生父 景顔, 生員 · 進士 · 文科, 창평 현령 〈고등공 등자곡〉
○ 李 槩(1572~1646) : 全州人, 자는 文伯, 호는 松郊, 사온원 봉사 愼誠의 子, 成渾 · 金長生의 門人, 병조참판, (증) 영의정

諡號는 忠正, 비문 李敦榮 · 신도비문 南九萬 撰, 尹德駿 篆額, 저서로 「松郊文集」〈정자동〉

○ 李夢錫(1477~1532) : 全州人, 자는 貢卿 植의 1男, 선공감역 〈여수동〉

○ 李文明 : 慶州人, 祥의 4男, 통덕랑 〈복정동〉

○ 李文濟(1707~1743) : 全州人, 자는 寧叔, 耆老의 1男, 승정원 부정자 〈백현동〉

○ 李文佐(1461~1491) : 慶州人, 자는 縣道, 호는 細村, 祥의 1男, 안협 현감, 유사 金應祖 · 行狀 李明翔 · 墓誌 鄭宗鎬 · 墓碣 李義惠 撰 〈복정동〉

○ 李 灑(1575~1633) . 全州人, 思齊의 1男, 沙溪의 門人, 홍문관 제학사자사 (증) 자헌대부, 이조 판서, 신도비문 李承輔 撰 〈서현동〉

○ 李彭壽(1520~ ?) . 全州人, 무산군 悰의 5男, 호종공신, 정의대부 泰安君, (증) 승헌대부 오위도 총부 도총관 〈정자동〉

○ 李邦郁(1699~1761) : 全義人, 義輔의 1男, 武科, 주부 〈구미동 석촌〉

○ 李邦仁(1720~1770) : 全義人, 자는 君宅, 義集의 4男, 武科, 군수 〈구미동〉

○ 李 培(1649~1710) : 德水人, 喜寅의 1男, 進士, 목천 현감, (증) 좌승지 〈고등동〉

○ 李秉健(1696~1769) : 韓山人, 자는 汝剛, 관찰사 漢의 1男, 司馬, 통훈대부 호조정랑, 지례 현감,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겸 지의금부사 〈수내동〉

○ 李秉謙(1685~1707) : 韓山人, 澤의 1男, (증) 이조 참판 〈수내동〉

○ 李秉龍 · 昌寧人, 石柱의 子, 가선대부 행 용양위 부호군 〈서

현동〉

○ 李秉泰(1688~1733) : 韓山人, 자는 幼安, 호는 東山, 진사 浹의 1男, 司馬 · 文科, 경상도 관찰사, (증) 이조판서 대제학, 청백리, 諡號는 文淸 〈수내동〉

○ 李秉恒 : 韓山人, 중훈대부 행헌능직장 〈수내동〉

○ 李　埠(1694~1723) : 德水人, 喜禎의 1男, 통정대부 〈고등동〉

○ 李復興 : 廣州人, 世弘의 2男, 부사과 〈야탑동 상〉

○ 李　縫(1574~1597) : 全州人, 자는 文伯, 隨亨의 1男, (증) 통훈대부 행 병조좌랑 殉節 〈도촌동〉

○ 李鳳林(1842~1863) : 全州人, 承裕의 4男 〈궁내동〉

○ 李富丁 : 全州人, 新宗君의 2男, 昭德大夫, 薪谷守 〈석운동〉

○ 李　穟(1623~1697) : 德水人, 자는 馨叔, 景閔의 6男, 武科, 절충장군 용양위 부호군 〈고등동 궁기〉

○ 李思省(1558~1637) : 全州人, 자는 季友, 軸의 2男, 중훈대부 사헌부 집의 〈서현동〉

○ 李思齊(1547~1596) : 全州人, (증) 호조참판 홍문관 부제학 〈서현동〉

○ 李山重(1717~1775) : 韓山人, 자는 子靜, 秉健의 1男, 군자감정, (증) 자헌대부, 이조 판서 〈수내동〉

○ 李　祥 : 慶州人, 호는 澗陰, 權生의 2男, 수의부의 사정 〈복정동〉

○ 李尙安(1575~1627) : 廣州人, 자는 靜而, 匡國의 系子, 生父 匡祿, 武科, 강계 부사, (증) 우찬성, 諡號는 忠愍, 호란시 안주성서 死節, 葬衣冠, 旌閭, 신도비문 李景奭 撰 〈대원리〉

○ 李相頊(1648~1721) 廣州人, 자는 重卿, 祉運의 3男, 武科, 가선대부 전라병사 〈대왕리〉

○ 李 瑞 : 延安人, 자는 子休, 汝弼의 1男, 동지중추부사 〈판교동〉
○ 李石崑 . 全州人, 稛의 1男, 중군사직 〈여수동〉
○ 李錫命(1611~1673) · 全州人, 敬仁의 1男, 선무랑 〈정자동〉
○ 李石柱(1680~1734) : 昌寧人, 가선대부 〈서현동〉
○ 李 璿(1645~1692) : 延安人, 자는 仲玉, 汝舟의 2男, 통덕랑 〈판교동〉
○ 李宣鼎 : 全州人,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성남동〉
○ 李 晟(1565~1626) : 延安人, 자는 明甫, 純의 1男, 오위도총부 부총관 〈판교동 오리동〉
○ 李聖萬 : 慶州人, 자는 春瑞, 銀의 1男, 돈녕부 도정〈야탑동〉
○ 李成枝 · 廣州人, 時英의 1男, 生員, 箕子殿 參奉 〈대원리〉
○ 李成憲(1534~1601) : 羽溪人, 자는 仲章, 戡의 1男, 文科 전적, (증) 가선대부, 이조 참판 〈대장동〉
○ 李世珏 : 全義人, 禮長의 1男, 통정대부, 원주목사 〈대장동〉
○ 李世貞(1461~1522) : 廣州人, 자는 仲權, 克墩의 3男, 文科, 5曺 참의, 碑文 李思鈞 撰, 尹安仁 篆 〈하대원동〉
○ 李世弘(1471~1520) : 廣州人, 자는 可谷, 광천군 克增의 1男, 文科, 공주목사, 선공감정 〈상탑동〉
○ 李 粟 . 全州人, 伯由의 子, 통훈대부 승정원 도승지 〈여수동〉
○ 李 續 : 延安人, 貴山의 1男, 중훈대부 춘천 도호부사 (증) 통훈대부 사복시정 〈판교동〉

√ ○ 李 睟(1569~1645) : 全州人, 자는 明遠, 德陽君 岐의 孫, 豊山君 宗麟의 2男, 오위도총부 도총관, 소덕대부, (증) 顯祿大夫, 諡號는 忠肅, 龜川君, 墓碣 金集 · 墓誌 尹宣擧 · 신도비명 李綏 · 遺稿序文 宋時烈 · 諡狀 李景奭 撰 〈궁내동〉
○ 李遂大(1674~1708) · 全州人, 자는 就而, 호는 松涯, 鼎興

의 1男, 司馬 · 文科, 봉렬대부 병조 정랑, 碣銘 李起鍾 撰〈정자동〉

○ 李守震(1482~1554) : 廣州人, 자는 春卿, 世傑의 1男, 삼가현령, 비명 退溪 李滉 撰 〈하대원동〉

○ 李隨亨(1552~1588) : 全州人, 자는 時叔, 拭의 2男, 통훈대부 군자감정 〈도촌동〉

○ 李秀萱(1496~ ?) : 廣州人, 자는 子芳, 世綸의 1男, 武科, 자헌대부 한성판윤,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돌마면〉

○ 李 俶(1518~1576) : 延安人, 자는 起中, 大升의 2男, 평창군수, (증) 승정원 좌승지 〈판교동〉

○ 李 淑(1610~1663) : 全州人, 元老의 子, 통덕랑 〈여수동〉

○ 李 塾(1621~1680) : 全州人, 자는 學而, 봉산군 烱信의 1男, 어모장군 충좌위 부사과, 墓碣 宋時烈 · 行狀 李箕弘 撰 〈궁내동〉

○ 李 洵(1596~1661) : 德水人, 자는 淸源, 得胤의 1男, 武科, 경흥 부사 〈고등동〉

○ 李純臣 : 全州人, 藝의 1男, 禮賓別提 〈여수동 혹암산〉

○ 李純臣(1546~1584) : 延安人, 자는 彦一, 俶의 2男, (증) 이조 참판 〈판교동〉

○ 李舜濟(1721~1784) : 全州人, 자는 汝華, 著瑞의 4男, (증) 가선대부 호조 참판, 碑文 宋煥箕 · 行狀 李東直 撰 〈동원동〉

○ 李承奭(1594~1652) : 延安人, 國老의 5男, 용양위 부호군, (증) 가선대부 호조 참판 〈판교동〉

○ 李承說(1569~1592) : 延安人, 자는 夢卿, 大老의 1男, 임란 호종공신 (증) 좌승지, 殉節 〈판교동〉

○ 李承元(1579~1621) : 延安人, 자는 善卿, 弘老의 1男, (증)

사복시정 〈판교동〉

○ 李承裕(1804~1867) · 全州人, 台鉉의 1男, 통정대부 臨陂郡守〈궁내동〉

○ 李承尹(1571~1592) : 延安人, 자는 允卿, 大老의 2男, 임란 호종, (증) 승지, 殉節 〈판교동 두당현〉

○ 李著老(1683~1743) · 全州人, 자는 國老, 箕壽의 1男, 통덕랑 〈궁내동〉

○ 李著命(1662~1750) · 全州人, 자는 季衍, 호는 坐隱, 箕相의 4男, 가의대부 동지 중추부사, 碑文 尹鳳九 撰 〈성남시〉

○ 李時瑎(1433~1492) : 全義人, 자는 倍價, 禮長의 2男, 통정대부 장례원 판결사, (증) 병조참판 〈대장동〉

○ 李時瑞(1684~1754) · 全州人, 자는 吉甫, 箕翊의 2男, (증) 가선대부 호조 참판 〈백현동 신촌〉

○ 李時英 : 廣州人, 壽岡의 3男, 武科, 가선대부 병사 〈세촌명〉

○ 李著徵(1650~1728) : 全州人, 자는 明老, 호는 遁谷, 병조좌랑 箕相의 1男, 장성 부사, (증) 통정대부 좌승지 〈궁내동〉

○ 李時芯 : 全州人, 통훈대부 호조 좌랑 〈성남동〉

○ 李著亨(1685~1765) : 全州人, 자는 士吉, 箕輔의 1男, 가의대부 동지중추부사 〈無等山〉

○ 李始興(1634~1711) : 全州人, 錫命의 1男, 司馬, 인제 현감 〈정자동〉

○ 李 植 : 全州人, 石崑의 1男, 호군 〈여수동〉

○ 李 拭(1522~1587) : 全州人, 자는 淸之, 호는 損菴, 대사헌 承常의 4男, 進士 · 文科, 가의대부 이조 참판, 曹彦博의 婿 〈도촌동〉

○ 李愼誠(1552~1596) : 全州人, 자는 欽仲, 홍주 현감 彦師의 子, 栗谷 · 成渾의 門人, 사용원 봉사, (증) 이조 판서, 신도비명

金尙憲 撰 · 吳竣 書 · 金光鉉 篆 〈정자동〉

○ 李臣龍(1674~1718) : 全義人, 萬相의 1男, 生員, 통훈대부 능주 목사, 墓誌 李德壽 撰 〈대장리〉

○ 李　案(1413~1475) : 全州人, 자는 士仁, 효령대군 補의 子, 瑞原君, 가덕대부, 병조판서, 墓碣 李起鍾 撰 〈정자동〉

○ 李　嵒(1297~1364) · 固城人, 자는 古雲, 호는 杏村, 瑀의 1男, 文科, 서북면 도원수, 諡號는 文貞, 鐵城君, 저서로 「農事集說」, 그림 글씨에 능함, 文殊院藏經碑의 글씨가 현존함 〈도촌동〉

○ 李揚亨(1723~1798) · 全州人, 자는 楊世, 匡元의 孫子, 生父 匡周, 통덕랑 〈대장동〉

○ 李　繶(1600~1672) 全州人, 자는 應立, 咸亨의 1男, 生員, 통훈대부 장수현감, (증) 통정대부 이조 참의 〈도촌동〉

○ 李億祺 · 全州人, 자는 景受, 連孫의 3男, 武科, 功臣, (증) 숭정대부 의정부 우찬성, 殉國, 旌閭, 諡號는 毅愍, 碣文 韓晩裕, 신도비문 洪直弼 · 諡狀 金喜 撰〈석운동〉

○ 李英賢(1507~1572) : 廣州人, 자는 希聖, 擎의 子, 司馬, 文科, 동지춘추관사, 한성부 좌윤, 墓碣 宋時烈 撰 〈하대원동〉

○ 李　沆 : 全州人, 武科, 부호군 〈여수동 현석〉

○ 李　偃 : 延安人, 公升의 2男, 단성 현감, (증) 예조 참의 〈판교동〉

○ 李彦師(1519~1561) : 全州人, 자는 雲房, 浩의 子, 홍천 현감, (증) 이조참의 〈정자동〉

○ 李彦哲(1608~1696) : 全州人, 자는 仲明, 濱의 2男, 통정대부 곡성 현감 〈분당동〉

○ 李　巖 : 固城人, 陸의 3男, 進士, (증) 승지 〈도촌동〉

○ 李　儼(1549~1613) · 全州人, 자는 季元, 廣川君 壽麒의 5男, 숭헌대부 平陵君 〈단대리〉

○ 李汝儉(1556~1626) · 廣州人, 자는 景任, 증산 현령, (증) 사복시정〈대왕리〉
○ 李汝梯(1625~1670) · 延安人, 升奭의 2男, 통덕랑 〈판교동〉
○ 李汝舟(1625~1655) : 延安人, 자는 濟而, 承元의 系子, 生父 承業, 生員 · 文科, 안악 군수, (증) 승정원 좌승지 〈판교동〉
○ 李汝恒(1593~1657) · 延安人, 자는 子常, 承尹의 1男, 임천 군수 〈판교동〉
○ 李 衙(1553~1613) · 全州人, 淸臣의 1男, 봉사 〈여수동〉
○ 李 鍥 : 慶州人, 자는 正化, 渭基의 1男, 도사 〈야탑동〉
○ 李 瑩(1601~1678) 固城人, 자는 彦潤, 호는 南皐, 礦의 2男, 文科, 한림병의, (증) 이조판서
○ 李 藝 : 全州人, 夢錫의 1男, 통훈대부, 무주 부사 〈여수동〉
○ 李禮孫(? ~1459) : 廣州人, 자는 季胤, 之直의 3男, 生員 · 文科, 황해도 관찰사 (증) 예조 참판, 碑文 李採鎭 撰 〈하대원동〉
○ 李禮長(1406~1468) : 全義人, 자는 子文, 전성부원군 士寬의 3男, 文科, 통정대부 병조 참의, (증) 정헌대부 예조 판서, 諡號는 平簡, 全城君, 碣文 卞榮寅 撰 〈대장동〉
○ 李 澳(1659~1699) · 韓山人, 자는 瞻伯, 廷龍의 1男, 부평 부사 〈수내동〉
○ 李 塢 : 延安人, 仁文의 1男, 진위 현령 〈판교동〉
○ 李 菖(1441~1506) : 全州人, 室의 3男, 武科, 자의대부 제천 군수, 堤川君 〈정자동〉
○ 李完用(1858~1926) · 牛峰人, 奭俊의 子, 鎬俊에게 入養, 文科, 자는 敬德, 호는 一堂, 민족반역자, 죽을 때까지 일본에 충성 〈백현동〉
○ 李完鎬(1868~1922) : 全義人, 敎獻의 系子, 生父 敎英, 武科, 興陽郡守 〈구미동 석촌〉

○ 李　堣(1697~1767) : 德水人, 자는 聖賓, 喜函의 2男, 生員 · 菊試, 병조 참판 〈고등동〉
○ 李　磌 : 固城人, 호는 四槐亭, 潔의 2男, 校尉 〈도촌동〉
○ 李　原(1368~1429) : 固城人, 자는 次山, 호는 容軒, 밀직부사 岡의 1男, 鄭夢周 · 權近의 門人, 進士 · 文科, 좌의정, 諡號는 襄憲, 鐵城府院君, 신도비문 徐居正 撰, 저서로 「容軒集」·「鐵城聯芳集」〈도촌동〉
○ 李元龜(1587~1647) · 全州人, 衍의 1男, 참봉 (증) 공조 참의 〈여수동〉
○ 李元老(1585~1637) · 全州人, 衙의 1男, 勵節敎尉 〈여수동〉
○ 李元彬 : 全州人, 得의 1男, 부사직 〈여수동〉
○ 李元植(1755~1822) : 全義人, 자는 伯仁, 潤慶의 1男, 武科, 평안 병사 · 捕將 〈구미동〉
○ 李元哲(1615~1671) : 全州人, 자는 叔明, 현령 濱의 1男, 금성 현령, (증) 봉렬대부 宗親府典鐵, 묘갈 성균관사 權愈 撰 〈분당동〉
○ 李渭基 · 慶州人, 자는 繼尙, 炫의 1男, (증) 참의 〈야탑동〉
○ 李　濡(1645~1721) : 全州人, 자는 子雨, 호는 鹿川, 重輝의 子, 文科, 영의정, 諡號는 惠定 〈돌마면〉
○ 李 瑜(1642~1715) 延安人, 자는 伯玉, 汝舟의 1男, 통덕랑 〈판교동〉
○ 李　陸(1438~1498) 固城人, 字는 放翁, 호는 靑坡居士, 돈영부정 穉의 1男, 司馬, 병조참판, 세조 때에 印地儀 제작 토지 측량, 諡號는 文光, 저서로 「靑坡集」, 「靑坡劇談」〈도촌동〉
○ 李　陸(1609~1640) · 德水人, 자는 秀有, 景顔의 3男, (증) 호조 참판 德昌君 〈고등동〉
○ 李潤德(1529~1611) : 廣州人, 자는 得夫, 상호군 秀萱의 1

男, 무과, 훈련원 도정, 관서부원수, 가선대부 동지돈녕부사, (증) 영의정 〈하대원동〉

○ 李潤明(1736~1799) : 全義人, 곡성현령, (증) 좌승지 〈구미동 산〉

○ 李 律(1569~ ?) . 全州人, 純臣의 2男, 부사과 〈여수동〉

○ 李 銀 : 慶州人, 자는 如信, 泰基의 1男, 武科, 첨정 〈야탑동〉

○ 李 誾(1455~1522) 廣州人, 자는 子和, 호는 陰愛, 克基의 1男, 司馬, 고원군수, 己卯名賢, 비문 鄭士龍 撰, 甫村書院 묘정비문 羅錤柱 撰 〈하대원동〉

○ 李應慶(1513~1569) 廣州人, 자는 允吉, 復興의 2男, 進士, 봉산 군수 〈야탑동 남탑〉

○ 李 嶷(1413~1491) 固城人, 臺의 3男, 병조 참판 〈도촌동〉

○ 李 璶(1601~1614) 全州人, 선조대왕의 1자, 광해군 때에 반역으로 몰려 죽음, 永昌大君 〈태평동〉

○ 李義堅 · 韓山人, 亨增의 2男, 참판 〈여수동〉

○ 李宜蕃 . 德水人, 자는 茂叔, 抽의 3男, 進士, 돈영부 참봉, (증) 자헌대부 호조 판서, 豊城君 〈고등동〉

○ 李 彛 : 韓山人, 통정대부 홍문관 부제학 〈수내동〉

○ 李 峴(? ~1519) : 固城人, 자는 望之, 陸의 1男, 한성판관 〈도촌동〉

○ 李麟圭(1873~1950) : 全州人, 자는 公珍, 章燮의 1男, 성균관 박사 〈궁내동〉

○ 李仁文(1425~1503) · 延安人, 根健의 1男, 司馬 · 文科, 통정대부 병조 참의 (증) 가선대부 예조 참판, 延安君 〈판교동〉

○ 李仁孫(1395~1463) : 廣州人, 자는 仲胤, 호는 楓厓, 참의 之直의 子, 문과, 호조판서, 우의정, 諡號는 忠僖 〈하대원동〉

○ 李仁胤(1570~1622) : 全州人, 자는 子天, 儼의 1男, 정의대부, 宜山君 〈단대리〉
○ 李一鎭(1718~1803) : 全州人, 民獻의 子,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 〈정자동〉
○ 李　濱(1579~1667) : 全州人, 자는 炯源, 호는 郊村, 별좌 思齊의 2男, 金長生의 문인, 소무원종공신, 첨지중추부사, (증) 가선대부, 호조 참판, 청백리, 有碑 · 善政碑 〈분당동 주인동〉
○ 李　碏: 固城人, 世芳의 1男, (증) 이조 참판 〈도촌동〉
○ 李　墇(1652~1722) : 德水人, 자는 士完, 洵의 1男, 文科, 통정대부, 경흥 부사 〈고등동〉
○ 李　墏(1628~1694) : 全州人, 자는 載 , 호는 栗園, 봉창수 烱儼의 1男, 통덕랑 〈궁내동〉
○ 李長孫(1411~ ?) : 廣州人, 자는 孟胤, 之直의 1男, 文科, 지제교 겸 춘추관 편수관, 碑文 金亨鎭 撰 〈하대원동〉
○ 李長潤(1455~1528) : 韓山人, 자는 粹然, 대사성 堝의 1男, 봉화 현감, (증) 정헌대부 이조 판서, 韓原君, 삼세유사비 李秉淵 撰 〈수내동〉
○ 李　栽(1624~1698) : 全州人, 자는 子固, 호는 聾菴, 烱胤의 4男, 통정대부, 행 용안 현감 〈궁내동〉
○ 李　坱: 延安人, 자는 子厚, 仁文의 2男, 文科, 경주 부윤 〈판교동〉
○ 李　程(1489~1531) : 韓山人, 자는 子明, 長潤의 4男, 어모장군 행 충좌위 부호군 〈수내동〉
○ 李　程(1618~1671) : 德水人, 자는 雲長, 호는 南谷, 景憲의 1男, 進士 · 文科, 승정원 좌승지 지제교 〈고등동〉
○ 李廷夔(1612~1671) : 韓山人, 자는 一卿, 호는 帰川, 穡의 1男, 司馬 · 文科, 한성부 좌윤, 신도비명 宋時烈 撰 〈중부면

번천리〉

○ 李廷龍(1629~1689) · 韓山人, 자는 夢卿, 대구부사 禔의 2男, 효자, 김제 군수, 온양 군수, (증) 가선대부 이조 참판, 신도비명 李宜顯 撰 〈수내동〉

○ 李正彬 · 德水人, 자는 正汝, 洛의 1男, 의금부 도사 〈고등동〉

○ 李廷植(1600~1669) · 全州人, 자는 子建, 호는 秋溪, 灌의 1男, 선교랑, (증) 가선대부 호조 참판 〈서현동〉

○ 李挺臣 · 延安人, 俶의 1男, 부호군 〈판교동〉

○ 李鼎興(1645~1729) · 全州人, 자는 士重, 錫耆의 系子, 선무랑 錫命의 2男, 절충장군, 충좌위 사용 〈정자리〉

○ 李 濟(1609~1671) : 全州人, 元龜의 1男, 승의랑 〈여수동〉

○ 李 禔(1589~1631) : 韓山人, 자는 而實, 慶流의 1男, 司馬 · 文科, 대구부사, (증) 가선대부, 이조 참판 〈번천리〉

○ 李悌彦 : 全州人, 공조참의 緖의 子, 삭령군수 〈운중동〉

○ 李尊庇(1233~1287) : 固城人, 자는 彬然, 문산공 瑨의 子, 文科, 고려 후기 문신, 정의대부 좌상시, 諡號는 文僖 〈도촌동〉

○ 李宗麟(1538~1611) · 全州人, 자는 景仁, 덕양군 岐의 1男, 현록대부 오위도총부 부총관, 豊山君, 비문 申翊聖 撰 〈하산운동〉

○ 李從錫(1479~1538) · 全州人, 植의 2男, 進士, 홍원 현감 〈여수동〉

○ 李浚明(1634~1711) · 廣州人, 자는 子晦, 勉行의 1男, 武科, 동중추 〈대왕리〉

○ 李俊永(1729~1791) · 韓山人, 獻重의 1男, 해주 판관 〈서현동〉

○ 李 增(1525~1600) · 韓山人, 자는 可謙, 호는 北厓, 종묘서령 之菽의 2男, 司馬 · 文科, 예조판서,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의정, 諡號 懿簡, 鷄川君, 신도비명 鄭斗卿, 諡狀 李景奭 撰, 有詩稿一冊 〈수내동〉

○ 李　　墀(1420~1486) : 固城人, 자는 升卿, 호는 思菴, 原의 7男, 文科, 예문관 직제학, (증) 가선대부 예조 참판 〈도촌동〉

○ 李之剛(1363~1427) : 廣州人, 자는 仲潛, 판전교시사 集의 子, 문과, 의정부 참찬, 中軍都摠制, 諡號는 文肅 〈하대원동〉

○ 李之菽(? ~1561) . 韓山人, 자는 大有, 한성군 秩의 3男, 종묘서령, (증) 정헌대부 이조 판서, 韓平君 〈수내동〉

○ 李之直(1354~1419) : 廣州人, 자는 伯平, 호는 炭川, 集의 1男, 司馬 · 文科, 형조 참의, (증) 영의정, 청백리, 비문 李埰鎭 · 李休徵 撰 〈하대원동〉

○ 李之函(1517~1578) : 韓山人, 자는 馨伯, 호는 土亭, 서경덕의 문인, 우봉현령 稚의 子, (증) 이조판서, 諡號는 文康, 저서 「土亭集」〈수내동〉

○ 李之恒(1605~1654) : 全州人, 자는 月如, 대사헌 榮의 1男, 趙纘韓의 門人, 司馬 · 文科, 홍문관 부제학 〈정자동〉

○ 李枝薰(1502~1569) : 全州人, 자는 芳仲, 健의 1男, 통훈대부 평택 현감 〈서현동〉

○ 李　進 : 慶州人, 元善의 1男, 長城監務 〈복정동〉

○ 李眞養(1667~1685) : 全州人, 자는 頤甫, 羽成의 1男, 현령 〈석운동〉

○ 李　秩(1474~1560) : 韓山人, 자는 子序, 주부 長潤의 1男, 司馬, 가선대부, 오위도총부 부총관, 韓城君 〈수내동〉

○ 李　集(1327~1387) : 廣州人, 初名은 元齡, 자는 浩然, 호는 遁村, 唐의 2男, 文科, 봉순대부 판전교시사, (증) 좌찬성, 碣文 李休徵 · 신도비문 李家源 撰, 저서로 詩集 2卷, 묘소는 성남향토유적 제2호로 지정 〈하대원동〉

○ 李　濮(1670~1727) : 韓山人, 자는 季通, 호는 韓州, 廷龍의 4男, 司馬 · 文科, 통정대부 황해관찰사 겸 해주목사, 有遺稿

○李 墐 1664—1733 / 덕수리 / 그등등
　　도곡村.

〈수내동〉

○ 李 徵(1656~1718) : 星州人, 자는 玄成, 保胤의 2男, 의금부 도사 〈이매동〉

○ 李 徵 : 羽溪人, 자는 獻夫, 景衍의 1男, 선무랑, 穆淸殿直,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대장동〉

○ 李昌興 . 全州人, 錫亨의 1男, 進士, 군수 〈정자리〉

○ 李 瞻(1554~1599) : 全州人, 자는 恩遠, 풍산군 宗麟의 1男, 龜城副正, 龜城君, 비문 李廎 · 陰記는 李緯 撰 〈궁내동〉

○ 李哲英(1613~1662) : 全州人, 자는 士明, 호는 槐園, 景奭의 1男, 生員, 平市令, (증) 이조 참판, 안협에 송덕비, 묘비문 徐宗泰 撰 〈석운동〉

○ 李淸臣(1529~1651) · 全州人, 藝의 3男, 호군 〈여수동〉

○ 李 軸(1519~1596) : 全州人, 자는 子任, 호는 松淡, 枝蕙의 3男, 完山府院君 〈서현동〉

○ 李厠鎭(1719~1756) : 德水人, 자는 大初, 址의 1男, 生員, 은진 현감 〈사송동 복평〉

○ 李 寀(1413~1475) . 全州人, 자는 士仁, 효령대군 補의 2男, 가덕대부 병조 판서, 諡號는 夷安, 瑞原君, 비문 李起鍾 撰 〈분당동〉

○ 李 倬(1516~1548) : 延安人, 大升의 1男, 敦勇校尉, (증) 승정원 좌승지 〈판교동〉

○ 李 坦(1522~1550) : 韓山人, 芝菽의 1男, 종친부 전부 〈수내동〉

○ 李泰基 : 慶州人, 炫의 1男, 첨정 〈야탑동〉

○ 李 澤(1509~1573) : 固城人, 자는 卓之, 호는 雨堂, 嶠의 子, 司馬 · 文科, 예조참판, 비문 李珥 撰, 李世喜 書 〈갈현동〉

○ 李 通(1556~1620) : 德水人, 자는 天衢, 麟의 系子, 生父

元謹, 生員, 통훈대부 순천군수 성천병마절도사,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의정부 영의정, 德豊君 〈고등동〉

○ 李　泌(1730~ ?) 德水人, 자는 大深, 澔鎭의 系子, 生父 馨鎭, 文科, 통정대부 장흥부사 〈고등동〉

○ 李廈成(1646~1717) : 全州人, 자는 賀卿, 哲英의 2男, 군수 〈석운동〉

○ 李夏肇(1647~) : 全義人, 世選의 長子, 첨지,

○ 李夏昌 : 全州人, 溟의 1男, 절충장군 · 부호군 〈여수동〉

○ 李學永 : 全州人, 가선대부 동지 돈녕부사 〈성남동〉

○ 李　菡(1470~1534) : 德水人, 자는 子實, 宜蕃의 3男, 가선대부, (증) 정헌대부 의정부 좌참찬, 海豊君, 有神道碑 〈고등동〉

○ 李咸亨(1550~1577) : 全州人, 자는 平叔, 호는 天山齋, 拭의 1男, 退溪의 門人, 저서로 「心經講錄」 3권 1책 〈도촌동〉

○ 李獻重(1711~1742) : 韓山人, 秉泰의 系子, 生父 秉恒, 양성 현감 〈수내동〉

○ 李　炫 : 慶州人, 자는 命信, 慶標의 1男, 군자감정 〈야탑동〉

○ 李顯勳 · 慶州人, 자는 承漢, 棕의 2男, 판관 〈야탑동〉

○ 李　浹(1664~1698) : 韓山人, 자는 叔和, 廷龍의 3男, 司馬, (증) 자헌대부 이조 판서 〈수내동〉

○ 李烱佶(1608~1663) : 全州人, 자는 汝慶, 龜川君 睟의 四子, 逢洲正 〈궁내동〉

○ 李烱信(1682~ ?) : 全州人, 자는 汝友, 龜川君 睟의 三子, 도총부 부총관, 司饔院提調, 蓬山君, 묘갈 宋時烈 撰 〈궁내동〉

✓○ 李烱胤(1593~1645) : 全州人, 자는 汝承, 龜川君 睟의 一子, 문과, 정묘년 호종공신, 副從管, 蓬萊君, 묘갈 李敬與 〈백현동〉

○ 李炯儼(1610~1637) : 全州人, 龜川君 睟의 五子, 蓬昌守

〈궁내동〉

○ 李炯仲(1616~ ?) : 全州人, 龜川君의 七子, 蓬城令 〈궁내동〉

○ 李亨增 : 韓山人, 첨지중추부사 (증) 병조 참판 〈여수동〉

○ 李 浩(1491~1535) : 全州人, 자는 浩然, 源孫의 子, 司馬, 예빈시별좌 (증) 사헌부 집의 〈분당동〉

○ 李弘老(1560~1623) : 延安人, 자는 裕甫, 호는 橋汀, 侃의 3男, 司馬 · 文科, 경기도 관찰사, (증) 이조 참판 〈판교동〉

○ 李 穫(1583~1615) · 韓山人, 자는 君實, 慶洪의 1男, 현풍현감, 大邱鎭營兵馬同僉節制都尉 〈수내동〉

○ 李 滉(1483~1533) : 固城人, 자는 智卿, 峴의 1男, 金井察訪 〈돌마면 麻溪只〉

○ 李 薈(1655~1717) · 全州人, 자는 茂鄕, 元哲의 5男, 통훈대부 회인 현령 〈분당동〉

○ 李 薈: 全州人, 從錫의 2男, 장예원 사평 〈여수동 현암산〉

○ 李晦植(1755~1833) · 全義人, 자는 聖根, 潤恒의 1男, 武科, 경상우도 병사 〈구미동〉

○ 李孝伯(1416~1487) : 全州人, 厚生의 1男, 武科, 승헌대부 병조 참판, 諡號는 恭簡, 新宗君, 묘지는 李匡師 撰, 世稱 神弓 〈석운동〉

○ 李 垕(1611~1668) · 全州人, 자는 子重, 호는 南谷, 烱胤의 2男, 司馬 · 文科, 사간원 사간, (증) 통정대부 승정원 도승지 겸 경연참찬관, 行狀 李箕洪 · 비문 宋時烈 · 遺稿 서문 兪拓基 撰 〈궁내동〉

○ 李後伯(1632~1693) : 全州人, 縯의 1男, 무공랑 행 동몽교관 겸 충훈부 도사 〈도촌동〉

○ 李厚生(1398~1465) · 全州人, 정종대왕 10子, 정의대부, (증) 광록대부 영종정경, 諡號는 積德, 德泉君, 비문 李匡贊

撰, 신도비문 李匡師 撰 〈대장동 중대면厭里〉

○ 李厚濟(1702~1780) : 全州人, 자는 載叟, 蓍命의 系子, 生父 蓍遠, (증) 가선대부 이조참판 〈궁내동〉

○ 李興萬 : 慶州人, 鎂의 1男, 통덕랑 〈야탑동〉

○ 李　愔 : 全州人, 성종대왕의 16子, 楊原君 〈세촌면〉

○ 李喜開(1645~1697) : 德水人, 稹의 2男, 통훈대부 양성 현감 〈고등동〉

○ 李熙敬 : 廣州人, 자는 敬甫, 閒의 4男, 충무위 사과, 비문 尹丁鎭 撰 〈대원리〉

○ 李熙敬(1808~1874) : 全義人, 자는 誠緝, 魯植의 2男, 武科, 통정대부 〈구미동〉

○ 李喜楠(1670~1696) : 德水人, 자는 子久, 嵇의 子, (증) 이조 참의〈사송동〉

○ 李喜林(1824~1870) : 全州人, 承裕의 1男, 통덕랑 〈궁내동〉

○ 李喜相(1626~1692) · 德水人, 자는 鼎卿, 稠의 3男, 進士, 홍산 현감 〈고등동〉

○ 李熙業 : 廣州人, 자는 業甫, 閒의 1男, 사헌부 감찰, 삼등현령 〈대원리〉

○ 李喜燁(1667~1751) · 德水人, 자는 士章, 秤의 子, 進士, 동지중추부사 〈고등동〉

○ 李喜龍(1639~1697) : 德水人, 자는 君瑞, 稕의 4男, 文科, 강원도 관찰사 〈고등동〉

○ 李喜益(1633~1718) : 德水人, 자는 礪叔, 稷의 系子, 生父 稕, 武科 강동현령, 가선대부 〈고등동〉

○ 李喜寅(1626~1678) . 德水人, 稕의 1男, 文科 영흥 부사 〈고등동〉

○ 李熙一(1792~1863) : 全義人, 자는 貫吾, 厚植의 1男, 대호

군 〈구미동〉

○ 李熙晶(1781~1863) : 全義人, 자는 日汝, 奉植의 1男, 가선대부〈구미동〉

○ 李熙贊(1806~1886) : 全義人, 자는 聖佐, 倫植의 2男,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구미동 고부산〉

○ 李喜澤(1640~1691) : 德水人, 자는 潤卿, 程의 1男, 生員, 연안 부사〈고등동〉

○ 李喜涵(1673~1717) : 德水人, 자는 子有, 호는 歸川, 嵇의 자, 進士, 옥천 군수, (증) 이조 참판 〈사송동 보평〉

○ 李興林(1829~1890) : 全州人, 承裕의 3男, 통덕랑 〈궁내동〉

◈ 林 氏 ◈

○ 林建漢(1714~1754) · 平澤人, 자는 巨卿, 鎭九의 1男,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갈현동〉

○ 林啓善(1833~1897) · 平澤人, 자는 殷敎, 圭廉의 2男, (증)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겸 오위장 〈갈현동〉

○ 林圭冕(1791~1852) : 平澤人, 자는 榮七, 容宣의 1男,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갈현동〉

○ 林圭相(1837~1909) : 平澤人, 자는 建錫, 容祖의 3男, 통정대부 중추부사 〈갈현동〉

○ 林圭貞(1804~1881) : 平澤人, 자는 榮玉, 容朝의 1男, 가선대부 첨지중추부사 〈갈현동 이배곡〉

○ 林圭台(1809~1872) : 平澤人, 자는 榮三, 容宣의 2男, 통덕랑 〈갈현동〉

○ 林圭顯(1817~1895) : 平澤人, 자는 春燁, 容晩의 子, (증)

가선대부 호조 참판 〈갈현동〉

○ 林圭勳(1820~1881) : 平澤人, 자는 春實, (증)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갈현동〉

○ 林東淵(1859~1913) : 平澤人, 자는 學維, 啓善의 1男, 통정대부 창능 참봉 〈갈현동〉 례

○ 林澧根 : 平澤人, 日漢의 1子, 통정대부 〈갈현동〉

○ 林勉根(1765~1788) : 平澤人, 자는 貴蕃, 宗漢의 2男,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겸 경연참찬관 〈갈현동〉

○ 林富善(1836~1894) : 平澤人, 자는 仁甫, 圭顯의 1男,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갈현동〉

○ 林祥福 : 平澤人, 강릉 부사, 여주 목사 〈사송동〉

○ 林聖淵 : 平澤人, 자는 元甫, 起善의 1男, 통정대부 〈갈현동〉

○ 林洙根(1767~1829) · 平澤人, 자는 茂蕃, 宗漢의 3男, 통훈대부 군자감정 〈갈현동〉

○ 林容晩(1790~1863) : 平澤人, 자는 旭西, 勉根의 1男, (증) 가선대부 예조 참판 〈갈현동〉

○ 林容宣(1768~1826) · 平澤人, 자는 逸民, 澈根의 2男, 통정대부 행 돈녕부 도정 〈갈현동〉

○ 林容旭(1785~1836) : 平澤人, 자는 千澤, 洙根의 1男, 통정대부 승정원 승지〈갈현동〉

○ 林義善(1821~1893) : 平澤人, 圭台의 系子, 生父 圭免, 통훈대부 행 예빈시 판관 〈갈현동〉

○ 林一南 : 平澤人, 興周의 子, 청주목사 〈사송동〉

○ 林日漢 · 平澤人, 자는 成逸, 鎭世의 1男, 武科, 행 훈련봉사 〈갈현동〉

○ 林智善(1822~1897) : 平澤人, 자는 季載, 圭貞의 1男, 武科, 훈련첨정 〈갈현동〉

○ 林鎭九(1688~1730) · 平澤人, 자는 海汝, 淨雲의 1男, 進士, 통정대부 〈갈현동〉
○ 林鎭七(? ~1797) · 平澤人, 淨運의 3男, 進士, 통정대부 〈갈현동〉
○ 林澈根(1735~1762) : 平澤人, 자는安, 建漢의 1男, 武科, 행 훈련중군, 통훈대부 옥천 현감 〈갈현동〉
○ 林興周 : 平澤人, 祥福의 子, 삼가 현령 〈사송동〉

◈ 張 氏 ◈

○ 張時瑞(1653~1709) · 結城人, 승정원 좌승지 孝閔의 1男, 병조 참판 聚五의 父, 五衛將,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증) 가선대부 병조참판, 墓碑文 張基德 撰, 張錫鉉 書 〈여수동〉
○ 張履儉(1739~ ?) · 結城人, 자는 君約, 百源의 1男, 병조참판 聚五의 孫, 進士, 통덕랑 〈여수동〉
○ 張履信(1744~1803) : 結城人, 자는 仲約, 百源의 2男, 통덕랑 〈여수동〉
○ 張聚五(1684~1770) : 結城人, 자는 士會, 文科, 절충장군 첨지중추부사 時瑞의 5男, 嘉義大夫 行 병조참판 겸 동지성균관사 오위도총부 부총관, 영조대왕의 하사품 御製 '自省編', '識經編' 어제어필 '大報壇賡帖'이 보존, 張氏 8貫의 족보를 10년간에 걸쳐 창간 〈여수동〉

◈ 鄭 氏 ◈

○ 鄭景淳 : 迎日人, 沅의 子, 돈녕부 주부, 有碑文 〈복정동〉
○ 鄭均誠(1792~ ?) : 慶州人, 자는 新贊, 宇周의 1男, 통정대부 〈도촌동〉
○ 鄭大年(1503~1578) : 東萊人, 자는 景老, 호는 思菴, 待敎 荃의 1男, 司馬 · 文科,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청백리, 諡號는 忠貞, 신도비명 盧守愼 찬, 묘지명 金貴榮 撰〈신흥동 옹정촌〉
○ 鄭敦復 : 東萊人, 大年의 5男, 통훈대부 안성 군수 〈신흥동〉
○ 鄭得彬 : 淸州人, 승정원 좌승지 〈삼평동〉
○ 鄭樂勳 : 淸州人, 가선대부 호조참판 겸 오위도총부 부총관 〈삼평동〉
○ 鄭良說(1618~1693) : 東萊人, 活의 系子, 生父 병조참의 淹, 통덕랑, 행 용양위 부호군 〈단대리〉
○ 鄭良臣(1604~1676) : 東萊人, 淹의 1男, 절충장군 행 용양위 부호군〈단대리 능골〉
○ 鄭良翼(1591~1665) : 東萊人, 자는 元吾, 沈의 1男, 통덕랑〈단대리〉
○ 鄭　岦(1574~1629) : 迎日人, 자는 汝秀, 돈영주부 景淳의 子, 文科, 공조 참판, 묘갈명 任相元 撰, 병마수군절도사 柳以復 書 〈복정동〉
○ 鄭世卿 : 迎日人, 灝의 子, 鄭 의 曾祖, 사헌부 감찰, 〈복정동〉
○ 鄭 沈(1555~1629) : 東萊人, 자는 汝點, 敦復의 2男, 통정대부 운산 군수 〈신흥동〉
○ 鄭 淹 : 東萊人, 敦復의 4男, 가선대부 행 병조 참의 〈단대리 능곡〉
○ 鄭宇龍(1764~1821) : 慶州人, 자는 炳龍, 駿章의 3男, 가선

대부 동지중추부사 〈도촌동〉

○ 鄭 沅 · 迎日人, 世卿의 子, 승정원 좌승지 〈복정동〉

○ 鄭惟奭(1626~ ?) : 慶州人, 자는 演奭, 埴의 1男, 통정대부 〈도촌동〉

○ 鄭履泰 : 淸州人, 欽의 子, 통훈대부 사복시정 〈삼평동〉

○ 鄭 荃(1475~1513) · 東萊人, 亨耘의 溪子, 生父 元耘, 司馬 · 文科, 예문관 대교, (증) 숭정대부 의금부 좌찬성, 墓碑文 洪暹 撰 〈신흥동〉

○ 鄭泰齊(1621~ ?) : 東萊人, 자는 東望, 호는 菊堂 · 三堂, 文科, 좌랑 良佑의 子, 승정원 승지, 저서로 「菊堂非吾」, 「天君衍義(소설)」 〈신흥동〉

○ 鄭 沆 : 東萊人, 武科, 황주 목사 〈신흥동〉

○ 鄭 赫 : 淸州人, 樂勳의 子, 숭정대부 행 중추부사 〈삼평동〉

○ 鄭亨耘 : 東萊人, 秖의 2男, 부사직, (증) 가선대부 호조 참판 〈신흥동〉

○ 鄭 瀕(1551~1609) : 東萊人, 休復의 1男, (증) 자헌대부 이조 판서 〈신흥동〉

○ 鄭 瀕 : 迎逸人, 안주 목사, 鄭岦 의 고조부 〈복정동〉

○ 鄭華齊(1618~1674) · 東萊人, 자는 西望, 호는 醉全, 良弼의 1男, 司馬 · 文科, 통정대부 승정원 우승지 〈단대리 옹정촌〉

○ 鄭休復(1529~1604) : 東萊人, 자는 復初, 大年의 1男, 양근 · 간성 · 안산 · 여산 군수,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墓碣銘 李睟光 撰 〈신흥동〉

○ 鄭 欽 : 淸州人, 자는 明叔, 昌老의 子,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 〈삼평동〉

◈ 丁 氏 ◈

○ 丁好德(1559~1607) : 羅州人, 자는 希迪, 胤禧의 1男, 계공랑〈백현동〉

○ 丁好誠(1566~1614) : 羅州人, 자는 希一, 胤禧의 3男, 호조좌랑, (증) 가선대부 호조 참판, 碑文 丁元燮 撰〈상적동 義谷〉

○ 丁胤禧(1531~1589) · 羅州人, 자는 景錫, 호는 顧菴, 應斗의 2男, 退溪의 門人, 文科, 강원도 관찰사, 묘비문은 丁時傑 · 신도비문은 丁元燮 撰〈백현동〉

◈ 趙 氏 ◈

○ 趙　狷(1351~1425) : 平壤人, 자는 臣鄕, 호는 松山, 德裕의 2男, 文科, 안렴사, 조선조 (증) 공조 판서, 諡號는 平簡, 平壤君, 平城府院君〈여수동〉

○ 趙繼興(1534~1590) : 平壤人, 瑾의 3男, 어모장군 행 충좌위 부호군〈신흥동〉

○ 趙石山 · 平壤人, 狷의 1男, 의정부 좌찬성〈여수동〉

○ 趙賢輔(1636~1725) : 豊壤人, 자는 弼卿, 從耘의 2男, 壽職同中樞府事〈사송동〉

◈ 曺 氏 ◈

○ 曺夢禎(1535~1595) : 昌寧人, 자는 應吉, 호는 敬軒, 彦博의 1男, 諡號는 孝安, 묘비문 吳億齡 撰, 全玄成 書〈서현동〉

○ 曺彦博(1509~1547) : 昌寧人, 자는 寬夫, 漢弼의 系子, 生父 繼衡, 文科, 호조좌랑, (증) 부제학, 묘비문 倬 撰 〈서현동〉

◈ 崔 氏 ◈

○ 崔公天(1744~1822) : 慶州人, 자는 擎天, 德鎭의 1男, 선략장군 행용양위 부사과 〈도촌동〉

○ 崔起南(1559~1619) · 全州人, 호는 晩谷, 秀俊의 子, 崔鳴吉의 父, 成渾의 門人, 司馬, 암행어사, 영흥부사, (증) 영의정, 비문 張維 撰, 金義信 書 〈신촌동〉

○ 崔德鎭(1718~1787) : 慶州人, 자는 德俊, 命徇의 1男, 선략장군 행 용양위 부사과 〈도촌동〉

○ 崔龍柱 : 慶州人, 자는 孟豫, 公天의 4男, 선략장군 행 용양위 부사과 〈도촌동〉

○ 崔命徇(1699~1768) : 慶州人, 자는 汝狩, 榻甲의 1男, 통정대부 첨지 중추부사 〈도촌동〉

○ 崔鳳柱 : 慶州人, 公天의 2男, 절충장군 부호군 〈도촌동〉

○ 崔三崑(1725~1780) : 慶州人, 武科, 첨정 〈시흥동〉

○ 崔商龍(1668~1738) : 慶州人, 자는 碩龍, 濟의 7男, (증) 가선대부 공조 참판 〈도촌동〉

○ 崔榻甲(1684~1755) · 慶州人, 자는 廷榻, 商龍의 2男, 통정대부 첨지중추부사 〈도촌동〉

○ 崔昌華(1788~1858) : 江陵人, 선략장군 용양위 부사과 〈궁내동〉

○ 崔弘良(1808~1862) : 慶州人, 완진의 3男, 어모장군 전라도 우수군 〈시흥동〉

◈ 韓 氏 ◈

○ 韓繼禧(1423~1482) : 淸州人, 자는 子順, 관찰사 韓惠의 3男, 의정부 좌찬성, (증)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의정, 諡號는 文靖, 西原君, 신도비명 徐居正 撰 〈율동〉

○ 韓貴榮(갑진~정사) : 淸州人, 勗의 1男, 武科, 어모장군 〈오야동〉

○ 韓貴益 : 淸州人, 勗의 2男, 용양위 부사과 〈오야동〉

○ 韓德孚(1705~1775) · 淸州人, 자는 聖聞, 宗說의 系子, 生父 宗億, 文科, 도사, 통훈대부 병조 좌랑 〈서현동〉

○ 韓德厚(1735~ ?) · 淸州人, 자는 謹之, 호는 湖菴, 宗浩의 子, 司馬 · 文科, 풍천 부사 〈서현동〉

○ 韓明勗(1567~1652) : 淸州人, 자는 勗哉, 호는 栗軒, 참판 述의 1男, 鄭澈 · 成渾의 門人, 司馬, 자헌대부 지돈녕부사, 저서는 「三體集」 〈율동〉

○ 韓明直(1576~1613) : 淸州人, 자는 直哉, 述의 2男, 司馬, 통훈대부 通禮院引儀, (증) 승정원 좌승지 〈율동〉

○ 韓百鳳(1881~1950) : 淸州人, 자는 聖儀, 호는 松軒, 榮會의 3男, 徐相晩의 門人, 독립유공자, 건국공로훈장 애족장 〈율동〉

○ 韓士介(1453~1521) · 淸州人, 자는 士廉, 繼禧의 4男, 통정대부 진주 목사, (증) 병조 참판, 비문 金安老 撰 〈율동〉

○ 韓士武(1452~1482) : 淸州人, 좌찬성 繼禧의 2男, 통훈대부 한성부 판관, (증) 의정부 좌찬성 〈서현동〉

○ 韓斯文(1446~1567) : 淸州人, 자는 子藝, 좌찬성 繼禧의 1男, 정헌대부 행 공조판서, 諡號는 恭簡, 西川君, 신도비문 申用漑 撰 〈율동〉

○ 韓士信 : 淸州人, 자는 德祖, 繼禧의 3男, 三登縣令, (증) 좌

통례 〈율동〉

○ 韓 碩(1479~?) : 淸州人, 士信의 2男, 훈련원도정, 오위도총부부총관 〈율동〉

○ 韓世胄(甲申~辛酉) : 淸州人, 振善의 子, 금위부 수어사 〈오야동〉

○ 韓 述(1541~1616) : 淸州人, 자는 子善, 호는 陶谷, 교리 智源의 1男, 司馬·文科, 동지중추부사, (증) 숭정대부 의정부 좌찬성, 孝子로 旌閭 〈율동〉

○ 韓承元(1465~1514) · 淸州人, 자는 仁淑, 판관 士武의 1男, 정선 군수, (증) 좌찬성 〈서현동〉

○ 韓永福(1867~ ?) · 淸州人, 호는 有農·南農, 일명 世良, 1914년 11월 北京 東西東 直門大街로 건너가 人蔘商을 경영하면서 항일운동, 돌마면 분당리 44번지 출생 〈분당동〉

○ 韓 勗(壬申~壬寅) : 淸州人, 호조 참의, 승정원 부정자 〈오야동〉

○ 韓允謙(1588~1637) · 淸州人, 자는 時益, 월탄 孝純의 5男, 進士·司馬·文科, 홍주현감, 都事 〈서현동〉

○ 韓智源(1513~1560) : 淸州人, 자는 士達, 호는 靑蓮, 도정 碩의 4男, 진사, 文科, 성천부사, 인천부사, 저서 「三體集」 〈율동〉

○ 韓振善(丁亥~甲辰) · 淸州人, 貴益의 子, 통정대부, 호조 참판 〈오야동〉

○ 韓致謙(1574~1608) : 淸州人, 자는 季益, 孝純의 3男, 통정대부, 동부승지, (증) 가선대부, 이조 참판 〈서현동〉

○ 韓 懷(1550~1621) : 淸州人, 자는 民望, 호는 菩菴·柳下, 교리 智元의 2男, 司馬·文科, 扈聖原從功臣, 통정대부 동부승지, (증) 가선대부, 이조 참판 〈율동〉

○ 韓孝純(1543~1621) · 淸州人, 자는 勉叔, 호는 月灘, 汝弼

의 2男, 生員, 司馬 · 文科, 좌의정, 諡號는 莊獻, 西興府院君, 후에 모두 삭탈, 墓誌 李塾 撰, 문집으로 「神器秘訣」, 「陣說」이 있다. 〈서현동〉

◈ 洪 氏 ◈

○ 洪百順(1762~1819) : 南陽人, 자는 士吉, 世建의 子, 의령현감, 진주 목사, (증) 도승지, 孝子 旌閭 〈여수동〉

○ 洪奉世(1498~1575) : 南陽人, 자는 欽中, 景霖의 子, 趙光祖의 門人, 여주목사 〈돌마면〉

○ 洪睟元(? ~1637) : 南陽人, 자는 建初, 三學士 翼漢의 2子, 숙종 때 孝行 旌閭, 墓碑文 宋時烈 撰 · 宋煥箕 書 〈수내동〉

○ 洪　煒: 南陽人, 思立의 子, 첨지 〈복정동〉

○ 洪處道(1646~1691) : 南陽人, 자는 子由, 命亨의 子, 영양현감 〈갈현동〉

◈ 黃 氏 ◈

○ 黃　鍵(1646~1695) · 昌原人, 자는 啓明, 世耆의 1男, 宋의 門人, (증) 대광보 국숭록대부, 영의정, 墓碣銘 李宜顯 撰 〈낙생면 도성현〉

○ 黃立中(1561~1622) : 昌原人, 자는 子正, 瑋의 4男, 통정대부, 예천 군수, (증) 가선대부 호조 참판, 碑文 黃重耆 撰, 趙相愚 書〈낙생면 瓦洞 덕양군묘 청용 자좌〉

○ 黃命耆(1607~1670) : 昌原人, 자는 元老, 洞의 1男, 조산대부, 전설사 제검, 비문 黃鎭 撰 〈낙생면〉

○ 黃 鏇(1653~1716) · 昌原人, 자는 子望, 胤耆의 1男, (증) 가선대부, 호조참판 〈단대리 屯谷〉

○ 黃聖河(1691~1765) : 昌原人, 자는 君厚, 鏇의 1男, 가선대부, 동지중추부사 〈단대리〉

○ 黃世耆(1612~1699) : 昌原人, 자는 廷老, 洞의 2男, 통정대부, 돈녕부 도정, (증) 가선대부 이조 참판 〈낙생 검천 여사리〉

○ 黃有孚(1663~1735) : 昌原人, 자는 汝相, 一夏의 1男, 중직대부, 교하 군수 〈세촌면〉

○ 黃有牧(1675~1742) : 昌原人, 자는 夢汝, 一夏의 2男, 조산대부, 김포 군수 〈사송동 송현〉

○ 黃有師(1680~1739) : 昌原人, 자는 雲甫, 一夏의 3男, (증) 가선대부, 호조 참판 〈창곡동〉

○ 黃胤耆(1607~1691) : 昌原人, 자는 以胤, 湯의 2男,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단대리〉

○ 黃仁煥(1733~1799) : 昌原人, 자는 景明, 宋의 系子, 生父東, 가선대부, 전라 병사 〈창곡동〉

○ 黃一夏(1644~1726) : 昌原人, 자는 子羽, 鼎의 1男, 文科, 좌찬성 〈사송동〉

○ 黃梃河(1692~1743) : 昌原人, 자는 秀甫, 鍍의 4男, 進士, 懿陵參奉 〈삼평동〉

○ 黃 鎭(1642~1707) · 昌原人, 자는 翰翼, 호는 安隱堂, 命耆의 1男, 통정대부 행 통천 군수, 有遺稿 〈낙생면〉

○ 黃震耆(1619~1694) · 昌原人, 자는 東老, 沔의 1男, 통정대부, 한성부 판관, (증) 자헌대부 이조 판서 〈낙생면〉

○ 黃 宋(1703~1739) 昌原人, 자는 子公, 有師의 1男, 武科,

가의대부 오위도총부 부총관 〈세촌면 양촌〉

○ 黃　洞(1584~1628) · 昌原人, 자는 汝涵, 立中의 1男, 處士, (증) 통정대부 승정원 좌승지, 碑銘 宋時烈 撰, 家狀 黃世耆 지음 〈낙생면 도성현〉

第 2 章 贈諡 및 封君人物

1. 贈諡人物 (41%)

○ 權 硡(？～1568)：諡號는 忠定, 安東人, 愚의 長子
○ 權 攀(1419～1472)：諡號는 安襄, 安東人, 權踶의 子
○ 權 徵(1538～1598)：諡號는 貞翼, 安東人, 硡의 四子
○ 金若時(1335～1406)：諡號는 忠定, 光山人, 鼎의 三子
○ 南公轍(1760～1840)：諡號는 文獻, 宜寧人, 有容의 子
○ 南有容(1698～1773)：諡號는 文淸, 宜寧人, 漢記의 子
○ 南以興(1576～1627)：諡號는 忠莊, 宜寧人, 瑜의 長子
○ 方 恂(？～？)：諡號는 文毅, 溫陽人, 彥暉의 長子
○ 宋言愼(1542～1612)：諡號는 榮襄, 礪山人, 崔의 二子
○ 元景夏(1698～1761)：諡號는 忠文, 原州人, 命龜의 長子
○ 柳季聞(1383～1445)：諡號는 安肅, 文化人, 寬의 三子
○ 柳尙運(1636～1707)：諡號는 忠簡, 文化人, 誠五의 子
○ 尹慶元(1560～？)：諡號는 忠莊, 漆原人, 卓然의 長子
○ 尹 暾(1551～1612)：諡號는 孝貞, 南原人, 克新의 二子
○ 尹卓然(1538～1594)：諡號는 憲敏, 南原人, 伊의 長子
○ 李 岡(1333～1368)：諡號는 文敬, 固城人, 碏의 四子
○ 李景奭(1595～1671)：諡號는 文忠, 全州人, 惟侃의 三子
○ 李克堪(1427～1465)：諡號는 文景, 廣州人, 仁孫의 子
○ 李 陸(1438～1498)：諡號는 文光, 固城人, 墀의 長子
○ 李 琳(1427～1445)：諡號는 靖德, 全州人, 세종대왕 七子
○ 李 棨(1572～1646)：諡號는 忠正, 全州人, 愼誠의 子
○ 李尙安(1575～1627)：諡號는 忠愍, 廣州人, 匡國의 養子

○ 李　睟(1569~1645) · 諡號는 忠肅, 全州人, 宗麟의 二子
○ 李　昷(1297~1364) : 諡號는 文貞, 固城人, 瑀의 長子
○ 李億祺(? ~ ?) : 諡號는 毅愍, 全州人, 連孫의 三子
○ 李禮長(1406~1468) : 諡號는 平簡, 全義人, 士寬의 三子
○ 李　原(1368~1429) · 諡號는 襄憲, 固城人, 岡의 長子
○ 李　濡(1645~1721) : 諡號는 惠定, 全州人, 重輝의 子
○ 李仁孫(1395~1463) : 諡號는 忠僖, 廣州人, 之直의 子
○ 李尊庇(1233~1287) : 諡號는 文僖, 固城人, 瑨의 子
○ 李　增(1525~1600) : 諡號는 懿簡, 韓山人, 之菽의 二子
○ 李之剛(1363~1427) : 諡號는 文肅, 廣州人, 集의 子
○ 李之函(1517~1578) : 諡號는 文康, 韓山人, 榮의 長子
○ 李　寔(1413~1475) · 諡號는 夷安, 全州人, 補의 二子
○ 李孝伯(1416~1482) : 諡號는 恭簡, 全州人, 厚生의 長子
○ 李厚生(1398~1465) : 諡號는 積德, 全州人, 正宗大王 十子
○ 鄭大年(1503~1578) : 諡號는 忠貞, 東萊人, 荃의 長子
○ 趙　狷(1351~1425) : 諡號는 平簡, 平壤人, 德裕의 二子
○ 曹夢禎(1535~1595) · 諡號는 孝安, 昌寧人, 彦博의 長子
○ 韓繼禧(1423~1482) : 諡號는 文靖, 淸州人, 惠의 三子
○ 韓斯文(1446~1576) : 諡號는 恭簡, 淸州人, 繼禧의 長子

2. 封君人物

○ 權　碏(?~1568) · 安東人, 花城君
○ 權　攀(1419~1472) : 安東人, 花山君
○ 權　愚(? ~ ?) : 安東人, 永嘉君
○ 南大佑(? ~ ?) · 宜寧人, 宜寧府院君

○ 南 瑜(1522~1597) : 宜寧人, 宜川府院君
○ 南以興(1576~1627) : 宜寧人, 宜春府院君
○ 孟碩欽(1429~ ?) · 新昌人, 新昌君
○ 尹慶元(1560~ ?) · 漆原人, 漆坪君
○ 尹 伊(1502~1576) : 漆原人, 龜原府院君
○ 尹卓然(1538~1594) : 漆原人, 漆溪君
○ 李烱胤(1593~1645) : 全州人, 蓬來君
○ 李 坤(1462~1524) : 延安人, 延城君
○ 李克堪(1427~1465) : 廣州人, 廣城君
○ 李克均(1437~1504) : 廣州人, 廣南君
○ 李克墩(1435~1503) : 廣州人, 廣原君
○ 李克培(1422~1495) : 廣州人, 廣陵府院君
○ 李克增(1431~1494) : 廣州人, 廣川君
○ 李 岐(1524~1581) : 全州人, 德陽君
○ 李德恒(1682~1744) : 德水人, 德思君
○ 李良潤(1585~ ?) : 全州人, 雲山君
○ 李 稕(1609~1640) : 德水人, 德昌君
○ 李 琳(1427~1445) : 全州人, 平原大君
○ 李麟祥(1511~1560) : 德水人, 德安君
○ 李彭壽(1520~ ?) : 全州人, 泰安君
○ 李 睟(1569~1645) : 全州人, 龜川君
○ 李 案(1413~1475) : 全州人, 瑞原君
○ 李 晑(1297~1364) : 固城人, 鐵城君
○ 李 儼(1549~1613) : 全州人, 平陵君
○ 李禮長(1406~1468) : 全義人, 全城君
○ 李 原(1368~1429) : 固城人, 鐵城府院君
○ 李 璜(1601~1614) : 全州人, 永昌大君

○ 李宜蕃(？～？)·德水人, 豊城君
○ 李仁文(1425~1503)：延安人, 延安君
○ 李仁胤(1570~1622)：全州人, 宜山君
○ 李宗麟(1538~1611)：全州人, 豊山君
○ 李　增(1525~1600)：韓山人, 溪川君
○ 李之菽(？~1561)·韓山人, 韓坪君
○ 李　秩(1474~1560)：韓山人, 韓城君
○ 李　瞻(1554~1599)·全州人, 龜城君
○ 李　軸(1519~1596)：全州人, 完山府院君
○ 李　寀(1413~1475)：全州人, 瑞原君
○ 李　通(1556~1620)：德水人, 德豊君
○ 李　函(1470~1534)：德水人, 海豊君
○ 李炯信(1682~？)：全州人, 蓬山君
○ 李炯胤(1593~1645)：全州人, 蓬萊君
○ 李孝伯(1416~1482)：全州人, 新宗君
○ 李厚生(1398~1465)：全州人, 德泉君 — 1425
○ 趙　胤(1351~1578)：平壤人, 平城府院君
○ ~~韓繼禧~~(1423~1482)：清州人, 西原君
○ ~~韓斯文~~(1446~1576)：清州人, 西川君
○ ~~韓孝純~~(1545~1621)：清州人, 西興府院君

增月

第 3 章 殉節·孝子·淸白吏·抗日運動·著者

1. 殉死人物 (13명)

○ 金允濯(？～？)·順天人, 임진왜란시 殉節
○ 金子粹(？～1392)·慶州人, 高麗末忠臣 節死
○ 南相穆(1876～1908)·宜寧人, 항일의병장, 獄中 殉節
○ 南 瑜(1522～1597) : 宜寧人, 정유재란시 戰死
○ 南以興(1576～1627) : 宜寧人, 정묘호란시 戰死,
○ 南挺蕤(1537～) : 宜寧人, 임진왜란시 殉死, 旌閭
○ 李慶流(1564～1594)·韓山人, 임진왜란시 殉節, 旌閭
○ 李命夏(1878～1921) : 全州人, 항일운동중 殉國
○ 李 縫(1574～1597) : 全州人, 정유재란시 殉節
○ 李尙安(1575～1627) : 廣州人, 병자호란시 死節, 旌閭
○ 李承說(1569～1592)·延安人, 임진왜란시 殉節
○ 李承尹(1571～1592) : 延安人, 임진왜란시 殉節
○ 李億麒(？～？)·全州人, 임진왜란시 殉國

2. 孝子 (12명)

○ 權 授(1624～1699) : 安東人
○ 金 鑰(1624～1699)·順天人
○ 金自粹(？～1392)·慶州人, 安東에 孝子碑
○ 金 鎬(1621～1701)·順天人

○ 愼氏夫人 : 礪山人 宋certain 의 妻, 孝女旌閭
○ 柳信朋(1578~1638) : 晋州人, 從善之子, 孝子
○ 李景奭(1595-1671) : 全州人, 孝子旌閭
○ 李　潞 : 固城人, 孝子
○ 李廷龍(1629~1689) : 韓山人
○ 韓　述(1541~1616) : 淸州人, 孝子旌閭
○ 洪睟元(?~1637) : 南陽人, 孝子旌閭
○ 洪百順(1762~1819) : 南陽人, 孝子旌閭

3. 淸白吏

○ 權　惘(1571~1633) : 安東人, 명천부사
○ 李秉泰(1688~1733) · 韓山人, 경상도관찰사
○ 李　濟(1579~1667) : 全州人, 첨지중추부사
○ 李之直(1354~1419) : 廣州人, 형조참의
○ 鄭大年(1503~1578) : 東萊人, 좌찬성

4. 抗日運動者

○ 姜卜先 : 晋州人, 대왕면 중평리, 1908년 의병군자금 모금
○ 南公弼 : 宜寧人, 태평동, 정미년 둔전동 등지에서 항일운동
○ 南相穆(1876~1908) · 宜寧人, 하산운동, 의병장, 독립유공자
○ 南台熙 : 宜寧人, 낙생면, 前낙생면장, 3.1운동
○ 朴基煥 : 돌마면, 3.1운동
○ 朴聖三 · 운중동(鶴峴), 1907년 청계산에서 격전, 군자금모금
○ 兪仁穆 : 杞溪人, 돌마면, 3.1운동
○ 尹在鎏(1876~1971): 南原人, 一名致章, 금토동, 항일의병

○ 李命夏(1878~1921): 全州人, 궁내동, 殉國, 독립유공자
○ 李奭鍾 : 대왕면, 1905년부터 국내외 항일운동, 독립유공자
○ 李時鍾(1889~ ?) : 여수동, 대정8년 송파 3.1운동에 가담
○ 鄭永甫 : 동원동, 1907년 항일운동
○ 趙允奉 : 율동, 1907년 李益三 부하, 樹盤里 등서 활동
○ 韓百鳳(1881~1950) : 淸州人, 율동, 3.1운동, 독립유공자
○ 韓百鎬 · 淸州人, 율동, 3.1운동
○ 韓順會 : 淸州人, 율동, 3.1운동
○ 韓永福(1867~ ?) : 淸州人, 분당동, 만주에서 항일운동
○ 韓龍會 : 淸州人, 돌마면, 3.1운동

5. 著書人物 (30명) 32

○ 姜 瑋(1820~1884) : 號 古欽堂,《古歡堂集》《東文子母分解》《庸學解》《孫武子注評》《橫溪詩集》규장각 소장
◎ 姜靜一堂(1772-1832) : 號 靜一堂,《靜一堂遺稿》규장각 소장
○ 權得己(1570~1622) : 號 晩晦,《晩晦集》《然松雜記》규장각 소장
○ 權 諰(1604~1672) : 號 炭翁,《炭翁集》규장각 소장
○ 金壯男(1559~1679) : 號 龍溪,《龍溪集》규장각 소장
◎ 南公轍(1760~1840) . 號 思穎,《歸恩堂集》《金陵集》《穎翁續稿》《高麗名臣傳》《穎翁再續稿》《讀禮錄》규장각 소장, 연세대 소장
○ 南有容(1698~1773) · 號 雷淵,《雷淵集》《明史正綱》규장각 소장
○ 南周獻(1769~1821) · 號 宜齋,《宜齋集》의령남씨
○ 閔濟仁(1493~1549) : 號立巖,《立巖集》규장각 소장

吳允誠(1570~1618) p.153

宋言愼(1542~1612) : 號 壺峰,《壺峰集》국립도서관 소장

○ 元景夏(1698~1761) : 號 蒼霞,《蒼霞集》규장각 소장

尹卓然(1538~1594) : 號 重湖,《重湖先生文集》계명대학교 소장

○ 李　岡(1333~1368) · 號 平齋,《平齋先生詩集》규장각 소장

李景奭(1595~1671) : 號 白軒,《白軒先生集》규장각 소장

○ 李匡德(1690~1748) : 號 冠陽,《冠陽集》한국전력 山氣文庫

○ 李　粲(1572~1646) : 號 松郊,《松郊文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李文佐(1461~1491) : 號 細村,《細村先生實記》국립중앙도서관소장

○ 李遂大(1674~1708) : 號 松厓,《松厓集》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李　嵒(1297~1364) : 號 杏村,《杏村先生逸稿》《農事集說》국립도서관 소장

○ 李　原(1368~1429) : 號 容軒,《容軒先生文集》규장각 소장

○ 李　濡(1645~1721) : 號 鹿川,《鹿川公詩集》성화문고

○ 李　陸(1438~1498) : 號 靑坡,《靑坡李先生文集》《靑坡劇談》규장각 소장

○ 李廷夔(1621~1671) : 號 歸川,《歸川遺稿》규장각 소장

○ 李　增(1525~1600) : 號 北崖,《北崖詩稿》규장각 소장

李之直(1354~1419) : 號 炭川,《炭川先生遺稿》국립중앙도서관

○ 李之菡(1517~1578) : 號 土亭,《土亭先生遺稿》고려대 도서관

李　集(1327~1387) : 號 遁村,《遁村集》국립중앙도서관

○ 李　濮(1670~1727): 號 韓州,《韓州稿》연세대학교도서관

○ 丁胤禧(1531~1589): 號 顧庵,《顧庵集》나주정씨

○ 鄭泰濟(1621~ ?): 號菊堂,《菊堂非吾》《天君衍義》동래정씨

한지원(1513-1560) : p.190
한명욱(1567-1654) : p.184

對談及資料調査協助人

姜建壽 : 晋州人,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388(기와말)
姜錫閏 · 晋州人,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6
高壽萬 : 濟州人,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409-5
權善漢 · 安東人,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69
權赫尙 · 安東人,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23(둔토리)
權赫燦 : 安東人, 성남시 수정구 금광1동 2331
金基南 : 慶州人,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62(등자리)
金鳳基 : 安東人,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100번지
金鳳淵 · 順天人,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441-1
金相龍 : 金海人,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1(음촌)
金壽童 : 金海人,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외곡동)
金完億 : 金海人,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459
金元燮 : 水原人, 성남시 수정구 산성동 570(감나무골)
金晶信 : 公州人,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0, 삼성아파트 1001
金鍾泰 : 延安人,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4659
金辰洙 : 光山人,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455(간이골)
金學崇 · 慶州人,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330(의곡)
金惠卿 · 安東人,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299
羅哲在 : 羅州人,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57-1
南基雄 : 宜寧人,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45(숙골)
南星祐 : 宜寧人,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16
盧仁永 · 長淵人,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75(두곡)
孟亨在 · 新昌人,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80-38
閔丙根 : 驪興人,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38(송현)
朴達俊 · 密陽人,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102

朴商睦 : 密陽人,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朴亨遠 : 密陽人,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산 12-2
方根榮 · 溫陽人,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80
方漢福 : 溫陽人,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83-4
裵壽萬 : 慶州人,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252-1
宋鎬範 : 礪良人, 성남시 중원구 은행1동 현대아파트 109동
申文植 : 靈山人,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申億澈 · 平山人,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申鉉萬 · 平山人,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151-1
安政商 : 順興人,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252-1
安準根 : 順興人, 성남시 분당구 율동 105-1
梁明得 : 南原人,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80-3
梁在浩 · 南原人,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80
吳悰煥 : 海州人,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435
吳孝煥 : 海州人, 서울시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龍福成 · 洪川人,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14
元載熙 · 原州人,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527(송현)
元昌常 : 原州人,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254
柳德善 : 文化人,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68
柳錫九 · 晋州人, 서울 성동구 중곡2동 150-263
柳容善 · 文化人,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柳雄烈 : 文化人,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84(심박골)
柳日善 : 文化人, 경기도 수원시 우만동 485-34
柳熙春 : 晋州人, 성남시 분당구 율동 272
兪永根 : 杞溪人,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32
尹基永 · 坡平人,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455(간이골)
尹明燮 : 海平人,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575(양지말)

尹 溥 : 坡平人,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429(바깥말)
尹永世 : 南原人,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107(금현)
尹哲洙 : 漆原人,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17-2
李康先 : 全州人,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181
李景春 : 慶州人,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193
李光燮 : 星州人,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 347(안말)
李光學 : 全州人,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정배리
李圭三 : 全州人,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132
李圭赫 : 慶州人,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287
李根榮 : 龍仁人,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92
李達洙 : 廣州人,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425-7
李大圭 : 全州人,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68
李大烈 · 全州人,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96-11
李德周 : 全州人, 서울강동구 명일동 15, 삼익아파트 605
李東夏 : 固城人,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동 5-16
李萬載 : 廣州人,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574
李武龍 · 全州人, 성남시 수정구 오양동 23-2
李敏雨 · 全州人,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한신아파트
李炳珏 : 羽溪人,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92
李炳玉 : 全州人,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양동 22-34
李丙翰 : 全州人,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20-1
李相永 · 德水人,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458-1
李相胤 · 全義人, 성남시 수정구 태평동 1-6482-2
李相七 : 全義人,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329
李序九 : 全州人, 성남시 수정구 신흥2동 한신아파트 3동 1506
李容直 : 廣州人,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동보빌라
李應淳 · 廣州人, 성남시 수정구 신촌동 203

李義權 : 延安人,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425-1
李義德 · 延安人, 성남시 분당구 하산운동 89
李益宰 . 全州人,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81-16
李長春 : 慶州人,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224
李載福 : 德水人, 성남시 수정구 상적동 15(저푸리)
李載浩 · 德水人,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5(등자리)
李鍾卨 : 廣州人,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58-9
李種璹 · 德水人,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165(등자리)
李鍾協 . 廣州人,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59
李柱哲 : 慶州人,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81-15
李昌燮 : 全義人, 성남시 중원구 궁내동
李春燮 : 全義人,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李鉉德 : 昌寧人,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12
李賢周 : 全州人, 성남시 분당구 석운동 51
李亨求 : 韓山人,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4797
李稀鍾 : 慶州人, 성남시 수정구 오야동 265
林相均 · 平澤人, 성남시 수정구 사송동 369
林仁均 : 平澤人,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244
張錫鉉 · 結城人,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
張世鎭 : 仁同人, 서울강남구 역삼 2동 777-28(103호)
張永培 : 仁同人, 성남시 중원구 금광 2-3603
張貞淳 · 結城人, 서울동대문구 장안1동 425-7
鄭大熏 · 慶州人,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409-1
鄭秀雄 : 東萊人, 성남시 수정구 태평1동 7211
鄭長薰 : 慶州人,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294
鄭周鎬 · 淸州人,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574
鄭昌鉉 : 東萊人, 성남시 수정구 신흥3동 2589-1

鄭泰浩 : 東萊人, 성남시분당구야탑동681
丁相鉉 : 羅州人, 성남시분당구백현동239
丁昌永 : 羅州人, 성남시분당구백현동262
曹貴賢 : 昌寧人, 성남시수정구창곡동179(창말)
曹圭植 : 昌寧人, 성남시중원구상대원3동2-2973-14-1
趙命天 : 豊壤人, 성남시수정구태평2동
趙善鎬 : 平壤人, 성남시수정구성남동16-30(모란)
池昌勳 : 忠州人, 성남시수정구상적동303
崔炳序 : 慶州人, 성남시수정구시흥39
崔秉成 : 慶州人, 성남시분당구궁내동336
崔秉益 : 慶州人, 성남시분당구이매동89
崔秉學 : 慶州人, 성남시중원구도촌동105
崔聖圭 · 江陵人, 성남시분당구궁내동288
崔連植 : 慶州人, 성남시수정구사송동365
崔俊英 : 海州人,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2동 47-8
韓百寬 : 淸州人, 성남시분당구율동289
韓淳欽 : 淸州人, 성남시수정구오야동284-2(창곡동)
韓宅東 · 淸州人, 성남시분당구야탑동13-1
咸鎭得 : 楊根人, 성남시수정구창곡동201(창말)
洪斗杓 : 南陽人, 성남시중원구여수동
洪錫弼 · 南陽人, 성남시수정구복정동555(아랫말)
洪淳翼 : 南陽人, 성남시중원구여수동285
洪學杓 · 南陽人, 성남시중원구금광2동3300
黃再男 : 昌原人, 성남시중원구상대원동3-4

《 著者 略歷 》

- 경기도양평군서종면출생
- 건국대학교법경대학졸업
- 건국대학교행정대학원교육행정전공 (교육학석사)
- 명예교육철학박사
- 경원전문대학학보사주간, 도서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성남시문화유적보호위원
- 城南市史집필위원 · 楊平郡誌집필위원
- 성남문화원, 향토문화연구소연구위원
- 국사편찬위원회사료조사위원
- 조종암보존회이사
- 양평문화원향토사료조사위원(現)
- 한국국민윤리학회회원(現)
- 의병정신선양회이사(現)
- 경원전문대학교수(직업윤리)(現)

《編 · 著 書》

○ 柳麟錫 · 柳弘錫將軍略傳
○ 李恒老의 衛正斥邪思想
○ 李恒老先生의 生涯와 思想
○ 城南의 뿌리
○ 城南二十年史
○ 國民倫理
○ 人間과 倫理
○ 楊平義兵運動史

城南의 地名과 人物

저　　자 : 張 三 鉉
발 행 처 : 도서출판 해양문화사
초판인쇄 : 1997년 8월 10일
초판발행 : 1997년 8월 15일
재판발행 : 1999년 3월 2일

잘못된 책은 교환해 드립니다.

값 8,000원